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육 연구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김 혜 진



## 국문 초록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넘어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 문화 간 소통 능력 등 고급의 지적 능력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적 문식력 또한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상정되고 있다. 문화적 문식력은 목표 문화에 대한 지식과 가치 체계의 이해를 기반으로 목표 문화에 대해 해석하고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목표 문화와의 소통과 사회·문화적 실천을 지향한다. 한편 문화적 문식력은 주로 문학 교육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는데 문학은 한 사회 공동체의 공유된 지식과 가치 체계를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제재로서 학습자의 문화 학습과 문화 경험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전 소설은 목표 문화의 문화 산물과 문화 관점을 폭넓게 내포하고 있으므로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의 이해와 가치 체계에 대한 해석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적 제재로서 적합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어 중·고급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고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교육 목표로 상정함에 따라 문화적 문식력을 재개념화하고 문화적 문식력의 구성 요소를 배경지식과 경험 지식, 가치와 가치 판단으로 범주화하여 고전 소설 교육 내용의 선정과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 양상 분석의 이론적 틀로 삼았다.

고전 소설의 교육 내용은 사회·문화적 배경지식 및 사회 윤리와 가치 갈등의 두 부분으로 제시하였다.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은 목표 문화의 지식과 관련된 교육 내용으로 전통 사회의 제도, 관습, 언어·문화로 구분하고 가부장제와 신분제, 관혼상제, 세시 풍속, 민간 신앙, 언어 예절, 관용 표현, 상징적 명명을 선정하였다. 사회 윤리와 가치 갈등은 목표 문화의 가치와 관련된 교육 내용으로 가치 갈등의 양상과 인물의 가치 실현 방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가치 갈등의 양상으로는 윤리적 딜레마, 사회 제도와 개인의식의 갈등, 공동선(共同善)과 물질적 욕망의 갈등을 들었으며 인물의 가치 실현 방식으로는 자기희생, 관습과 제도의 모순에 대한 저항, 양보와 배려 등을 제시하였다.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관점에서 문화를 조직하고 정의하는 ‘문화 경험(the cultural experience)’, ‘문화 지식(cultural knowings)’, ‘경험 학습 주기(the experiential learning cycle)’의 세 가지 접근법

을 이론적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배경지식으로서의 생활문화와 언어·문화, 윤리 규범과 인물의 가치 갈등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선정하고, 작품 주요 장면의 선택적 강독, 인물에 대한 가치 판단 및 토론,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쓰기와 매체 제작을 교수·학습 활동으로 구성하여 실제의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을 실행하고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의 신장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학습자는 고전 소설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을 기반으로 전통 사회의 제도를 인식하였으며 경험 지식의 적용을 통해 가치의 내면화를 도모하였고 상호 텍스트적 지식을 활용하고 적용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고 확장해 나갔다. 또한 고전 소설에 나타난 윤리 규범과 인물의 가치 갈등의 이해를 토대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으며 인물의 가치 행위 방식에 대한 가치 판단과 현대적 관점에서 전통 사회의 가치가 지니는 의미를 해석하면서 자문화와 목표 문화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실행과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 양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모형은 구체적으로 지식의 수용과 이해 활동, 가치의 발견과 해석 활동, 지식과 가치의 적용 활동으로 구분된다. 지식의 수용과 이해 활동으로는 언어·문화적 해석 중심의 강독, 배경지식의 확인과 확장을 위한 질의응답을 제시하였으며, 가치의 발견과 해석 활동으로는 목표 문화의 가치 평가 토론과 상호 텍스트성 관련 작품의 비교를 제안하고, 지식과 가치의 적용 활동으로는 상호 텍스트성에 기반한 글쓰기와 제재 변용을 통한 매체의 활용과 생산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고전 소설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고 고전 소설 교수·학습 모형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문화적 문식력, 고전 소설 교육, 배경지식, 경험 지식, 가치, 가치 판단, 문화 산물, 문화 관점, 문화 실행, 이해, 해석, 적용

학번: 2010-30385

# 목 차

<b>I. 서론</b>	<b>1</b>
1. 연구 목적과 관점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 관점	6
2. 연구사	11
2.1. 문화적 문식력 관련 연구	12
2.2.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 소설 교육 연구	18
3. 연구 대상과 방법	21
3.1. 연구 대상	21
(1) 고전 소설 <심청전>·<춘향전>·<홍부전>	21
(2)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	26
3.2. 연구 방법	29
 <b>II. 문화적 문식력 교육 제재로서의 고전 소설 교육 내용 요소</b>	 <b>34</b>
1. 문화적 문식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	34
1.1. 문화적 문식력의 개념	34
1.2. 문화적 문식력의 구성 요소	37
(1) 배경지식과 경험 지식	39
(2) 가치와 가치 판단	43
2. 고전 소설에 반영된 문화적 문식력의 구성 요소	46
2.1. 사회·문화적 배경지식	46
(1) 전통 사회의 제도	47
(2) 전통 사회의 관습	54

(3) 전통 사회의 언어·문화 .....	67
2.2. 사회 윤리와 가치 갈등 .....	77
(1) 가치 갈등의 양상 .....	77
(2) 인물의 가치 실현 방식 .....	88

### III.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설계와 실행 ..... 102

1. 문화적 문식력과 고전 소설 교육의 관계 .....	102
1.1. 전통문화와 언어·문화를 통한 배경지식의 이해 .....	103
1.2. 가치 갈등과 윤리 규범의 이해를 통한 가치 체계의 해석 .....	105
2.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 설계의 기반 · 106	
2.1.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 소설 교수·학습에 대한 예비적 고찰 .....	106
(1) 고전 소설 교수·학습에 대한 학습자 경험 분석 .....	107
(2)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고전 소설 교수·학습에 대한 검토 .....	109
(3) 학습자의 고전 소설 이해 양상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	115
2.2.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설계 원리 .....	122
(1) 문화 산물의 수용과 이해 .....	125
(2) 문화 관점의 발견과 해석 .....	126
(3) 문화 실행과 적용 .....	127
3.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실행 .....	128
3.1. 고전 소설 교수·학습 내용의 선정 .....	128
(1) 배경지식으로서의 생활문화와 언어·문화 .....	128
(2) 윤리 규범과 인물의 가치 갈등 .....	129
3.2. 고전 소설 교수·학습 활동의 구성 .....	131
(1) 주요 장면의 선택적 강독 .....	132
(2) 인물에 대한 가치 판단 및 토론 .....	134
(3)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쓰기 및 매체 제작 .....	136

3.3.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 양상 분석 .....	140
(1) 지식의 이해 및 적용 .....	140
1) 사회·문화적 맥락 파악을 통한 전통 사회의 제도 인식 .....	140
2) 배경지식에 의한 관용적 표현의 인용 .....	147
3) 경험 지식의 적용을 통한 가치의 내면화 .....	151
4) 상호 텍스트성에 기반한 문화 간 지식의 비교 .....	155
(2) 가치 판단 및 해석 .....	164
1)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 .....	164
2) 개인의 가치 행위 방식에 대한 비판 .....	168
3) 현대적 관점에 의한 전통 사회의 가치 평가 .....	176
4) 메타적 성찰을 통한 가치 태도의 형성 .....	183
3.4.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성찰 .....	187
(1) 고전 소설 교수·학습 내용의 초점화 및 심화 .....	187
(2) 상호 텍스트적 비교가 가능한 유사 제재의 확장 .....	188
(3) 고전 소설 변용 매체 자료의 활용 방안 확대 .....	191

#### **IV.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모형 · 194**

1.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 설계 모형 ....	195
1.1. 고전 소설 교수·학습 계획 단계 .....	197
1.2. 고전 소설 교수·학습 실행 단계 .....	198
1.3. 고전 소설 교수·학습 성찰 단계 .....	199
2.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 모형 .....	200
2.1. 지식의 수용과 이해 활동 .....	202
(1) 언어적·문화적 의미 해석 중심의 강독 .....	203
(2) 배경지식의 확인과 확장을 위한 질의응답 .....	204
2.2. 가치의 발견과 해석 활동 .....	207
(1) 목표 문화의 가치 평가 토론 .....	209



(2) 상호 텍스트성 관련 작품의 비교 .....	211
2.3. 지식과 가치의 적용 활동 .....	212
(1) 상호 텍스트성에 기반한 글쓰기 .....	213
(2) 제재 변용을 통한 매체의 활용과 생산 .....	214
 V. 결론 .....	 217
 참고 문헌 .....	 221
<부록 1> 고전 소설 발췌·운문본 .....	235
<부록 2> 고전 소설에 활용된 사자성어(四字成語) 목록 .....	250
Abstract .....	251

## 표 목차

<표 I-1> 연구 자료 및 학습자 정보 .....	28
<표 I-2> 심층 면담 대상자 및 심층 면담 일시 .....	33
<표 II-1> <심청전>·<춘향전>·<홍부전>에 활용된 속담 .....	71
<표 II-2> <심청전>·<춘향전>·<홍부전>에 활용된 사자성어 .....	72
<표 III-1> 각 대학 기관의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고전 소설과 수록 형태 .....	114
<표 III-2> 고전 소설 교수·학습 내용 .....	117
<표 III-3> 고전 소설 교수·학습 활동의 절차 .....	132
<표 III-4> 고전 소설 토론 주제의 예(例) .....	134
<표 III-5> <심청전>에 대한 학습자 가치 토론의 예(例) .....	135
<표 III-6> 쓰기 활동 지시문의 예(例) .....	137
<표 III-7> 매체 제작 학습 활동의 예(例) .....	139
<표 IV-1> 고전 소설 교수·학습 시 교사 질문의 예(例) .....	205
<표 IV-2> 고전 소설 교수·학습 시 학습자 질문의 예(例) .....	206
<표 IV-3> 고전 소설 매체 변용의 형태 .....	216

## 그림 목차

<그림 III-1> 문화 경험 .....	123
<그림 III-2>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설계 원리 .....	125
<그림 IV-1>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설계 모형 .....	196
<그림 IV-2>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모형 .....	201



# I. 서론

## 1. 연구 목적과 관점

### 1.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cultural literacy)<sup>1)</sup>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 방법을 설계하는 데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함의가 언어 능력은 물론 문화 능력, 상호 문화적 능력,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화용 지식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되고, 중·고급의 학습자는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 자국 문화에 대한 성찰, 문화 간 교류와 상호 비판적 인식 등 고급의 지적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서도 본격적으로 문화적 문식력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한국어 학습자는 지식 차원에서의 목표 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넘어 목표 문화에 실제로 참여하면서 목표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목표 문화에 참여하는 실행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고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한국어 교육에서의 중요한 교육 목표로 삼고자 한다.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적 문식력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다문화 문식력(multicultural literacy) 또는 상호 문화적 문식력(Intercultural literacy)과 통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문화적 문식력의 개념이나 범주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문화적 문식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문식력의 한국어 교육적 재개념화 및 범주화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문화적 문식력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문화적 문식력이란 목표 문화의 배경지식

---

1) ‘cultural literacy’는 ‘문화적 문식성’, ‘문화적 문해력’, ‘문화적 능력’ 등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문화적 문식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문화적 문식력’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文識’은 학문과 지식을 말하고, ‘literacy’는 보통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므로 성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성(性)’보다는 능력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력(力)’을 결합시켜 조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문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 다른 학자들이 ‘문화적 문식성’으로 사용한 용어 또한 ‘문화적 문식력’으로 수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과 가치 체계의 이해와 해석을 기반으로 목표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습자의 문화 경험을 목표 문화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한 바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국 문화의 지식과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며 탐구해 가면서 문화적 문식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문화적 문식력은 주로 문화 교육 또는 문학 교육과 관련지어 논의되어 오고 있다. 복잡한 사회·문화 환경과 매체의 발달로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문학은 문화적 문식력의 매우 유용한 제재로 부각되었으며 인정받고 있다.<sup>2)</sup> 문학은 문화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위, 산물과 제도 등이 총망라된 사회 문화 공동체의 공유된 지식과 가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합한 제재이며 무엇보다 문화에 대한 가치 판단과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목표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 학습자들은 문학을 통해서 새로 직면하게 된 목표 문화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게 되고 문화에 대한 경험을 해석하며 문화를 변형시킬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얻는다. 문학을 통한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그 안에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목표 문화에 적응하고 문화를 생산하는 원동력이 된다. 문학은 학습자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을 다루며 학습자의 경험을 허구적 세계에서 문제화하고 가치 판단하며 탐구하게 하고, 문학 교육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의미를 해석하고 생산할 수 있는 문화적 문식력 교육의 장(場)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고전 소설은 한국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 공유하고 인정해 온 지식과 가치, 제도와 관습을 폭넓게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전통 사회의 시대적·문화적·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전통문화가 현대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전승 또는 유지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문화유산 그 자체이다. 고전 소설의 전통성과 통시성, 현재와의 교섭을 통해 새롭게 발견되는 지식이나 가치는 현대 소설이 주는 지식과 가치보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다. 현대 소설은 플롯 주도의 유기적 구조를 지니고 전개되기 때문에 학습

---

2) 문화적 문식력의 개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개념화했던 허쉬(Hirsch)는 미국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각 교과목의 내용과 활동에 대응하는 ‘중핵 지식 총서(The Core Knowledge)’를 출판하면서 언어 예술(Language Arts) 영역에 다양한 문학 장르와 그에 따른 작품들을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Hirsch, Jr., E. D.(ed.)(1993), *What Your 6<sup>th</sup> Grader Needs to Know*, Core Knowledge foundation.

자가 개별적·주체적으로 해석이나 창작에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고전 소설보다 훨씬 적다. 고전 소설의 비유기적 구조와 열린 이야기 구조는 고전 소설이 오랫동안 전승 및 변이되면서 오히려 더 탄탄한 구성력을 갖추게 하는 동력이 되었는데 이는 학습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고전 소설은 전통성과 전형성을 지닌 ‘의미 정전’인 동시에 다양한 해석이 열려 있는 ‘자료 정전’으로서<sup>3)</sup> 학습자에게 목표 문화의 산물은 물론 사회적으로 보편적 합의가 이루어진 관점과 가치를 제공하고 목표 문화와 학습자 간 교섭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고전 소설이 현대의 여러 문학 장르 및 매체에 변용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또한 고전 소설은 한국어의 관습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돋우면서 자국 문화와의 비교 및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고전 소설 교육을 통해 한국 문화 및 한국인의 신념, 가치, 행위, 제도 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비판하면서 학습자 개인 및 자국의 문화를 성찰하고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고전 소설 중에서도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은 한국의 대표적 판소리계 소설로서 이들 작품은 전통성, 역사성, 시대성을 확보한 고전 문학의 정전(正典)으로 인정받아 오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에서도 널리 소개되고 있다.<sup>4)</sup> 심청, 춘향, 홍부는 단순히 고전 소설 속의 주인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원형적 상징으로 표상되며 심청은 효(孝), 춘향은 열(烈), 홍부는 우애(友愛)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고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도 관련된다. 또한 심청, 춘향, 홍부는 중세 해체기에서 근대 이행기 시대를 살았던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인물의 모습이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효(孝), 열(烈), 우애(友愛)는 관념적이고 규범적인 가치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이들의 가치와 행위 방식의 탐구를 통해 목표 문화에 대한

3) 고전을 고정된 ‘의미 정전’이라기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자료 정전’으로 규정한 논의도 있지만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간과할 수 없다. 고규진(2004), 「다문화 시대의 문학 정전(正典)」, 『독일언어문학』 제23집, 한국독일언어문학회.

4) 특히 국외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에서는 고전 소설을 한국 문학사 혹은 한국 문학에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는 작품으로 다루고 있다. 남연(200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읽기 교육 연구-『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23집, 국어교육학회; 남연(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사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제23집 4호, 국어교육학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해와 해석을 심층적으로 할 수 있다.

<심청전>, <춘향전>, <흥부전>은 처음부터 작가의 작품으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니라 독자의 작품으로 존재해 왔으며 개인작(個人作)과 공동작(共同作)으로서의 성격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수많은 이본(異本)의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 독자의 수용 범위를 넓혀 주었다. 판소리계 고전 소설은 비유기적 구조로 장면과 삽화(挿話)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 개인의 해석에 따라 각 장면이나 삽화를 축소, 확대, 과장, 패러디 등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가 고전 소설 작품의 주체로서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고 생산하면서 자신의 문화적 문식력을 신장시켜 나가는 일과 관련된다.

한편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적 문식력 교육은 한국어 교육 초기의 문화 교육, 문학 교육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학습 목표에 따라 추출한 교육 내용과 교실 활동 수준의 교육 방안을 나열하는 데 그친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의 한국어 수준을 지니고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학습하고 이해하는지, 교사가 의도한 교수·학습 계획을 학습자들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론적으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이 결정되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반성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이므로 이론적 수준은 교육과정에서, 실천적 수준은 교재와 현장 연구를 통해 양자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sup>5)</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수자의 내용 지식이나 직관보다는 연구자가 실제의 교실 현장에서 학습자를 가르치면서 얻게 된 경험과 반성, 학습자들의 문화적 문식력이 실제적으로 신장된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은 기존의 한국어 교재로 고전 소설 수업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의 경험 일지의 일부이다. 학습자들은 고전 소설 읽기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고전 소설 교육의 문제점 및 학습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5) 류덕제(2001), 「구성주의 관점의 문학 교육」, 『한국초등교육』 제18집, 한국초등교육학회, 136쪽.

(1) <심청전> 이야기가 너무 간단해서 궁금한 게 많다. 심청은 왜 봉사 아버지를 버리고 물에 빠졌을까? 심봉사는 가난한데 왜 공양미를 바친다고 했을까? 젓동냥을 해서 심청을 키웠는데 심청을 힘들게 만든 이유를 모르겠다.

[㉡-K1-2-2-4급-7]

(2) 흥부놀부: 그림과 요약본이라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디에든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에는 의미가 없을 거 같다.

[㉡-K1-2-2-3급-5]

한국어 능력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학습자 [㉡-K1-2-2-4급-7] 과 [㉡-K1-2-2-3급-5] 는 한국 고전 소설을 정보 차원에서만 제시한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고전 소설 읽기의 어려움보다는 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 학습자들은 언어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고전 소설 읽기의 흥미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편이다. 이는 현재의 고전 소설 교수·학습 형태가 학습자들의 흥미나 동기 유발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실패는 근본적으로 고전 소설 교육 내용의 부실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 소설 교육 내용과 방법이 새롭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연구의 기본 과제로 삼는다. 본고는 고전 소설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며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문식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범주화하며 고전 소설에 반영된 문화적 문식력의 구성 요소를 선정하여 제시한다.

둘째,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목표로 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을 설계하여 실제로 수행하고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 양상을 분석한다.

셋째,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실행과 성찰을 기반으로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한다.



## 1.2. 연구 관점

문화적 문식력은 한국어 학습자의 목표 문화에 대한 지식의 이해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해석 및 실천 능력으로 문화와 지식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본고는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교육을 모색함에 있어 원어민 화자와 비원어민 화자라는 이분법적 구분 또는 원어민 화자 중심에서 벗어나서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모국 문화와 목표 문화가 겹치는 지점에서 형성하는 제3의 공간에서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갖는다. 한국어 학습자는 목표 문화나 자문화 중 어느 한쪽에 소속되어 사고(思考), 이해(理解), 가치 판단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문화와 자문화가 만나는 제3의 공간에서 개인의 배경 지식, 경험, 가치, 사고 체계 등에 따라 목표 문화를 인식하게 된다.<sup>6)</sup> 한국어 학습자는 자문화와 목표 문화인 한국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회적·문화적·심리적 영향 아래 한국 문화와 자문화에 대한 인식 및 비판적 해석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관점을 구성해 내는 과정으로서의 문화 학습으로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과 관련이 있다.

한국어 학습자가 특정 시기, 일정한 시간 내에 한국 고전 소설을 학습하는 일은 특수한 문화적 환경 조건하에 목표 문화의 내용을 수용하고 이를 해석해서 문화적 문식력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문화적 상대주의와 보편주의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외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개념은 역사성, 고유성, 교육의 맥락성을 중시하는 상대주의적 문화 관점에 기반한 정의를 주로 차용해 왔는데, 본고는 각 민족의 보편적 가치 지향성,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넘어 인류의 소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자국 문화에 대한 성찰과 개인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주의적 문화 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상대주의적 문화 개념은 어떤 특정한 개별 사회의 구성원들이 학습하고 보존하

---

6) 크람쉬(Kramersch)는 언어 학습자는 제3의 문화(The Third Culture) 또는 제3의 장소(The Third Place)에서 대중문화(A popular culture), 비판 문화(A critical culture), 생태 문화(An ecological culture)를 갖는다고 보았다. Kramersch, C.(1998), "The privilege of intercultural speaker", Byram, M. & Fleming, M.(eds.), *Language Learning in Intercultural Perspective: Approaches through drama and ethn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6-31.

는 문화의 맥락성, 구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 개개인이나 한 특정 집단의 고유성이나 특수성에 대해서는 잘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문화의 사회나 집단을 타자화하여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비교나 차이를 인식하고 궁극적인 소통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 즉 상대주의적 문화 개념은 각 문화마다 나름대로의 독립된 의미를 갖는 구조적 체계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교류와 소통을 차단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인간은 어떤 사회·문화의 집단의 구성원이든지 공통의 보편적 가치 지향, 정서, 언어 능력 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문화 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보편주의적 문화<sup>7)</sup> 개념을 문화적 문식력 교육에 도입해야 한다. 보편주의적 문화 개념은 경계를 넘어선 소통, 자문화(自文化)에 대한 반성적 성찰,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 가치 지향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보편주의적 문화 개념은 문화 간 비교 문화적 통찰이 요구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상대주의적 문화 개념 못지않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보편주의적 문화 개념은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습자는 내용으로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 행위를 통해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sup>8)</sup> 내용으로서의 문화는 행위와 관념으로 구분되며 교육을 문화 전달(cultural transmission)로 개념화함으로써 문화를 교육을 통하여 전수하는 내용으로 보았다. 구디너프(Goodenough)는 문화는 한 집단의 구성원이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교수·학습을 통하여 공유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기어츠(Geertz)는 문화는 인간 학습의 산물로서 일상 세계의 경험을 조직하는 표준들로 이루어진 것, 또는 인간이 자기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수용되기 위해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하는 모든 것들로 정의하였다.<sup>9)</sup> 이처

7) “응구기(Ngugi)가 볼 때, 언어처럼 문화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각 개별 문화는 보편성 때문에 더욱 많이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보편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효석(2015), 「유럽적 보편주의 비판과 보편적 보편주의의 조건-다양한 중심들과 응구기와 시웅오의 예술론」, 『코기토』 제77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54-55쪽.

8) 현대 인류학에서는 문화의 성격에 대해 고찰할 때 문화는 내용(content)이면서 동시에 과정(process)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문화는 “이전에 학습되었던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주는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의미와 사물들의 특정한 집합인 내용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D'Andrade(1984), “Cultural meaning system”, Shweder, R. & Levine, R.(eds.),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114.

9) 구디너프(Goodenough), 기어츠(Geertz)는 내용으로서의 문화 개념을 행위와 관념으로 구

럼 행위 이전에 내재하는 관념적 질서 개념으로서의 문화는 교육학의 지식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공유될 수 있는 것이지만 문화의 개념적 요소로서의 집단성과 공유성은 일반인들이 문화를 불변하는 하나의 인지 구조적 실체로 받아들이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sup>10)</sup>

“내용에 주목할 때 문화는 ‘경계 지워진 하나의 실체’로서만 가정되며, 교육은 문화의 경계 내에서 그 문화의 내용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단순하게 파악되고, 학습은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과정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sup>11)</sup>

따라서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을 추동하려면 내용으로서의 문화는 물론 과정으로서의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 과정으로서의 문화는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현실에서 발휘하는 실제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행위와 그 행위를 이끄는 관념, 표준, 기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행위와 관념을 순환적 과정으로 본다. 즉 행위가 관념의 원인 또는 결과가 되기도 하며 관념이 행위의 원인 또는 결과가 되기도 하면서 문화의 내용과 과정을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유기적 관계로 본다. 과정으로서의 문화는 문화를 ‘명사(culture)’로 파악하지 않고 ‘동사(culturing)’로 파악하여 문화의 역동적 과정과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중시한다.<sup>12)</sup> 이처럼 문화를

---

분하고 관념으로서의 문화 개념을 확립하였다. Goodenough, W. H.(1981) *Culture, Language, and society*, The Benjamin/Cummings Publishing Company, Inc; Geertz, C.(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10) 내용으로서의 문화, 특히 관념으로서의 문화 개념은 문화의 공유성과 집단성, 행위에 대한 관념의 우위성과 그 실체성이 중요한 한계로 제시된다. 서덕희(2009), 「문화와 교육 개념의 실존성: ‘살아 있는’ 교육인류학을 위한 소고」, 『교육인류학연구』 제12권 제2호, 18쪽.

11) 정향진(2008), 「문화적 과정으로서의 교육-교육인류학을 위한 비판적 고찰」, 『교육인류학연구』 제11권 1호, 92쪽.

12) 왁스(Wax)는 미국 교육에서의 다문화주의를 비판하면서 역사적으로 동질적이며, 다른 문화들과 구별되는 복수 명사로서의 문화(cultures) 의미를 지닌 보아스(Boas)의 상대주의적 문화 개념을 거부하고, 발달과 성장을 강조하는 동사로서의 문화(culturing), 즉 타일러(Tylor)의 보편주의적 문화 개념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 Wax, M. L.(1993), “How culture misdirects multiculturalism”, *Anthropology & Education Quarterly*, 24(2),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p.109. 또한 밀러(Miller)는 문화를 명사로 개념화하면 인간은 문화의 내용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문화를 동사로 개념화하면 문화의 역동적 과정과 개별 구성원들의 참여 방법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과정으로서의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Miller, B.(1979), “‘Culture’ or

내용보다 과정으로 인식할 때 개인은 문화 생산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식은 문화적 문식력을 구성하는 중핵적인 요소로서 본고에서는 지식을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 또는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의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에 대한 통합을 지향한다.<sup>13)</sup> 즉 지식을 구체적 기술의 대상인 실체적 존재이자 개인이 구성하는 구성체의 양자 모두로 인식한다. 이는 학습자가 명제적 지식 또는 이론적 지식으로 수용하여 방법적 지식 또는 실천적 지식으로 구성하고 적용하는 것을 문화적 문식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문화적 문식력에서의 지식은 습득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객관적 지식과 학습자가 이해하고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구성한 실체적 지식 모두를 포괄한다.

한편 한국어 학습자와 고전 소설을 매개할 배경 이론으로 구성주의를 수용하였다. 구성주의는 지식은 주체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구성되거나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관점이다.<sup>14)</sup>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지식의 객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배경지식, 신념, 가치 등이 작용하여 구성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의 산물을 지식으로 여긴다. 따라서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지식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외부 세계의 실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고 파악한다. 지식은 주체나 객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의 통합에서 오기 때문에 주체의 이해와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sup>15)</sup> 구성주의적 인식론에서 보

---

‘culturing’?’, *Journal of Cultural and Educational Futures*, 1(1), pp.7-8.

13) 폴라니(polanyi)는 지식의 실재 자체의 구조와 앎의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 간의 이분법적 분리의 문제에 유용한 인식론을 제공하였다. 그는 ‘개인적(인격적) 지식(personal knowledge)’ 개념을 중심으로 객관과 주관, 이론과 실천 사이의 통합을 지향하였다. 폴라니는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 간의 통합을 강조하지만 양자가 각기 다른 정향(orientation)을 갖는다는 점 또한 인정하였다. Polanyi, M.(1958),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표재명·김봉미 역 (2001), 『개인적 지식: 후기 비판적 철학을 향하여』, 아카넷.

14) 구성주의는 지식은 인식 주체에 의해 능동적으로 구성되며 인식 기능은 적응적이며 경험적 세계를 조직화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편 구성주의 문학 교육은 독일의 급진적 구성주의에 속하며 처음부터 인지 구성주의의 ‘인지’와 사회구성주의의 ‘사회’, 두 관점을 결합한 형태로 출발하였다. Glasersfeld, E. von.(1995), *Radical constructivism: A way of knowing and learning*, The Falmer Press.

면 학습자의 지식의 성장은 지식의 축적에 의한다기보다 새로운 관점에 의한 끊임없는 재해석의 과정이다. 브루너(Bruner)의 구성주의 인식론에 의하면 지식은 객관적 실재가 아니라 구성적 실재로 인식 주체에 의해 발견되고 구성되어 진화하고 발전되는 것이다. 이때 실재의 본질은 인간 사고의 본질이며 정신적 산물로써의 가치관은 다수의 실재를 인식한다.<sup>16)</sup>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자는 교수자의 지식이나 심미적 가치를 따라가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현실<sup>17)</sup>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가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자이며 이는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가치관, 믿음 등에 근거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 문화와 목표 문화로부터 획득한 배경지식과 경험, 가치관 등을 기반으로 고전 소설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자신만의 지식을 구성해 내고, 동료 학습자 또는 교사와의 토론과 대화 등을 통해 개인의 지식을 공유 또는 확장시킬 수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은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내면화하고 재형성하도록 도우며 상호 텍스트적 지식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한편 문학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지식의 문제로 귀결되고 이에 관해 구성주의 문학 교육에서는 개별적인 작품의 해석 그 자체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즉 경험적 지식을 가르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문학 교육에서 구성주의는 목표 층위에서는 학습자의 해석을 강조하고 방법 층위에서는 텍스트와 학습자,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을 중시한다.<sup>18)</sup>

15) Brooks, J. G. & Brooks, M. G.(1993), *In Search of Understanding: The Case for Constructivist Classroom*, 추병완·최근순 옮김(1999), 『구성주의 교수·학습론』, 백의, 15쪽.

16) Bruner, J.(1996), *The culture of Education*, 강현석·이자현 역(2005), 『교육의 문화』, 교육과학사, 61쪽.

17) 구성주의는 인간의 의식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실재(Reality, Realität)와 인간에 의해서 구성된 현실(realities, Wirklichkeit)이 있는데 인간은 실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지적 능력에 힘입어 현실을 구성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강인애, 「구성주의 인식론, 발명된 현실」, 강인애 외(1999),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문음사, 4쪽.

18) 작가의 의도와 텍스트에 대한 유일한 해석을 거부하고 독자의 배경지식과 능동성, 인지적 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 문예학은 수용미학 및 독자반응비평과 공통점을 지니지만 반응 대신 해석을 지향한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이상구(2013), 「반응중심 문학교육과 구성주의 문학교육의 기본 관점과 교육 내용 비교 고찰」, 『문학교육학』 제40호, 한국

고전 소설 교육은 목표 문화와 모국 문화를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측면에서 문화 간 비교가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가치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 생산의 장(場)이 개방적이므로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해 고전 소설 교육을 도입하고자 한다. 고전 소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 산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도 현대적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과 변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전 소설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문화 경험을 폭넓게 확장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의 관점과 해석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2. 연구사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에 주목하여 고전 소설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문화적 문식력 관련 연구와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 소설 교육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 성과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문화적 문식력 관련 연구는 외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국어 교육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며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 소설 교육은 문화 교육과 문학 교육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하고자 한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적 문식력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외국의 자국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사는 따로 분리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의 문화적 문식력 교육 연구는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 모두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문화적 문식력에 대한 논의는 한국어 교육보다 국어 교육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주로 다양한 문화와 문화 간 의사소통에 주목하여 추상적 개념화에 머물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적 문식력의 개념과 범주를 구체화하는 데 국어교육에서의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1. 문화적 문식력 관련 연구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적 문식력(cultural literacy)은 제2언어 교육과 관련해서 구체화되었는데 문화를 교육의 텍스트로 구체화하는 아이디어와 내용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처럼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학교 교육의 과정으로 어떤 문화를 가르칠 것인지의 문제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논점으로 대두되었다.

문화적 문식력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한 학자는 허쉬(Hirsch)로서 그는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정보를 소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단지 언어 기술 이상의 것이라고 보았다. 허쉬는 전통적이고 기본에 충실한 교수요목을 문화적 문식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교육 모델로 도입하였는데 미국인들이 교양인으로서 알아야 할 문화적 문식력의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미국 사회의 구성원에게 환영받았다.<sup>19)</sup> 허쉬는 라비치(Ravitch), 블룸(Bloom), 베네트(Bennett)와 같은 보수적 교육 개혁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문식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문화적 문식력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해서 교육의 장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허쉬가 제시한 문화적 문식력의 목록은 나열식(cafeteria style)으로 교육 내용을 파편화시켰으며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실제로 학생들의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저하시켰다.<sup>20)</sup> 허쉬는 문화적 문식력에 필요한 약 5,000여 개의 명사, 구, 중요 기념일, 개념 등을 선정해서 목록화했지만 다양한 용어들을 두루 포괄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문화적 문식력 신장에 필요한 것은 축적된 문화적 산물이나 사실을 명시하는 어휘 목록 그 자체가 아니라 각각의 용어에 대한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했다.

허쉬가 주장한 문화적 문식력은 문화를 추상적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향

---

19) Hirsch, Jr., E. D.(1988),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Vintage Books.

20) Purves, A. C. & Papa, L. & Jordan, S.(1994), *Encyclopedia of English studies and Language Arts: A project of the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Scholastic, Inc, p.339.

목으로 제시한 바는 인정되지만 문화의 방대한 내용을 나열식으로 나타내는 데 그쳐 문화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허쉬는 주류 문화를 선정하는 데 소수 문화와 소수 학생들을 배려하지 못했으며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소수 학생들을 경시하였다. 허쉬는 교육받은 시민들이 다른 관점과 다른 경험을 포함한 비판적인 담화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문화적 문식력의 정전을 정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등 허쉬가 제시한 문화적 문식력에는 자기 성찰과 비판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진보적 교육 개혁주의자들은 실제적인 교육 내용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의 표준 성취도를 재정립하기 위해 표준 문어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문식력 기술을 신장시키고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했다. 진보적 개혁주의자들의 논의도 결과적으로는 허쉬 등이 제시한 것에서 크게 진일보하지는 않았지만 허쉬가 제시한 문화적 문식력에 결여되어 있는 문화에 대한 해석, 맥락화, 비판적 인식 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펼쳤는데 이는 문화적 문식력의 성격과 범위를 설정하는 데 눈여겨볼 만하다.

해리스와 호지스(Harris & Hodges)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전제하고, 문화적 문식력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sup>21)</sup> 프로벤조(Provenzo)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정전 또는 고전으로 여겨지는 지식이나 정보들은 다양한 관점과 문화를 담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본인 또한 공교육 기관에서 고급의 정규 과정을 수료했지만 실제로 중요한 역사나 사건들은 학교 밖에서 배웠다고 하면서, 허쉬가 제시한 사실과 정보 수준의 문화 교육 내용은 지식의 체계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세계를 구성하는 학습자의 잠재적 능력을 간과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문화적 문식력은 역동적이며 의미 있고 궁극적으로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적 문식력에서

21) Harris, T. L. & Hodges, R. E.(eds.)(1995), *The literacy Dictionary*, NCTE.

이밖에도 아로노위츠(Aronowitz)와 지루(Giroux)는 각기 다른 집단에서 역사적으로 권력 관계 내에 있는 집단 기억, 지식, 사회적 관계, 가치 등을 생산하는 일련의 행위를 문화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문화를 특정한 생활 양식의 합법적 생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는 결국 문화적 가치와 규범은 인종, 성, 경제 계급에 의해 결정되고 학교 교육에서 전달된다는 것이며 허쉬의 문화적 문식력 개념과 교육 모델에 대한 반론의 근거이기도 하다. Aronowitz, S. & Giroux, H. A.(1991), *Postmodern Education: Politics, Culture, and Social Critic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50.



의 지식은 미국 사회의 엘리트 집단 또는 전형화된 미국인을 위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지식이 아닌 소수의 하위문화 집단이나 그밖의 특정한 집단에 의해 선정되고 공유되고 있는 유동적인 지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2)</sup>

교육 개혁주의자들의 공통점은 허쉬 등을 비롯한 교육 보수주의자들이 제시한 문화적 문식력 목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역할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문화적 문식력을 좀 더 역동적인 것으로 간주한 데 있다. 그러나 여러 비판과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쉬의 논의는 문화적 문식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으로서 학계의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킨 점은 분명하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적 문식력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일로 문화 간 이해와 교류에 초점을 둔 상호 문화적 문식력(Intercultural literacy)과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여 다양한 학습자들을 가지게 된 한국 사회의 다문화 문식력(Multicultural literacy)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진행되어 오고 있다.<sup>23)</sup> 주지하듯이 한국어 교육은 기능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초점을 맞춰 오다가 점차 상호 문화적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 문화 능력(Cultural competence),

22) 프로벤조(Provenzo)도 허쉬(Hirsch)와 마찬가지로 문화적 문식력을 위해 미국인이 알아야 할 5,000여 개의 목록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는데 자신의 목록은 허쉬처럼 고정된 정전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대화, 성찰, 변화의 관점을 유도하는 것들로 선정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프로벤조가 제시한 문화적 문식력의 목록은 허쉬의 것과 비교해 보면 전통문화나 언어 문화 관련 용어는 거의 없고 이데올로기적 용어에 치우쳐져 있다. Provenzo, Eugene F. (2005), *Critic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Ought to Know*, Paradigm Publishers.

23)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통용되는 문화적 문식력에 관한 논의는 허쉬(Hirsch)나 퍼브즈(Purves)가 정의한 문화적 문식력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연구자들 나름의 견해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문화적 문식력의 관련 개념인 상호 문화적 문식력(Intercultural literacy)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오지혜의 논의를 참고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적 문식력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지혜는 문화 간 리터러시(Intercultural literacy)는 “언어 인식(language awareness), 문화 인식(cultural awareness)을 바탕으로 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문화 능력(cultural competence) 또는 상호 문화적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거시적 관점에서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통용되고 있는 문화적 문식력의 개념은 상호 문화적 능력이나 다문화 문식력 등과 함께 포괄적인 의미로 문화 간 이해와 소통 능력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지혜(2012),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간 리터러시 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9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79쪽; 오지혜(2010), 「한국어 학습자의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문학 제재 연구—현대 시 작품을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18집, 시학과 언어학회.

다문화 능력(Multi-cultural competence)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상호 문화적 능력, 문화 능력, 다문화 능력 등은 모두 거시적 관점에서 문화 간 소통 능력에 주목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중요한 교육 목표로 삼고 있으며 문화 간 소통과 관련해서는 상호 문화적 인식(Intercultural awareness)과 상호 문화적 의사소통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을 포괄하는 의미로 논의되고 있다.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직면하게 된 여러 현실적 문제와 연계해 문식력을 지식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행위와 실천적 태도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국어 교육에서처럼 읽고 쓰는 기능적 문식력에 대한 논의부터 문화적 문식력, 매체 문식력, 비판적 문식력 등으로 논의를 다양하게 발전시켜 온 것이 아니라 문화적 문식력과 다문화 문식력<sup>24)</sup>에 대한 논의로 바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의사소통 중심의 기능 교육을 독려해 왔기 때문에 비교적 기능적 문식력에 대한 논의는 따로 활발히 연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4) 다문화 문식력은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 두 분야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문식력 교육은 자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또는 이중 언어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에서 주로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는 다문화 가정의 초·중등생인데 한국어 교육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제2언어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국어 교육에서는 자국어 교육의 대상으로 여긴다. 다문화 문식력의 이론적 배경은 유사하지만 교육 내용과 방법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재 또는 제2언어 문식력을 중심으로 다룬 한국어 교육 분야의 논의에 한정해서 다루기로 한다.

김연희·김영주(2010),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 기초 문식성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43호, 이중언어학회; 김영주(2008), 「전래동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다문화 및 재외동포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제80집, 한국국어교육학회; 김혜련(2013), 「다문화 가정 중등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교육연구』 제56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심상민(2011),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및 내용,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48집, 국어교육학회; 심상민(2014), 「다문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의 동향 분석-(한)국어교육 학위 논문의 연구 경향 분석」, 『새국어교육』 제98집, 한국국어교육학회; 조수진·윤희원·진대연(2008),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 『이중언어학』 제37집, 이중언어학회; 주재환·윤보은(2015), 「KSL 학습자 다문화 문식성 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방안 연구-윤동주 시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28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한국어 교육에서 문식력 연구의 선편을 잡은 윤여탁은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식력은 문화적 문식력, 다문화 문식력, 매체 문식력, 비판적 문식력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학습자의 문식력 신장에 문학적 관점을 도입하고자 했는데 이는 문화적 문식력 교육이 다양한 관점과 지향점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25)</sup> 윤여탁의 논의가 확장·적용된 예로 박현진은 학문 목적을 지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문식력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시나 광고 등의 특정 장르를 활용해 문화적 문식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기도 했지만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sup>26)</sup> 이는 아직까지 문화적 문식력에 대한 연구 주제가 한국어 교육 전반의 관심사가 아닌 점도 있겠지만 문화적 문식력의 개념과 성취 목표를 문화 능력이나 상호 문화적 능력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배현숙은 문식력의 결여가 외국인 유학생의 일상적 의사소통에 장애가 됨을 밝히고, 그 해소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는 문화적 문식력을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관습이나 행위 등 행동 양식 차원의 문화적 배경보다 전문적인 문화적 기대나 지식 개념으로 보고, 문화적 문식력의 범주를 행위와 지식의 측면으로 양분하는 등 문화적 문식력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예를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화 내용 요소에서 추출하였기 때문에 성인 외국어 학습자가 대부분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sup>27)</sup> 이밖에 주목할 연구로 가정, 교육 기관, 사회 등 문식 환경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의 유형 분류를 피하고 문화적 문식력을 포함해 다양한 영역의 문식력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sup>28)</sup>

25) 윤여탁은 다문화 문식력을 “언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언어와 문화를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런 언어 능력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수행하는 능력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이는 본고에서 정의한 문화적 문식력의 실천적 개념과 공통된다. 윤여탁(2013), 「다문화 사회의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전략-문학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 94호, 한국국어교육학회, 16쪽.

26) 박현진(2014),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비판적 문식성 교육 방안 연구-문학 텍스트를 활용하여」, 고려대 박사 학위 논문; 오현아·이슬비(2008), 「TV 광고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문식성」,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한중인문학회.

27) 배현숙(2007),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문식성(literacy) 격차 해소 방안」, 『언어와 문화』 제3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적 문식력 연구는 문화적 문식력 본연의 개념역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다문화 문식력, 매체 문식력, 비판적 문식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용어의 혼용이 잦은데 이는 문화적 문식력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 용어 또는 교육의 목표어로서 설정하는 데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 소수의 연구자들이 상호 문화적 문식력, 다문화 문식력, 매체 문식력, 비판적 문식력 등을 총망라하여 문화적 문식력에 대한 논의를 산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이는 개념의 명료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범주의 포괄성을 제시하는 것에 머무른 것이므로 향후 문화적 문식력의 범위를 범주화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문화적 문식력의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한국어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해 나가야 한다.

국어 교육에서는 읽기와 쓰기의 언어 기능에 초점을 둔 문식력의 초기 연구에서 사회 문화적 맥락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문화적 현상과 의사소통의 문제까지 다루는 문식력 연구로 외연을 확대하면서 문화적 문식력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sup>29)</sup> 특히 박인기는 문화적 문식력을 기본적인 문식력 기능(literacy skill)을 포함하는 복합 문식력으로 간주하였으며 교육받은 공동체에 의해 공유되는 ‘텍스트 해석의 구조’를 아는 것으로 문화적 문식력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국어교육에서의 문화적 문식력에 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sup>30)</sup>

국어교육에서의 문화적 문식력의 개념과 구체적 적용은 고전 문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는데 고전에 대한 지식과 고전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문화의 통시성과 공시성을 고려해 과거와 현재의 문화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자 한

28) 김영란(2009), 「문식 환경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 유형 분류와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제34집, 국어교육학회.

29) 윤여탁(2015), 「한국에서의 문식성 교육의 반성과 전망」, 『국어교육연구』 제3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이재기(2009), 「문학교육과 문식성 신장」, 『독서연구』 제22집, 한국독서학회; 정혜승(2008), 「문식성(literacy)의 변화와 기호학적 관점의 국어과 교육과정 모델」, 『교육과정연구』 제26집, 한국교육과정학회; 최지현(2007), 「매체언어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탐구-문화, 매체 문식성 개념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28집, 국어교육학회.

30)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제15집, 국어교육학회.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다. 서유경, 황혜진, 서보영 등은 학습자가 과거와 현대의 수직적 범주의 문화와 수평적 범주의 문화 및 그 교섭 지점을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문화적 문식력을 개념화하였다.<sup>31)</sup> 박은진은 문화적 문식력의 중요한 개념 요소로 집단 내의 공유된 지식(shared knowledge)을 상징하고 공유된 지식을 수용하는 수용 모델과 지식을 공유해 나가는 공유 모델의 순환적 제시를 통해 학습자를 고려한 문화적 문식력의 범주화를 꾀했는데 이는 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적 문식력에 관한 대표적 선행 연구에 해당된다.<sup>32)</sup>

최홍원은 문화적 문식력의 교육적 실현에 대한 비판적 점검을 통해 문식력을 지식 차원이 아닌 수행적 실천 개념으로 규정하고 학습자의 참여와 성찰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교육적 재개념화를 시도하였는데<sup>33)</sup> 이는 본고의 논의와 유사한 맥락에 속한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적 문식력은 목표 문화에 대한 지식 이해 차원을 넘어 학습자가 경험한 문화와 습득한 지식과 가치를 문화 경험 또는 의사소통의 맥락에 참여하면서 실천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본고 또한 이를 지향한다.

## 2.2.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 소설 교육 연구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초기에는 시나 현대 소설 등 다른 문학 장르와 마찬가지로 고전 소설은 주로 문화 교육의 측면에서 논의되었

31) 서보영(2014), 「고전 소설 변용을 통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연구-학습자의 <춘향전> 변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33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서유경(2009), 「관소리를 통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연구-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을 중심으로」, 『관소리연구』 제28집, 관소리학회; 황혜진(2005),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고전 소설과 영상변용물의 비교 연구-<장화홍련전>과 영화 <장화, 홍련>을 대상으로」, 『국어교육』 제116집, 한국어교육학회.

32) 박은진(2015), 「국어교육 목표로서 ‘문화적 문식성’ 개념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연구』 제57집, 한국어교육학회.

33) 최홍원(2015), 「문화적 문식성의 교육적 실현에 대한 방법적 회의」, 『국어교육연구』 제3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고 그 기조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문학 교육의 측면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고전 소설 교육은 대부분 고급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전 소설 교육 논의의 초기에는 <심청전>·<춘향전>·<홍부전> 등 국어 교육에서 정전(正典)으로 인정받은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숙영낭자전>과 <정수정전> 등 논의되는 작품들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수·학습 방법도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sup>34)</sup>

우선 고전 소설을 문화 교육의 측면에서 논의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고전 소설에 내재한 한국의 정신문화인 가치, 신념과 행위 문화인 제도나 관습을 다룬 것들이 주를 이룬다. 즉 고전 소설의 문화 교육적 가치를 주장하면서 고전 소설에 나타난 한국의 전통문화와 정신문화, 행위와 산물 문화를 교육 내용으로 한 논의들이 많다.<sup>35)</s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청전>의 윤리적 가치인 ‘효(孝)’, 의식주의 생활문화, <춘향전>의 가치인 ‘사랑과 정절’, 사회 제도인 ‘장원 급제’ 등을 문화 요소나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증천부는 <심청전>의 문화 교육 내용으로 민간 신앙, 가사 노동, 장례 문화, 공동체 생활, 제의 문화, 가족 제도 등 한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문화 교육에 기여하는 고전 소설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였다.<sup>36)</sup>

34) 김수연(2013), 「영웅소설을 활용한 한국적 지혜 읽기- 「소대성전」을 중심으로」, 『한국 고전연구』, 제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박송희(2016), 「스토리텔링을 통한 한국 고전문학 교육방안-〈박씨전〉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52집, 우리문학회; 정선희(2013),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가치관 교육 제재 확장을 위한 시론-〈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임현아·목계연(2016), 「여성영웅소설 콘텐츠의 한국 문화 교육 적용 연구-〈정수정전〉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29집, 돈암어문학회.

35) 공위나(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심청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김미진(2011),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판소리계 소설 『심청전』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제24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서유석·장만호(2015), 「춘향가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배달말』 제57집, 배달말학회; 이명현(2014), 「외국인의 한국문화 교육에서 고전 소설의 가치와 학습 방향」,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7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이정원(2013), 「<심청전>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한국고전연구』 제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36) 曾天富(2014), 「고전 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심청전』을 대상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 27, 한국어문학 국제학술 포럼.

다음으로 고전 소설을 문학 교육의 측면에서 논의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비교 문학적 관점을 취한 논의들이 대부분으로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 등이 그 대상 작품이다.<sup>37)</sup>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 소설을 비롯한 고전 문학 교육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는 양민정은 <춘향전>과 영국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유사 주제를 가진 작품으로 상정하고 주제와 이야기 구조, 매체의 활용 측면에서 비교·대조하는 교수·학습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는 <춘향전>과 태국의 <쿤창과 쿤웬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양국 애정담의 특징과 여성 의식을 고찰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 소설 교육이 비교 문화 및 비교 문학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이다.

이밖에 고전 소설의 인물을 중심으로 문화적 맥락을 분석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한 논의와 한국어 학습자와의 실제 수업을 통해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수업 모형을 도출하는 등 실제의 교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개발한 학습자 중심의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sup>38)</sup>

이상의 연구사적 흐름을 살펴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능력, 상호 문화적 능력, 다문화 문식력 등 다른 문화 관련 개념과 변별력 없이 함께 논의되거나 개념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 채 통용되고 있는 문화적 문식력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문화적 문식력 신장에 고전 소설 교육이 기여하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이 연구는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목표로 고전 소설 교수·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방법을 설계하여 실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고전 소설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 것에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7) 변지운(2011), 「문화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홍부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양민정(2003), 「고전 소설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양민정(2017), 「<춘향전>과 <쿤창과 쿤웬의 이야기>의 애정담 및 여성 의식 비교 연구」, 『외국문학연구』 제6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Tran Thi Phuong(2013), 「베트남대학 고학년 한국 언어문화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춘향전> 교육연구: <춘향전>의 춘향과 <취교전>의 취교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제26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38) 김금숙(2014),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 목표와 수업 모형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장순희(2013), 「문화적 맥락 읽기를 통한 고전 소설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3.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 (1) 고전 소설 <심청전> · <춘향전> · <홍부전>

본 연구의 대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전 소설인 <심청전>, <춘향전><sup>39)</sup>, <홍부전>과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산출된 한국어 학습자의 감상문이다.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은 한국 고전 소설의 대표작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고, 판소리, 무가, 창극, 영화, 드라마,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로 변용 및 활용되어 오면서 옛사람에게는 물론 현대인에게까지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이 현대까지 다양한 장르와 매체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이 심화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은 특정한 과거의 한 시대에만 향유된 것이 아니라 작품의 창작 초기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근대 초기 한국어 교육의 현장에서도 활용되었다. 한국 고전 소설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초기부터 한국 문화와 역사의 보고(寶庫)로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제공되었다. 특히 <심청전>과 <춘향전>은 근대 초기에 외국어로 번역되어 외국인들에게 널리 소개되었는데 19세기에 세계 최초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대학에서는 김병옥본 <춘향전>을 사용하였다.<sup>40)</sup>

39) <춘향전>은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부터 구전되던 이야기였으며 1740년경 <춘향전>의 최초 작품인 유진한의 <만화본(晩華本) 춘향가>는 전라도 지방에서 공연되던 판소리를 기록한 작품이다. 정하영(2006), 『춘향전』, 신구문화사, 20-21쪽.

40) <심청전>은 하랄트 쿤츠(Harald Kunz)가 작시(作詩)하고 윤이상(尹伊山)이 작곡한 <오페라 심청전>이 1972년 서독에서 공연되어 절찬을 받은 바 있다. 김병옥은 <춘향전>을 외국인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삽입구 대부분을 삭제하거나 문장을 쉽게 변형하고, 한국 문화의 특징으로 오륜행실(五倫行實)의 도덕적 가치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허경진·이숙(2012), 「19세기 러시아에서 출판된 조선어독본 『춘향전』에 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제45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4쪽; 이상현(2011), 「물허진 <심청전> 정전화의 계보-알렌(H. N. Allen), 호소이(細井肇), 게일(J. s. Gale) <심청전> 번역본의 연대기」, 『고소설



<춘향전>은 19세기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고전 소설로 인식되어 외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그 최초는 1882년 일본인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의 『鷄林情話春香傳』이다. 이후 1889년 미국의 선교사 알렌(Allen), 1892년 프랑스의 소설가 로니(Rosny), 1895년 독일의 아르노우스(Arnous)가 각각 자국의 언어로 <춘향전>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sup>41)</sup> 이렇게 외국인들이 <춘향전>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했던 이유는 조선의 문화, 역사, 풍속을 자국에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김병옥도 <춘향전>을 러시아인들에게 한글과 조선의 문화를 가르치는데 최적의 텍스트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선학들과 달리 러시아로 번역하지 않고 한글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직접 사용했다.<sup>42)</sup> 외국인 학습자에게 <심청전>과 <춘향전>은 한국의 다른 문학 작품들에 비해 친숙한 편이다. 이들 소설은 한국인의 가치, 신념, 제도, 행위, 산물 등의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초기부터 교육의 제재로 활용되어 왔고 현대의 한국어 교재에도 널리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심청전>과 <춘향전>, <홍부전>은 많은 이본들이 존재하는데 <심청전>은 <완판 71장본>, <춘향전>은 <완판 84장본>, <홍부전>은 <경판 25장본>을 중심 연구 대상 텍스트로 삼았다. 세 이본 모두 각각의 이본군 중에서 언어적·문화적·문학적으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문식력 신장에 적합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심청전>은 경판본으로 대표되는 문장체 계열과 완판본으로 대표되는 판소리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심청전> 이본의 중심은 완판계이며 실제 초기본으로 거론되는 이본의 양상 역시 완판계의 흐름 속에 있다.<sup>43)</sup> 또한 경판본은 심봉사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하고 심청에게 초점을 두었지만 완판본은 심청과 심봉사 둘 모두를 주인공으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화제와 주제에 대한 논의를 가능케 하는 장

---

연구』 제32집, 한국고소설학회.

41) 김동욱(1976), 『增補 春香傳研究』, 연세대학교 출판부, 72쪽.

42) 허경진·이숙(2012), 「19세기 러시아에서 출판된 조선어독본 『춘향전』에 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제45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0쪽.

43) 서유경(2002), 「공감적 자기화를 통한 문학교육 연구-<심청전>의 이본 생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20-21쪽.

점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심청전>의 자료는 창본 20여 종, 방각본 11종, 필사본 130종, 활자본 31종 등의 소설계 자료와 시가류로 전해지는 심청요 채록본 11종, 창극본 2종, 번역본 10종 등으로 무려 230여 종에 달한다.<sup>44)</sup> <심청전 완판 71장본>은 다른 판본에 비해 삽입 가요가 발달되어 있으며 내용이 다양하고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각 인물의 개성이 뚜렷하여 독자의 흥미를 배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완판 71장본>은 다른 판본들과 비교해 볼 때 심청의 출생 및 곽씨 부인의 죽음, 심청의 효성과 장승상 부인 화소, 심청의 죽음과 재생 등 <심청전>의 중심 서사 단락이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화되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곽씨 부인의 장례 장면을 볼 때 다른 이본들은 심봉사 혼자 안장하는 등 장례 치르는 모습이 간략히 제시되어 있는데 <완판 71장본>에서는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을 치르는 품앗이 문화, 상여꾼의 상여 소리, 심봉사의 통곡과 제문 읽기 등 한국 장례 문화의 모습과 초상(初喪)을 당한 가족의 정서 등 다양한 내용을 제공해 주고 있다.

<춘향전>은 <심청전>과 더불어 한국 고전 소설 중 이본(異本)이 많은 작품으로 국문 필사본만 100종 이상이 전해지고 있고, 17세기 이래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많은 각편과 이본들을 남기고 있다.<sup>45)</sup> 특히 <춘향전>은 18세기 이래의 사회적 갈등을 형상화하는 전형적인 이야기 틀을 갖추어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각편을 만들어 내고 나아가 다른 이야기 틀의 질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의 문화적·문학적 질서를 형성시켰으며 근대 소설인 <은세계>와 <무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근대 문학의 흐름 속에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한 작품이다.<sup>46)</sup> 춘향전의 목판본(木版本) 중 쌍벽을 이루는 것은 <경판(京板)>과 <완판(完板)>인데 <경판>은 <춘향전>의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알려져 있고, 춘향은 본읍 기생 월매의 딸로 몸종인 향단은 등장하지 않으며, ‘십장가(十杖歌)’나 ‘상사가(相思歌)’, 기생 점고 장면 등이 생략되어 있

44) 김영수(2001), 『필사본 심청전 연구』, 민속원, 28쪽.

45)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독자들이 걸작(傑作)으로 평가해 온 증거라 할 수 있다. 조희웅(1999), 『고전 소설이본목록』, 집문당, 761-782쪽.

46) 김종철, 「<춘향傳>의 磁場」, 간행위원회 편(1998), 『韓國 古典小說과 敘事文學(上): 韓國 古典小說史의 再照明』, 집문당, 431-432쪽.

다. 대신 불망기(不忘記), 이도령과 춘향이 명경(明鏡)과 옥지환(玉指環)으로 신물(信物)을 교환하는 장면 등이 삽입되어 있다.

<완판 84장본>은 <열녀춘향수절가(烈女春香守節歌)>로 불리며 상권 45장, 하권 39장으로 총 8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판과 달리 창곡조(唱曲調)로 되어 있다. <완판 84장본>에서 춘향은 양반과 퇴기(退妓)의 무남독녀 소생으로 기녀(妓女)와 서녀(庶女)의 두 가지 신분이 혼재되어<sup>47)</sup> 묘사되고 있으며 불망기(不忘記)나 신물 교환 장면 등은 없으나 ‘십장가(十杖歌)’와 ‘상사가(相思歌)’가 길게 표현되고 있다. <완판 84장본>은 완판본 <춘향전>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일 뿐만 아니라 19세기말까지의 판소리 <춘향가>의 변모 양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세련된 문체와 구성이 돋보인다.<sup>48)</sup> <열녀춘향수절가>는 ‘사랑가’, ‘자탄가’, ‘십장가’, ‘백발가’, ‘농부가’ 등의 삽입 가요들을 다채롭게 수용하고 있고, 주인공인 춘향과 이몽룡 외에 주변 인물인 월매, 향단, 방자의 개성과 역할을 강화하여 독자의 흥미를 더욱 끌고 있다. 문체에 있어서도 경판은 서울 지방의 한문투 문체로 되어 있는데 반해 완판은 전라도 방언을 사용한 운문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 학습자에게 고소설본이 아닌 현대어로 번역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므로 방언의 사용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읽기 쉬운 운문체로 되어 있는 완판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김태준은 <춘향전>을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이 작품이 조선 후기의 사회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전에 양반들이 춘향의 정절을 평가한 것과는 달리 춘향이 기녀의 인격을 주장함으로써 평등한 인간, 자유로운 인간을 회구하던 조선 후기의 민중을 대변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한국어의 표현 자질을 민중의 입장에서 탁월하게 발휘한 언어 예술품이라 평가했다.<sup>49)</sup>

47) <완판 84장본>에서 춘향은 양반가의 서녀(庶女)와 천기(賤妓) 월매의 신분을 세습한 기녀(妓女)의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춘향 자신 또한 자신을 기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녀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조광국(2002), 「법제적 질서와 사회경제적 변화의 충돌 측면에서 본 『춘향전』, <완판 84장본>의 작품적 가치」, 『국어교육』 제108호, 한국어교육학회, 449-452쪽.

48) 김종철(2005), 「정전(正典)으로서의 『춘향전(春香傳)』의 성격」, 『선청어문』 제33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67쪽.

49) 김태준(1935), 「<춘향전>의 현대적 해석」, 동아일보, 김종철(2005), 「정전으로서의 『춘향전』의 성격」, 『선청어문』 제33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61쪽 재인용.

이는 <춘향전>이 19세기에는 열(烈)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20세기에는 인간의 평등이라는 근대의 이념을 구현한 측면에서 각각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홍부전>은 <심청전>이나 <춘향전>이 지닌 이본만큼은 아니지만 <심청전>, <춘향전>과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 고전 소설로 방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며 민담적 요소와 현실적 요소가 함께 존재하면서 이루어진 작품이다. <홍부전>은 <심청전>이나 <춘향전>에 비해 당대의 현실을 실제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 당대의 시대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홍부전>은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당시에 성장하던 신흥 부농층의 모습과 빈농층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념 중시의 가치관과 물질 중시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줌으로써 학습자들에게 가치 판단과 평가의 기회를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홍부전 경판 25장본>을 주요 대상 텍스트로 삼았는데 한국의 민속 신앙적·설화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 한국어 학습자에게 좀 더 풍부한 문화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삽입 가요와 단위 사설, 장면 극대화의 대목들이 다른 이본에 비해 잘 표현되어 있어 자료의 가치도 높고 학습 자료의 발췌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홍부의 품팔이 대목의 경우 경판본은 현실을 타개하려는 홍부의 주체적인 면모에 비중이 큰 반면 신재효본의 경우는 홍부의 주체적인 노력보다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가련한 형상이 더 부각되어 있는데 학습자들에게 좀 더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홍부의 성격 이해를 위해서는 전자가 낫다고 판단하였다.<sup>50)</sup>

<홍부전>의 많은 이본들 중 한국어 학습자에게 <홍부전>을 처음 교육할 때는 경판본처럼 홍부와 놀부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선명한 작품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홍부전>의 근원은 ‘선악형제담(善惡兄弟譚)’이기도 하고, 선악의 경계를 허물면서 홍부의 부정적인 면, 놀부의 긍정적인 면을 형상화한 이본을 소개하는 것은 차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할 것이다. 이밖에 <박동진 창본 홍부가>와 <박봉술 창본가>도 참고하여 학습자의 대상 텍스트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두 창본 모두 장면의 분화가 다채롭게 잘 이루어져 있으며 인물의 내면 표현도 섬세하

50) <홍부전>의 인물 형상 문제는 학자들마다 논의가 분분(紛紛)하므로 두 인물의 가치관, 태도, 내면 등을 더 자세히 고찰하고, 이본의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 정충권(2003), 「경판 <홍부전>과 신재효 <박타령>의 비교」, 『홍부전 연구』, 월인, 105-106쪽 참고.

게 묘사되어 있고, 판소리 창본답게 언어적 리듬감과 표현이 한국어 학습자의 흥미를 더욱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은 전통성과 역사성 외에 시대성까지 확보하면서 현대에는 영화, 연극, 드라마, 판소리 등으로 꾸준히 창작 및 수용되고 있어 외국인 학습자들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에 적합한 학습 제재가 된다.<sup>51)</sup>

## (2)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

본 연구는 국내 대학의 학부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로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을 기준으로 3급 이상인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한국어 능력 3급 이상부터 문단 단위로 한국어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며 문어와 구어의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전 소설을 통해 문화적 문식력을 살피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실제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 능력 3급 수준의 학습자부터 학부 수업을 수강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 강좌는 한 교실에 3급부터 5급까지의 학습자들이 함께 학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학습자 수준별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곳은 거의 없다. 최소한 한국어 능력이 5급 이상이 되어야 대학에서 개설한 한국어 강좌를 무리 없이 수강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한국의 대다수 대학들은 대학 부속 어학 기관에서 3급 과정 이상을 수료하면 조건부로 대학의 입학을 허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인 학습자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대학의 언어교육원에서 초급 또는 중급 과정을 마친 후 국내 대학의 학부에서 유학을 하며 한국어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한국어 중·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이다. 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일반적으로 3급부터 4급에 걸쳐 있으며 5급 수준의 학습자들도 몇 명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한국 소재의 대학 부속 어학 기관에서 한국어를 주당 20시간씩 최소 600시간 이상 정규 수업으로 학습한 경험

---

51) 황혜진은 이미 시간의 검증을 받아 가치 있는 것으로 전수된 문화적 유산에 대한 앎과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기호적 상징들에 대한 앎을 문화적 문식력으로 보고 고전 소설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변용되어 전승되었는지를 살핀 바 있다. 황혜진(2005),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고전 소설과 영상변용물의 비교 연구-〈장화홍련전〉과 영화 <장화, 홍련>을 대상으로」, 『국어교육』 제116집, 한국어교육학회.

이 있으며 한국에서 보통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학습자들이다. 국내 대학에서의 전공은 한국어 교육은 물론 어문학, 경영학 등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둘째,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국내 대학에 교환 학생으로 6개월 또는 1년 정도 단기간 체류하며 한국어 교양 강좌를 수강하는 한국어 중·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이다. 이들은 중국 소재 대학의 한국어 관련 학과에서 한국어를 1년 정도 전공하고 한국 대학에 교환 학생으로 온 학생들로서 한국어 수준은 3급부터 5급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다.<sup>52)</sup> 이 집단의 특징은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지만 저학년인 관계로 학교에서 문학 수업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능력 수준에 비해 문학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경험이 다른 집단의 학습자들보다 높다는 것이다.<sup>53)</sup>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는 예비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 26명, 본수업에 참여 학습자 67명을 포함하여 총93명으로 성별은 남자 41명, 여자 52명, 유학 유형은 한국 대학의 학부 유학생 76명, 교환 학생 17명, 한국어 수준은 3급 52명, 4급 29명, 5급 12명이고, 감상문 모집 편수는 <심청전> 90편, <춘향전> 104편, <홍부전> 79편으로 총273편이다. 예비 수업은 2016년 5월 12일, 19일, 26일에 각각 하루 세 시간(3차시)씩 세 차례에 걸쳐 K1대학교 강의실에서, 본수업은 2016년 10월부터 12월의 기간 중 매주 한 번, 세 시간씩 일곱 차례에 걸쳐 K2대학교 강의실에서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였다.

고전 소설을 대상으로 한 학습자의 감상문 쓰기 활동은 과거의 산물인 고전 소설을 현재의 독자가 자신의 지식과 관점으로 새롭게 구성해 내는 데 의미가 있다. 가다머에 의하면 문학 작품은 글쓰기 가운데 가장 낯설기 때문에 가장 해석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 우리는 과거가 현재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학 텍스트의 해석은 역사적

---

52) 일반적으로 중국 대학 내에서 한국 문학 수업은 3학년 때부터 진행되며 중국 대학 내 한국어과 3학년의 수준은 한국어 능력 3급과 4급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4학년 1학기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르는데 거의 모든 학생이 5급 이상을 획득한다. 김규진(2012), 「중국 대학 내 한국어과 문학 관련 수업의 현황과 실제-한국문학사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25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86쪽.

53)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에서 <한국문학사>나 <한국문학작품강독>은 5학기부터 8학기에 걸쳐 진행되며 대부분 6학기 또는 7학기에 집중되어 있고 강의 시간 수나 학점은 거의 비슷하다. 이광재(2007),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 한국문학 교육 현황 연구」, 『한국학연구』 제17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80-184쪽.

텍스트를 포함한 다른 텍스트 해석의 전형이 된다. 문학 교육의 장(場)에서 학습자에게 대상 텍스트에서 얻은 느낌이나 생각을 필자 중심으로 서술하는 개인 내 수준의 자기 표현적 유형의 텍스트인 감상문을 기술하게 한 것은 문학 경험을 통해 학습자의 개인적·심리적·사회적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표현한 것을 본인 스스로 성찰하게 함으로써 문학 경험을 좀 더 의미화, 내면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학습자가 문학 경험을 의미화, 내면화한다는 것은 결국 문화적 문식력의 일면이 신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 유형	연구 자료	기간 및 수업 시간	학습자 정보				기호	
			성별	유학 유형	수준	수		
예비수업	감상문 <심청전> 26편 <춘향전> 25편 <홍부전> 25편	2016. 5. 총9차시 9시간	남	유학생	3급	8명	● K1대 교양학부생 26명 [㉔-K1-일련번호]	
					4급	2명		
			여	유학생	3급	10명		
					4급	3명		
				교환학생	4급	3명		
본수업	감상문 <심청전> 64편 <춘향전> 79편 <홍부전> 54편	2016. 10. ~ 2016. 12. 총21차시 21시간	남	유학생	3급	24명	● K2대 교양학부생 67명 [㉕-K2-일련번호]	
					4급	7명		
			여	유학생	3급	10명		
					4급	11명		
					5급	1명		
				교환학생	4급	3명		
					5급	11명		
					기타자료	경험 일지 35편		2016. 5. ~ 2016. 12.
토론 전사 자료	2016. 12.	-				[㉗-일련번호]		
비디오 클립 자료 7편	2016. 11. ~ 2016. 12.	-				[㉘-일련번호]		
심층 면담 자료	2016. 12. ~ 2017. 2.	-				[㉙-일련번호]		

<표 I -1> 연구 자료 및 학습자 정보<sup>54)</sup>

54) 학습자 기호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표시하였다. 동일한 수업 집단: ㉔~㉙의 원문자, 소속 대학: 대학의 첫 영문 이니셜, 성별: 남 1, 여 2, 유학 유형: 학부 유학생 1,

### 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화적 문식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문화적 문식력 교육의 관점에서 고전 소설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고전 소설을 어떠한 층위에서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문화적 문식력의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고 방법을 구안할 것인지, 고전 소설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의 실체화 및 구체화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이때 교육 내용과 방법의 선정은 관련 이론이나 기존의 연구 자료들은 물론 실제의 학습자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들에게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교육 목표로 어떤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인지와 학습자들이 교육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수용하는가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특히 문화적 문식력의 주체는 학습자로서 학습자의 의미 구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교육 내용은 객관적인 실체로서 규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습자들이 함께 구성할 때 그 내용이 특정 맥락에서 유의미하게 해석되고 적합한 의미로 재구성될 수 있다. 즉 학습자와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서 그 의미가 구현되는 경험적인 요인들을 중시하는 계열을 기초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sup>55)</sup>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문학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어 온 교육 내용의 선정과 교육 방안 제시 순서의 일방적이고 직선적인 교사 중심의 교육을 지양한다. 본 연구는 고전 소설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해서 교수·학습을 수행한 후, 학습자 양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성찰하고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절차는 현장 연구의 접근법인 실행 연구(action research)<sup>56)</sup>와 관련된다. 실행 연구는 행위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현장

---

학부 교환 학생 2, 학습자 수준: 한국어 능력 급수, 마지막 끝자리의 숫자는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의 이름 대신이다.

55) 이는 해석적 구성주의 원리에 따른 교수 설계로서 거시적으로 브루너(Bruner)의 지식의 구조와 내러티브적 관점의 논의에 기반한 것이다. 강현석(2012), 「내러티브에 기반한 교육 과정 설계 원리 탐구」, 『교육철학』 제48집, 한국교육철학회, 201-202쪽.

56) 실행 연구(action research)의 선구자는 르윈(Lewin)으로 그는 반성적 사고, 논의, 결정, 실천의 힘을 믿었으며 실행 연구를 ‘계획-실행-성찰-재계획’의 연속적인 과정을 반복했는데 이 방법이 오늘날 실행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 Lewin, K.(1946). “Action Research and Minority Problems”, *Journal of Social Issues*, 2(4), pp.34-46.



과 관련된 문제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연구로서 실천가가 연구의 대상이 아닌 연구의 주체로서 참여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여기서 실천가는 실행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상정하는 교사만을 의미하지 않고 교사와 더불어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는 학습자도 포함한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학습 자료만을 제공하는 소극적인 역할 수행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문제를 개선하고 학습자와 함께 지식을 생산하는 책임을 지닌 주체로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서 설정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직접 교육 활동을 수행하면서 교수자의 개입이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세심히 살펴보면서 교육과정 중에 발견되는 문제를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다. 실행 연구를 비롯한 모든 질적 연구는 적용보다 발견을 강조하며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의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연구로 계량적인 연구보다는 기술적이고 해석적인 질적 현장 연구를 지향하며 현장 이론의 생성이라는 방법론적 특징을 가진다.<sup>57)</sup>

본 연구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 중 질적 연구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는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여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맥락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맥커난(McKernan)은 교수학습의 실체는 상황적 지식(situational knowledge)에 의존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를 통해 더 잘 파악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58)</sup>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관찰과 심층 면담, 경험 일지와 감상문 등의 학습자 산출물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변인별로 자료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sup>59)</sup> 모집 과정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수업은 예비 수업과 본수업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예비 수업에서는 기존의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여 교사의 설명

57) 대부분의 현장 교육 연구가 '사전 검사-사후 검사'의 형태를 답습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실행 과정과 현장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분석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용환 (2015), 「현장연구와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 제18집 4호, 한국교육인류학회, 6-7쪽.

58) McKernan, J.(2008), *Curriculum and imagination: Process theory, pedagogy, and action research*, London: Routledge.

59) 본 연구는 수업 진행 시 연구 대상자의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된 학습자들의 연구물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SNUIRB)의 승인을 받아 수집된 것이다(승인 번호: IRB NO.1605/003-015). 학습자의 소속 학교 및 국적 등의 일련번호는 실제 명칭 대신 기호로 표기하였음을 밝혀 둔다.

중심으로 고전 소설을 가르쳤고 본수업은 연구자가 설계한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본수업 전에 예비 수업을 진행한 것은 연구자가 설계한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의 타당도와 적합성을 검증하고 학습자의 자료 분석에 대한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집된 학습자 자료들은 통제된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료 분석에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작용될 것을 고려하여 시간, 장소, 사람 등 조건이 다른 다양한 자료원을 통합하여 동일한 현상을 연구하고자 하였다.<sup>60)</sup>

학습자의 감상문의 분석은 구성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였다. 학습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이 녹아든 구체적 지식 구성체인 감상문을 근거로 문화적 문식력의 구성 양성과 획득 과정을 살핀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적 관점은 유용하다. 학습자의 감상문을 통해 문화적 문식력의 구성 과정을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양적 접근보다는 연구자의 관찰력과 해석력을 투입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의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고전 소설 학습을 통해 문화적 문식력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은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기계적인 양적 접근법으로는 추상적인 일반화에 그칠 우려가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감상문을 분석하면서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진행하였다. 내용 분석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 대상들이 산출한 일정한 텍스트를 객관적·체계적·직관적·해석적, 양적·질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며 방대한 텍스트를 유사한 의미들을 나타내는 보다 적은 수의 범주로 분류할 목적으로 할 때 사용한다. 내용 분석은 현상의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탐색적 방식으로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하는 귀납적 방법에 속하며 본질적으로 텍스트의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문맥 속에 숨어 있는 암묵적이고 잠재적인 내용을 함께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61)</sup> 내용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의 대상인 학습자 감상문은 학습자

60)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대상을 사용하여 같은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자료의 삼각화(data triangulation)라고 한다. Flick, U.(1995)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임은미 외 옮김(2011), 『질적 연구 방법』, 한울 아카데미, 133쪽.

61) 질적 연구 방법이 확산되면서 텍스트의 표면적인 내용을 단순히 수량화하는 양적 내용 분석에서 벗어나 잠재적인 내용과 맥락을 연구자의 해석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질적 내용 분석으로 확장되고 있다. 내용 분석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 분석에 활용되고 있으나 가장 흔히 활용되는 것은 언어나 문헌 자료의 분석이다. 김석우·최태진(2014), 『교육연구방법론』, 학지사, 347-350쪽.

들의 지식과 가치, 경험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하나의 완결된 구성체이며 본 연구자는 이 구성체에 대한 주체적 해석자로 존재한다.

감상문을 수집하면서 연구자가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습자를 선별하여 학습자의 동의를 구한 후 경험 기술지 작성과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을 진행하였다.<sup>62)</sup> 이는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의 습득 과정 또는 발전 과정에서 생긴 변화의 행간의 의미를 학습자들의 쓰기 산출물로만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습자들이 글로 제대로 표현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자 위함이다. 즉 학습자의 감상문을 검토한 후, 학습자에게 일어난 변화의 양상을 경험 기술지와 연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살펴보고 구조화하였다.

심층 면담은 반구조화(semi-structured interview)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로 진행하는 것은 표준화된 인터뷰나 질문지를 이용할 때보다 비교적 개방된 형태로 구성할 때 학습자의 응답이 다양하고 자유로울 수 있고, 인터뷰 상황에서 연구자의 견해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할 때, 비지시(non-direction), 특수성(specificity), 범위(range depth), 개인적 맥락(personal context)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학습자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학습자의 감상문을 수집하고 심층 면담을 실시하는 것은 질적 연구에서 학습자 자료는 연구 결과의 근거가 되는 기초적 자료이며 해석의 근거이고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전달하기 위한 주요 매개체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sup>63)</sup> 한편 심층 면담 대상자 및 심층 면담 일시는 다음과 같다.

---

62) 학습자의 선별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학습자로 선정하였다. 첫째, 학습자 양상의 ‘전형’ 또는 ‘예외·특별’ 유형을 보였다. 둘째, 감상문을 성실하게 작성하였다. 셋째, 연구자와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하다. 넷째, 연구 참여 의사가 있다.

63) Flick, U.(1995)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임은미 외 옮김(2011), 『질적 연구 방법』, 한울 아카데미, 70-71쪽.

참여 대상자	성별	유학 유형	한국어 수준	심층 면담 일시
㉮-K1-1-1-3-16	남	유학생	3급	2016년 12월 15일
㉮-K1-2-1-4-3	여	유학생	4급	2016년 12월 20일
㉮-K2-2-1-4-11	여	유학생	4급	2017년 2월 10일
㉮-K2-2-2-5-15	여	교환 학생	5급	2017년 1월 19일
㉮-K2-2-2-5-16	여	교환 학생	5급	2017년 1월 19일
㉮-K2-2-2-5-20	여	교환 학생	5급	2017년 2월 22일

<표 1-2> 심층 면담 대상자 및 심층 면담 일시

## II. 문화적 문식력 교육 제재로서의 고전 소설 교육 내용 요소

### 1. 문화적 문식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

#### 1.1. 문화적 문식력의 개념

문식력(literacy)은 본래 구체적인 실재를 지시하는 실체적 개념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오고 있는 동태적 개념으로 문화적 문식력의 개념 또한 그 선상에 놓여 있다. 즉 문화적 문식력은 문식력의 개념이 읽고 쓰는 언어의 기초적인 사용 능력을 의미하는 데서 사회 문화적 맥락에 기반한 문화 능력, 비판 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외연이 확대됨에 따라 파생된 개념이다.

문화적 문식력은 허쉬(Hirsch)를 시작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 개념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는데 허쉬는 문화적 문식력을 한 사회 공동체에 널리 공유된 배경지식(shared background knowledge)을 획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한 사회 공동체는 상징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만 구성원 간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64)</sup> 허쉬가 정의한 문화적 문식력은 읽고 쓰는 언어의 기능적 측면을 포함해 한 사회의 배경지식 및 사회·문화적 의미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이며 객관적이고 전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65)</sup>

---

64) 허쉬가 언급한 공유된 배경지식이란 사회의 구성원이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알고 있고 알아야 하는 대상으로 실제성과 구체성을 띠고 있는 문화적 문식력의 핵심 요소이다. 공유된 배경지식은 특정한 전문 지식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간에 일반적 지식을 공유한 것을 의미하며 공적 담화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Hirsch, Jr., E. D.(1988),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Vintage Books, xvii; Hirsch, Jr, E. D. & Kett, J. F. & Trefil, J.(2002), *The New Dictionary of Cultural Literacy*, Houghton mifflin company, p. x v.

65) 허쉬가 제시한 공유된 지식과 정보, 자문화(自文化)에 대한 지식은 주로 문화의 주류 구성원들, 즉 미국의 백인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이후 소수 문화나 하위문화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지적한 교육개혁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허쉬는 소수 문화를 인정하지 않았다고보다 주류 문화(mainstream culture)에 우선순위를 두고 향존적이

목표 문화의 배경지식과 전통문화, 문화유산을 중시한 대표적 학자는 퍼브즈(Purves)로서 그는 문학을 작가, 텍스트, 시대 등과 관련된 정보 및 배경지식, 문화적 지식을 살필 수 있는 교육과정의 중요한 제재로 간주하였고 이를 문화적 문식력 신장의 중요한 자원으로 보았다.<sup>66)</sup> 그는 문화적 문식력을 개인이 사회·문화적 소통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화 지식으로 개인의 전통에 대한 인식, 문화적 유산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 전통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능력, 어떤 문화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sup>67)</sup>

이 외에 문화적 문식력을 한 국가나 문화에 정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정선한 문학 작품과 역사적 정보와의 친밀성으로 본 연구도 있고 문화적 문식력은 단지 정보(information)나 특정 대상을 지시하는 명칭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태도, 믿음, 철학 등의 심층적 지식, 나아가 문화 안의 역설과 모순 등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sup>68)</sup> 이러한 관점에서는 전통적 가치를 지닌 문화 텍스트들이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문화적 문식력에 대한 개념과 범주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결국 한 국가나 사회의 문화 및 배경지식을 알고,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하며,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화적 문식력을 한 공동체가 공유한 다양

---

고 안정적인 교육 내용을 추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허쉬는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주류 문화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류 문화에도 끊임없는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허쉬의 문화적 문식력에서 제시한 주류 문화는 안정적이고 변화가 없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주류 문화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오랫동안 쓰이고 있는 역사적, 기술적 용어들이 이에 해당된다. 좀 더 안정적인 문화적 문식력과 관련된 중핵 단어들은 학교 교육 내용의 중요한 콘텐츠이다. Hirsch, Jr., E. D.(1988),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Vintage Books, p.29.

66) Purves, A. C.(1991), "Intermediate Texts, Responsive Readers, and the Idea of Difficulty in Literature", *The Idea of Difficulty in Literatur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157-170.

67) Purves, A. C. & Papa, L. & Jordan, S.(1994), *Encyclopedia of English studies and Language Arts: A project of the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Scholastic, Inc, pp.339-340.

68) Harris, T. L. & Hodges, R. E.(eds.)(1995), *The literacy Dictionary*, NCTE.

하고 광범위한 지식의 총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목표어와 목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의 습득이 전제되어야만 주체적 해석이 필요한 비판적 문식력이나 매체 문식력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허쉬와 퍼브즈가 강조한 문화적 문식력을 구성하는 문화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는 문화적 문식력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적 문식력에서 중요한 것은 규범화된 가치 체계에 대한 판단과 해석 능력이다. 규범화된 가치 체계는 문화 본연의 가치와 문화를 하나의 대상으로 대하는 개인의 가치 판단과 해석을 포함하기도 한다. 즉 가치 체계는 어떤 대상을 규정한다기보다 어떤 대상의 목적이며 가치 판단은 적절한 규범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고 가치 해석은 대상의 내재적 의미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문화적 문식력 논의에서 가치는 국가 또는 민족의 한 사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최선의 이념과 생활 윤리를 의미했으며 이는 문화적 문식력의 핵심으로 간주되었다.<sup>69)</sup> 각 개인의 가치는 문화적 가치로 수렴되면서 가치 체계를 이루는데 문화적 가치는 각 개인들의 특별한 가치들이 문화에 스며든 것으로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 옳고 그른지에 대해 사회·문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알려 준다는 점에서 규범적이고 평가적이다. 나아가 문화적 가치의 이해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게 하고 문화적 가치의 인식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게 만든다.<sup>70)</sup>

가치의 해석은 목표 문화의 의미를 학습자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이해해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활동으로 학습자는 새롭고 낯선 문화를 접하여 공감 또는 비판을 통하여 판단이나 평가를 한다. 학습자가 문화나 텍스트를 해석할 때 대상의 본질적인 부분보다 학습자 자신의 사고와 가치관, 학습자가 처한 상황과 배경, 학습자 문화의 전통과 관습의 영향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해석에서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선이해(pre-understanding)는 해석 능력의 열쇠가 된다.<sup>71)</sup> 목표 문

69)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인내, 평등, 자유, 애국심, 의무, 협동 등을 선한 가치로 추구했으며 이는 국기, 공적 선서, 공휴일 등에 상징적으로 반영되었다. Hirsch, Jr., E. D.(1988),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Vintage Books, pp.98-102.

70) Samovar, L. A. & Porter, R. E.(2001),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4th)*, Wadsworth/Thomson Learning, Inc, pp.57-58.

71) 문화적 문식력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위한 기반이 되는 능력으로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자문화(自文化)에 대한 인식과 해석 능력 또한 중요

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 능력을 지니지 못하면 학습 주체로서 목표 문화와의 상호 교섭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흥미 반감, 소통 장애, 문화 소외로 이어지게 되며 목표 문화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문화의 생성은 요원한 일이 되므로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목표 문화에 대한 기반 지식의 이해와 규범화된 가치 체계의 인식과 해석이 이루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문화를 생성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학습자는 자신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경험한 문화를 실천적 행위로써 문화 산물을 생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고는 문화적 문식력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문화적 문식력은 자문화는 물론 목표 문화와 관련된 공유된 지식의 이해와 가치 체계의 해석을 기반으로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때 공유된 지식과 가치는 소통과 실천을 전제로 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공유된 지식’이란 개인이 사회와 공유하는 지식은 물론 외국인 학습자가 목표 문화의 이해와 목표 문화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해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보편성과 향존성이 인정되는 중핵적 문화 지식(core cultural knowledge)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편성과 향존성이 인정되는 중핵적 문화 지식이란 외국인 학습자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는, 시간의 지속성을 담보한 산물, 제도, 행위 등의 총체적·실체적 지식을 말한다. 문화적 문식력은 목표 문화의 단일한 사회·문화 공동체의 공유된 지식 또는 중핵 지식의 학습 및 활용에 더하여 학습자들의 문화 간 소통 속에서 형성되는 가치, 개인의 정체성 문제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1.2. 문화적 문식력의 구성 요소

본고는 문화적 문식력을 정의하면서 목표 문화의 지식에 대한 이해, 규범화된 가치 체계의 해석, 문화 생산 능력을 중요한 개념으로 상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문식력의 구성 요소를 배경지식과 경험 지식, 가치와 가치 판단으로

---

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Bonnie M. D.(2014), *Cultural literacy for the common core*, Solution Tress Press, p.3.



범주화하고자 한다.<sup>72)</sup> 배경지식은 목표 문화의 배경지식과 학습자의 개인적 지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경험 지식은 학습자가 자문화와 목표 문화에서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말한다. 가치는 목표 문화에서 관념적·규범적·제도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가치와 학습자 개인의 가치 판단과 가치 태도로 구분하였다.

일반 정규 고급 과정 교육(General education)과 문화적 문식력과 관계에 대해서 천착한 퍼브즈(Purves)는 ‘지식(knowledge), 기능(skills), 가치(values)’를 교육의 핵심 목표로 정의하고, 문화적 문식력은 문화적으로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형태의 언어 학습과 지식 영역을 포괄한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문화와 관련된 규칙, 의례, 사회적 관습, 영웅, 신 등에 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을 문화적 문식력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다.<sup>73)</sup> 이처럼 문화적 문식력과 관련해서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이 언급되었는데 본고에서는 목표 문화의 배경지식과 가치는 물론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경험, 가치와 태도 요소를 문화적 문식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문화적 문식력 획득의 주체인 학습자는 배경지식, 경험, 가치, 태도를 기반으로 목표 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목표 문화에 대한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

72)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적 문식력과 유사 또는 인접 개념으로 논의해 온 상호 문화적 능력은 태도(attitudes), 지식(knowledge), 해석 기술(skills of interpreting), 발견과 상호 작용 기술(skills of discovery and interaction), 비판적 문화 인식(critical cultural awareness)을 구성 요소로 하고, 문화적 유창성은 사회언어학적 능력, 특정 영역의 지식, 개방적 태도 등이 잘 조직된 것으로 정의된다. AATF(The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French)는 ACTFL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유창성의 지침에 문화적 유창성을 추가로 제안하였고, 그 평가 범주로 사회언어학적 기능(sociolinguistic ability), 특정 영역에 대한 지식(certain areas of knowledge), 특정 정보에 대한 태도(certain informed attitudes)를 제시하였다. Byram, M.(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Multilingual Matters, pp.57-73; Kramsch, C., “Culture in Language Learning: A view From the United States”, Kees De Bot, Ralph B. Ginsberg & Claire Kramsch(Eds.)(1991), *Foreign Language Research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pp.229-230.

73) 암묵지(tacit)를 포함한 문화 관련 지식들은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읽고 이에 반응할 때 작용하여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을 높이는 기제가 된다. Purves, A. C. “General Education and Search for a Common Culture”, Westbury, I. & Purves, A. C.(eds.)(1988), *Cultural literacy and the idea of general education*,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p.1-3.

### (1) 배경지식과 경험 지식

목표 문화의 배경지식은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구별하여 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인정받고 있는 대상이나 수준을 전제로 한 객관적 지식을 말한다. 객관적 지식이란 독립적인 하나의 실재(reality)와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의사소통 가능성을 보유하고 개인의 위치와 상황이 어디에 있든 개인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문화론적 측면에서 객관적 지식이란 정확한 사실들의 집합이 아니라 동일한 사실들을 선택할 경우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 수긍할 수 있는, 즉 상호 주관적인 것이며 사회적 맥락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다. 지식은 화제, 내용, 맥락, 관습 등에 대한 것으로 사실과 사실, 사실과 다른 지식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지식 구조 속에 무엇이 속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sup>74)</sup> 지식은 화제를 포함하지만 단순히 화제에 대한 사실들의 집합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한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제도나 규칙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문화적 문식력은 언어적 지식과 문화적 지식을 요구하는데 문화적 지식은 인간의 사유 속에서 구성되고 가치가 부여된 경험적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유형화시키기는 어렵다.<sup>75)</sup> 그러나 인간생활에서 대표적이고 중핵적인 요소들을 추출해낼 수는 있을 것이다. 언어적 지식은 문화적 지식과는 달리 체계화나 유형화가 가능한데 문화적 문식력에서 언어적 지식을 다룰 때는 그 범주를 제한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 문법, 담화, 문학 등 언어와 관련된 모든 영역 등을 포괄할 수는 없고, 비교 문화 및 문학과 관련이 깊은 문화 어휘, 속담, 고사성어(故事成語), 관용 표현 등으로 한정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

목표 문화의 배경지식과 더불어 문화적 문식력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것이 학습자의 개인적 지식이다. 개인적 지식은 학습자의 주체성과 창조성이 결합된 지식으로 학습자 개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획득된다. 일찍이 폴라니(Polanyi)는 개인의 지식은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부분보다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

74) Judith, A. L.(2011), *Envisioning Knowledge: Building Literacy in the Academic Discipline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p.1.

75) Jenks, C.(1993), *Culture*(in Key Ideas Series), 김윤용 옮김(1996), 『문화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71-74쪽.

더 많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지식은 엄격한 규칙과 측정으로 명료화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는 오직 인식 주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지식은 인식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학습자 내면에는 이미 지니고 있거나 기존 지식을 토대로 새롭게 구성하며 체계화시키는 암묵적 지식이 존재한다.<sup>76)</sup> 암묵적 지식은 학습자가 언어화된 지식을 배우는 동안 가지게 되는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나 흥미, 학문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 등을 포함하는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과 관련되며<sup>77)</sup> 직접적인 행위 또는 이해에 실천적으로 참여하고 반복 학습함으로써만 습득할 수 있다. 암묵적 지식은 외부 세계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배경지식(background knowledge) 또한 그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배경지식은 학습자가 기존에 지니고 있는 지식으로 본인의 자문화 및 목표 문화에 대한 사회·문화·역사 관련의 사전 지식(prior knowledge)과 세계 지식(world knowledge), 개인적 경험을 의미하며 스키마(schema)까지 포함한다.<sup>78)</sup>

76) 폴라니(Polanyi)는 지식의 개인적 특성과 보편적 내용을 강조하는 개인적 지식 또는 인격적 지식(personal knowledge)이라고 불리는 개념에 대해 상정하였다. 폴라니의 'personal knowledge'는 '개인적 지식'과 '인격적 지식'의 두 가지 번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좀 더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개인적 지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폴라니는 앎(knowing)이란 알려진 사물에 관한 능동적인 파악, 즉 기술(skill)을 요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외현화할 수는 없지만 이미 내재화되어 있어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암묵적 지식을 중시하였다. 암묵적 지식이란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Polanyi, M.(1958),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표재명·김봉미 역(2001), 『개인적 지식: 후기 비판적 철학을 향하여』, 아카넷.

77) 오우크쇼트(Oakeshott)는 지식을 기술적 지식(technical knowledge)과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으로 구분해서 논의했는데 기술적 지식은 규칙이나 명제처럼 언어화될 수 있는 지식으로 의도적으로 학습되고 기억되며 실제로 활용되는 지식이고 실천적 지식은 오직 사용될 때만 지식으로 언어화될 수 있으며 반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기술의 습득이나 전통적인 행위 방식 속에 존재하는 지식으로 전통적 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기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은 구별될 수는 있지만 불가분의 관계이다. Oakeshott, M.(1962), *Rationalism in Politics and other essays*, London: Methuen, pp.7-8.

78) 본고는 용어의 혼용이 있는 배경지식(background knowledge)과 스키마(schema)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스키마는 지식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구조를 말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언어의 이해 과정에 작용하는 전략적, 기술적 지식으로 보았고, 배경지식은 사회·문화에 대한 일반 지식,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 지식, 관용적인 언어의 사용에 관한 지식 등을

배경지식은 단순히 학습자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학습자의 여러 인지적·정서적 요인 또는 개인적 경험과 결합되어 대상 텍스트를 해석해 내는 기반이 되는데 문제는 배경지식은 가시적으로 구체화하여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sup>79)</sup>

한편 지금까지 외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온 상호 문화적 능력의 구성 요소로서의 지식은 자신의 나라 및 상대방 나라의 사회 집단, 산물, 관습, 사회적·개인적 상호 작용의 일반적인 과정에 관한 지식<sup>80)</sup>을 일컬어 왔는데, 여기에는 학습자 중심의 역동적이고 주체적인 지식 구성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라일(Ryle)의 주장처럼 ‘~인 것을 아는 것’에 해당하는 명제적 지식과 ‘~을 할 줄 아는 것’에 해당하는 방법적 지식이 있다고 할 때 문화적 문식력은 명제적 지식을 기반으로 방법적 지식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sup>81)</sup>

그런데 라일과 달리 폴라니(Polanyi)는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제적 지식은 본질적으로 방법적 지식의 형태를 띠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폴라니는 라일이 방법적 지식을 내세우면서 경험을 강조한 점은 인정했지만 방법적 지식과 명제적 지식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라일의 주장을 비판했다. 폴라니는 모든 지식은 명제화된 지식으로 제시되고 여기에는 암묵적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이 암묵적 차원까지 이해해야 지식이 온전히 기능이나 능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폴라니는 지식은 전통의 통제, 다른 말로 공동체에서 공유되고 있는 상호 지식(interpersonal knowledge)의 통제 아래서만 진보할 수 있다는 믿음과 경험에 의한 학습을 강조하였다. ‘상호 지식’과 ‘전통’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일반적

---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79) 독서 과정에서 투사되는 배경지식은 학습자들 특유의 사회 문화적 실천과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위치 지워진 의미(situated meaning)’로 이는 ‘스키마’ 개념이 사회 문화적으로 맥락화된 것으로 인식 주체가 특정의 상황 속에서 반복적인 실천과 경험에 일련의 패턴을 부여함으로써 얻은 것이다. 최인자(2008), 「문학 독서의 사회·문화적 모델과 ‘맥락’ 중심 문학교육의 원리」, 『문학교육학』 제25집, 한국문학교육학회, 431쪽.

80) Byram, M.(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Multilingual Matters, pp.57-73.

81) Ryle, G.(1949), *The concept of mind*, NY: Barnes & Noble, Inc.

으로 수용하고 진리라고 믿는 신념들로 보편적인 것이다.<sup>82)</sup> 폴라니의 입장에서 보면 지식의 형성은 정형화된 대상이나 타인의 지식을 수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교섭 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창출로 확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떤 대상으로부터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그 대상의 지식과 동일한 지식이 학습자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체적인 노력으로 지식을 형성하고 대상과의 교섭을 통해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지식이 구성되는 것이라면 이를 구성하는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식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자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하는 학습자의 구성 지식 또한 지식의 범주로 넣을 수 있을 것인데 구성 지식의 기반은 배경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지식 중 경험으로 얻은 지식을 상정할 수 있다. 경험을 범박하게 정의한다면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은 일을 말하고 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 개인의 가치관과 궁극적인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것으로 인간이 갖는 다양한 느낌과 감정, 정서 등을 모두 포함한다.<sup>83)</sup> 교육의 장(場)에서 학습자의 경험은 일반 개인의 경험과는 다른 특수한 지점이 존재하는데 그 경험은 단순히 신체적·물리적으로 겪는 일회적·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思考) 또는 지식과 관련되며 누적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지닌다.

듀이의 관점에서는 경험은 주체의 능동적 요소인 ‘해 보는 것’과 수동적 요소인 ‘당하는 것’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해 보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실험을 하는 것이고, ‘당하는 것’은 사물 사이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sup>84)</sup> 듀이의 이러한 관점을 자국 문화와 목표 문화 등 두 개 이

82) Brownhill, R. J.(1983), *Education and the Nature of Knowledge*, 김인용·김희용 공역 (2013), 『교육과 지식의 본질』, 교육과학사, 157쪽.

83) 후설 이후 독일에서는 경험과 체험을 구별해서 사용했으며 가다머는 절차나 결과의 반복 가능성에 바탕을 둔 과학적 의미의 경험과 부정적이고 변증법적으로 역사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의 경험으로 분류한 바 있다. 가다머는 학습 경험을 통해 기존의 견해는 근본적으로 변형되고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추체험하지 않고 부정하는 방식으로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Warnke, G.(1987), *Gadamer: Hermeneutics, Tradition and Reason*, 이한우 옮김(1999), 『가다머: 해석학, 전통 그리고 이성』, 민음사, 57-60쪽.

84) 경험은 일차적으로 능동과 수동의 관계이며 경험의 가치를 재는 척도는 경험에 들어 있는 관계성 또는 경험에 연결되는 계속성의 지각 여부에 있다. Dewy, J.(1916),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이홍우 역(1996), 『民主主義와 教育』, 교육과학사, 219-221쪽.

상의 문화를 접하게 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적용해 보면 자국 문화와 더불어 낮설고 새로운 목표 문화를 동시에 경험으로 체득하게 되는 외국인 학습자는 ‘해 보는 것’과 ‘당하는 것’의 경험의 폭이 모국어 학습자보다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 학습자에게 ‘해 보는 것’은 목표 문화의 화자보다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더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당하는 것’은 예상치 못하게 또는 본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 학습자의 경험은 모국어 학습자의 경험보다 유동적이고 오래 기억에 남는 경험 지식으로 형성될 확률이 높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은 인간의 지각을 통하여 생겨난 사실에 대한 상식적 지식이 축적된 결과로서 특수한 사례와 관련되며 과학적 지식과 대비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고, 칸트는 경험은 대상에 대한 감각적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 경험, 기억, 개념’의 세 가지로 보면서 사물에 대한 경험은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동일성을 가지는 어떤 사물을 특정한 사례로서 파악하는 지식으로 보는 등 경험을 특수한 사례와 지식과 관련해서 논의한 학자들도 다수 있다.<sup>85)</sup> 이러한 관점에서는 경험을 지식의 하위 범주로 둘 수 있다. 한편 경험은 일종의 의미화 과정으로 주체와 대상과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 과정이며 지식은 “인간의 합리적인 경험 양식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산물”<sup>86)</sup>로 경험을 외국인 학습자가 모국 문화와 목표 문화의 두 대상 간의 차이나 동질성에서 겪는 개인적이고 특별한 사건으로 본다면 경험을 지식과 구분할 수도 있다.

## (2) 가치와 가치 판단

가치를 보는 관점에는 가치 객관주의와 가치 상대주의가 있는데 학습자의 학습 대상이 되는 문화의 가치는 가치 객관주의에 근거한다.<sup>87)</sup> 객관적 가치의 현존은

85) Hamlyn, D. W.(1978), *Experience and the Growth of Understanding*, 이홍우 외 역 (1991), 『經驗과 理解의 成長』, 교육과학사, 39쪽, 119-120쪽.

86) 김호정·박재현·김은성·남가영(2007), 「문법 용어를 통한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 연구(Ⅰ): 음운」, 『국어교육학연구』 제28집, 국어교육학회, 276쪽.

87) 가치 상대주의와 가치 객관주의는 가치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므로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매개가 가능하다. 즉 가치는 절대성과 상대성을 동시에 가지며 실제 세

인간 주체의 행위를 통한 객관적 가치의 구체화와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sup>88)</sup> 또한 객관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자문화나 목표 문화의 가치는 관념적 존재 당위와 규범적 존재 당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자문화나 목표 문화의 가치 있는 사물이나 가치관들은 시대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존재를 지니며 개인의 가치 인식 작용이 변화함에도 가치는 그 변화와 무관한 나름의 자체적 존재를 갖는다. 이처럼 객관적 존재로서의 가치는 구체적 사물 속에 내재하며 인간 정신의 실현 목표인 진선미(眞善美) 등의 보편타당한 당위이기도 하다. 가치의 본질이 인간의 보편타당한 당위라면 가치는 현실에서의 실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므로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 자문화와 목표 문화의 가치는 평가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며 가치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가되는 것이다. 전통적 핵심 가치들은 사회 구성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의 기초가 되었고, 시대의 흐름에 도전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현대 사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요한 문화적 문식력의 구성 요소이다.<sup>89)</sup>

근대부터 가치는 형이상학적인 영역에서 인격적인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때 가치의 근원으로 정신적·도덕적 주체인 인간이 상정된다. 가치는 각 개인에게 개별화되고 의미화된 것으로서 의의를 지니는 것을 본질로 한다. 가치는 모든 관념(idea)처럼 경험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기준으로서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행동을 판단할 때 드러난다.<sup>90)</sup>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에서는 인간, 문화, 상황, 사건 등 특정한 대상에 대한

---

계가 아무리 변화해도 가치의 특성은 절대성과 초시간성을 담지한다. 조정옥(1999), 『감정과 에로스의 철학: 막스 쉐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27쪽, Hartmann, N. *Kleinere Schriften*, pp. 328-330, 재인용.

88) 이는 가치 객관주의의 문화 철학적 기초를 다진 콘(Cohn. J)의 추론이며 객관적 가치의 현존은 개인의 가치 태도와는 독립되어 성립한다. Hessen, J.(1959), *Lehrbuch der Philosophie, Zweiter Band: Wertlehre*, München-Basel: Ernst Reinhardt Verlag, 『가치론』, 진교훈 옮김(1992), 서광사, 51쪽.

89) Pai, Y.(1990), "Culture, Education, and Schooling", *Cultural Foundations of Education*,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pp.26-33.

90) Fraenkel, J. R., *How to Teach About Values*, 송용의 역(1996), 『가치 탐구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과학사, 18-19쪽.

평가를 ‘가치 판단(value judgment)’이라는 용어로 개념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의를 보면 이미 가치 판단의 주체를 인간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어 교육에서 가치를 주로 목표 문화의 어떤 대상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평가적 개념으로 보는 관점과 일치한다. 가치 판단을 할 때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인격적 개인에 의해 체험되고 있다는 것이 거듭 지적된다. 그러므로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특정 상황에 대한 개인의 가치 체험이다.<sup>91)</sup> 지성적·사변적 가치 인식은 정서적·직관적 가치 인식을 전제하며 가치 판단은 가치 체험에 기반을 둔다.

가치 판단은 가치 태도(value attitudes)를 포괄한다.<sup>92)</sup> 가치 태도는 목표 문화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목표 문화의 가치에 대한 자세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가치 판단은 가치 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외국어 교육에서는 태도를 목표어, 목표어의 사용 집단, 목표어의 가치와 문화 등에 대해 학습자가 취하는 정신적 자세로 간주하며 타인과의 접촉이나 상호 작용 경험 등으로 생겨난 신념, 느낌, 의도 등을 포함하여 정의한다.<sup>93)</sup> 즉 태도를 다른 문화와 다른 집단의 믿음과 가치에 대한 호기심과 개방적 자세로 본다. 이때 태도는 자문화(自文化)와 다른 문화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을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정의적·행동적 요인보다는 인지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가치 판단 및 평가와 관련된다.<sup>94)</sup> 제2언어 학습에서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설과

91) 가치 체험은 가치의 구체적 덕목을 지향해서 이를 체험하고 궁극적으로 ‘선한 삶(eudaimonia)’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Hessen, J.(1959), *Lehrbuch der Philosophie, Zweiter Band: Wertlehre*, München-Basel: Ernst Reinhardt Verlag, 진교훈 옮김(1992), 『가치론』, 서광사, 101쪽.

92)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치는 태도보다 폭이 넓고 수준이 높은 일반화된 개념인 반면에 구성 요소에서 보면 가치는 태도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주로 인지적 요소만으로 결정된다. 김성일, 『태도 변화의 원리에 의한 가치관 교육』, 황정규 편(2000), 『현대교육심리학의 전망』, 교육과학사, 388쪽.

93) Byram, M.(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Multilingual Matters, pp.57-73.

94) 올포트는 ‘정서, 인지, 행동’의 세 가지 요소가 태도를 구성한다고 보면서 ‘삼자 모형(the triadic model of attitude)’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태도가 인지에 의한 정서 형성 및 행동과 관련되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로젠버그(Rosenberg)와 호브랜드(Hovland)도 태도를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요소로 범주화하였고, 아젠과 피시베인(Ajzen & Fishbein)은 태도를 ‘어떤 심리적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 또는 호불호의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라고 정의했다.



한 가드너(Gardner)는 태도를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요소로 구분하고 인지적 요소는 개인의 가치 구조, 정의적 요소는 정서적 반응, 행동적 요소는 태도의 대상을 향해 행동하려는 경향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개인의 가치나 신념을 기반으로 지니게 되는 대상에 대한 평가를 태도라고 정의했는데<sup>95)</sup> 이는 가치와 태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외국어 학습자들은 문화적 문식력이 발달할수록 목표 문화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의 특정한 가치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목표 문화 또는 상대 문화에 대해 일방적이고 폐쇄적이 아닌 쌍방향적이고 개방적인 가치 태도를 지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자국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이들이 낯설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거기에 적응하기까지는 많은 갈등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과 충돌의 과정을 겪은 후 외국어 학습자들은 타문화에 대한 가치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학습자들이 타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소통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지평이 넓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 2. 고전 소설에 반영된 문화적 문식력의 구성 요소

### 2.1. 사회·문화적 배경지식

관습과 제도는 한 문화의 가시적·비가시적 문화적 산물을 통칭함은 물론 배경 지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목표 문화의 중요한 학습 대상이다. 관습은 어떤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면서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용되는 질서나 풍속, 관행, 규칙 등을 말하며 전통(傳統)의 하위 개념으로도 볼 수

---

Rosenberg, M. J. & Hovland, C. I.(1960),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attitudes", Rosenberg, M. J. & Hovland, C. I.(Ed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p.1-14.

95) Gardner, R. C.(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s and motivation*, Edward Arnold Ltd, pp.39-61.

있다. 제도는 관습이나 도덕, 법률 등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 체계를 말하며 관습보다 공식적인 성향이 있다. 어떤 한 사회나 문화의 관습과 제도는 그 사회 구성원의 일상생활 전반은 물론 탄생부터 죽음까지 개인의 삶 전체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즉 관습과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신념, 가치, 태도, 문화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전승되는 산물이다.

### (1) 전통 사회의 제도

고전 소설에는 사회 제도가 인물의 삶과 밀착되어 한국 전통 사회의 사고와 문화를 반영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특히 가족 제도와 신분 제도는 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 목표 문화의 사회 구조와 가치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즉 가족 제도와 신분 제도는 문화 구성원의 가치관과 행위, 사고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은 학습자가 목표 문화의 배경지식을 습득하는 기초적인 토대가 된다.

#### 1) 가부장제(家父長制)

한국의 가족 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가계(家系)의 계승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형적인 부계 가족, 부권 가족으로 성장·발전하였으며 부자 관계는 모자 관계, 부녀 관계, 형제 관계 등 모든 가족 관계의 근간이 되었다.<sup>96)</sup>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여권(女權)이 신장되어 가부장제(家父長制), 장자(長子) 상속, 호주 계승 문제가 전통 사회보다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

---

96) 전통적 가치관에 따르면 아버지(父)는 자식(子)을 출산한 생명의 은인이며 자식을 양육하고 교육한 교육자이며 자식이 성장하고 결혼하면 재산을 물려주어 생활의 기반을 닦게 해주는 은인이므로 전통 사회에서 아버지보다 더 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광규(1983), 「韓國의 家族制度」, 『한국문화인류학』 제15집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12쪽. 한국의 가족 제도는 유교 문화를 대표하는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 3국 중에서도 부계 혈연 의식이 가장 강하고 부계 혈연 집단이 잘 조직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18세기 이후에 한국 사회에 정착된 것이다. 이창기(2010), 「성리학의 도입과 한국가족제도의 변화-종법제도의 정착과 부계혈연집단의 조직화 과정」, 『민족문화논총』 제46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중심으로 가계(家系)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선 시대의 가족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조선 시대의 가족 제도는 부계 혈연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 가족주의를 근본으로 가장(家長)의 권리가 막대했는데 가장은 대외적으로 가족의 대표권을 지니면서 조상 제사의 사제, 가산의 관리, 가족의 부양, 분가 또는 입양, 자녀의 결혼, 교육, 징계 등을 포함하는 가사 전체에 해당하는 막강한 권리를 가졌다.<sup>97)</sup> 한국 가족 제도의 핵심인 가부장권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한국 문화의 단면을 고전 소설의 실체적 텍스트를 통해 이해시키는 일은 학습자에게 정보 차원과 다른 차원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학 작품을 통한 이해는 정보 차원에서 제시되는 지식과는 그 이해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심청전>의 심봉사와 심청의 부녀 관계, <춘향전>의 월매와 춘향의 모녀 관계, <홍부전>의 홍부와 놀부의 형제 관계는 당시의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족 관계는 아니다. 심청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자신의 앞가림도 힘든 맹인인 아버지를 힘겹게 봉양하는 처지였으며 춘향은 기생 출신의 어머니 밑에서 가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장하였다. 홍부는 부모님의 유산을 형인 놀부에게 모두 강탈당한 채 쫓겨나는 등 형제의 윤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처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품 속에서 가장(家長) 중심의 가족 제도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심청전>은 비교적 가족주의 가치관을 많이 담고 있으며 사건 전개 또한 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진다.

춘추시행 봉제사와 압 못보난 가장 공경 사절의복 조석찬수 입의 마진 가진 별미 비위 맞쳐 지성공경 시종이 여일하니 상하론 사름더리 곱씨부인 음전타고 총찬하더라 호로난 심봉사가 여보 마누리 (...) 일후부럼 날 공경 그만하고 사난 디로 사르가되 우리 년당 사십의 실하의 일점혈육 업서 조종희화를 일노 좇차 쓴케 되니 죽어 지하의 간들 무삼 면목으로 조상을 디면하며 우리 양주 신세 생각하면 초상 장사 소디기며 년년이 오난 기일의 밤 혼 그릇 물 혼 모금 게 뒤라서 맞들잇가<sup>98)</sup>

곱씨 부인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극히 했는데 이는 맹인이 된 심봉사를 대신

97) 신수진,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대 박사 학위 논문, 58-63쪽.

98) 「완판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212쪽.

하여 가계의 위신을 지키는 일이었고 가장(家長) 공경을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후사(後嗣)에 대한 걱정을 하였다. 꼭써 부인이 자식을 얻고자 하는 근본적 이유는 이들 부부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받드는 데 있다. 또한 가난은 당대의 문제이지만 자식이 없는 것은 여러 대에 걸친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통 사회에서 종적 혈연관계를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sup>99)</sup>

사또 말씀하시되 여바라 서울서 동부승지 과지가 너러왔다 나는 문부 사정하고  
갈 거시니 너는 너형을 빙헿헿야 명일노 썩나거라 (...) 사또 보시고 너 왜 우는니  
너가 남원을 일싱 살 줄노 알아썩야 너직으로 승차원이 섭섭니 싱각말고 금일부텀  
치형 등절을 금피 차려 명일 오전으로 썩나거라 게우 더담헿고 물너나와<sup>100)</sup>

<춘향전>에서는 이몽룡의 부친인 이부사의 가부장권이 행사되는 몇몇 대목을 볼 수 있다. 아들의 글공부와 양반 자제로서의 품위에 대해 신경 쓰는 모습과 동부승지로 임명되어 남원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몽룡에게 모친을 모시고 먼저 서울로 가라고 치행을 준비시키는 장면 등이 그러하다. 이몽룡은 춘향과의 이별이 안타깝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이를 통해 조선 시대 가족 내에서 행사된 가부장권의 힘을 엿볼 수 있다.

## 2) 신분제(身分制)

전통 사회에서 신분 제도는 가족 제도와 더불어 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근대 이전은 계급 사회로 신분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는데 한국의 전통 사회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소설에 반영된 전통 사회의 신분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부각되어 있으며 갈등 발생의 중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99) 장석규(1998), 『심청전의 구조와 의미』, 박이정, 221쪽.

100) 「완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330-331쪽.

<춘향전>에서 이몽룡은 단옷날 그네를 뛰는 춘향에게 반하여 춘향과의 만남을 시도하는데 직접 춘향을 찾아가지 않고 방자에게 춘향을 데려오라고 명령한다.<sup>101)</sup>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주종(主從)의 신분 관계를 엿볼 수 있고, 춘향이 이몽룡의 부름에도 바로 가지 않고 방자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는 남녀, 직업, 환경의 차이가 춘향의 행위를 제약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향은 본인의 신분을 미천한 관기(官妓)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반집 자체가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전의 말을 전하는 방자를 도리어 나무란다.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적 갈등은 이후의 사건 전개에서 더 심화되는데 이들은 태생적으로 신분이 다르고 이로 인해 인물의 내적 갈등,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간의 외적 갈등을 겪게 된다. 특히 기녀이면서 기녀가 아닌 춘향의 애매모호한 신분이 <춘향전>의 핵심적 갈등 요소로 부각된다. 조선 시대에는 종모법(從母法)에 따라 자녀의 신분은 모계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춘향은 태생부터 천민이라 할 수 있지만 월매의 부(富)로 인해 기적(妓籍)에서 빠질 수 있었고 양반가의 숙녀처럼 교육 받을 수 있었다.<sup>102)</sup>

이몽룡은 광한루에서 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하여 춘향과 백년가약을 맺기 위해 월매의 승낙을 받고자 하지만 월매는 신분상의 차이로 인해 훗날 춘향이 버려질까 걱정하여 춘향이 이몽룡과 맺어지기를 원하는 속마음을 짐짓 숨기며 이몽룡의 청을 거절한다.<sup>103)</sup> 그러면서도 월매는 춘향의 부계(父系)는 자신과 달리 양반 가

101) 도령 허허 웃고 방자를 불너 분부하되 들은즉 기성의 딸이란이 급히 가 불너올라 (...) 춘향이 대답하되 네 마리 당연하나 오나리 단오이리라 비단 나 뿐이라 다른 집 처자들도 예와 합기 추천하여쓰되 글엿썸 안이라 설혹 너 말을 할지라도 너가 조금 시사가 아니여든 여림 사람을 호리척거로 부를 이도 업고 부른디도 갈 이도 업다 당초의 네가 말을 잘못 들은 비라.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306-307쪽.

102) 조광국(2002), 「법제적 질서와 사회경제적 변화의 충돌 측면에서 본 『춘향전』」 <완판 84장본>의 작품적 가치, 『국어교육』 108호, 한국어교육학회, 446쪽.

103) 자학골 성참판 영감이 보후로 남원의 좌정하엿실 썩 소리기을 미로 보고 슈청을 들나 하옵기로 관장의 영을 못 이기여 모신 지 삼 삭만의 올라가신 후로 쫓박그 보티하야 나은 게 저거시라 (...) 질세의 소학일케 슈신제가 화순심을 난낫치 가라치니 씨가 잇난 자식이 라 만사를 달통이요 삼강형실 뉘라셔 너 딸리라 흐리요 가세가 부족하니 직상이 부당이요 사서인 상하불급 혼인이 느껴가미 주야로 걱정이나 도련임 말삼은 잠시 춘향과 빅연기약한 단 말삼이오나 그런 말삼 마르시고 노르시다 가옵소서.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

문임을 내세우고 춘향이 재상가와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출생 신분보다 가세의 빈약함 때문이라고 말한다. 결국 월매는 두 사람의 신분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몽룡이 춘향의 미래를 책임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말이 오간 후에 두 사람의 인연은 맺어지지만 그 인연은 이몽룡의 상경으로 이내 끊어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때 이몽룡이 불가항력으로 이별을 해야 한다고 하니 춘향은 자신의 천한 신분을 한탄하며 평생 해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몽룡을 원망한다.<sup>104)</sup> 춘향과 이몽룡 간의 신분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이다.

한편 이몽룡과 월매는 사위와 장모라는 관계 이전에 양반과 기생이라는 신분적 대립이 지배적인 관계로서 월매는 신분적인 열등의식에서 양반인 이몽룡을 경계하면서도 소원하게 대하지는 않는다.<sup>105)</sup> 월매가 춘향과 이몽룡과의 인연을 저어하면서도 이몽룡을 극진하게 대하는 것은 오랜 기생 생활에서 체화된 양반에 대한 상전 의식이 일정 정도 작용한 것이며 당시의 신분 제도, 즉 반상(班常)의 구별이 매우 엄격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춘향전>에서 진정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은 반상의 구별이 아니라 상반된 계층 출신인 이몽룡과 춘향의 두 남녀의 사랑을 통해 반상의 장벽을 해체시키고, 두 사람의 사랑의 복선으로 탈계층 사회로 통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sup>106)</sup>

조선 시대부터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일부일처제를 법으로 규정하였다. 처첩(妻妾)의 구별은 조선 전기부터 제도화되어서 처와 첩 사이의 위계를 설정한 여러 기준들이 법적으로 마련되었다. 일부 양반 계층이나 부를 축적한 중인 계층이 축첩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처(妻)와 첩(妾)의 사회적 신분과 위계가 뚜

---

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318-319쪽.

104) 님 신세야 모지도 모지도 도련임이 모지도다 독하도다 독하도다 서울 양반 독하도다 원수로다 원수로다 준비귀천 원수로다 천하의 다정한 게 부부정 유별권만 이렇듯 독한 양반이 세상의 또 잇슬가 익고 익고 님 이리야 여보 도련임 춘향 몸이 천타고 함부로 바리셔도 그만인 줄 아지 마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333쪽.

105) 황폐강, 「춘향전 연구-전달의 두 가지 측면」, 한국고소설연구회 편(1991), 『춘향전의 종합적 고찰』, 아세아문화사, 220-221쪽.

106) 설성경(1999), 「19세기형 개작장편 남원고사에 나타난 생활문화의 형상화」, 『한국고전소설의 본질』, 국학자료원, 252쪽.

렛이 구분되었다. 조선 시대 첩의 존재는 가족에 완전히 포섭되지도 못하고 완전히 배제될 수도 없는 모호한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첩은 단순히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선 시대 가족과 신분의 위계를 확고하게 만들고 작동시키는 매개로 작용하였다.<sup>107)</sup>

(...) 너가 올라 가드릭도 도련임 큰딴으로 가서 살 수 업슬 거시니 큰딴 각가이 조구만한 집 방이나 두엇 되면 족하오니 연탄흔여 사 두소서 우리 권구 가더릭도 공밥 먹지 아니할 터이니 그렇저럭 지닌다가 도련임 날만 밋고 장기 안이 갈 수 잇소 부귀 영총 지상가의 요조숙녀 가리여서 혼정신선 할지라도 아주 잇든 마옵소서 도련임 과거하야 벼살 늙파 외방 가면 실니마마 치힐할 제 마마로 님세우면 무삼 마리 되오릿가 그리 아라 조쳐호오 그제 일를 말인야 사정이 그러쳐로 네 말을 사또계난 못 엇쥬고 디부인전 엇자오니 꾸종이 디단하시면 양반의 자식이 부형자라 하히의 왔다 하방작첩하야 다려간단 마리 전정으도 고이하고 조정의 드리 벼살도 못한다던구나 불가불이벼리 딜 박그 수 업다<sup>108)</sup>

이몽룡이 서울로 떠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춘향이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춘향은 자신의 신분상 본처(本妻)가 되지 못하는 것은 감수하되 이몽룡과 가까이 거주하면서 평생을 함께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긴다. 춘향은 이몽룡과 정식 혼례가 어려운 현실을 자각하여 이몽룡이 양반가의 규수를 정실로 맞이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은 첩으로 살면서 훗날 이몽룡이 벼슬길에 나서 외지로 발령 받게 되면 따라갈 생각을 하고 있다. 반면 춘향의 이런 계획과는 달리 이몽룡은 양반의 자식으로 혼전에 첩을 두면 벼슬길도 어렵다고 말하면서 이별을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이몽룡이 춘향의 집에 방문하여 춘향에게 백년해로를 약속한 일과 춘향만을 정인(情人)으로 하겠다는 처음의 약속에 위배된다. 이때까지만 해도 춘향에 대한 이몽룡의 마음은 양반층 젊은 남아의 한때의 유흥이나 풍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며 춘향의 사랑처럼 견고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춘향이 신분 제도로 겪는 가장 큰 시련은 변학도의 수청 요구였는데 실제로 그의 수청 요구는 위법 행위였으며<sup>109)</sup> 춘향의 입장에서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

107) 정지영(2009), 「조선시대 첩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장치들-법전류의 첩 관련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108)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331-332쪽.

절하고 저항한 것은 윤리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으로도 근거가 있는 행위였다. 한편 변학도가 춘향에게 하는 말이나 행위는 춘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장이라는 위치에서 여러 아전들을 비롯한 하위 관리들, 서민, 천민을 대하는 높은 관직에 있는 고급 관리의 사회적·정치적 행위의 한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전통 사회의 신분 제도는 인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인물의 사고와 행위,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는 근원으로 작용하였다.

<홍부전>은 <춘향전>의 춘향과 이몽룡, 춘향과 변학도의 관계처럼 신분 제도로 인한 인물 간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등장인물의 신분이 갖는 사회·경제사적 의미가 작품 곳곳에 내재되어 있다.

다음은 놀부가 박을 타는 과정 중의 일부 대목으로 양반이 병졸(하인)을 데리고 나와 놀부를 꾸짖고 놀부를 혼내는 장면이다. 양반은 놀부에게 “상전을 모르고 거만하니 저런 놈을 스미로 쳐 독이리라.”, “네 이 문서를 보라 삼당이 우리 종이로다 오늘이야 너를 츠즈스니 네 속낭을 흐던지 년년이 공을 흐던지 작정하고 그러치 아니커든 너를 잡으다가 부리리라.”라고 권위적으로 말하면서 하인들을 수족처럼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 문서를 통해 양반과 천민 계층의 계약 관계와 속량(贖良)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선 시대 후기의 신분 제도와 그 신분 제도의 약화 현상도 엿볼 수 있다.

양반이 문부흐되 네 그놈의 디고리를 섹혀 밋궁게 박으라 네 드라느면 면홀가  
브람잡이라 흐늘노 오르며 두더뉘라 싹흐로들다 상전을 모르고 거만하니 저런  
놈을 스미로 쳐 독이리라 놀뵈 비는 말이 과연 물느스오니 심원님 덕문의 슬거지  
이다 양반이 하인을 불너 농을 열고 문서를 듀섬듀섬 닉여노코 흐는 말이 네 이  
문서를 보라 삼당이 우리 종이로다 오늘이야 너를 츠즈스니 네 속낭을 흐던지 년  
년이 공을 흐던지 작정하고 그러치 아니커든 너를 잡으다가 부리리라 놀뵈  
엇즈오되 소인이 과연 잔속을 물느스오니 속낭을 흘진디 언마느 흐리잇가 양반이 흐는 말이  
엇지 과히 흐라 오천냥만 맞치고 문서를 츠즈가라 흐거늘 놀뵈 즉시 고문을 열고  
오천냥을 닉어두니라<sup>110)</sup>

109) 조선 시대 기녀의 역할은 공식적으로 여악, 외국 사신 접대, 변방 군사 접대 등 세 가지에 한정되었으며 양반 관리가 기녀를 대동하고 연음(宴飲) 또는 기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금지되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처벌과 징계를 피하기 어려웠다. 조광국(2006),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44-45쪽.

110) 『경관 25장본 홍부전』,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2003),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29-30쪽.



이처럼 조선 후기의 신분 질서의 문제점은 놀부가 박 타는 장면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신분 제도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냉소적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가얏고쟁이, 노승, 팔도 무당, 등짐꾼, 팔도 소경 등은 놀이와 난장판으로 놀부의 돈을 빼앗아 가고 초라니, 사당거사, 왈자패들은 폭력으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해 간다. 놀부가 당하는 별은 현실에서 하층민이 양반에게 받는 수탈과 차별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흥부전>은 신분 질서 체계를 악용하여 노비나 천부를 억압하고 수탈하는 양반과 돈으로 매개되는 신분 질서의 문란함과 허상을 비판하고 있다.<sup>111)</sup>

## (2) 전통 사회의 관습

인간은 관습적 존재라고 할 만큼 한 문화 안에서 형성된 관습은 집단 구성원들의 체험과 신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지식과 보편적 가치의 지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sup>112)</sup> 이처럼 관습은 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특정 행위를 다른 문화의 행위들과 구분 지을 수 있으며 다수의 행위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sup>113)</sup>

111) 윤경희(1993), 「경관 25장본 『흥부전』 연구-작가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4집, 판소리학회, 84쪽.

112) 베네딕트(Benedict)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간은 관습적 존재라고 할 만큼 관습은 인간 행동의 집적이며, 한 개인이 개별적으로 이룰 수 있는 매우 위대한 행위이고, 인간은 본능이 아니라 관습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보아스(Boas)에 따르면 일정한 관습, 제도, 사고방식으로 조절된 눈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보며, 개인의 인생사는 무엇보다 그의 소속 공동체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패턴과 기준에 적응해 온 역사이다. 즉 관습의 법칙과 다양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 생활의 복잡하면서도 주된 양상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Benedict, R.(1960), "The science of custom", *Patterns of Culture*, Mentor Book, pp.17-18.

113) 최철병(1998), 「暗黙智-一個人과 司誨 속의 傳統的 實踐智」, 『神學展望』 제120집,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132쪽.

### 1) 관혼상제(冠婚喪祭)

국가나 문화권마다 한 인간의 출생, 성장, 결혼, 죽음에 따르는 통과 의례(通過儀禮)들이 있고, 이 의례들은 소속 사회 구성원들이 성취한 문화적 가치와 행위, 산물들을 종합적으로 보여 준다. 목표 문화의 전통을 이해하는 것은 그 문화가 형성된 근간을 이해하는 것이며 전통문화는 의례와 풍속 등을 통해 전승되고 있다. 의례는 한 사회의 문화적 규칙과 가치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例)로써 관혼상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관혼상제는 인간이 살면서 평생 동안 치루는 통과 의례의 대표적인 네 가지 예식으로 한 문화의 사회적 관습을 총망라해서 보여 준다. 관례(冠禮)는 남자가 성년에 이르면 어른이 된다는 의미로 상투를 틀고 갓을 쓰던 의례(儀禮)로서 유교에서는 원래 스무 살에 관례를 하고 그 후에 혼례를 하였으나 조혼(早婚)이 성행하자 관례와 혼례를 겸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전통 혼례 절차<sup>114)</sup>는 조금 복잡한 편으로 <심청전>의 혼례 장면을 보면 전통 혼례의 절차가 매우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심청전>에 제시된 혼례는 심청이 황후가 된 후 자녀들의 혼례, 즉 왕실의 혼례 절차를 따르므로 먼저 왕의 허락을 받는 일 등은 일반 민중의 혼례와는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오는 전통 혼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심청은 황제와 결혼하고 심봉사와 재회한 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자식의 혼례와 영달(榮達)에 관심을 가진다. <심청전>에 묘사된 혼례 절차를 보면 의혼, 택일, 혼례 잔치 준비, 혼례식, 첫날밤, 신행 인사 등 한국의 전통적 혼례 절차의 핵심 부분이 모두 나타나 있다.<sup>115)</sup>

---

114) 한국의 전통 혼례는 일반적으로 중매자가 혼사를 의논하는 의혼(議婚),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청혼서와 신랑의 사주(四柱)를 보내는 납채(納采),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납폐(納幣)와 전안(奠雁)할 날짜를 정해 택일단자(擇日單子)를 보내는 연길(涓吉),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납폐서와 혼수품을 보내는 납폐(納幣), 신랑 일행이 신부 집으로 가는 초행(初行), 신랑이 신부 집에 기러기를 바치는 전안(奠雁), 초례상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맞절을 하는 교배(交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나누는 합근(合巹),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하는 신방(新房),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가는 신행(新行), 신부가 시부모와 시댁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일명 ‘폐백’이라고 불리는 현구고례(見舅姑禮), 사당에 신부가 왔음을 고하는 묘현(廟見), 신랑과 신부가 신부 집에 인사를 가는 근친(覲親)으로 이루어진다.

115) 이적 황후 티자를 여히고져 호사 동월동일의 구싱간 혼사를 주달호신디 황제 짓거호사 광문호라 호신디 (...) 직시 티사관을 명호야 톱일호라 호신디 춘삼월 망일이라 국중의 티

양반가의 혼례는 일정한 격식 아래 이루어지는데 춘향과 이몽룡은 신분의 차이로 인해 공식적인 절차대로 혼인을 하지 못하고 혼례 술 몇 잔으로 혼인을 대신한다. 춘향과 이몽룡의 혼례는 전통 혼례나 친영례에서 벗어나서 혼례 문화를 약식으로 변형하여 보여 주고 있다.<sup>116)</sup> 혼인의 과정은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폐(納幣), 청기(請期), 혼례(婚禮), 친영(親迎)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춘향과 이몽룡은 서로 술잔을 나누는 합근(合巹)으로써 육례를 대신하고 있다. 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서양식의 예식을 치른 후 피로연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 술잔을 나누는 모습으로 변형되어 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한국의 결혼식은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이나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결혼 전 신랑 측에서 함을 준비해서 신부 집을 방문할 때 사주단자(四柱單子)나 예물을 보내는 등 전통적인 육례가 간소화된 형태로 여전히 전승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 의미에서의 합환주 예식은 오늘날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신랑과 신부가 하객들 앞에서 서로 팔을 엮갈려 낀 상태에서 와인을 마시거나 결혼식 후 폐백을 하는 절차 안에서 여전히 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사람의 일생이 끝나는 죽음과 관련된 상례(喪禮) 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념과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상례는 고인(故人)에 대한 애도와 함께 고인을 잘 보내고, 유족들이 고인에 대한 슬픔을 잘 갈무리하고 다시 정

---

경사라 길일이 당히미 덕연을 베킵설하고 (...) 두 신랑이 각기 전안 납폐한 후의 각기 처소로 좌정하니 동방화축 첫날밤의 원왕이 녹슈를 만난 듯 (...) 이적의 틱동이 쏘흔 연왕 부부게 뵈온디 연왕과 왕후 못니 반기며 기거히더라 직시 틱자를 연통히야 조희의 국궁히디 상이 질거히사 부원군을 입시히야 동좌의 신행인사를 바드시고 만조빅관을 조희 바드신 후 호교히사디 집이 진즉 틱동을 조정의 드리고져 히되 미장지전이라. 「완판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272-273쪽.

116) 한국의 전통적 혼인 형태는 크게 친영제(親迎制)와 술서혼속제(率壻婚俗制)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친영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혼례를 하고 혼인 초부터 신랑 집에서 생활하는 형태로 중국에서 행해지던 것이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술서혼속제는 처가에서 혼례식을 거행하고 그대로 처가에 살다가 자녀가 성장하면 본가로 돌아오는 것으로 고구려에서 시행되던 풍속이 조선까지 이어져 온 한민족 고유의 풍속이다. 조선 시대에는 이 두 혼인 형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했는데 주자학적 가부장제가 더욱 강화된 조선 후기부터는 친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문형진(2004), 「朝鮮初 婚俗 변천에 따른 법적 영향에 대하여」,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189-191쪽.

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며,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예식이다. 산 자가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방식은 문화권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문화가 관념과 행위의 발현임을 의미하며 비록 그 표현 방식이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상례의 목적과 기능은 비슷하다. 상례(喪禮)와 장례(葬禮)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이별 의식으로 일정한 절차와 격식이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상례와 장례를 아주 중요한 예법(禮法)과 예식(禮式)으로 여기고 있으며 각 절차마다 남다른 의미가 있다.<sup>117)</sup>

예를 들면 사흘 만에 출상을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보내는 산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며 상(喪)당한 집에 적합한 장례비 및 상복(喪服)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고, 친척 등 부음(訃音)을 듣고 올 문상객들을 고려해서이다. 장례 시 사흘째에 염을 하는 것은 자식의 입장에서 혹시나 아버지가 깨어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등의 애절한 마음을 배려함이다.<sup>118)</sup> 또한 한국인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상여에 앞서 죽은 자의 혼을 읊길 잉여를 준비했는데 오늘날에는 영정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심청전>에서 곽씨 부인의 죽음은 심봉사의 위로, 부인의 한탄과 유언, 심봉사가 곽씨 부인의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곽씨 부인의 장례는 이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초혼(招魂), 상여 치레, 상여소리, 상두군의 발이 붙는 삽화, 노승의 산소 자리 지시 삽화, 심봉사의 평토 축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한국의 장례 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평소 곽씨 부인의 음전한 행실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어 곽씨 부인의 초상(初喪)은 그저 심봉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 도화동 주민들이 함께하는 마을의 공동 일이 된다. 도화동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곽씨 부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은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 추렴하여 장례비를 공동 부담하는 행위로 실천되는데 이는 곽씨 부인이 살아생전에 심봉사에게 아내로서의 도리와 정성을 다한 것을 그 시대의 사회가 인정한 것을 뜻한다.

117) “凡治人之道 莫急於禮 禮有五經 莫重於祭 夫祭者非物之自外至者也 自中出生於心者也 心怵而奉之以禮 是故唯賢者能盡祭之義” 『예기(禮記)』, 권오돈 譯解(2011), 「祭統」, 홍신문화사, 485쪽.

118) “或問曰 死三日而后斂者何也 曰 孝子親死悲哀志慙 故匍匐而哭之 約將復生然 安可得奪而斂之也 故曰三日而后斂者以의 其生也 三日而不生 亦不生矣 孝子之心亦益衰矣 家室之計 衣服之具 亦可以成矣 親戚之遠者亦可以至矣 是故聖人爲之斷決以三日爲之禮制也” 『예기(禮記)』, 권오돈 譯解(2011), 「問喪」, 홍신문화사, 550쪽.

도화동 사름더리 남너노소 업시 묘와 낙누흐며 흐는 말리 현철흐든 곱씨부인 불  
 상이도 죽어구나 우리 동너 빅여 호라 심시일반으로 감장이나 흐여 주시 공논이  
 여출일구흐야 의금관곽 정이 흐야 횡양지지 가리여 삼 일반의 출상홀 제 히로가  
 실픈 소리 원어 원어 원얼리 넘차 원어 북망산이 머다더니 건넌산이 북망일세 원  
 어 원어 원얼리 넘차 원어 황천질리 머다더니 방문맞기 황천이라 원어 원어 불상  
 흐다 곱씨부인 행실도 음전흐고 재질도 기이더니 늑도 점도 안이흐여서 영결종천  
 흐여쭈나 원어 원어 원어리 넘차 원어 어화 너화 원어 이리저리 건네갈제 심봉사  
 거동 모소 어린 아히 강보의 씨인 척 귀덕어미 밋저두고 집광막디 훑터집고 논들  
 밧들 좇차와서 상여 뒤척 부어잡고 목은 쉬여 크게 우던 못흐고 여보 만누릭 내가  
 죽고 만누릭가 사려야 어린 자식 살여너제 천하천지 몸실 만누릭 그디 죽고 너가  
 살어 초칠 일 못다간 어린 자식 압 못보난 너가 엇지 키어닐고 익고익고 서러울  
 제 산척의 등도흐야 안장흐고 봉분을 다흔 후의 심봉사 제를 지느되 서툰 진정으  
 로 제문 지어 익던 거시엿다 (...) 서툰상 지상봉흐면 차심의난 혼이 업니 주과포  
 해박잔혜여 만이 먹고 도라가고 제문을 막 익더니 모들쓰기하여 익고익고 이게 웬  
 일인고 가오가오 날 바리고 가난 부인 혼탄흐여 무엇흐리 황천으로 가는 기리 각  
 점이 업스니 뉘집의 가자고 가오 가는 디 날 일너 주오 무수이 익통흐니 장사 회  
 깃더리 말여<sup>119)</sup>

곱씨 부인의 죽음 이후 마을 사람들은 초상 치를 의논을 너나없이 하여 수의  
 (壽衣)와 관(棺)을 마련하고, 양지바른 곳을 가려서 심봉사의 집에서 사흘 만에  
 출상을 하면서 구슬픈 해로가(薤露歌)를 부르며 곱씨 부인을 애도하였다. 수의는  
 염습할 때 송장에 입히는 옷으로 죽은 사람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는 것은 이승에  
 서의 죽음은 곧 저승에서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한국인의 속신  
 (俗信)과 결부되어 있다. 해로가는 상여가 나갈 때 부르는 소리로 사람의 목숨이  
 부추 위의 이슬과 같아서 쉽사리 말라 없어진다는 뜻의 가사와 구슬픈 곡조로 되  
 어 있고, 상여 소리는 장례 절차 중 중요한 부분으로 죽은 이의 가족에 대한 염  
 려, 가족의 망인(亡人)에 대한 슬픔, 인생의 무상함,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며,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된 민요의 하나이다.

한편 이본에 따라 상여꾼의 발이 붙는 삽화가 있는데 이는 죽은 자의 이승에  
 대한 미련, 특히 <심청전>에서는 눈먼 가장과 어린 자식을 두고 이승을 하직하  
 는 부인의 한(恨)을 의미한다. 주과포혜(酒果脯醢)는 술, 과일, 육포, 식혜를 일

119) 「완관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218-219쪽.

큰 말로 간략한 제물을 의미하는데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제사나 굿 등에 이 제물을 빠뜨리지 않았다.

심봉스 신 세 켜리 돈스돈 상머리에 언어돏코 인정 왕넌 부족흔느 이느마 바다들  
고 부딕 평안이 가오 초흔이느 불너쥬즌 광시 입던 적습 흔 손의 깃설잡고 머리 우  
의 빙빙 두루면서 유리국 도화동 거흔느 현풍광시 복복 세 번 부른 후이 췌쳐 언저  
돏코 못다 산 명복은 심청이게 어여쥬오<sup>120)</sup>

곽씨 부인의 죽음 직후 나타나는 초혼 장면은 완판본에는 없으나 안성본과 송동본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데 초혼(招魂)은 고복(梟復) 또는 복(復)이라고도 하며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 즉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혼을 부르는 의례로 죽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입던 옷을 가지고 지붕이나 마당에서 왼손으로는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 부분을 잡은 뒤 북쪽을 향하여 죽은 이가 살던 마을과 죽은 이의 이름에 복(復)자를 붙여 세 번 부른다. 이렇게 세 번 외치는 것은 예(禮)가 3에서 이루어지고, 이 소리를 들으면 인간 세상을 떠나던 영혼이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복이 끝나면 시신 위에 그 옷을 덮고 곡을 한다. 복(復)은 고인(故人)의 죽음을 확인하고, 집안에 초상이 났음을 주위에 알리는 기능과 의미가 있다.

심봉사는 “유리국 도화동에 사는 현풍 곽씨 복복복”이라고 세 번 부른 후 곽씨 부인이 못 다 산 명복(冥福)을 딸 심청에게 달라고 기원하는데 이는 비록 곽씨 부인은 죽었지만 사후 세계에서 딸 심청을 돌봐 줄 수 있다는 사후 세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곽씨 부인의 죽음 이후에도 심봉사는 매월 초하루 보름과 소상(小祥), 대상(大祥), 기제사(忌祭祀)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이는 제례가 한국인의 중요한 관습임을 알려준다.

## 2) 세시 풍속(歲時風俗)

각 국가나 민족마다 세시 풍속이 있으며 민중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를 계승해

120) 「안성판 2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187쪽.

오고 있다. 세시 풍속은 음력 정월부터 선달까지 해마다 같은 시기에 반복되어 이루어지는 의례를 말하며 대체로 농경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세시 풍속은 음력의 월별 24절기와 명절로 구분되어 있으며 관습과 절기에 따라 전승되는 의식, 의례 행사, 놀이를 포함하며 설날, 단오, 추석은 한국의 3대 명절이고 조선 시대에는 한식과 동지를 더하여 5대 명절로 여겼다.

고전 소설을 잘 살펴보면 세시 풍속을 배경이나 사건으로 서술한 예가 있는데 <춘향전>의 시간적 배경인 단오가 그러하다. <춘향전>은 이몽룡이 단오에 그네를 타는 춘향을 보고 반하는 데서 중심 사건이 시작되고 단옷날 여인들이 놀이하는 풍경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잇썩은 삼월이라 일너스되 오월 단오일리엇다 천중지가절이라 잇썩 월미 쌀 춘향이도 쏜한 시서음물이 능통하니 천중절을 물을소나 추천을 흐랴 흐고 상단이 압세우고 내려올 제 (...) 무성한 버들 빅척장고 늪피 밋고 추천을 하려 할 제 슈화유문 초록장옷 남방사 훗단초미 (...) 연숙마 추천줄을 섬섬옥슈 넉짓 드리 양슈의 갈나잡고 빅능보선 두 발길노 섬적 올라 발구를 제 세류갓튼 고훈 몸을 단정이 눈이난의 뒤단장 옥비녀 은죽절과 압치레 불작시면 밀화장도 옥장도며 광원사 겹저고리 제식고름의 티가 난다 상단아 미리라<sup>121)</sup>

단옷날에 춘향은 몸종인 향단을 앞세워 그네를 뛰는데 그넷줄을 손으로 어떻게 잡고 그네 발판을 발로 어떻게 구르는지 등 그네를 뛰는 장면이 매우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또한 춘향은 의복과 장신구를 잘 갖추고 그네를 뛰는데 이는 단오빔으로 잘 차려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오는 설날과 마찬가지로 큰 명절이어서 당시 부녀자들은 설빔처럼 단오빔으로 단장을 했는데 계절에 적절하게 갑사(甲紗)와 같은 얇은 비단을 입었다. 단오빔은 봄옷에서 여름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으며 단오장(端午粧)으로 함께 치장하였다.

한편 음양 사상에서는 홀수를 양(陽)의 수라 하고 짝수를 음(陰)의 수라 하여 양의 수를 길한 수로 여겼는데 단오는 양의 수가 겹치는 날로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 즉 ‘천중지가절(天中之佳節)’, 즉 ‘좋은 시절, 좋은 명절’이라고 불리어졌다. 단오에 부녀자들은 그네를 뛰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남자들은 씨

121)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304-305쪽.

름을 하고, 여름의 더위를 대비하여 왕은 단오 부채를 신하들에게 나눠 주던 풍습이 있었다.

<심청전>에는 단오와 칠월 칠석에 대한 세시 풍속이 언급되어 있다. 심청이 심봉사의 개안을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 전에 집을 떠나면서 동무들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이다.

아모기네집 큰아가 상침질 수숫키를 누와 흙귀하라는야 작연 오월 단오일의 추  
천고고서 노던 일을 네가 형여 십각난야 아모기네 집 자근 아가 금연 칠월 칠석야  
의 흙기 절교하자더니 이제는 허사로다<sup>122)</sup>

심청은 동네 친구들과 단오에는 그네를 탔고, 칠월 칠석(七夕)에는 절교(乞巧)를 하기로 약속했던 기억을 더듬는다. 절교는 칠월 칠석날 밤에 부녀자들이 달빛 아래서 견우와 직녀 두 별에게 바느질과 길쌈을 잘하게 해 달라고 빌면서 바늘귀에 실을 꿰는 재주를 겨루는 놀이로 한국의 전통적인 세시 풍속에 해당된다.

<홍부전>에는 그네뛰기나 절교와 같은 세시 풍속은 나타나지 않지만 홍부가 품을 파는 장면과 박을 따는 장면에 시간적 배경으로 입하(立夏)와 한로(寒露)가 설정되어 있다.<sup>123)</sup> 홍부는 정이월에는 가래질을 하고 이삼월에는 농사를 짓고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 이전에 목화를 가는 등 계절별로 다양한 종류의 품을 파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절기와 관련된다.

### 3) 민간 신앙(民間信仰)

한국인은 유교와 불교 사상에 기반한 철학적 종교뿐만 아니라 민간 신앙에 많

122) 『완관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237-238쪽.

123) 홍부는 정이월의 가리질하기 이삼월의 부침하기 일등전답 못논 갈기 입하전의 면화 갈기 (...) 홍부가 반기녀겨 문즈로써 말하되 녹월의 화락하니 칠월의 성실이라 디즈는 여향하고 소즈는 여분이라 엇지 아니 조홀소냐 여복소 비단이 혼 끼라 하니 혼 통을 썩서 속으란 지져 먹고 박오지는 파라 쓸틀 팔아다가 밥을 지어 먹어복식 홍부 안 히 하는 말이 그 박이 유명하니 한노를 아조 맞쳐 견실커든 썩복식. 『경관 25장본 홍부전』,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2003),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16, 20쪽.



이 의지하며 생활해 오고 있다. 민간 신앙은 비록 종교적 체계는 갖추지 못했지만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토착화되어 전승되고 있다. 민간 신앙의 범주는 ‘신화의례·주술·제사·행사·마을 신앙·가정 신앙·세시 풍속·통과의례·장제(葬祭)·점복(占卜)·금기(禁忌)·풍수(風水)·무속(巫俗)·조상숭배(祖上崇拜)·동제(洞祭)’ 등 매우 광범위한데 본고에서는 이 중 <심청전>·<춘향전>·<흥부전>에 주로 반영되어 있는 출산 의례, 고사(告祀), 점복, 금기, 풍수 등에 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신앙으로는 ‘기자 치성(祈子致誠)’을 들 수 있는데 기자 치성은 아기가 없는 부부가 태아를 갖기 위해 신에게 기원하는 것으로 한국 전통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식이다. 예로부터 기자 의례는 한국 전통 사회의 가치관과 신앙 체계에 의해 기자 속신이 다양하게 발생되어 형성된 것으로 <심청전>에는 산천제, 불공, 가내치성 등 치성 기자의 네 가지 방법 중 무공을 제외한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동원되었다.<sup>124)</sup>

명산디찰의 신공이나 되려보와 다행이 눈 먼 자식이라도 남녀간의 나어보면 평  
싱흔을 풀거스니 지성으로 빌려 보오 곱씨 되답흔되 옛글의 이르기를 불효삼천의  
무후위되라 헛여쓰니 우리 무자흠은 다 첩의 죄악이라 응당 너침직흔되 근자의 너  
부신 덕택으로 지금까지 보존흔니 자식 두고 시픈 마음이야 주야 간절흔와 몸을  
팔고 뼈를 간들 못헛오릿가만은 형세는 간구흔고 가군의 정되흔신 성정을 몰나 발  
설 못헛엇더니 몬져 말습흔옵시니 지성신공 헛오리다 헛고 품 파라 모든 죄물 원  
갓 공 다 들인다 명산디찰 명신당과 고외층사 성황사며 제불모살 미력임과 칠성불  
공 나흔불공 제석불공 신중마지 노구마지 탁의시주 인등시주 창오시주 갓갓지로  
다 지닝고 집의 드리 잇난 날은 조왕성주 지신제를 극진이 공 드리니 공든 탐이  
무너지며 심든 남기 썩거질가<sup>125)</sup>

곱씨 부인은 덕행, 아름다움, 학식 등 반가(班家) 부인들의 갖추어야 할 덕목 뿐만 아니라 삶바느질, 제복 짓기, 장례 음식 장만 등 일반 여염집 아낙네들의 살림 솜씨까지 두루 갖춘 훌륭한 재원(才媛)이었으나 단 하나 흠이 있었는데 오

124) 오출세(1990), 「고전 소설의 출생의례 考」, 『韓國文學研究』 제1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25) 「완관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212-213쪽.

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한 것이었다. 꼭씨 부인은 자식을 못 낳는 일이 가장 큰 불효이며 죄악이라 하며 품을 팔아 모은 재물로 명산대찰(名山大刹)과 오래된 사당(祠堂), 성황당을 찾아다니며 성심으로 공을 들였다. 이때 기복을 구하는 신은 유일신(唯一神)이 아니라 부처, 보살, 미륵, 조왕(竈王), 성주 등 산천 신앙, 불교와 민간 무속 신앙 등 다양한 신들을 아우른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이다.<sup>126)</sup> 즉 꼭씨 부인은 밖으로는 산과 대천을 두루 다니며 여러 신에게 지성을 드리고 집안에서는 부역을 맡아 길흉을 판단하는 조왕신에게 공을 들이는 등 한순간도 쉼 없이 회임(懷妊)을 간구한다.

<춘향전>의 월매 또한 민간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이며 계룡산, 지리산, 선운사 등 명산 승지를 찾아다니며 기자 지성을 드린 후에 춘향을 얻게 된다.<sup>127)</sup> 월매도 꼭씨 부인처럼 후사(後事)와 조상 숭배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이를 통해 한국 전통 사회에서 혈연과 사후 세계를 매우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심봉사는 심청을 얻고 바로 삼신 축원을 올리는데 이는 삼신(三神) 또는 산신(産神)이라 불리는 기자(祈子)의 대상이면서 산모와 갓난아이의 건강을 관장하는 신에게 축원하는 것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바로 삼신에게 제의를 올려 아기와 산모의 안전과 건강을 비는 것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민간 신앙이다. 이처럼 심청의 출생 부분은 꼭씨 부인이 눈 먼 지아비인 심봉사를 지성으로 봉양하면서 회임을 위해 지성을 드리는 장면에서 시작해서 전통적인 태교의 방법부터 삼신

126) ‘하느님’께만 비는 이본이 심맹인 계열의 5종을 포함하여 10종의 이본에서 나타나며, 하느님과 다른 신 즉, 삼심삼천, 이십팔수, 제왕님, 일월성신, 명산대천 사해용왕, 미륵님, 남두칠성, 북두칠성, 동두칠성, 서두칠성, 화덕진군 등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24종의 이본이며 나머지에서도 무가계 신(神)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김영수 (2000), 『筆寫本 沈淸傳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77쪽.

127) 기자지성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성 참판과 달리 월매는 고인(古人)들의 예를 들어가며 민간 신앙에 의지하고자 하였다. 명산대찰의 신고이나 호야 남녀간 낯커드면 평성 한을 풀 거시니 가군의 뜻시 엇더호오 성참판 하는 마리 일칭 신세 칭각호면 자니 마리 당연호나 비러서 자식을 나홀진디 무자한 사람이 잇슬이요 호니 (...) 이 날부터 목욕치계 정이 호고 명산승지 차저갈 제 오적괴 썩 나서서 좌우산천 둘러보니 서북의 계룡산은 술히 방을 마거 잇고 동으로난 장임습풀 김푼 고디 선원사는 은은이 보이고 남으로난 지리산이 웅장한디 그 가운데 요천슈난 일터장강 벽파되야 동남으로 둘러스니 별류건곤 여기로다 청임을 더우잡고 산슈를 발바 드러가니 지리산이 여기로다 반야봉 올라서서 사면을 둘러보니 명산대천 완연호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 (1997),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299-300쪽.

(三神) 등 민간 신앙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명현(名賢)을 자식으로 얻고자 일월성신(日月星辰), 명산대천(名山大川),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기도를 하였는데 이들의 신력(神力)이 꿈으로 계시되어 나타나는 것이 태몽이다.

태몽은 전통적인 출산 의례<sup>128)</sup>의 하나로 태교(胎敎) 및 돌과 더불어 한국 전통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까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풍습의 하나이다. 한국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교육(敎育)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은 편이고, 대다수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은 모태(母胎)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으며, 아이를 가질 때 꾸는 태몽에 큰 의미를 둔다.

월매와 곽씨 부인은 귀한 딸을 얻는 전형적인 선녀 적강(謫降)형의 태몽<sup>129)</sup>을 꾸며 태몽을 꾸 낳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월매는 하늘의 선녀가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어 속세에 내쳐진 다음 지리산 신령의 지시로 자신에게 오는 꿈을 꾸었는데 태몽을 꾸 낳은 특별히 5월 5일 갑자일로 이는 훗날 춘향과 이몽룡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단옷날이기도 하다. 곽씨 부인은 서왕모(西王母)의 딸이 품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으며 이 날은 사월 초파일로 불교와 관련이 깊다.<sup>130)</sup> 음력

128) 전통적인 출산 의례는 한 생명의 수태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태몽, 태교, 출산과 금기, 백일, 돌, 세 돌이 포함된다. 이향만(2013), 『출산 의례와 생명의식』, 『생명연구』 제29집,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원.

129) 심청의 전신(前身)이 제시되지 않다가 천상적 질서의 강조를 위해 학이나 용과 같은 상징화된 천상적 존재가 수용되었으며, 이후에 선녀, 옥경선녀, 태을선관의 딸을 거쳐 완판본에 즈음하여 서왕모의 딸로 귀착되었다. 적강화소의 수용은 조선 후기 소설의 문학적 관습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심청전>에 수용됨으로써 심청의 절대적 효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의 신분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영수(2000), 『筆寫本 沈淸傳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93쪽.

130) 잊적는 오월 오일 갑자라 한 꿈을 어드니 서기 반공하고 오치 영농하더니 일위선녀 청학을 타고 오난디 머리에 화관이요 몸의난 치의로다 월픽 소리 정정하고 손으난 계화 일지를 들고 당의 오르며 거슈장음하고 공슌이 엿자오티 낙포의 팔일넌니 (...),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300쪽, 갑자 사월 초파일의 혼 꿈을 어드니 서기 반공하고 오치 영농하더니 일기 선녀 학을 타고 훗날도 나려오니 몸의난 치의요 머리난 화관이라 (...) 선녀 훗날 말리 서왕모 팔이읍더니 (...) 상제께 득죄하야 인간의 넉치시미 갈 바를 몰나더니 티형산 늪과 후토부인 제불보살 서가여티님이 귀 덕으로 지시하옵기 여 왓사오니 어엽비 여기읍소서 품안의 들미. 『완판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213쪽.

4월 8일은 석가모니의 탄생일로 심청은 출생부터 불교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심청이 심봉사의 개안(開眼)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한 일, 인당수에 몸을 던진 후 다시 연꽃과 함께 환생(還生)한 일 등 <심청전>의 중심 사건들은 모두 불자(佛者)의 행위나 불교 사상과 관련이 있다.

태몽과 더불어 중시된 태교의 근본정신은 한 인격체의 정진(精進)과 완성을 위해 어머니 뱃속의 태아 때부터 좋은 교육을 한다는 데 있다. 생후 1년이 되어야 한 살로 여기는 서양과는 달리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는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바로 태아 때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전통 태교에서 가장 중요시된 것은 임부(妊婦)의 마음가짐과 언행으로 모태와 태아는 몸과 마음이 하나로 단단히 묶여 칠정(七情)을 함께 느낀다고 여겼는데 수정(授精)부터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하는 생명 존중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심청전>에서는 꼭써 부인이 심청을 임신한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십 후의 점지흔 자식 혼두 달의 이실 밋저 석 달의 피 어리여 닉 달의 인형  
삼기여 다섯 달의 외포 삼겨 여섯 달의 육정 나고 일곱 달의 골격 삼겨 사만팔천  
털이 나고 야담 달의 찬 짐 바다 금광문 희탈문 고히 여러 순산호오니 삼신임님  
덕이 안이신가”<sup>131)</sup>

이처럼 수정란이 착상되는 순간부터 임신 8주 이전, 즉 태아가 되기 이전인 배아(胚芽) 상태인 한두 달부터 거의 사람의 형태를 갖춘 다섯 달을 지나 여덟 달을 딱 채워 갓난아이가 출생하는 모습을 임신의 각 단계마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 의학 상식과도 거의 일치한다. 임신부(妊産婦)가 아이를 가졌을 때 행위 금기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坐不邊 立不口, 席不正不坐, 割不正不食, 耳不聽淫聲, 目不視惡色’으로 앉고 보고 듣는 데 좋은 것만을 가려서 행하는 태도로 이는 오늘날까지도 잘 지켜지는 금기이기도 하다.

한국인의 민간 신앙 중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고사(告祀)인데 고사는 액운(厄運)이 사라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신(神)에게 음식을 차려 놓고 비는 제사로 이어나 사업의 시작, 그밖에 특별히 기원할 일들이 있으면 지

131) 「완관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214쪽.

낸다. <심청전>에서 뱃사람들이 심청의 몸을 산 것은 중국과의 무역으로 바닷길을 오고가는 데 풍랑으로 인해 배가 좌초되는 것을 막고 무사히 교역을 성사시키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sup>132)</sup>

한국 전통 사회에서는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무속 신앙이나 점복(占卜)에 많이 의지하였으며 이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sup>133)</sup> 꼭써 부인이나 월매가 자식을 얻기 위해 비는 모습이나 옥에 갇혀 이몽룡을 그리워하던 춘향이 본인의 꿈을 기이하게 여겨 봉사를 불러 앞날에 대해 점을 치는 장면 등을 보면 한국인의 일상과 민간 신앙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 있다. 민간 신앙은 인간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관련된다.<sup>134)</sup> 즉 민간 신앙에는 민중들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홍부전>을 살펴보면 현실의 복은 초월적 존재로부터 온다고 믿고 있으며 묘를 잘 쓴다거나 집터를 명당으로 잡는 등 풍수지리(風水地理)를 통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당시의 사고를 엿볼 수 있다.<sup>135)</sup> 홍부의 아내는 열심히 노동

132) 사면은 어둡 정그러져 천지 적막하야 간치너 세오난디 비전의 탕탕 돛되도 와직근 경각의 위턱하니 도사공 영좌이호로 황황디겁하야 혼불부신희며 고사기계를 차릴 적의 섬쌀노밥을 짓고 동우술의 큰소 잡아 윈소다리 윈소머리 사지를 갈너 올려노코 큰 돛 잡어 통치살며 큰 칼 쏘자 기난다시 밧치 노코 삼식실과며 오식탕슈와 어동육서며 좌포우해와 홍동빅서를 방위 차려 고야노코. 『완판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242쪽.

133) 신라 시대에는 점복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관상감(觀象監), 고려 시대에는 태복감(太卜監), 조선 시대에는 서운관(書雲觀) 등이 있었다. 고구려 유리왕 때 왕이 병들자 무당인 무당에게 점을 치게 하였더니 신하를 억울하게 죽인 탓이라는 점괘가 나와 억울한 원혼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서 왕의 병이 나았다(九月 王疾病 巫曰 託利斯卑爲祟 王使謝之 卽愈)는 기록이 있다. 김부식, 『三國史記』, 신호열 역해(2013), 동서문화사, 299쪽.

134) 한국 민간 신앙에는 우주와 인생은 초인간적 힘에 의해 유지되고 움직인다는 우주관(cosmology), 여러 신들의 도움으로 가족이 평안할 수 있다는 인간관(anthropology), 초인간적 힘에 의해 우주와 인생의 명운이 결정된다는 구원관(soteriology) 등이 내재되어 있다. 박일영(1994), 「민간 신앙을 통해서 본 한국인의 종교성」, 『연구논문집』 제49집 1권,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19-20쪽.

135) 한 썩도 슈지 안코 밤낫스로 버을어도 장 굶난구나 홍부딕이 할 슈 업서 죽기로 쯔쳐호고 복 못탄 신세 쯔탄 진향쥬로 설이 올 제 맞잇난 스람덜언 귀의셔도 눈물 난다 익고 익고 설운지고 복이라 호난 거시 엇지호면 잘 탕난고 복두칠성임이 마련을 호시난가 제왕 습신임이 점지를 호시난가 싱연 싱월 싱일 심시 팔즈의 락엇난가 (...) 무지호 쥬의 말을 만

을 해도 입에 풀칠도 어려운 현실을 한탄하면서 복의 소종래(所從來)에 대해 노래한다. 흥부 아내는 인간에게 복을 내리는 것은 복두칠성, 제왕 산신, 사주팔자(四柱八字)라고 믿고 있는데 복두칠성과 제왕 산신이 복을 내린다는 것은 복(福) 내림에 초월적 세계가 관여한다는 것이고 복이 사주팔자에 따른다는 것은 복 내림에 어떤 운명적인 힘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sup>136)</sup> 또한 탁발을 하는 중이 오히려 흥부네의 가난함을 가련히 여겨 이후의 복을 구할 수 있도록 명당을 집터로 잡아 주기도 한다. 이는 민간 신앙은 현실과 초현실, 인간 세계와 자연 간의 조화 또는 상관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3) 전통 사회의 언어·문화

#### 1) 언어 예절

고전 소설 속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언어 예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언어 예절은 언행(言行)이라는 말이 있듯이 행동 예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실행의 측면에서 다소 달라진 면도 있지만 본질적 가치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의 전통적 언어 예절은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정립되었으며 화자와 청자의 위계질서를 존중하고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격식을 중시하며 공손한 태도를 수반한다.<sup>137)</sup> 한국의 언어 예절은 크게 상하(上下) 관계와 친소(親疏) 관계로 나누

---

일 듯고 미들터면 집터 흥나 가피치게 쇼승 뒤를 팔의시오 흥보 덕히하여 천번 만번 치흥  
 흥며 드스 뒤를 팔아가니 빈손임유 기국흥고 무름 슈죽 둘은 고덕 집터를 지혈할 제 명당  
 슈법 완연하다 감계룡 간좌곤향 탐낭득 거문파며 반월형 일죽안의 문필봉 충고스가 좌우의  
 누파시니 이 터의 집을 짓고 안빈흥고 지니오면 가세가 속발하여 도주 의돈 비길 테요  
 손이 영귀하여 만세 유전흥오리다. 「신재효본 <박타령> (가람본)」, 김진영·김현주·차충환·  
 김동진·박현주 편저(2003), 『흥부전 전집』 2, 박이정, 87-89쪽.

136) 김진영(2001), 「<흥부전>의 人物形象」, 『인문학연구』 제5집,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17쪽.

137) 이석주(2009), 「한국 전통 사회와 언어예절」, 『화법연구』 제14집, 한국화법학회, 12쪽.  
 또한 김종택은 논어(論語)·예기(禮記) 등의 유교 경전(經典)과 소학(小學)·격몽요결(擊蒙要訣) 등의 수신 교양서, 퇴계집·율곡집 등의 언행록 등을 바탕으로 전통적 언어관으로 침묵

어 살펴볼 수 있으며 관계에 따라 언행이 달라진다. 화자와 청자의 위계질서를 고려한 가장 대표적인 언어 예절은 대우 표현으로 상대방을 높여 상대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존대법과 자신을 낮추어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겸양법이 있으며 문법 형태소,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휘, 구절과 문장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다음은 춘향의 어미인 월매와 이몽룡이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의 일부로 존대법이 잘 표현되어 있다. 월매는 신분이 미천한 이유로 자기보다 훨씬 어린 이몽룡에게 “도련임 문안이 엇더호요?”, “예 계우 지늬옵니다. 오실 줄 진정 몰나 영접이 불민하온이다.”, “말삼은 황송하오나”라고 존대하면서 이몽룡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몽룡을 맞이하면서 언어뿐만 아니라 공수(空首)를 하는 등 최대한 예를 갖추어 대한다. 반면 이몽룡은 월매에게 “춘향의 모이라제 평안한가.”, “글썽이가 있나.”라고 반말을 하며 매우 편하게 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월매와 이몽룡 간에는 상하 관계에 의한 언어 예절이 지켜지고 있다.

춘향의 모가 나오더니 공썬하고 웃득 서며 그 식의 도련임 문안이 엇더호요 도련임 반만 웃고 춘향의 모이라제 평안한가 예 계우 지늬옵니다 오실 줄 진정 몰나 영접이 불민하온이다 글썽 이가 있나 (...) 오늘 밤의 오난 쫓션 춘향어모 보려 왔건이와 자늬 쌀 춘향과 빅연언약을 밋고자 하니 자늬의 마음이 엇더한가 춘향어모 엇자오되 말삼은 황송하오나 드려보오<sup>138)</sup>

월매가 대화 상대인 이몽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언어 예절을 지켰다면 심청은 심봉사, 장승상 부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방법으로 대화를 해 나갔다. 예를 들면 심청은 심봉사나 장승상 부인 앞에서 일인칭 겸양 대명사인 ‘저’로 자신을 지칭하였으며 ‘미천흔’, ‘황송’ 등의 존비(尊卑) 표현 어휘 등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였다. 겸양 표현은 타인을 배려 또는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沈黙) 또는 과묵(寡默)의 지향, 언행일치(言行一致)와 신의(信義)의 지향, 언어는 인격의 척도임을 들었으며 언어 예절은 말소리와 표정을 온화하고 부드럽게 하고 말은 천천히 하며 남의 말을 엿듣지 말고 가로채지도 말며 말재주를 피우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지나간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종택(1987), 「한국인의 전통적인 언어예절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19집, 국어교육학회, 4-20쪽.

138) 「완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316, 318쪽.

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려는 한국인의 언어 예절과 관련이 있다. 또한 심청은 심봉사나 장승상 부인과 대화할 때 절을 한다거나 말소리를 부드럽게 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공손한 태도를 가졌다.

심소제 일어 직비히고 옛자오디 (...) 너의 부모 생각하야 남의 부모도 공경터니  
 오늘 승상부인게옵서 권하신 쓰시 미천한 줄 혜지 안코 쌀을 삼으로 하시니 이친  
 을 모친을 다시 뵈온 듯 황송 감격하와 마음을 둘 고지 전이 업서 부인의 말삼을  
 좇자하면 몸은 영귀하오나 안흔하신 우리 부친 조석공양과 사절의복 너라서 이우  
 릇가<sup>139)</sup>

친소 관계에 따른 언어 예절은 상하 관계에 따른 언어 예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보다 훨씬 맥락 의존적이고 가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 대화 상대방들이 상하 또는 주종 관계라고 할지라도 정서적 친밀감이 가까우면 격식체가 아닌 비격식체로도 대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몽룡과 춘향, 이몽룡과 방자의 관계가 그러하다.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났을 때는 춘향은 이몽룡에게 존대하고 이몽룡은 춘향에게 말을 낮추는 등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언어 예절을 지켰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종종 편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둘이 사랑을 나누는 대목, 즉 <사랑가> 장면에서는 서로 격의 없이 반말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이몽룡과 방자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명확한 사이지만 이몽룡과 방자는 보편적인 주인과 하인의 관계와 달리 정서적으로 친밀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방자와 이몽룡은 농담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의 언어 예절은 상하 관계의 위계 질서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친소 관계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 2) 관용적 표현

어떤 언어든지 고유의 관습화된 양식의 표현이 있는데 이를 관용적 표현이라고 한다. 관용적 표현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가치 및 사회 문화적 산물과

139) 「완관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225쪽.



제도, 풍속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쌀이 주식인 한국인은 어떤 일이 굉장히 쉬울 때 ‘식은 죽 먹기’라고 하는데 빵이 주식인 영어권 화자들은 ‘It is a piece of cake.’이라고 한다. 또한 같은 영어권 화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내 취향이 아니야.”라는 말을 할 때 미국인은 “He is not my type.”이라고 하는데 예부터 홍차 마시는 일이 일상 문화인 영국인은 “He is not my cup of tea.”라는 관용적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이와 같이 언어는 한 사회의 생활 문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 언어만의 관용적 표현을 지니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속담(俗談), 사자성어(四字成語), 관용 표현 등을 들 수 있다.

### ① 속담(俗談)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은 판소리계 소설로 인물이 처한 상황과 느끼는 감정을 속담(俗談)을 통해 해학적·풍자적·과장적으로 드러내고, 작품의 주제 또는 등장인물의 사고방식, 사건이나 배경 관련 내용을 사자성어를 활용해 많이 표현하였다. 속담은 우리 민족의 일상생활에서 터득된 삶의 지혜를 간결하게 표현한 관습화된 양식의 대표적 표현으로 관용 표현에 비해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례를 비유적으로 진술한다. 속담은 상징성, 대중성, 관습성, 일상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공동체의 오랜 역사 속에서 구전되어 오고 있다.

고전 소설에서 속담은 주로 인물이 처한 상황과 상황을 대하는 인물의 행위와 가치관을 묘사할 때 인용한다. <심청전>과 <춘향전>을 예로 들면 곽씨 부인과 월매는 자식이 없는 처지에서 자식을 얻기 위해 치성을 드리는데 이 장면에서 ‘지성이면 감천’과 동일한 의미로 어떤 상황에서든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결과가 헛되지 않고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다는 한국인의 사고가 녹아 있는 ‘공든 탑이 무너지며 심은 나무가 꺾어지랴’는 속담이 인용되었다. 춘향이 이몽룡의 어사(御使) 신분을 모른 채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자탄하니 이몽룡이 춘향을 위로하며 건넨 “울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네가 나를 어찌 알고 이렇듯이 서러워하냐?”는 말에서는 한국인의 낙천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 ‘동냥은 못 쥐도 쪽박은 깨지 마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등 한국인의 정서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속담들을 고전 소설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춘향전>과 <홍부전>에서는 과장적 표

현의 속담들이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몽룡이 암행어사의 신분을 감추고 밥을 빌어 먹는 모습을 표현한 ‘마과람에 게 눈 감추듯’이나 홍부가 매품을 팔려고 하는데 때마침 국가에서 죄인에게 은전(恩典)을 내려 매품도 못 팔게 돼 이를 한탄하며 말한 ‘아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고전 소설	인용 속담
<심청전>	공든 탑이 무너지며 심은 나무가 꺾어지랴.
<춘향전>	마과람에 게 눈 감추듯
	쏘아 놓은 화살이 되고 옆질러진 물이 되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초록은 동색
<홍부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낮에 쇠가죽을 씌웠는가.
	동냥은 못 쥐도 쪽박은 깨지 마라.
	아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표 II-1> <심청전>·<춘향전>·<홍부전>에 활용된 속담

## ② 사자성어(四字成語)

사자성어는 한자(漢字) 네 글자로 이루어진 말로 교훈이나 유래를 담고 있으며 옛이야기에서 유래한 한자로 이루어진 고사성어(故事成語)<sup>140)</sup>를 포함한다. 사자성어는 성어(成語)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교훈이나 유래, 비유와 함축이 내재된 언어의 의미를 네 글자에 압축하여 간결하게 나타내 주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한자 문화권 학습자들에게 사자성어는 낯설지 않은 표현들이 많으므로 고전소설 교수·학습을 할 때 교육 내용으로 제시해 주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학습자들이 말하기나 쓰기 등의 표현 활동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교수·학습 내용에 포함된 사자성어 이외의 사자

140) 고사성어가 갖는 미학, 또는 선행 텍스트의 변형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텍스트가 갖는 미학은 보편성의 확인이다. 김성룡(1997), 『典範 학습과 중세의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제1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81-282쪽.

성어에 대한 지식도 꽤 갖추고 있어서 감상문과 비평문 쓰기를 할 때 사자성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고전 소설에서 사자성어는 인물의 가치와 행위, 사건, 배경 등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설명하면서 작품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된다. 특히 <심청전>과 <춘향전>은 <홍부전>과 비교하여 볼 때 사자성어들이 매우 많이 사용되면서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과 추구하는 가치, 느끼는 감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심청전>과 <춘향전>은 여성이 주인공인 소설로 ‘무남독녀(無男獨女)’, ‘요조숙녀(窈窕淑女)’ 등의 사자성어로 심청과 춘향 모두 외동딸이며 말과 행동이 정숙한 여성임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주인공이 갖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고진감래(苦盡甘來)’, 주인공의 가치 또는 행위의 특성을 ‘출천지효(出天之孝)’, ‘일편단심(一片丹心)’ 등으로 나타냈다. <홍부전>은 민간 속어의 대표적 문학으로 소박하고 진솔한 민간 속어의 표현이 주를 이루나<sup>141)</sup> 작품 곳곳에 한자 성어를 두루 사용하였다.

결초보은 (結草報恩)	무남독녀 (無男獨女)	삼강오륜 (三綱五倫)	요조숙녀 (窈窕淑女)	장원급제 (壯元及第)	천중가절 (天中佳節)
고진감래 (苦盡甘來)	백년해로 (百年偕老)	상전벽해 (桑田碧海)	이팔청춘 (二八青春)	전전반측 (輾轉反側)	춘하추동 (春夏秋冬)
고집불통 (固執不通)	부귀공명 (富貴功名)	십시일반 (十匙一飯)	일부종사 (一夫從事)	조강지처 (糟糠之妻)	함포고복 (含哺鼓腹)
금시초문 (今始初聞)	부부유별 (夫婦有別)	안빈낙도 (安貧樂道)	일장춘몽 (一場春夢)	죽마고우 (竹馬故友)	호의호식 (好衣好食)
남녀노소 (男女老少)	불경이부 (不更二夫)	엄동설한 (嚴冬雪寒)	일취월장 (日就月將)	천방지축 (天方地軸)	혼정신성 (昏定晨省)
독수공방 (獨守空房)	비몽사몽 (非夢似夢)	오매불망 (寤寐不忘)	일편단심 (一片丹心)	천신만고 (千辛萬苦)	흥진비래 (興盡悲來)

<표 II-2> <심청전>·<춘향전>·<홍부전>에 활용된 사자성어<sup>142)</sup>

141) <홍부전>의 놀부 밖의 등장인물인 왈짜, 사당, 각다귀, 등짐장사들의 거칠 것 없이 뻔한 버리는 한마디 한마디는 허무맹랑하면서도 뼈 있고 정연(整然)한 속어들로 <홍부전>의 해학을 이끈다. 장덕순(1955), 『興夫傳의 再考』, 『국어국문학』 제13권, 국어국문학회, 54쪽.

142) <심청전>·<춘향전>·<홍부전>에 활용된 사자성어는 약 100여 개가 넘는데 본고에서는 일상 대화에서 많이 활용되는 사자성어, 인물의 성격·가치·정서를 드러내는 사자성어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2>를 참조.

한편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사자성어를 교수·학습할 경우에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사자성어의 의미는 동일하나 형태가 다른 것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호의호식(好衣好食)’은 ‘감식호의(甘食好衣)’, ‘고집불통(固執不通)’은 ‘고집기견(固執己見)’, ‘천방지축(天方地軸)’은 ‘실장모세(失張冒勢)’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학습자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현대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글자인 번체자(繁體字)가 아닌 현대에 개발된 간체자(簡體字)를 사용하므로 교사는 한자(漢字) 표기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 ③ 관용 표현

속담과 사자성어 이외에 한국인의 특별한 정서나 상황에 대한 관용적 표현들이 있다. 다음은 <홍부전>에서 홍부의 아내가 가족들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놀부에게 구걸 간 홍부를 기다리면서 한 표현들이다. 철모르는 아이들이 밥 달라고 악을 쓰며 조르자 홍부 아내는 오랜 가뭄 끝의 비를 기다리는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다리는 마음, 춘향이 독수공방하면서 이몽룡을 기다리는 마음, 노처녀(老處女)와 노총각이 혼인하기를 기다리는 마음 등에 자신의 마음을 비유하면서 다양한 관용적 표현들을 구사하고 있다.

홍부 안 히 흘일업서 홍부 오기 기다릴 제 (...) 칠년디한 가뭄 늘의 비오기 기다리듯 구년지슈 장마진 되 뻗느기 기다리듯 제갈량 칠성단의 동남풍 기다리듯 강티공 위슈상의 시절 기다리듯 만니 전장의 승전하기 기다리듯 어린 으희 정몽의 의원 기다리듯 독숙공방의 낭군 기다리듯 춘향이 독게 되어 니도령 기다리듯 과년호노처녀 식집가기 기다리듯 삼십 너른 노도령 장가가기 기다리듯 장둥의 드러가서 과거하기 기다리듯 세끼 굶머누은 즈식 홍부 오기 기다린다<sup>143)</sup>

기다림 또는 이별의 정서에 대한 관용적 표현은 <춘향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춘향은 한양으로 떠난 이몽룡을 그리워하면서 ‘꿈에 와 보이는 임은 믿음

143) 『경관 25장본 홍부전』,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2003),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15쪽.

이 없다.', '인간이별 만사 중에 독숙공방 어이하리.', '자나 누우나 먹으나 깨나', '백 년 기약 맺은 맹세', '귀신이 장난하고 조물주 시기로다.', '구름 같은 귀밀머리 헛되이 늙으니', '오동추야 달 밝은 밤', '애간장에 굵이굵이 맺힌 한', '백발이 진토록', '사람이 목석이 아닐진대' 등의 관용적 표현을 다채롭게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

### 3) 상징적 명명(命名)

대부분의 고전 소설은 주인공의 이름을 작품의 제목으로 정하고 있는데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 또한 예외는 아니다. 주인공의 이름을 작품의 제목으로 정한 것은 한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거나 주인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주인공의 가치와 행위가 소설 서사의 가장 핵심이며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를 상징적으로 함축하기 때문이다. 즉 고전 소설 속의 주인공 혹은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이름들은 임의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 나름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 언어·문화의 한 면을 살피는 일이 된다.

사람의 이름을 짓는 작명은 하나의 관습화된 언어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작명(作名)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구체화 또는 상징화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행위로 작명을 통해 한 사회의 가치나 사고방식 등의 문화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인의 작명 원리는 크게 향렬자를 따라서 짓는 유형과 향렬자를 따르지 않고 짓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sup>144)</sup> 향렬자를 따르지 않는 사례 중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태몽(胎夢)에 의한 작명이다. 특히 고전 소설에서 주인공들의 작명 계기는 보통 태몽(胎夢)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춘향전>의 춘향(春香)이 이

144) 주로 양민 이상의 남성들은 향렬자를 따르고 여성이나 노비는 향렬자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향렬자를 따르지 않고 작명할 때는 출생 시기, 출생 장소, 서열, 외모, 재능 등을 활용하거나 출산 후의 부모의 소망이나 감정을 반영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이름을 지었다. 출생 시기와 관련된 이름으로는 삼월(三月), 구월(九月), 출생 장소와 관련된 이름으로는 부익쇠, 마당쇠, 서열과 관련된 이름으로는 삼순(三順), 사순(四順), 막둥, 외모와 관련된 이름으로는 거목이, 굵단이, 입분이, 재능과 관련된 이름으로는 주몽(朱蒙), 부모의 소망을 반영한 금덩이, 복이, 음전이, 부모의 감정을 반영한 분해(痛忿), 서운(西云) 등의 예가 있다. 이복규(2007), 「문화: 한국인의 이름에 대하여」, 『온지논총』 제16집, 온지학회, 370-378쪽.

에 해당한다. 춘향의 이름은 태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명(作名)한 것으로 <숙향전>의 숙향(淑香), <장국진전>의 장국진(張國振傳) 등 고전 소설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소설의 주인공이 아닌 실존 인물도 태몽을 반영하여 이름을 지은 경우가 있는데 고려 시대의 이규보(李奎報)의 태몽은 규성(奎星)이란 별의 선관이 나타나 그의 탄생을 예고해서 지어졌다고 한다.

다음은 <춘향전>에서 월매가 태몽을 꾸는 장면으로 월매는 꿈에서 어떤 선녀로부터 복숭아꽃(桃花)을 받는다. 선녀는 도화를 주며 이화(李花)와 접붙이라고 조언하고 떠나고 이 태몽 이후 월매는 여자 아이를 낳아 춘향이라 이름 짓는다. 도화는 봄의 향기, 즉 춘향(春香)을 의미하며 월매가 출산할 때 향기가 방에 가득하고 구름이 영롱한 것도 춘향의 이름과 관련된다.

春香 어미 退妓로서 四十이 넘은 후에 春香을 처음 뵈 때, 꿈 가운데 어떤 仙女 桃花 李花 두 가지를 두 손에 갈라 쥐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桃花를 내어 주며, 「이 꽃을 잘 가꾸어 李花와 接붙이면 暮年 行樂 좋으리라. 이화 갖다 전할 제가 시각이 급하기로 총총히 떠나노라. 꿈 깬 후에 孕胎하여 十朔 차서 딸 낳으니, 桃花는 봄 香氣라 春香이라 이름하여 七歲부터 글 가르쳐 日就月將하는 才操 測量할 수 없었구나.<sup>145)</sup>

춘향의 경우처럼 이몽룡의 이름은 태몽을 계기로 지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몽룡(夢龍)’이라는 이름을 보면 태몽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춘향이 이몽룡으로부터 만나자는 요청을 받고 월매에게 어떻게 할지 의논하자 월매는 간밤 꿈에 청룡 한 마리가 벽도지에 잠겨 보인 꿈 이야기를 한다. 이는 춘향이 귀인(貴人)을 만날 것이라는 월매의 예지몽이기도 하지만 몽룡의 이름 또한 태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46)</sup>

145) <춘향가(男唱)(星斗本B)>, 이병기 외(1974), 『申在孝 판소리 사설集(全)』, 민중서관, 3쪽.

146) 춘향모 썩 나안자 정신업계 말을 하되 꿈이라 하는 거시 전수이 허사가 안이로다 간밤의 꿈을 꾸니 난디업는 청룡 한나 벽도지의 잠계 보이거날 무슨 조흔 이리 잇슬가 하여던니 우연한 일이 안이로다 쏘한 드른이 사또 자제 도령임 일홈이 몽룡이라 하니 꿈 몽썩 용용썩 신통하게 맞치여썩.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308쪽.

고전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태몽 이외에 외모와 성격, 직업, 신분, 성별, 부모의 소망 등을 이름에 반영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예도 많이 있다. <홍부전>의 홍부와 놀부의 이름은 성격과 관련이 있고 <심청전>의 심청은 심봉사 이외의 소망과 관련이 있다. <홍부전>의 놀부는 성격이 고약하고 인색하며 인정이 없는 인물로 놀부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홍부는 선량하고 착실하여 초년에는 고생하지만 자연적으로 재산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부흥(復興)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름이다.<sup>147)</sup> 우리말에 구두쇠를 뜻하는 ‘노랭이’라는 말이 있는데 ‘노랭이’는 ‘놀’에서 파생된 말로 놀보는 ‘구두쇠’, ‘수전노(守錢奴)’, ‘노랭이’, ‘심보가 사나운 사람’의 뜻으로 당대인들에게 부정적인 인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48)</sup> 이와 비슷한 예로 <옹고집전>의 주인공인 옹고집(壅固執)을 들 수 있는데 옹고집은 억지가 매우 심한 고집을 부리는 인물로 심술 사납고 옹졸하며 돈이 많아도 남을 위해서는 돈을 조금도 쓰지 않는 인색한 인물로 소설 속 인물의 성격을 잘 나타낸다. 이렇게 작중 인물의 성격이나 외형을 작명에 활용하는 것은 이름의 자의(字意)를 존중하고 이름에 사람의 운명을 기대하고 복(福)을 구하는 한국인의 동양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고전 소설에는 외모와 특수한 상황 등에 빚댄 상징적 명명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홍부전>에서 놀부가 박을 타는 중에 등장하는 왈자들의 통성명(通姓名)장면이 대표적이다.<sup>149)</sup> 왈자들은 손의 주먹과 보(襟)를 이용해 이름을

147) <홍부전>에서 홍부와 놀부의 성씨(姓氏)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성(性)을 중시하지 않는 평민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홍보’와 ‘놀보’의 ‘-보式’의 이름은 민담에서 ‘떡보, 떡보, 울보, 잠보’ 등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놀보는 놀고 지낸다는 점에서 홍보는 흥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논의가 있다. 서대석(1975), 『興夫傳의 民譚의 考察』, 『국어국문학』 제67호, 국어국문학회, 25쪽.

148) 김진영(2001), 「<홍부전>의 人物形象」, 『인문학연구』 제5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14쪽.

149) 또 저분은 뉘시오 혼 놈이 손을 붙든 뒤고 흐는 말이 넉 성명은 이러호오 군평이 삭여 보고 흐는 말이 성은 듀가오 명은 머긴가 보오 또 저분은 뉘라 호오 혼 놈이 손을 길길히 펴여 뵈거늘 털푼이 삭이는 말이 손을 펴 뵈니 성은 손이오 명은 가락인가보외 (...) 또 저 친구는 무슨 싱이오 혼 놈이 답흐되 나는 덕가리의 종기 느던 희의 낫소 군평이 하는 말이 머리의 종기느시면 병을 디스니 병인싱인가 또 혼 놈이 흐는 말이 느는 등창느던 희오 군집이 삭이되 병을 등에 질머져스니 병진싱인가보외 또 혼 놈이 닉다라 흐는 말이 느는 발샷히 종기나던 싱이오 듀여 부디치기 흐는 말이 병을 신어스니 병신싱인가 또 혼 놈이 덕답흐되 느는 헛쫄 머리의 낫 놈이오 느돌몽이 흐는 말이 헛쫄머리의 나스니 신미싱인가 또 혼 놈이 말흐되 나는 장의 가 소를 프라스면 갑슬 벅드지고 와슬 거시시 갑진싱인가 보외.

주먹, 손가락이라 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녔던 머리, 발, 등창 등 신체 부위에 난 종기와 출생 연도를 빗대어 자신의 생년(生年)을 말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에게 있어 작명은 한국인의 무의식, 일상생활, 사고방식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2. 사회 윤리와 가치 갈등

### (1) 가치 갈등의 양상

고전 소설의 인물은 사회의 가치 규범을 수호하고 나름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인물은 사회나 개인 간, 개인 내적으로 가치 갈등을 겪는다. 고전 소설의 인물들이 자신의 내적 가치를 외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을 관찰하면서 목표 문화에 대한 가치 판단과 평가의 준거를 학습자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내면은 물론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내적 가치를 외적으로 실천할 때 타인 또는 사회와 갈등을 겪게 된다. 가치 실천을 위한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적인 일로서 선택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실제로 수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치 갈등을 겪게 마련인데 사회에서 통용되는 윤리 규범이 보수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할수록, 개인의 가치 지향이 높을수록 개인의 갈등은 심화된다.

#### 1) 윤리적 딜레마

<심청전>은 <춘향전>의 변학도나 <홍부전>의 놀부처럼 주인공의 적대자와 가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궁핍에 처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운명을 지닌 주인공의 내적 가치 갈등이 부각된 작품이다. 심청이 심봉사의

---

「경관 25장본 홍부전」,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2003),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35-36쪽.



개안(開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것을 효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가치문제로서 <심청전> 이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심청에게는 가난과 맹인 아버지라는 두 가지 큰 장애가 있었으며 이는 심청의 가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즉 심청이 심봉사의 개안(開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맹인인 아버지를 방치하는 일이 되고, 심봉사 곁에 남아서 봉양한다면 심봉사의 평생소원인 개안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된다. 심청은 심봉사의 소원이 눈을 뜨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심봉사의 한(恨)을 풀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자신이 부재할 경우 가계를 꾸리고 심봉사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매우 구체적인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게 된다.

다음은 심청이 뱃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판 후에 죽음을 맞이할 일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는 심청이 심봉사의 개안(開眼)이라는 심봉사의 평생 소망 또는 대의(大義)를 실현하기 위해 눈먼 아버지의 곁을 지키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과 막상 죽음 앞에 선 어린 소녀의 연약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심청이 그 날부터 곰곰 생각해 보니 눈 어두운 빅발 부친 영결하고 죽을 일과 사람의 세상의 나서 심오 세의 죽을 일리 정신이 아득하고 일의도 쓰시 업서 식음을 전폐하고 슈심으로 지니더니 다시금 생각해 보니 업지러진 물이요 썩어논 살이로다 (...) 아무리 효녀라도 마음이 온전할손야 부친의 모친이나 망종 지으리라 하고 바늘의 실을 썬여드니 가슴이 답답하고 두 눈이 침침 정신이 아득하여 희음업시 우름이 간장으로조차 소사나니 (...) 너가 한 번 죽어지면 누를 밟고 살으실가 대답도다 우리 부친 너가 철을 안 언후의 밤별기를 노으시더이 너일뵈툼이라도 동년걸인 되게 쓰니 눈친들 오직하며 멸신들 오직할가 무삼 험흔 팔자로서 초칠일 안의 모친 죽고 부친조차 이별하니 이려 일도 잇살가 (...) 우리 부녀 이별이야 언의 날의 소식 알며 언의 썩여 상면할가 도라가신 우리 모친 황천으로 가 처시고 나는 이제 죽거드면 수궁으로 갈 거시니 수궁의서 황천가기 몇말 니 몇철니나 되년고 모녀상면하랴 흔들 모친이 나를 엇지 알며 너가 엇지 모친을 알아 만일 못고 무려 차쳐가서 모녀상면 하는 날의 응당 부친 소식 무르실 거시니 무삼 말삼으로 디답하리 오날밤 오경시를 함지의다 머무르고 너일 아침 돛난 희를 부상지의다 미량이면 예여썰사 우리 부친 좀더 모셔 보련마는 일거월니를 누라서 막을소나 이고이고 셔룬지거 천지가 사정이 업서 이윅고 닳기 우니 심청이 홀 길 업서 닳가 닳가 우지 말아 제발 덕분의 우지 말아 반야진관의 땡상군이 안이로다 네가 올면 날리 식고 날리 식면 너가 죽난다 죽기는 섭지 안이하여도 의지업신 우리 부친 엇지 잇고 가

심청은 공양미 삼백 석을 마련하기 위해 몸을 팔기는 팔았으나 아버지와 헤어질 일과 열다섯 살밖에 안 된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수심이 가득하다. 심청은 자신이 떠난 후 홀로 계실 아버지를 걱정하며 아버지의 춘하추동 의복 일체를 미리 마련해 두고 잠든 심봉사의 얼굴과 수족을 만지면서 아버지와 정(情)을 확인한다. 심청이라고 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초지일관 의연했던 것만은 아니다. 심청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도 이별하게 되는 자신의 기막힌 운명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다. 자신이 떠나면 돌볼 사람이 없어 동네 걸인이 될 아버지에 대한 걱정, 자신의 사후(死後)에 과연 하늘에 계실 어머니와 바다에 수장될 자신이 만날 수 있을지, 만약 만나게 되더라도 아버지의 안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 심봉사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될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심청은 냉혹한 현실에 담대히 맞서면서 심봉사의 개안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려고 결심하지만 공양미 삼백 석을 마련하기 위해 뱃사람들에게 몸을 판 후에 죽음을 맞이할 일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즉 심청의 효심은 선한 의지에서 비롯되었지만 효행과 자신의 죽음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 2) 사회 제도와 개인의식의 갈등

춘향의 가치 갈등과 가치 행위 실현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춘향은 내적 가치 갈등보다 타인 또는 사회와 갖는 외적 가치 갈등을 더 많이 겪으며 자신의 가치 행위를 실현하는 데 외적 시련이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였다. 춘향은 기생이기도 하고 기생이 아니기도 한 자신의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며<sup>151)</sup> 현

150) 「완관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231-233쪽.

151) <춘향전>에서 유독 춘향의 정체성 해석이나 규정이 문제시되는 것은 춘향이 양반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즉 춘향의 정체성의 혼란은 기생으

실적으로 기생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지조를 지키기 위한 남다른 갈등과 고난을 겪는다.

조선 시대 후기에 중세 봉건 사회의 신분 제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반과 천민의 신분 차별은 여전하였다. 부친은 비록 양반이었으나 천민 기생인 월매를 모친으로 둔 춘향은 사회적으로는 천민 신분이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는 양반가의 규수 못지않은 교육을 받았고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 이몽룡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천민 신분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단옷날 이몽룡의 부름에도 한달음에 달려가지 않았던 것이다.<sup>152)</sup>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춘향은 엄연한 천민 기생 신분으로 간주되었다. 춘향의 사랑에 감화되고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농부, 방자, 월매, 춘향 등을 만나면서 이몽룡의 의식과 태도가 변화되기는 했지만 이몽룡 또한 처음에는 춘향을 손쉽게 취할 수 있는 기생의 딸로 여기고 접근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몽룡이 상경하게 되면서 춘향에게 이별을 고하자 춘향은 “우리 두리 처음 만나 빙연언약 미질 적의 티부인 사또게옵서 시기시던 일리온잇가 빙자가 웬 일이요.”<sup>153)</sup>라고 하면서 둘의 인연은 부모에게 허락받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연애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었음을 상기시킨다. 이몽룡의 이별 통보에 춘향은 행패를 부리기도 하는데 이런 춘향의 행위는 이몽룡에 대한 서운함이나 배신감보다는 근본적으로 신분으로 인간을 구분하고 계급화한 당시 사회 제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춘향은 천한 신분의 사람이라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서로 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춘향은 자신의 기생 신분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차별과 갈등에 굴복하지 않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

---

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춘향의 자아와 기생의 딸로서 태생적으로 기생 신분일 수밖에 없는 불일치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최기숙, 「춘향전의 고전적 가치와 미학」, 향사설성경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2004), 『춘향전 연구의 과제와 방향』, 국학자료원, 262-263쪽.

152) 단옷날 이몽룡의 뜻을 전달하러 온 방자에게 춘향이 하는 말을 보면 춘향은 자신을 여염집 규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마리 당연하나 오나리 단오이리라 비단 나뉘이라 다른 집 처자들도 예와 함기 추천하여쓰되 글일뿐 안이라 설혹 너 말을 할지라도 너가 지금 시사가 아니여든 여림 사람을 호리척거로 부를 이도 업고 부른디도 갈 이도 업다 당초의 네가 말을 잘못 들은 비라” 「완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307쪽.

153) 「완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332쪽.

신의 애정을 실현해 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이에 반해 이몽룡은 춘향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랑의 유희만을 즐겼을 뿐 그에 따른 의무나 신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못하고 있으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이몽룡이 상경한 후 남원에 남게 된 춘향은 새로 부임한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받게 된다. 춘향 본인 스스로는 기생이라고 여기지 않았지만 즉 모친인 월매처럼 기생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엄연히 기생의 딸이므로 춘향이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할 명분은 없었다. 그러나 춘향은 신관(新官)의 기생 점고에 불응하고 변학도와 첫 대면에서 이몽룡에게 일부종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인간은 평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남녀 간의 애정 성취에 있어 적극적으로 있었던 춘향은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열녀(烈女)의 모습만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통적인 열(烈) 개념을 이용해 자신의 열(烈)을 정당화시킨다. 춘향은 열녀는 일부종사(一夫從事) 한다는 규범을 들어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하지만<sup>154)</sup> 당시 사회에서 기생이 정실(正室)처럼 정절을 지키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으며 기생의 수절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변학도는 지방 관리의 수청을 거절한 춘향을 장형(杖刑)에 처하고 하옥하면서도 조금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춘향이 변학도를 대면하는 다음의 장면을 보면 신분의 귀천(貴賤)을 떠나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춘향의 확고한 가치관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춘향이 지키고자 하는 정절은 윤리 규범으로서의 의무가 아닌 스스로 정조를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인 권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신분과 계급의 차이를 벗어나서 인간 평등을 소망하는 자유 의지의 발로인 것이다.

사또 디히하며 춘향다려 분부하되 오날부텀 몸단장 정이 흐고 수청으로 거행하라  
 사또 분부 황송하나 일부종사 바리운이 분부 시행 못하것소 사또 우어 왈 미지 미지  
 라 계집이로다 네가 진정 열여로다 네 정절 구든 마음 엇지 그리 애어썬야 당연한  
 말이로다 (...) 춘향이 엇자오되 총불싸이군이요 열불정이부절을 본밧고자 하옵난디  
 수차 분부 이러한이 싹불여사이옵고 열불정이부운이 처분디로 하옵소서 잇썬 회개  
 나리 썬 하는 말이 네 여바라 어 그 년 요망한 연이로고 부의일심소견하오 일식이라  
 네 여러 번 식양할 게 무어신야 사또계옵서 너를 추왕하여 하시난 말삼이제 너 갖든

154) 춘향의 일부종사(一夫從事)·불경이부(不更二夫)·수절(守節) 등에 관한 주장은 해방인·평등인·자유인으로서 정조(貞操) 수호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통념상의 '수절'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성현경, 「<남원고사>본 춘향전의 구조와 의미」, 김병국·김대행·김진영·정병헌 편(1996),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이정, 390쪽.

창기벽계 수절이 무어시며 정절이 무어신다 구관은 전송하고 신관 사또 연접하미 법  
전의 당연하고 사례에도 당당커든 고히힌 말 너지 말아 너의 갓던 천기벽계 충열 이  
쓰 왜 잇시랴 잇썬 춘향이 하 기가 막쳐 천연이 안자 옛조오되 충효열여 상하 잇소  
자상이 듯조시오 기싱으로 말합시다 충효열여 업다흐니 낫낫치 알외리다 희서 기싱  
농성이는 동설영으 죽어 잇고 서천 기싱 예로되 철거학문 들어 잇고 진주 기싱 논기  
는 우리나라 충열노서 충열문의 모셔 닛코 천추형사 하여 잇고 청주 기싱 화월리난  
삼청각의 올라 잇고 평양 기싱 월선이도 충열문의 드러 잇고 안동 기싱 알지흥은 싱  
열여문 지은 후의 정경가자 잇싸온니 기싱 희페 마옵소서<sup>155)</sup>

변학도는 겉으로는 이몽룡을 향한 춘향의 정절이 아름답다고 칭찬하지만 속내  
는 천민인 기생의 정절은 인정하지 않고 춘향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내보이고 있  
다. 양반 계층인 변학도와 중인 계층인 육방은 창기(娼妓)에게는 정절이나 충렬  
(忠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춘향에게 수청을 강권하지만 춘향은 충효 열녀  
에는 상하(上下)가 없다고 강변한다. 춘향은 열(烈)은 양반만이 실천하는 특권적  
윤리가 아니라고 이의 제기하면서 국가와 부군(夫君)을 위해 죽은 대표적인 기생  
출신의 열녀들을 열거하고 있다. 조선 시대의 기생은 국가에 소속된 천민으로서  
양반들의 풍류와 향락의 도구로 인식되었지만 가무(歌舞)와 시서(詩書), 그림에  
능한 예술인으로서 자신의 신분적 한계에만 머물지 않고 대의(大義)를 위해 희생  
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춘향이 열거한 기녀들은 모두 양반가의 여인들 못지  
않게 지조와 절개를 지켜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춘향은 ‘충(忠)·효(孝)·열(烈)’의 전통적 가치들을 지키는 일에 신분 고하(高下)  
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여기에는 기생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이처럼  
춘향의 열(烈)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천민 기생인 자신이 상층  
양반보다 도덕적 측면에서 더욱 엄격하며 더 우월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중세적 신분 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근대적인 평등을 지향한  
다.<sup>156)</sup> 춘향의 도덕적 엄격성은 신분 상승과 주체적 애정 실현이라는 춘향의 근  
대적 가치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155) 「완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  
전 전집』 4, 박이정, 347-348쪽.

156) 김종철(2002), 『판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159-160쪽.

### 3) 공동선(共同善)과 물질적 욕망의 갈등

<홍부전>은 조선 후기의 서민 부농층과 생산 수단을 잃은 빈농층의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 조선 후기 경제 질서의 변동과 농민층의 계층 분화 과정에서 등장한 신흥 부농을 상징하는 놀부와 가옥이나 토지 없이 날품팔이에 의존하는 존재로 전락한 홍부와 같은 인물 군상을 보여 준다.<sup>157)</sup> 놀부는 수탈 계층인 부농을, 홍부는 피탈 계층인 빈농을 표상하며 부농과 빈농의 경제적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는 가운데 각 계층은 나름의 물질적 욕망을 추구한다.

홍부와 놀부는 모두 부(富)에 대한 욕망이 있음은 자명한데 두 인물이 욕망을 다루는 태도와 방식은 상반된다. 선인(善人)으로 알려져 있는 홍부도 보편적 수준에서의 인간적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적 갈등을 겪는다. 홍부는 “엇던 스람 팔즈 조화 디광보국 승녹디부 삼티늑경 되어느서 고디광실 조흔 집의 부귀공명 누리면서 호의호식 지늑는고” 운운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데<sup>158)</sup> 이는 홍부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천민과 평민들의 꿈이자 욕망이기도 했다. 홍부는 부자(富者)들이 누리는 부귀공명(富貴功名)과 호의호식(好衣好食)을 부러워하는데 이를 통해 계층에 기인한 재화의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홍부는 양반이기는 하지만 거의 몰락하여 관념적·의식적으로 양반의 허울만 쓰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sup>159)</sup> 몰락 양반들은 의식상으로는 양반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양인(良人)과 다를 바 없거나 그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처지에 있기도 했다.

---

157) 임형택(1984), 「홍부전의 역사적 현실성」,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1-198쪽.

158) “이고 답답 설운지고 엇던 스람 팔즈 조화 디광보국 승녹디부 삼티늑경 되어느서 고디광실 조흔 집의 부귀공명 누리면서 호의호식 지늑는고 닌 팔즈 무슴 일노 말만흔 오막집의 성소광어공정흐니 지봉 말니 별이 뵈고 청턴한운 세우시의 우디창이 방둥이라” 「경관 25장 본 홍부전」,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2003),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12쪽.

159) 홍부의 신분에 대해서는 이본과 학자에 따라 해석이 다른데 홍부를 몰락 양반으로 보거나 서민층인 빈농(貧農)으로 보는 견해 등 상충되는 논의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홍부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빈곤했지만 유교적 생활 규범을 준수하는 몰락한 양반, 하층민과 상층민 모두를 표상하고 있는 양면성을 지닌 존재로 본 논의를 수용한다. 이상택, 「홍부 놀부의 人物評價」, 장덕순 외(1995),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542-545쪽; 임형택, 「홍부전의 現實性에 관한 研究」, 이상택·서대석·성현경(1987), 『한국고전 소설』, 계명대학교 출판부, 243-278쪽 참고.

홍부 또한 경제적으로는 하층민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데 이는 매품을 팔아서라도 가족을 부양하고자 했던 홍부의 모습에 잘 드러나 있다. 즉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거나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임시적인 날품팔이 정도의 일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당시 사회의 경제적 상황은 홍부의 물질적 욕망을 자극한다. 그러나 홍부의 물질적 욕망은 탐욕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만이라도 영위하고자 하는 가장(家長)의 절실한 소원(所願)이었다.

이는 홍부가 제비로부터 박씨를 얻어 박을 타는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홍부는 박을 타면서 큰 욕심이 없었다. 박을 타기 전 아내에게 “흔 통을 썬서 속으란 지저 먹고 박오지는 파라 쫄 팔아다가 밥을 지어 먹어봅시.”라고 한 말을 보면 일단 굶주림부터 면해 보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박을 타니 생각지도 않았던 돈, 쌀, 비단, 집 등이 나와서<sup>160)</sup> 홍부는 이를 통해 의식주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부(巨富)가 된다. 홍부는 현실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자 더 이상의 큰 욕심은 부리지 않고 만족한다.

홍부는 여기서 나아가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몸소 실천한다.<sup>161)</sup> 홍부는 부모에 대한 효(孝)와 형제에 대한 우애(友愛)가 지극함은 물론 친구에 대한 신의(信義)와 이웃에 대한 애정이 있는 인물이다. 홍부가 이웃과 우호적인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 안락함이나 부(富)의 추구만이 아닌 공동체가 다 함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60) 이본에 따라 홍부 박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재물 이외에 것들이 나오기도 한다. 예를 들면 <경관 25장본>, <박동진 창본>, 신재효 <박타령>에서는 동자가 선약(仙藥)을 들고 나오며 <경관 25장본>의 네 번째 박에서는 홍부의 첩이 되고자 양귀비까지 나온다.

161) 작품 서두의 놀부에게 쫓겨나기 이전의 홍부의 모습을 살펴보면 홍부는 부자가 되기 이전부터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강오륜 인의예지 지성으로 도를 닦아 군자지도를 극진히니 부모전에 효도하고 군신유의를 아는 고로 나라에는 충신이요 부부유별 생각하야 마누라를 사랑하고 장유유서 잊지 않고 어른 보며는 존경하고 봉우유신 잊지 않고 친구들께 신의 있고 청산에 나무를 갔다 백골을 보면 물어주고 노인이 등짐하면 자청하여 져다주고 부모 잃고 우는 아이 저의 부모를 찾아주고 물가에 큰물 나면 샅 안 받고 월천하고 춘하추동 사시절을 남의 일만 하느라고 제 벌이를 할 수 없네.” 『박봉술 창본 홍부가』, 김진영·김현주·최혜진·이의철·강호봉 편저(1997), 『홍부전 전집』 1, 박이정, 192쪽.

“ (...) 얼씨고나 좋을시고. 들췌 놔마 말 듣거라. 건넌말 건너지 너그 백부님을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형제 불란다. 얼씨구나 좋을시고. 지화자 좋을시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홍보를 찾아오오. 나도 내일부터 기민을 즐란다, 얼씨고나 좋을시고. 여보시오 부자들, 부자라고 좌세 말고 가난타고 한을 마소. 엇그제까지 박홍보가 문전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니, 석승이를 부러히며 도주공을 내가 부러워할그나? 얼씨고 얼씨고 좋을시고. 얼씨고나 좋구나.<sup>162)</sup>”

홍부는 오랜 시간 가난에 굶주리며 갖은 고생을 다했지만 처지가 어려웠을 때나 자신이 부(富)를 얻게 되었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홍부는 자신이 우연한 기회에 얻은 복을 경사로 여기며 이를 형과 함께 즐기고 싶어 한다. 또한 박을 타면서 얻게 된 쌀과 재물을 형은 물론 굶주린 이웃에게도 나누어 줄 요량을 가지고 있다. 홍부는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 자신이 얻게 된 복(福)과 부(富)를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물을 내어 놓는다. 홍부의 이런 행위는 그들이 살았던 당시 농촌 사회가 봉건적인 농촌 공동체 사회가 아니고 이익 사회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sup>163)</sup> 이는 홍부가 극도의 곤궁함에 몰려 있을 때 홍부를 도와주는 이웃들이 없었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sup>164)</sup> 농촌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고 이곳저곳 유랑하면서 낱फल로 생계로 유지하는 등 온갖 어려움을 경험한 후에 획득한 부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려는 홍부의 자선 행위는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이 중시되어 가는 사회에서 윤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놀부의 욕심과 욕망은 끝없이 펼쳐지며 파멸 직전까지도 멈출 줄을 모른

162) 「박봉술 창본 홍부가」, 김진영·김현주·최혜진·이의철·강호봉 편저(1997), 『홍부전 전집』 1, 박이정, 610쪽.

163) 김종철(1996),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창을 잃은 판소리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25쪽.

164) 홍부에게 동정을 보인 유일한 사람으로 장자(長者)가 있지만 장자 역시 쪼 서너 못 정도를 주는데 그친다. “홍부 거동보소 장즈집의 가서 장즈님 계시오 게 누군고 홍부오 홍부 엇지 왔노 장즈님 편히 계오시니잇가 즈늬는 엇지노 지늬노 지늬노라니 오죽호요 집 혼 못 만 듀시면 집신을 삼으 팔으 즈식들를 살니깃소 그러호소 불상호이 호고 종을 불너 조흔 집호로 서너 못 갖다가 듀니 홍부 집혼 가지고 건너와서 (...)” 「경판 25장본 홍부전」,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2003),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15-16쪽.



다. <홍부전>의 서두 부분인 놀부 심사가 묘사된 장면에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만 놀부는 매우 이기적인 인물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놀부놈의 거동보소 성닌 눈을 부릅쓰고 볼를 울너 호령호되 너디불승무명지최  
라 도 넘치업다 너 말 드러보으라 텃불싱무록지인이오 네 복을 누를 듀고 나를 이  
리 보치느뇨 쓸이 만히 잇다 혼들 너 듀즈고 노적 혈며 버가 만히 잇다 혼들 너 듀  
즈고 섬을 혈며 돈이 만이 잇다 혼들 피목계의 가득 돈 거슬 문을 열며 가로 되느  
듀즈 혼들 복고왕 엄소 독의 가득 너흔 거슬 독을 열며 의복이나 듀즈 혼들 집안  
이 고로 버섯거든 너를 엇지 듀며 찬밤이느 듀즈 혼들 샅기 너흔 거먹 암기 부엌  
의 누엇거든 너 듀즈고 기를 굵기며 지거미느 듀즈 혼들 구증방 우리 안히 샅기  
나흔 듯치 누어스니 너 듀즈고 돛틀 굵기며 저 섬이느 듀즈 혼들 큰 농우가 네 필  
이니 너 듀즈고 소를 굵기랴 넘치업다 홍부놈아<sup>165)</sup>

홍부를 억지로 분가(分家) 시키면서 부모에게 받은 유산을 독식한 놀부는 곤궁함을 이기지 못해 찾아온 동생을 매정하게 내친다. 쌀이든 돈이든 자신의 수하에 있는 모든 재산은 그 어떤 것도 홍부에게 나눌 수 없다고 하며 홍부를 매질까지 한다. 놀부에게 새끼를 낳은 암캐나 돼지, 농우 등의 가축은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홍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종이나 키우는 가축만큼도 못한 존재인 것이다. 놀부는 자신의 소유물에 애착이 크며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아량도 베풀 생각이 없다. 놀부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지키는 데 매우 철저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생인 홍부까지도 배타적으로 대한다. 즉 놀부는 개인적인 치부에 집중하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애를 쓸 뿐 타인과 이웃과의 나눔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현대의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본다면 자신의 이익과 재산 증식에 적극적이었던 놀부가 경제적인 사람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sup>166)</sup> 그러나 놀부의 재산 증

165) 「경관 25장본 홍부전」,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2003),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14쪽.

166) 논자에 따라 홍부를 무능력하고 염치없는 부정적 인물로, 놀부를 부지런하고 굳은 의지를 가진 긍정적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데 장면 장면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이런 해석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작품의 주제 의식인 ‘우애’와 ‘권선징악’, 서사 구조와 관련하여 본다면 이러한 견해들은 작품의 총체적 해석과는 거리가 있다. 김광순(1973), 「興夫傳의主人公에 關한 人性分析」, 『淸溪金思燁博士頌壽紀念論叢』, 학문사; 조동일, 「<홍부전>의 양면성-판소리계 소설 연구의 방법론 모색을 위한 一試放」, 인권환 편저(1991), 『홍부전

식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탈 계층을 수탈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놀부를 긍정적인 경제인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놀부는 흥부에 게 자기 복은 스스로 타고 나는 것이니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 훈계하지만 정작 본인은 흥부의 뭇을 가로챘으며 놀부 심보 사설 장면 중 빗값으로 계집을 빼앗았다는 사실 등을 볼 때 고리대금업 등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경제 활동으로 치부를 했기 때문이다. 놀부의 물질적 욕망은 놀부가 박을 타는 과정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경관 25장본>을 기준으로 하면 놀부는 모두 열세 개의 박을 타는데 첫 번째 박부터 본인의 재산을 잃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에 대한 본인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결국은 모든 재산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된다. 놀부는 흥부와 달리 박을 타기 전부터 “흥부는 세 통을 가지고 부지되어스니 나는 장지 되리로다 석숨을 흥낭의 넛코 예황데를 불워홀 개야들 업다”<sup>167)</sup>라고 하며 욕심을 감추지 않는다.

한편 첫 번째 박부터 가야금쟁이 무리 등이 나와 놀부의 돈을 강탈해 가는 등 좋지 않은 징조가 보이자 놀부의 아내는 패가망신(敗家亡身)할 것을 두려워하여 놀부를 만류하지만 놀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샅꾼 채보와 함께 계속해서 박을 타 나간다. 하나의 박이 터질 때마다 놀부는 수난을 겪고 돈을 빼앗기지만 놀부는 박 타기를 멈추지 않는다. 열두 번째 박에서는 기존의 박에서 재산을 빼앗긴 것을 넘어서 장비에게 목숨의 위협까지 받아 죽을 뻔했음에도 놀부의 욕망은 멈춰지지 않는다. 물질에 대한 놀부의 욕망은 생명보다 중시되는 주객전도(主客顛倒)의 상황까지 자초하며 자멸의 원인이지만 놀부는 모든 재산을 다 잃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sup>168)</sup>

---

연구』, 집문당; 진은진(2008), 「<흥부전>에 나타난 악과 세속적 욕망」, 『관소리연구』 제 26집, 관소리학회.

167) 「경관 25장본 흥부전」,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2003), 『흥부전 전집』 2, 박이정, 25쪽.

168) 놀부가 끝까지 개과천선(改過遷善)하지 않는 이본들이 있으며 <경관 25장본> 또한 그러하다. “이런 일도 쏘 잇는가 이러홀 들 아르시면 동냥홀 박으지노 가지고 나오더만 조홀 번흐다” 「경관 25장본 흥부전」,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2003), 『흥부전 전집』 2, 박이정, 39쪽.

## (2) 인물의 가치 실현 방식

고전 소설 속의 인물들은 자신들이 지닌 가치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일상적 행위 또는 특별한 행위 방식으로 실현시켜 나간다. 심청의 효(孝)는 심봉사와의 부녀 관계 안에서, 춘향의 열(烈)은 이몽룡과의 연인 관계 안에서, 홍부의 우애(友愛)는 놀부와 형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심청의 희생으로 심봉사의 개안이 이루어지고 춘향의 수절과 항거는 이몽룡과의 사랑을 성취하며 홍부의 선함은 홍부 가족의 행복과 부(富)를 가져옴은 물론 끝까지 형제애를 지키는 근원이 된다.

### 1) 자기희생(自己犧牲)

<심청전>의 심청은 한국인의 효(孝)를 표상하는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심청의 효는 자식이면 누구나 응당 해야 하는 당시의 유교 윤리의 준수 차원에서 행해진 그런 당위적 성격으로서의 효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인지상정(人之常情)의 발로이다. 심청의 효에 대한 가치와 행위는 단순히 부모에게 자식 된 도리로서 정성을 다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자신보다 심봉사의 안위가 늘 먼저이며 아버지를 위해서 고생을 스스로 자처하는데 이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심청의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있다. 심청은 태어난 직후 바로 어머니를 여의고 가난한 맹인 아버지의 양육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양친(兩親) 아래서 평범하게 자란 자녀들과는 달리 아버지와의 정이 좀 더 특별하고 끈끈하게 형성되었다.

심봉사와 곱씨 부인은 심청을 어렵게 얻은 만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부모 자식 관계는 가난한 경제 사정과 심봉사의 장애로 인해 결속과 유대 관계가 강하다. 맹인인 지아비를 둔 곱씨 부인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심청을 낳자마자 산후별증으로 죽었고, 심봉사는 젖먹이 심청을 데리고 젖동냥과 구걸을 다녔으며, 눈먼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심청은 구걸과 품팔이를 해야만 했는데 이는 여타 평범한 가정과는 다른 처지로 그들의 결속력은 강할 수밖에 없다. 즉 가난과 아버지가 맹인이라는 두 가지 큰 장애가 있는 가운데 형성된 심청과 심봉사는 특수한 부녀 관계를 지닌다.

심봉사는 모친 잃은 심청의 연명(延命)을 위해 동네 우물가, 빨래터 등을 찾아

다니며 젓동냥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개인의 체면이나 위신, 사회적 관습보다 어린 딸을 걱정하는 부정(父情)이 앞섰음을 알 수 있다. 심청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버지에게 효를 실천하려고 한 것은 심청을 어렵게 키운 심봉사의 사랑과 고생을 알고 이에 보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sup>169)</sup>

(...) 부친의 조석 공양과 모친의 제사를 의법으로 할 줄을 아니 뉘 안이 증찬하리요 흐로난 부친게 엿자오되 미물 짐십 가마구도 공임 저문 날의 반포홀 조를 아니 흐물며 사름이야 미물만 못흐오릿가 아버지 눈 어두신되 밤 벌너 가시다가 늑 뜰 디 짐뜰 디와 조분 질노 천방지방 단이다가 엽푸러져 상키 쉽고 만일 날 구진 날 비바람 불고 서리친 날 치워 명이 나실가 주야로 염여오니 님 나히 칠팔 세라 싹야육아 부모 은덕 이제 봉형 못흐면 일후 불형하신 날의 이통흔들 감사오릿가 오날부텀 아버지는 집이나 직키시면 님가 나셔서 밤을 벌어다가 조석근심 덜게 흐오리다 (...) 현 박아지 엽푸 씨고 단지 늦근 밋여 손의 들고 엄동설한 모진 날의 치운 조를 모르고 이 집 저 집 문압문압 드러가서 이근이 비난 말리 (...)보고 못난 사름드리 마음이 감격하야 그릇 밤 짐척장을 앗기잔코 주며 혹은 먹고가라 흐면 심청이 흐난 말리 치운 방의 늘근 부친 응당 기달일 거스니 나 혼자 먹사오릿가 어서 밋비 도라가서 아무 흠기 먹것난이다.<sup>170)</sup>

심청은 예닐곱 살부터 심봉사의 봉양에 헌신하기 시작하였는데 가난한 살림살이에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옛 성현에 못지않았다. 심청은 엄동설한(嚴冬雪寒)에도 추운 줄을 모르고 아버지의 공양을 위해 애를 쓰며 그런 심청을 불쌍히 여겨 밥 한 끼 먼저 먹고 가라는 이웃의 배려도 거절한 채, 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와 함께하고자 하였다.

심청의 효심은 나날이 더욱 깊어져 갔으며 아버지의 개안을 위해 공양미 삼백 석을 마련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살펴보면 심청의 효는 윤리 규범으로서 효도의 의미를 능가한다. 남의 집에 품팔이를 하러 간 심청을 마중 나간 심봉사는 개천

169) 심청에게 있어 심봉사는 ‘아버지’이며 ‘은인’이고, ‘보호 대상자’이다. 따라서 심봉사를 위한 심청의 희생은 아버지에게 대한 딸로서의 의무적 효행이며 생육(生育)의 은인에게 대한 수혜자(受惠者)로서의 보은 행위이고 불구(不具) 노약자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대속 행위라는 세 가지 성격을 갖는다. 정하영, 「<심청전>의 주제고」, 이상택·성현경 편(1988), 『한국고전 소설연구』, 새문사, 469쪽.

170) 「완관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221-222쪽.

에 빠져 죽을 뻔하였는데 마침 지나가던 화주승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 공양미 삼백 석을 부처님께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화주승의 말에 심봉사는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근심에 빠진다. 이처럼 실의에 빠진 심봉사에게 심청은 추운 겨울에 얼음에 누워 잉어를 잡아 계모(繼母)에게 바친 왕상과 노모 봉양을 위해 자식을 산 채로 묻으려 했던 광거의 중국 고사(故事)<sup>171)</sup>를 인용하면서 공양미는 자연히 얻을 수 있으니 깊이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한다.<sup>172)</sup>

심청이 거동 모쇼 두 손을 홑장하고 이러나서 하늘임 전의 비난 말리 비난이다 비난이다 하늘임 전의 비난이다 심청이 죽난 일은 추호라도 섭치 안이하여도 병신 부친의 짐픈 혼을 심전의 풀야하고 이 죽음을 당호오니 명천은 감동하옵서 침침 혼 아비 눈을 명명하게 썩여 주옵소서 (...) 심청이 기가 댕키여 뒤로 벌덕 두저 은 저 비전을 다시금 잡고 기절하야 업된 양언 참아보지 못홀네라 심청이 다시 정신 차려 할 수 업서 이리나 원목을 잔득 쓰고 초미폭을 무름찌고 총총거림으로 물너 섰다 창히 증의 몸을 주워 인고이고 아버지 나는 죽소 비전의 혼발리 짓짓하며 썩구로 풍덩 색저노니 형화는 풍낭을 쫓고 명월은 혼문의 잠기니 차소위묘 창히지일 속이라 (...) 도사공 혼는 말리 고사를 지는 후의 일기 순통호니 심낭자의 더이 안이신가<sup>173)</sup>

171) 왕상과 광거 이야기는 중국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이십사효(二十四孝)』에 전해지고 있는데 이 책은 고대부터 송대(宋代)에 이르기까지 효행이 탁월했던 스물 네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이십사효(二十四孝)』는 민간 사회에서 부모를 모시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반영함으로써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의 보편적인 심리 상태를 숭배하고 제창하였다. 장건(1998), 「『이십사효(二十四孝)』」와 中國傳統孝文化, 『韓國思想史學』 제10집 1호, 한국사상사학회, 230쪽.

172) 심청이 반기 듯고 부친을 위로호되 아버지 걱정 마르시고 진지나 잡수시오 후회호면 진심이 못되오니다 아버지 어두운 눈을 썩서 천지만물을 보랴이면 공양미 삼백 석을 아무조록 준비호여 몽운사로 올리리다 네 아무리 혼들 빅천간두의 혼 슈가 잇슬손야 심청이 엇자 오디 왕상은 고빙호고 어름 궁기여 이어 엇고 광거라 혼난 사름은 부모 반찬호여 노오면 제 자식이 상머리여 먹는다고 산 치 무드려 혼 제 금항을 어더다가 부모 봉양 호여쁘니 사친지효가 옛 사름만 못하나 지성이면 감천이라 호오니공 양미는 자연이 엇사오리다 집피 근심 마옵소서. 「완관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229-230쪽.

173) 「완관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243-244쪽.

그러나 심봉사의 안맹과 가난은 일시적인 고난이 아닌 당면한 현실의 문제였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심청이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몸을 담보로 희생하는 것이었다.<sup>174)</sup> 하루하루 사는 의식주의 문제는 심청의 품팔이와 동냥으로 가능하지만 아버지의 개안은 품팔이와 동냥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므로 심청은 자신의 몸을 파는 방법을 선택한다.

한편 심청이 심봉사의 개안을 위해 공양미 삼백 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뱃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아 희생하는 것과 장 승상댁에 수양딸로 입양 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인신공희보다는 수양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며 심청의 입장에서든 유익했을 텐데 심청은 일신의 안위(安慰)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희생을 선택했다.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선택을 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려는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극했기 때문이다. 심청은 뱃사람들에게 몸을 팔기 전에 장승상 부인의 눈에 들어 수양딸 제안을 받은 적이 있지만 부친인 심봉사가 자신을 어렵게 키운 노고와 심봉사가 현세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였다.<sup>175)</sup> 심청이 뱃사람들에게 팔려 간다는 소식을 들은 장 승상댁 부인이 심청을 불러 공양미 삼백 석을 마련해 준다고 제안했지만 심청은 장 승상댁의 재물을 무상으로 빌릴 수 없으며 이미 약속한 선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의

174) 조동일은 <심청전>은 현실적인 고난을 효라는 유교 윤리로 해결하고자 한 측면과 효라는 허망한 유교적 관념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긍정하자는 측면 모두를 주제 의식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본고는 심청의 효(孝)는 규범적·당위적 효(孝)의 성격보다는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조동일(1971), 「<심청전>에 나타난 비장과 골계」, 최동현·유영대 편(1999), 『심청전 연구』, 태학사, 283-307쪽.

175) 심소제 일어 직박히고 옛자오디 명도 기구호여 나흔제 초칠 일 안의 모친이 불행하야 세상 바리시미 눈 어둔 너의 부친 동영것 어더먹여 게우 살어스니 모야 천지 얼굴도 모르미 궁천지통 끈칠 날리 업삽기로 너의 부모 생각호야 남의 부모도 공경터니 오날 승상부인 게옵서 권호신 쓰시 미천흔 줄 헤지 안코 짚을 삼으로 호시니 이친을 모친을 다시 뵈은 듯 황송 감격하와 마음을 둘 고지 전이 업서 부인의 말삼을 좇자호면 몸은 영귀호으나 안흔호신 우리 부친 조석공양과 사절의복 뉘라셔 이우릿가 구홀호신 은덕은 사름마닥 잇거니와 지여날호여 난당이별논이라 부친 모시웁기를 모친 겹 모시웁고 우리 부친 날 밋기를 아달 겹 밋사오니 너가 부친 곳 안이시면 이제까지 살어스며 너가 만일 업거디면 우리 부친 나문 히를 밋칠 기리 업사오며 오조의 사정 서로 의지호여 너 몸이 맛도록 기리 모시려 호읍 난니다. 「완판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225쪽.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였다. 심청은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으며 사람 사이의 약속을 중시하고 타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감당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즉 심청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고 아버지를 봉양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야 함을 알고 있었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처럼 심청의 자기희생적 효<sup>176)</sup>는 공양미 삼백 석을 받고 인당수의 제물로 바쳐지는 일에서 최고조를 이룬다. 심청은 뱃전에 서서 죽음을 바로 앞둔 두려움 중에도 아버지를 위한 기원을 잊지 않는다. 자신이 죽는 일은 조금도 서럽지 않으나 맹인 아버지의 깊은 한(恨)을 꼭 풀어 달라고 하늘에 간절히 기도했으며 이 기도는 두려움에 주저앉게 되고 까무러치는 상황에서도 계속되었다. 심청은 아버지인 심봉사를 부르며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에게 대한 걱정을 하였다. 이 장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심청의 말과 행동은 유교적 윤리 규범으로서의 효도로만 정의하기에는 미흡하다. 심청의 행위는 관념화된 효의 구현이 아니라 극한의 가난을 함께해 온 심봉사와의 인간적·육친적 연대에서 우러나온 정(情)의 발로로 볼 수 있다.<sup>177)</sup>

## 2) 관습과 제도의 모순에 대한 저항

춘향은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이행기로 가는 과도적 시기에 인간 평등, 자유 연애를 통한 애정의 성취 등 근대적 가치를 지향하고 추구한 인물로서 사회적 신분 제도로 인간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저항하였다.

176) 심청의 자기희생적 효를 유교적인 효, 불교적인 효, 무속·유교·도교의 습합으로 이루어진 속신적 효, 인간 보편적 심성으로서의 지순한 효, 살신성효(殺身成孝)를 통한 무상에의 회귀 등으로 해석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최운식(1984), 『심청전』, 시인사, 181-182쪽.

177) 정출현(1996), 「고전 소설에서의 현실성과 낭만성: 『심청전』의 민중정서와 그 형상화 방식」, 『민족문화사연구』 제9집 1호, 민족문화사학회, 162쪽. 심청은 인당수에 빠지기 직전 두려움에 떠는 자신을 아버지에게 대한 정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책망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심청이 거동바라. 바람 맞은 사람같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뱃전으로 나가더니, 다시 한번 생각한다. “내가 이리 진퇴함은 부친의 정 부족함이라.” 치마폭 무릅쓰고, 두 눈을 딱 감고, 뱃전으로 우루루루루루, 손 한번 헤치더니, 강상의 몸을 던져 (...). 「한애순 창본 심청가」, 김진영·김현주·김영수·김지영(1997), 『심청전 전집』 2, 박이정, 211쪽.

변학도는 시종일관 춘향을 기생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 즉 향락 생활의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춘향이 변학도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항거와 투쟁뿐이었다. 춘향에게 열(烈)이란 단순히 정인(情人)인 이몽룡에게 정절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목숨을 건 생존권 사수의 문제이며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춘향은 열(烈)이념을 수단으로 활용해 신분 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변학도는 춘향의 인격과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내세워 춘향을 굴복시키려고 하였으며 춘향이 끝까지 수청 요구를 거절하자 지방관인 자신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엄형정배(嚴刑定配)로 다스려질 큰 죄라고 위협한다.<sup>178)</sup> 지방관인 변학도의 권위와 권력에 대항해 춘향은 미천한 신분이라도 절개를 모르지 않으며 지아비를 배신하고 가정을 버리는 일은 벼슬하는 관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임금을 등지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춘향은 수청을 거절하는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유부녀를 겁탈하려는 변학도가 오히려 죄인이라고 항변하지만 힘없는 자신이 변학도의 명을 거절한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은 이몽룡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자 자신의 목숨까지 담보로 하여 변학도와 대립하는데 이는 변학도 개인에 대한 항거는 물론 양반 관리, 지배층에 대한 투쟁을 의미하기도 한다. 춘향은 변학도를 향해 “유부겁탈하난 거슨 죄 안이고 무어시오.”라고 말하는데 이는 변학도가 겁탈하려는 존재는 천민 기생이 아니라 여염집 부녀자인 일반 평민 신분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변학도의 입장에서 기생은 애초에 양반층의 풍류와 향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천민 기생인 춘향이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변학도에게 기생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인데<sup>179)</sup> 춘향은 기생도

178) 사또 티로하야 이 연 드러라 모반덕역호난 죄는 능지처참하여 잇고 조롱관장하는 죄난 겨서울의 읍새 잇고 거역관장하난 죄는 엄형정비하는이라 죽노라 서러마라 춘향이 포악하되 유부겁탈하난 거슨 죄 안이고 무어시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348-349쪽.

179) 조선 후기 사회에서 양반 관리가 기생에게 수청을 강요하거나 기생을 대동해서 연회 및 행음(行淫)을 하는 것은 위법이었으나 법이 실제로 천민 기생인 춘향을 보호해 줄 수는 없었다. 기생은 양반의 수청을 들어야 하는 것이 사회적 풍속이자 통념이었으며 이를 거절하면 곤경에 처하였다. 양반 남성에게 여자의 수절 윤리는 정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뿐 자신들의 향락의 도구인 기생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었다. 조광국(2006), 『기녀담 기녀 등장소설 연구』 257쪽, 355쪽, 월인.



열(烈)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임을 주장하여 기존 양반들의 전통적 사고 체계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 이처럼 변학도의 성적 꺾박에 춘향이 항거하는 것은 자신의 성(性)에 대해 주체적으로 의사 결정하고자 하는 이른바 성적(性的) 자결권(自決權)의 행사라고도 볼 수 있다.<sup>180)</sup>

춘향의 항거와 투쟁은 춘향이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해 매를 맞는 장면을 노래한 ‘십장가(十杖歌)’에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십장가는 춘향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춘향은 일편단심(一片丹心), 일부종사(一夫從事), 불경이부(不更二夫) 등의 신념을 피력하면서 이몽룡을 향한 정절의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변학도에 대한 춘향의 항변은 천한 기녀가 아닌 한 여성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춘향의 자의식의 표출이다. 또한 춘향의 이몽룡에 대한 사랑은 단지 유교적 가치인 일부종사로서의 열(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개척하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절대적 믿음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윤리이기도 하다.

춘향은 기생 신분이었지만 기생으로 살기를 거부했고 열을 표방하면서도 중세의 성리학적인 의미에서의 열녀는 아니었다. 성리학이 당대의 지배 이념으로 도입된 조선 시대의 중세 이념으로서의 열(烈)은 양반 계층의 남성들이 여성에게 부과한 윤리 규범으로 남성 중심 사고의 산물로서 작용하였다. 그러나 춘향의 열(烈)은 이몽룡에 대한 깊은 사랑과 쌍방향적인 신의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 <sup>181)</sup> 즉 중세적 의미에서의 열녀는 유교적 가치관을 이상적으로 구현한 여인을 말하는데 춘향의 열(烈)은 제도 안에서 형성되고 수용된 윤리 규범을 준수하는 의

180) ‘성적 자결권’과 관련해 강진옥은 여성의 정절 수호 의지를 특정한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외부적 압력이나 폭력에 항거해 인간적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자세로 보았다. 강진옥, 「삼국 열녀전송의 성격과 그 서사문학적 의의」, 사재동 편(1995), 『韓國敍事文學史의 研究 II』, 중앙문화사, 423쪽.

181) 춘향의 열(烈)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다. 이상택은 춘향의 열(烈)을 신분 상승을 위한 이해타산적인 행위로 해석했으며, 김진영은 일편단심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바친 여인의 마음으로 보았고, 박희병은 춘향의 열(烈)은 봉건적 의미에서의 열과는 다른 자유 의지, 봉건적 신분 관계의 부정, 신의의 관철 등으로 논의를 펼쳤다. 이상택, 「성격을 통해 본 춘향전」, 김병국·김대행·김진영·정병현 편(1996),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이정, 220-236쪽; 김진영(1978), 「<춘향가> 논의의 몇 가지 반성」, 『선청어문』 제9집 제1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1-36쪽; 박희병, 「춘향전의 역사적 성격 분석-봉건사회 해체기적 특징을 중심으로」, 임형택·최원식 편(1985),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 비평사, 82-139쪽.

미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 확인과 자유 의지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춘향의 열(烈)은 개인적 수절의 의미를 넘어 당시 민중의 윤리 규범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와 칭송을 받을 수 있었으며 사회적 의미도 획득할 수 있었다.

좌우의 구경하난 사람과 거헝헝는 관속드리 눈물 쫓고 도라서며 춘향이 밋맛는 거동 사람 자식은 못 보것다 모지도다 모지도다 춘향 정절리 모지도다 출천열여로 다 남너노소 엽시 서로 낙누하며 도라설 제 (...) 저 농부 열을 너여 게가 어딤 삼나 아무되 사든지 아무되 사든지 란이 계난 눈콩알 귀쫂알리 업나 지금 춘향이를 수청 아니든다 하고 형장 맛고 갖쳐쓰니 창가이 그런 열여 세상의 드문지라<sup>182)</sup>

매를 맞는 춘향을 지켜보던 관속(官屬)과 남원 주민들, 길가의 농부의 말을 살펴보면 춘향의 열(烈)은 사회적 공인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춘향의 열(烈)은 양반 부녀자 등 특권층에 한정된 가치가 아니라 민중 모두의 윤리적 가치 기준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열(烈)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모습도 보여 주었다. 나아가 춘향의 열(烈)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지의 표상으로 민중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역할도 한다.<sup>183)</sup>

한편 변학도는 양반으로 권력을 남용한 전형적 인물로, 춘향은 변학도의 모진 고문에 목숨을 내걸고 정면으로 맞서는 자의식이 강한 여성으로 묘사된 것은 춘향 개인의 항거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중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춘향은 조선 시대의 법이 실질적으로 천민 기녀 춘향을 보호해 줄 수 없었던 현

182) 「완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352쪽, 364쪽.

183) 춘향의 열(烈)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의지의 표상으로 이해한다면 춘향의 열(烈)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열(烈)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 열(烈)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부과되었던 사회적 규범이나 이념 이전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전승되고 있는 설화 <도미(都彌)>와 <설씨녀(薛氏女)>를 살펴보면 열(烈)이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절행(節行)이나 신(信)이 열(烈)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도미의 아내와 설씨녀의 행위는 정절을 윤리나 이념의 수호 차원이 아닌 남녀 간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애정의 표현이며 여성들이 자신의 정절을 하나의 권리로써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부식, 「권 제48 열전(列傳)」, 『三國史記』, 신호열 역해(2013), 동서문화사, 843-849쪽.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전통적 열(烈)은 남녀 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신의라는 보편적 가치와 남존여비라는 중세적 가치관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가치와 부합하는 동시에 충돌하는 양상을 지녔다고 본 견해도 있다. 이인경(2006), 『열녀설화의 재해석』, 월인, 14쪽.

실을 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춘향의 개인적 분노는 조선 후기 지방관을 비롯한 양반 권력층의 일반 백성에 대한 가렴주구(苛斂誅求)의 통치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된다.<sup>184)</sup>

‘십장가’에 나타나는 춘향의 항거는 기생 또는 양반의 서녀인 춘향과 양반인 이도령 간의 이룰 수 없는 사랑과 이를 지키고자 하는 춘향의 정절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조선 시대 신분 사회의 모순을 공박(攻駁)하는 데까지 이른다.<sup>185)</sup> 양반 권력층의 향락적 풍류 의식에 종속되지 않고 양반과 대등한 입장에서 애정을 회구하고 신분 상승의 자의식을 표출한 춘향은 양반 권력층에게는 심각한 도전이었으나 평민과 천민에게는 새 시대에 대한 가능성과 이상(理想)을 의미한다.<sup>186)</sup>

일편단심 구든 마음 일부종사 쓰시오니 일기 형벌 치옵신들 일연이 다 못가서  
 일각인들 변하릿가 잇썬 남원부 할양이며 남너노소 업시 묘와 구경할 제 좌우의  
 할양더리 모지구나 모지구나 우리 골 원임이 모지구나 저런 형벌리 왜 잇시며 저  
 런 미질리 왜 잇술가 집장사령놈 눈익쳐 두워라 삼문 뺏 나오민 급살을 주리라 보  
 고 뚫난 사람이야 뉘가 안이 낙누하랴 (...) 네척 나설 썩 부치니 사티부 사또임은  
 사면공사 살피잔코 우력공스 심을 쓰니 사십팔방 남원 빅성 원망하물 모르시오 사  
 지를 갈은디도 사싱등거 우리 능군 사싱간의 못 잇것소 (...) 야달치 낫 썩 부친이  
 팔자 조흔 춘향 몸이 팔도방빅 수령중의 제일 명관 만나구나 팔도방빅 수령임네  
 치민하러 나려왔제 악형하러 너려왔소 아홉 낫치 썩 부친이 구곡간장 구부석어 이  
 너 눈물 구연지수 되것구나 구구청산 장송 배여 정강선 무어 타고 한양성중 급피  
 가서 구중궁궐 성상전의 구구원정 주달하고 구정 썩의 물너나와 삼천등을 차자가  
 서 우리 사랑 반기 만나 급이급이 밋친 마음 저근듯 풀연마는 열척 낫설 썩 부친  
 이 십싱구사 할지라도 팔십 연 정한 쓰설 십만 번 죽인디도 가망업고 무가늌지 십

184) 조광국(2004), 『한국 문화와 기녀』, 월인, 290-292쪽.

185) 박희병은 춘향의 열(烈)은 봉건적 이념으로서의 열처럼 도덕적 질서나 상황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춘향의 자유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양반 통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봉건적 신분 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춘향의 열은 맹목적이지 않으며 사랑과 신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몽룡과의 약속의 이행, 상호 신뢰 관계에 입각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춘향전>은 봉건 사회에 머물러 있던 18, 19세기에는 물론이고, 시민 사회에 접어든 20세기 현재에도 그 의의가 충분하다고 하였다. 박희병, 「춘향전의 역사적 성격 분석-봉건사회 해체기적 특징을 중심으로」, 임형택·최원식 편(1985),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 비평사, 104-107쪽.

186) 조광국(2006),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265쪽.

한 지아비를 섬기고자 하는 춘향의 의지를 피력한 첫 번째 매질부터 세 번째 매질 장면에서 뒤이어 네 번째 매질과 여덟 번째 매질 장면에서 춘향은 변학도가 권위적인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 춘향은 변학도가 사민공사(四民公事)에는 신경 쓰지 않는 등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백성에게 악형(惡刑)만 준다고 비난하며 남원 백성의 원망도 함께 전한다. 춘향이 첫 번째 매질을 당한 후, 남원의 한량들은 변학도의 모임을 비난하며 집장사령이 삼문(三門) 밖에 나오면 급살을 주기로 도모하는 등 변학도는 물론 변학도의 잘못된 명령을 집행하는 중인 계층에까지 반감을 보인다.

춘향은 ‘십장가’를 통해 당대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던 정절이라는 관념을 춘향 개인의 사적인 영역의 문제에서 변학도의 무능과 학정의 실태로 담론화하여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확대적 양상은 춘향의 항거가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sup>188)</sup> 이처럼 <춘향전>에는 춘향 개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민중의 다양한 목소리도 드러나는데 춘향이 겪는 신분제의 모순이나 탐관오리의 횡포는 춘향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평민들이 겪었던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 3) 양보와 배려

홍부와 놀부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간이지만 성격이나 가치관이 매우 다르다. 홍부는 형제간의 의리를 중시한 봉건 사회의 전형적 인물로서 선량하고 인후한 인물이며 놀부는 부모나 형제, 이웃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돌보는 인물이다. 작품의 서두에 놀부와 홍부의 성격에 대해 묘사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놀부는 심보 자체가 못되어서 남이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즐기며 남을

---

187) 「완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350-351쪽.

188) 서유석(2009), 「『춘향전 ‘십장가’ 연구-춘향 항거 의미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2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70쪽.

괴롭히는 심술궂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초상집에서 춤추기, 불난 집에 부채질 하기, 우는 아이 볼기 치기, 피는 곡식 싹 자르기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패악을 저지른다.<sup>189)</sup>

반면 홍부는 남의 일에 훼방을 놓거나 남을 괴롭히는 놀부와 달리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준수하고 남의 일을 돌봐 주느라고 자기 일을 못할 만큼 인정 많고 선량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sup>190)</sup> 홍부를 우스꽝스럽고 무능력하게 묘사한 이본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홍부는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며 선한 사람이다.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착하다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통 사회의 관점으로 본다면 적어도 선량한 사람은 유교적 가치에 부합하게 행동한다. 놀부의 늙은 종은 홍부에게 군자 같은 심덕을 지녀 어디에 가도 부자로 잘 살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강남(江南)의 장사(將師)는 홍부를 가리켜 세상의 군자라고 칭찬한 것을 보면 홍부의 성품은 선한 데서 나아가 군자(君子)의 모습과 닮은 구석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91)</sup>

작품 전반에 홍부와 놀부의 성품에 관한 일화가 여러 개 소개되는데 제비의 치료와 박을 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성격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홍부는 우

189) 놀부 심수를 볼작시면 초상 난 뒤 춤추기 불붓는 뒤 부채질하기 희산흔 뒤 기닭 잡기 장의 가면 역미 흥정하기 집의셔 못쓸 노릇하기 우는 으희 볼기치기 갓난 으희 쫓먹이기 무죄흔 놈 썸치기 빗갑시 계집 썸기 늙은 영감 덜미 잡기 으희 빈 계집 빅츠키 우물 밋티 쫓누기 오려논의 물터눅기 잔칫밥의 돌퍼붓기 펴는 곡식 삭즈르기 논두렁의 구멍 쫓기 호박의 말쑥박기 곱장이 업허눅코 발썸치로 탕탕 치기 심스가 모과나모의 으들이라 이 놈의 심술은 이러하되. 『경관 25장본 홍부전』,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2003),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11쪽.

190) 그 동생 홍부는 마음이 선착하여 삼강오륜 인의예지 지성으로 도를 닦아 군자지도를 극진히니 부모전에 효도하고 군신유의를 아는 고로 나라에는 충신이요 부부유별 생각하여 마누라를 사랑하고 장유유서 잊지 않고 어른 보며는 존경하고 봉우유신 잊지 않고 친구들께 신의 있고 청산에 나무를 갔다 백골을 보면 물어주고 논인이 등짐지면 자청하여 저다주고 부모 잃고 우는 아이 저의 부모를 찾아주고 물가에 큰물 나면 샅 안 받고 월천하고 춘하추동 사시절을 남의 일만 하느라고 제 별이를 할 수 없네. 「박동진 창본 홍보가」, 김진영·김현주·최혜진·이의철·강호봉 편저(1997), 『홍부전 전집』 1, 박이정, 192쪽.

191) 書房님 나가실 제 우리들 公論말리 君子가슨 그 심덕이 어디 가면 못 살겠나 암뒤 가도 富者 되제 (...) 主人 興甫 힘을 입어 干辛이 살여시니 興甫의 어진 德은 白骨難忘 되느이다 제비 將師 分付하되 (...) 興甫 혼 일 싱각하니 今世에 君子로다 보빅 혼나 갓다 주어 恩惠를 갑게 하라. 「박동진 창본 홍보가」, 김진영·김현주·최혜진·이의철·강호봉 편저(1997), 『홍부전 전집』 1, 박이정, 9, 21쪽.

연한 기회에 제비 다리가 부러진 것을 보고 작은 생명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성 들여서 제비를 치료해 주지만 놀부는 부자가 된 흥부를 시기하여 제비 다리를 억지로 부러뜨리고 더 많은 치부(致富)를 하려고 한다. 흥부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저 가족들이 박속이라도 배불리 먹기를 바라며 만약 보물이 나온다면 놀부인 형과 나눌 생각을 하며 박을 타지만 놀부는 박을 타면 탈수록 횡액을 당하는데도 탐욕으로 인해 멈추지를 못한다.

다음은 흥부 내외가 박을 타면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인데 흥부는 형인 놀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서 은금보화나 나오나라 은금보화 나오면은 우리 형님께 갖다가 드릴란다” 흥부 마누라가 화를 내며 “나는 나는 안 탈라요 여보 영감 형제간이라 잇었소그러 동지선달 추운 날에 백설은 펄펄 놀날릴 적에 어린 자식 발을 뺏겨 구박을 당하고 나오던 일을 관 속에 들어도 못 잊겠네” 흥부도 화를 내며 “타지 마라 타지를 말어라 이 사람아 답답허다 이 사람아 옛 성현이 말하기를 형제는 수족이요 처자는 의복과 같으구나 의복은 한 번 헤어지면 다시 지어 입으면 의복이지마는 수족은 한 번 끊어지면 어데 가서 붙이느냐 너는 오늘이라도 죽어노면 다시 얻으면 체집이지만 우리 형님은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얼굴인들 다시 보겠느냐 타지를 말어라 나 혼자 탈란다” 흥부 마누라도 맘을 돌려 “아이고 여보 영감 내가 잠시 잘못 생각을 하였쇠다 같이 박을 타 봅시다”<sup>192)</sup>

흥부는 좋은 것이 생기면 놀부와 나눌 생각을 하며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 흥부 처(妻)가 지난날 놀부에게 당한 구박에 대해 불평을 하니 오히려 형제는 수족과 같고 처자는 의복과 같다고 하면서 아내를 나무란다. 흥부는 형 놀부의 구박과 인색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형제애를 잃지 않는다. 흥부의 형편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커녕 온갖 모욕과 괘시로 자신을 내쫓은 형을 잠시 원망한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흥부의 형에 대한 마음은 한결같다. 흥부의 이런 마음가짐에 흥부의 처도 이내 생각을 고쳐먹고 함께 즐겁게 박을 타게 된다. 한편 흥부가 성현의 말을 빌어 형제는 수족으로, 처자는 의복으로 비유한 것이 일견 아내를 무시한 발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놀부에게 깊은 혈연의 정을 지니고 있는

192) 「박동진 창본 흥보가」, 김진영·김현주·최혜진·이의철·강호봉 편저(1997), 『흥부전 전집』 1, 박이정, 229-230쪽.

홍부의 마음과 태도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놀보 기가 맥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죽은 듯기 나보시 얹저 혼불불신되야 패저 있을 적에, 그때에 홍보가 이 말을 풍편에 들었던가 보더라. 천방지축 건너와서 장군 전에 비는되, “비나니다, 비나니다, 장군님 전으 비나니다. 우리 형님 지은 죄를 아우 제가 대신 받겠사오니, (...)” 장군이 더욱 감심하야, “네 이 놈, 놀보야, 네 죄상을 생각하면 당장의 죽이고 갈 일이로되, 너그 동생 어진 마음으로 보아 살려두고 가거니와 차후는 개과천선을 허렷다.” 두어 말을 이르더니 인홍불전 간 곳 없다. 그 때으 홍보가 물을 떠다가 저의 형님 전에 드리고, 사죽을 모도 주물러서 일어내켜 노니, 놀보가 그제야 인자 겨우 정신이 돌아와서, “아이고, 동생!”, “아이고 형님. 곤욕이 심하셨지요?”, “아이고 이 사람아, 동생. 내가 전사에 모든 허물되고 잘못된 일을 동생 부디 용서하소.”,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오? 제가 잘못되야 그리 된 일이지요. 형님, 제 살림도 많사오니 서로 인자 절반씩 반분하야 한 집에서 우애하고 삽시다, 형님.”, “그러세마는, 동생 볼 면목이 없네.” (...)193)

홍부의 선함과 형제애는 놀부가 모든 것을 다 잃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졌을 때 확연히 드러난다. 놀부는 탐욕으로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하며 목숨마저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홍부는 한걸음에 달려와 놀부 대신 놀부의 죄에 대해 용서를 빌며 경향이 없는 놀부를 보살피고 자신의 재산을 놀부에게 나누어 주기로 약속까지 한다. 무엇보다 홍부의 우애는 놀부를 개과천선시키는 매개가 된다.<sup>194)</sup> 이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빼앗고 홍부를 박대한 놀부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홍부의 선함은 우애를 지켜내고 한 인간의 성품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한편 홍부와 놀부가 박을 통해 얻는 결과가 부(富)와 벌(罰)로 뚜렷이 대비되는 것은 홍부는 제비를 본심(本心)인 선(善)의 발동으로 구해 주지만 놀부는 자

193) 「박봉술 창본 홍보가」, 「박동진 창본 홍보가」, 김진영·김현주·최혜진·이의철·강호봉 편저 (1997), 『홍부전 전집』 1, 박이정, 635-636쪽.

194) <경관 25장본> 등 놀부가 끝까지 뻔뻔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이본들이 있지만 한국어 학습자에게 홍부와 놀부의 성격과 한국의 가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는 놀부의 개과천선 장면이 삽입되어 있는 이본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놀부가 개과천선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거듭 좌절되면서 더 이상 욕망을 추구하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공포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김종철(2008), 「홍부와 놀부 박의 화두(話頭)-행복과 욕망, 그리고 선악(善惡)」, 『선청어문』 제3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59쪽.

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의도적인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들 두 형제의 행동을 통해 무욕은 선과 통하고 탐욕은 악과 통하며 선량한 성품은 복을 부르고 불량한 성품은 화(禍)를 자초함을 알 수 있다.<sup>195)</sup>

---

195) 설중환(1985), 「<홍부전>의 상징성과 구조적 의미」, 『어문논집』 제25권, 안암어문학회, 653-654쪽.



### Ⅲ.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설계와 실행

#### 1. 문화적 문식력과 고전 소설 교육의 관계

역사적으로 유명한 텍스트들은 문화적 문식력의 함의를 풍부하게 지니면서 문화적 문식력의 시대적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전형 개념에는 형식과 내용에 대한 전형성은 물론이며 그 시대의 이념적 지향이 전형화되어 있다.” 즉 이들 텍스트는 “개별 텍스트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그 텍스트를 생산시킨 시대의 문화적 문식력의 표상적 총화(總和)라고 할 수 있다.”<sup>196)</sup> 이러한 맥락에서 고전 소설 또한 문화적 문식력의 표상을 보여 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 소설은 한국의 정신적·물질적 문화유산을 총망라한 의미 있는 정전(正典)으로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꾸준히 전승·변용되고 있는데 우리 고유문화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통용될 만한 보편적인 지식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 소설의 전통성, 전형성, 보편성, 항구성, 개방성 등은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배경지식과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적 문식력 교육의 제재로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sup>197)</sup>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과 가치의 구체적 모습을 교육 내용화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실제로 문화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안하기에 적합하다.

고전 소설 교육은 고전 소설의 심층적 주제 탐구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지식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학습 주체로서의 문화 수용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문식력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고전 소설 교육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탐구, 가치 판단은 물론 나아가 자문화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다.

---

196) 박인기(2008), 「문화와 문식성(文識性)」의 관계 맺기,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86쪽.

197) 최재서는 고전(Classic)은 개성과 보편성, 항구성의 세 개념을 한데 통합한 것으로 문화나 전통을 논할 때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최재서(1957), 『文學原論』, 春潮社, 90쪽.

### 1.1. 전통문화와 언어·문화를 통한 배경지식의 이해

한국어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전통문화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산물 문화 중심으로 문화 요소를 선정해서 그림과 사진을 제시하고, 언어·문화에 관한 지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속담과 관용 표현을 어휘나 표현 수업 때 함께 가르치거나 교재에 따로 장(章)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 교육 내용은 지식이 아니라 낱말의 정보로 제공되고 있어 학습자가 이를 기반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가 목표 문화의 전통문화나 언어·문화<sup>198)</sup>를 학습할 때 해당 문화 요소를 각각 별개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문화 이해의 거시적 전망 안에서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는 예부터 오늘날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공유·보존해 온 일상의 모든 문화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말할 때 산물이나 제도 중심의 문화를 지식 또는 행위 차원에서 학습과 경험의 유무를 판단해 왔다. 그러나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전통문화는 한국이라는 특정 지역에 형성된 고정되고 폐쇄적인 문화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온 산물, 관념, 행위 등 문화의 전반적인 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sup>199)</sup>

---

198)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문화(language culture)’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표기도 ‘언어와 문화’, ‘언어문화’, ‘언어·문화’ 등으로 다르게 사용된다. ‘언어와 문화’는 언어와 문화를 각각 독립적으로 보면서도 언어와 문화의 상관관계와 융합 관계에 대해 주목하여 언어에 반영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인들에 대해 설명하며 개념화를 시도한 원론적 성격을 지닌다. 성기철(2004), 「언어와 문화의 접촉-언어문화」, 『한국언어문화학』 제1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성기철(2004), 「언어문화의 보편성과 개별성」, 『한국언어문화학』 제1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언어문화’로서 ‘언어 그 자체가 문화라는 전제하에 언어는 삶의 방식(way of life)’이라고 정의하고 문화가 아닌 언어는 없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언어는 문화의 일부이고 문화는 언어의 일부라는 관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언어문화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고 있어서 교육 내용으로 범주화하는 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김대행(2008), 「언어 교육과 문화 인식」,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5권 제1호, 16쪽. 이처럼 언어·문화에 대한 개념이 광범위하고 아직 합의된 정의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언어·문화라는 용어를 ‘목표 문화의 관념, 제도, 행위가 언어에 반영되어 표현된 구, 속담, 관용 표현, 문학적 표현’ 등으로 제한하여 사용하였다.

문학은 한 사회 공동체의 언어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산물로 목표 문화의 사회·문화적 지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언어·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언어와 문화와 관련된 지식이 문학 속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학습자들에게 문학이 생산된 목표 문화의 사회·문화적 지식과 언어·문화적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문학의 특성으로 인해 문학은 역사와 지리, 예술, 과학 등 기타 영역과의 변별력을 확보하여 문화적 문식력의 제재로써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다.<sup>200)</sup> 특히 신화, 민담, 소설 등은 문학의 장르적 특성과 함께 작품 안에 내재되어 있는 풍부하고 실제적인 언어·문화적 요소로 인해 문화적 문식력의 교육 내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고전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은 한국 문학의 정수(精髓)이자 정전(正典)으로 한국 문화의 특수한 전통과 인류 보편적 정서에 대해서 적실히 보여주면서 전통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통의 계승과 한국 문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한 민족이나 국가의 전통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상, 관습, 제도, 행위 양식 등 한 공동체의 전반에 걸쳐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계승되어 오는 것을 이르는데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 고전 소설을 통해 조선 시대 후기의 제도, 관습, 복식, 법제 등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고전 소설은 무엇보다 한 사회가 오랜 시간 전승해 온 전통문화와 고유한 언어·문화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물들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잘 드러내고 있다. <심청전>과 <춘향전>에서 자식을 얻기 위해 기자 치성을 드리고 자녀

199) 전통문화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재생되고 재구성되는 것이며 사회 공동체 내부의 상징과 인식에 관여함으로써 공동체 성원들의 의사소통 과정에 내재되어 있다. “전통은 전통 사회에서의 관습(custom)과 명확히 구분되며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 또는 환경에 적응하고 창조되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Hobsbawm, E. & Ranger, T.(Eds.)(1983), Hobsbawm, E., “Introduction: Inventing Tradition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14.

200) 허쉬는 초등 교육 수준에서 습득해야 할 핵심적 문화 지식을 선정하여 교재를 개발하였는데 ‘언어와 문학’에서 시, 이솝 우화, 이야기, 신화, 문학, 속담과 관용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Hirsch, Jr., E. D.(ed.)(1993), *What Your 6<sup>th</sup> Grader Needs to Know*, Core Knowledge foundation.

양육을 위해 애를 쓰는 장면은 현재에도 이어져 오는 전통문화의 일면이며 인물들의 대화나 서술자의 논평에서 보이는 속담과 관용 표현 등은 언어·문화의 일면으로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고전 소설을 통해 학습자들은 목표 문화의 지식을 개개의 정보적 문화 요소가 아닌 배경지식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지식을 획득하면서 문화적 문식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 1.2. 가치 갈등과 윤리 규범의 이해를 통한 가치 체계의 해석

고전 소설에는 한국 문화의 보편적 가치와 사유 체계가 인물의 사고와 행위, 사회 제도와 윤리 규범, 생활문화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두루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한국 문화의 보편적 가치와 사유 체계는 유교·불교·도교·민간 신앙 등 다양한 종교와 민중의 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 전승되거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즉 고전 소설은 역사적 관점에서나 현재의 시각에서나 한국인의 보편적 또는 특수한 가치 체계를 내재하고 있는 문화적·문학적 총체로서 전통 사회의 윤리 규범이었던 충, 효, 열, 우애와 근대 사회에 부각된 자유, 평등, 인류애, 인간 해방, 개인의 욕망 추구 등 다양한 가치 지향에 대한 관심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고전 소설을 통해 한국 문화의 보편적 가치와 사유 체계들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고전 소설은 한 개인의 사적 창작 소산물에 그치지 않고 한 사회·문화 공동체가 오랜 시간을 걸쳐 생산해 낸 문화적 양식이며 특히 소설 속의 인물이 지닌 가치에서는 사적 가치의 특수성보다 그 사회에서 인정되고 공유된 보편적인 공공성(公共性)을 더 많이 드러낸다. 여기에서 공공성이 드러난 가치는 ‘효(孝), 열(烈), 우애(友愛) 등의 윤리 규범이나 윤리 덕목에 해당하는 추상적 원리로서의 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심청의 효, 춘향의 열, 홍부의 우애처럼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의 실천 행위와 맞물려 구체적으로 표상화된 가치이다. 즉 소설 속에 내재된 가치 규범은 절대적·당위적 대상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소설 속 인물의 주체적 자아와 결부되어 구체적 대상으로 의미화되며 당위적 가치라고 해도 아무 고민이나 갈등 없이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갈등

또는 개인과 사회의 외적 갈등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심청전>의 ‘효’는 학습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라는 당위적 윤리 규범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눈먼 아버지는 누가 돌보는가, 인당수에 빠지려고 하니 온몸이 떨리고 너무 두렵다.’ 등의 가치 갈등의 문제와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위인가, 효도를 실현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가.’ 등의 가치 규범과 가치 태도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처럼 고전 소설은 학습자들에게 삶과 관련된 구체적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요구한다.

학습자들이 목표 문화의 가치 체계를 단순히 당위적 명제로 이해하는 것과 고전 소설 속의 인물의 사고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치 판단하고 가치 평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교육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작품의 가치나 주제를 학습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고전 소설은 인물이 겪는 다양한 가치 갈등과 인물이 추구하는 도덕적·윤리적 가치 규범이 제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습자에게 목표 문화의 가치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과 가치 태도 형성의 계기를 제공한다. 이는 목표 문화의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와 사유 체계를 인식하는 일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고전 소설 교육은 인물들이 겪는 가치 갈등과 가치문제를 상정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가치 판단과 가치 평가를 하면서 목표 문화에 대한 가치 체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문화와 비교한 보편적 가치 규범의 문제에 대해서 숙고하게 하며 개인적 성찰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구안되어야 한다.

## 2.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 설계의 기반

### 2.1.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 소설 교수·학습에 대한 예비적 고찰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을 설계하기에 앞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고전 소설 경험과 기준에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고전 소설 교수·학습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이는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 선정 및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는 데 한국어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전 소설 교육의 실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성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1) 고전 소설 교수·학습에 대한 학습자 경험 분석

고전 소설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경험은 학습자들의 경험 일지를 통해 살펴 보았는데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의 양 측면이 모두 있었다. 먼저 고전 소설을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지문으로 학습한 학습자들은 고전 소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이는 어휘 수준이나 어휘량이 많지 않으며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이 간략하고 명시적으로 서술되어 작품의 표면적 주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점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스토리니까 단어들 무슨 뜻인지 알면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K1-1-1-3급-3]

어학당에서 배운 <춘향전>은 너무 짧아서 <춘향전>을 영화로 봤는데 재미가 없어서 보다가 말았다. 전통 문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나 영화 말고 차라리 판소리로 배우면 재미있을 거 같다.

[㉠-K1-2-2-4급-3]

학습자 [㉠-K1-1-1-3급-3]은 이야기 구조에는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들만 알면 고전 소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했으며 학습자 [㉠-K1-2-2-4급-3]은 고전 소설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흥미가 떨어질 정도로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고전 소설을 언어적 형태인 지문으로 제공받기보다 판소리로 배우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학습자들은 고전 소설 수업의 교육적 유익함에 대해서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고전 소설을 언어 학습의 텍스트 자료로서 제공받았기 때문이며 교수·학습 중에도 학습자의 지식 구성이나 가치 판단이 개입할 만한 동기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고전 소설을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매체 변용을 통해 접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학습자 [㉠-K2-2-2-4급-3]은 영화 <춘향전>이 재미없어서 보다가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 수준과 흥미에 맞지 않는 영화를 매체 자료로 활용했기 때문인데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매체를 활용할 경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다음은 고전 소설 전체를 탐독한 후 경험 일지를 작성한 학습자로서 언어 문제와 배경지식의 부족으로 고전 소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고전 소설을 학습할 때 영화나 만화 등의 매체를 보조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현대 소설을 읽을 때에 비해서 모르는 단어와 구절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소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보다 힘들다. 어떤 문학을 공부하려면 그 역사 시기의 역사 배경, 문학 배경, 문학 특징 등을 충분히 알아야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관련된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고전 소설 작품을 잘 소화하는 데에 문제가 생긴다. <춘향전> 같은 고전 소설의 원문이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으니까 읽을 때 힘들기도 하고 흥미가 쉽게 잃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 소설과 관련된 영화, 만화 등 자료를 부충으로 알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

[㉠-K2-2-2-5급-15]

학습자 [㉠-K2-2-2-5급-15]는 고전 소설은 언어적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고전 소설 교수·학습 계획 시 언어 변용 및 한자 병기에 대한 문제를 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다음 문제로 지적된 것은 작품과 관련된 배경지식의 부족이다. 고전 소설은 특히 고전이 창작된 시기의 사회적·문화적 배경과 고전 소설 고유의 장르적 특성 등도 고려해서 제시되어야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학습자는 고전 소설 학습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고전 소설에 대한 배경지식을 현대 학습자들이 익숙한 매체의 활용을 통해 보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2)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고전 소설 교수·학습에 대한 검토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는 고전 소설을 인물의 행위와 사건, 주제를 중심으로 작품의 줄거리를 간략히 요약하고 압축하여 서술하거나 회곡으로 각색하여 제시하고 있다.<sup>201)</sup>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 소설은 문학 교육이 아닌 주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언어 기능 교육의 제재로서 활용되면서 읽기 지문으로 제공되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전 소설을 학습 제재로 교수·학습하는 것은 고전 소설의 문화 또는 문학 교육적 기능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이화여대 교재는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 세 작품을 모두 수록하고 있는데 각 작품의 서사를 집약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고어(古語)의 현대어 어휘 변용과 관용 표현의 선정도 비교적 잘 이루어진 편이다. 이 교재는 작품의 제목을 ‘효녀 심청’, ‘열녀 춘향’처럼 주인공의 가치 지향과 작품의 주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홍부전>을 회곡으로 각색한 서울대와 건국대 교재는 고전 소설의 서사와 장르 전환의 예를 보여 준 것이고 <심청전>의 일부를 발췌하고 운문해서 제시한 경희대 교재는 학습 활동과 연계해 고전 소설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등 고전 소설의 문학 교육적 일면을 볼 수 있다.

기존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 소설의 교수·학습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201) 이밖에 고전 소설의 주제나 줄거리를 대화의 소재로 활용한 교재들이 있는데 이는 고전 소설을 교수·학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지문의 예처럼 작품에 대한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한두 가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05), 『한국어 5』, 연세대학교 출판부, 97쪽.

(...)

제임스: 그런데 마음씨 착한 홍부는 왜 밤낮 놀부한테서 구박만 받습니까?

이교수: 그게 바로 놀부의 심보 때문이지요. 나 먹자니 싫고 남 주자니 아까우니까 괜히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욕심 많은 사람을 보고 놀부라고 해요.

제임스: 사실 홍부는 생활 능력도 없는데 체비 덕에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요즘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교수: 글썽요. 옛날 얘기니까 현대의 시대 감각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교훈은 뚜렷해요. 우리나라의 옛날 소설은 대부분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게 많답니다.

(...)



첫째, 고전 소설의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한 소개를 전반적·개괄적으로 요약하여 기술하면서 작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인물과 사건을 통해 목표 문화의 관념과 가치, 풍속, 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학습 활동은 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차원이 대부분이다.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심학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 심봉사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심청이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하늘이 도우시면 무슨 수가 생기겠죠.” 그러던 어느 날, 심청이가 우물물을 길고 있는데 “인당수에 바칠 처녀를 구합니다. 쌀 삼백 섬을 주겠습니다.” 상인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를 사세요.” 다음 날 상인들은 심청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뒤늦게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심봉사는 소리 내어 영영 울었습니다. “청아! 못 간다. 이 아비를 두고 어딜 가느냐?” 심봉사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눈을 뜨시고 밝은 세상을 보세요. 흑흑” 그들이 가야 하는 뱃길에는 인당수라는 곳이 있는데, 용왕의 심술에 배가 지나가기에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용왕에게 15세의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학습 활동> ▶ 읽기 후 활동

1. 윗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2. 심청전의 주제를 써 봅시다.<sup>202)</sup>

위에 제시한 <심청전>의 경우처럼 원작의 줄거리를 요약해서 제시한 지문들은 고전 소설의 교수·학습 내용으로 전통 사회의 산물, 풍속, 제도, 가치 등의 문화적 지식과 가치, 인물, 사건, 주제 등 문학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문들은 원작을 요약하고 압축하여 서술하면서 윤색도 병행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윤색을 하면서 축소 또는 왜곡된 부분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 예를 들면 <심청전>에서 뱃사람들이 심청을 바다에 제물로 바치고자 한 것은 용왕의 심술 때문이라는 서술은 심청의 의미 있는 행위를 단순하게 만든다. 심청의 희생 제의는 심청의 효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인데 제시된 지문으로는 작품에 대한

202)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2014), 『한양 한국어 5』, 한양대학교 출판부, 198-199쪽.

이해의 폭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

둘째, 소설의 일부 주요 장면을 발췌 또는 각색해서 제시하면서 작품의 소재와 주제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작품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다. 학습 활동은 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주인공 심청의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 및 학습자의 가치 태도 등을 묻는 형태<sup>203)</sup>와 결말 부분 다시 써 보기, 연극으로 구현하기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작품의 확장성을 고려한 것이다.

(…)

홍부 가족들: (은 가족이 흥분해서 툽질을 하며) 슬근슬근 툽질하세.

슬근슬근 툽질하세. (갑자기 ‘펑’하며 박 속에서 비단이 쏟아져 나온다.)

홍부 가족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니, 이건 비단이잖아.

해설자: 놀랍게도 홍부네 가족이 박을 자를 때마다 보물이며 돈이며 온갖 귀한 물건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부네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욕심 많은 놀부가 한걸음에 달려 왔습니다.

놀부: (흥분한 목소리로) 홍부야, 이리 나와 보라. 형님이 왔다.

<학습 활동> ▶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의 대본을 써 보세요.

▶ 각자의 역할을 정해 연극 연습을 해 보세요.

▶ 직접 연극을 해 보세요.<sup>204)</sup>

기존 한국어 교재는 고전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작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압축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학습자들에게 인물과 사건에 대한 역동성·현장성을 체험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고전 소설을 각색해서 제시한 지문들은 대체로 교수·학습 내용으로 작품의 전반적인 서사, 인물에 대한 구체적 묘사, 인물을 통한 가치와 주제 의식의 명시적 전달, 구어체의

203) 건국대 교재에서는 <심청전>을 희곡으로 각색하여 제시하고, ‘쌀 삼백 석을 구하기 위해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혼자 두고 떠난 심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심청이라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의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2009), 『한국어 4』, 건국대학교 출판부, 210쪽.

204)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 4B』, (주)투판즈, 190-194쪽, 일부 발췌.

한국어 표현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전 소설을 그 자체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희곡으로 변환하여 제시한 것으로 문학의 장르적 특성이 다르므로 고전 소설의 원 작품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 단계로 다른 장르로의 변환 등을 고려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셋째, 고전 소설 작품을 개관하면서 소설에 대한 정보나 배경지식을 제공한 후, 지문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학습한 정보를 활용하여 상호 텍스트적 쓰기 활동을 하는 것이다.<sup>205)</sup>

춘향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소설이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주제로 하여 판소리 춘향가로 불렸으며, 현대에도 영화, 연극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조선 영조·정조 전후의 작품으로 추정되지만 작자와 연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작품의 주요 배경은 전라도 남원이다. (...) 그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 ‘춘향전’은 총 13편이다. 이외에 TV 드라마, 마당극, 연극 작품까지 합치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수백 년 동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춘향전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춘향전이 대중문화의 영원한 주제인 ‘사랑’과 ‘이별’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

<학습 활동>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품 중에서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것을 골라서 줄거리를 써 봅시다.<sup>206)</sup>

위에 제시된 지문을 살펴보면 <춘향전>의 창작 시기, 작가, 작품의 공간적 배경 등 작품과 관련된 정보를 요약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춘향전>이 다양한 매체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또한 춘향전이 오랫동안 주목받는 이유로 ‘사랑과 이별’이라는 인류 보편적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음을 들었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 내용은 일찍이 허쉬가 제시했던 문화적 문식력의 목록처럼 백과사전식의 정보나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지만 목표 문화

205) 고전 소설 작품 자체에 대한 교수·학습이 아닌 작품의 외적 정보와 관련된 텍스트 제공은 엄격한 의미에서 고전 소설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학습자들에게 고전 소설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와 배경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논의에 포함시켰다.

206)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2004), 『한국어 고급 I』, 경희대학교 출판국, 22-25쪽, 일부 발췌.

에 대한 학습자의 사고력이나 비판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문학 자체의 교수·학습 내용 즉 문학에 내재된 지식이나 가치 등에 대해서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대학	교재명 및 한국어 등급	활용 영역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고전 소설	수록 형태
서울대	한국어 4B	말하기 읽기	홍부와 놀부	희곡(각색)
건국대	한국어 4	말하기 읽기	효녀 심청	희곡(각색)
	한국어 5	말하기	춘향가, 심청가, 홍부가, 수궁가	대화의 소재
	한국어 6	듣기 읽기 쓰기	춘향전	줄거리 요약
경희대	한국어 중급 II	읽기 말하기	효녀 심청	소설 일부 발췌 (부녀 이별 장면)
	한국어 고급 I	읽기 쓰기	춘향전	이야기, 희곡, 비평문, 감상문
서강대	서강 한국어 5B	읽기	홍부와 놀부	줄거리 요약
선문대	Advanced Korean 2	읽기	심청전	희곡(각색)
성균관대	배우기 쉬운 한국어 5	말하기 읽기	춘향전	대화의 소재 줄거리 소개
연세대	한국어 5	말하기 읽기	마음씨 착한 홍부	대화의 소재
	한국어 6	읽기	춘향이의 사랑	작품 해설 줄거리 요약
이화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 IV	읽기	열녀 춘향, 놀부 심보, 효녀 심청,	줄거리 요약
한양대	한양 한국어 5	산문 소설	홍부와 놀부	줄거리 요약
		읽고 말하기	효녀 심청	

<표 III-1> 각 대학 기관의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고전 소설과 수록 형태

### (3) 학습자의 고전 소설 이해 양상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한국어 학습자의 고전 소설 경험 분석 및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고전 소설의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검토한 후, 한국어 학습자의 고전 소설 교수·학습에 대한 이해 양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고전 소설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점을 파악하여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설계를 하는 데 참고하기 위함이다.

예비 수업의 참여 대상자는 국내 대학의 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로서 한국어 능력은 3급과 4급 수준이며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을 3차시에 각각 한 편씩 총9차시에 걸쳐 교수·학습하였다. 고전 소설 교수·학습 내용은 작품 속 인물의 성격과 행위를 중심으로 목표 문화의 가치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줄거리 요약본<sup>207)</sup> 형태로 제공하였고, 교수·학습 활동은 고전 소설 강독 및 매체 자료의 활용<sup>208)</sup> 등 교사 중심의 교수 활동과 토론과 감상문 쓰기의 학습자 활동을 수행하였다.

#### 1) 고전 소설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

한국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고전 소설 교수·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청전>은 심청의 출생과 광씨 부인의 죽음, 심봉사의 젓동냥, 심청의 희생과 환생, 부녀 상봉 장면,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과 이별, 변학도의 수청 요구와 거절, 춘향과 이몽룡의 재회 장면, <홍부전>은 홍부와 놀부의 성격 소개, 홍

---

207) 이화여대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였는데 이 교재는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의 세 작품이 모두 한 교재에 수록되어 있어 지문의 언어 수준과 제시 형태가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제시된 지문은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과 행동, 이야기의 주요 사건 등을 통해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히 전달하고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고전 소설의 개요와 정보를 함께 전달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2), 『말이 트이는 한국어 IV』,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8) 매체 자료의 활용은 <심청전>을 강독한 후 <심청의 귀환>이라는 드라마의 중요 부분을 편집하여 학습자들에게 보여 주었다. <심청의 귀환>은 <심청전>을 각색하여 KBS에서 2007년 2월에 방영한 2부작 드라마이다.

<http://www.kbs.co.kr/drama/special/simchung/index.html>

부의 제비 치료와 제비의 보은, 놀부가 탐욕으로 인한 화(禍)를 입는 장면이다. 이처럼 각 작품의 주요 서사와 주제 의식이 지문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문제는 다양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건들이 한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고 무엇보다 등장 인물의 심리나 가치 등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 내용의 심화와 확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전 소설 학습을 할 때 인물의 성격과 행위는 인물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학습자들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이해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즉 소설 속 인물의 이해는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파악하여 작품의 의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소설은 인물과 사건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은 사건보다 인물이 더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작품의 주인공인 심청, 춘향, 홍부의 사고와 행위, 가치 등이 외적으로 실현되면서 여러 사건들이 전개되고 그 사건들의 전개 과정과 결말을 통해 인물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인물의 성격과 행위는 작품 이해의 가장 근간이 되며 작품의 심층적 주제에 대해 살필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심청의 심봉사에 대한 효도는 단순한 물질적인 봉양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개안과 자신의 생명을 맞아꾸는 희생 행위로까지 나아갔는데 이는 심청의 본성이 순수하고 이타적인 성품을 지녔음을 알게 한다. 또한 심청의 자기희생적 헌신은 마침내 심청이 황후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버지의 평생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보상까지 받게 한다. 춘향의 정절에 대한 수호 의지는 유교적 규범을 준수하려는 마음과 더불어 춘향의 강직한 성격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춘향의 강직한 성격은 신분 차별을 벗어나 인간 평등을 염원하는 주제 의식과도 관련되어 있다. 한편 춘향이 이몽룡과의 사랑을 추구한 것은 신분 상승을 위한 춘향의 욕망이 컸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논의도 있지만<sup>209)</sup> 이몽룡이 거지꼴로 춘향을 찾아왔을 때 월매와 달리 이몽룡을 박대하지 않고 반갑게 맞이하여 준 모습을 보면 춘향은 이몽룡을 신분 상승의 도구로 여기지 않고 임을 사랑하는 순수함을 지닌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춘향의 이몽룡에 대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홍부는 형인 놀부에게 부모님께서

209) 이상택은 춘향은 천인이라는 자신의 귀속 신분에 대해 열등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상류 사회로 진출하려는 성취동기가 강한 인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상택, 「성격을 통해 본 춘향전」, 김병국·김대행·김진영·정병현 편(1996),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이정, 220-236쪽.

남겨 주신 유산도 뺏기고 온갖 구박을 받았지만 놀부를 배척하지 않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는 선량한 인물이다.

작품	인물	성격	행위
<심청전>	심청	- 효성이 지극함.	- 행실이 바름. - 인당수에 빠짐 - 황후가 되어 맹인 잔치를 엮.
	심봉사	- 자애로움. - 경솔함.	- 심청을 위해 젓동냥을 함. - 공양미 삼백 석의 시주 약속.
<춘향전>	춘향	- 의지가 강함. - 순수함.	-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함. - 거지꼴인 이몽룡을 반갑게 맞아 줌.
	이몽룡	- 의리가 있음. - 정의로움.	- 남원에서 춘향과 교제하다가 한양으로 올라감. - 한양에서 머무를 때 춘향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음. - 옥에 갇힌 춘향을 만나러 감. - 어사또로 출두하여 변사또와 관리들에게 벌을 줌.
	변사또	- 포악하고 색을 밝힘.	-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함. - 춘향을 매질함.
	월매	- 현실적임.	- 거지꼴로 돌아온 이몽룡을 박대함.
<홍부전>	홍부	- 마음씨가 착함.	- 다친 제비를 보살펴 줌. - 박을 탐.
	놀부	- 심술이 사나움.	- 동네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힘. - 유산을 독차지하고 홍부네를 내쫓음. - 제비 다리를 부러뜨림.

<표 III-2> 고전 소설 교수·학습 내용

## 2) 학습자 양상 관찰 및 문제점 분석

### ① 지식 구성 부재로 인한 텍스트 정보의 나열

학습자들 대부분은 소설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거나 작품의 개요를



정리한 후 한 문단 정도로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으로 감상문을 썼다. 즉 고전 소설의 줄거리가 요약된 지문을 줄여서 그대로 다시 쓰는 형태로 학습자의 생각이나 느낌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옛날 남원에 춘향 살고 있었어요. 춘향은 퇴기 월매의 딸로 비범하고 뛰어난 아름다움을 갖추었어요. 이몽룡은 춘향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춘향은 끝내 거절해요. 결국춘향과 이몽룡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㉔-K1-2-1-3급-6]

여주인공 심청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심봉사가 혼자서 키우셨다. 그래서 집에 상황 아주 가난해도 아버지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다. 어느 날 심봉사는 집에 들어오지 않은 심청이 찾기 위해서 외출하는데 개울에 빠지다. 그때 마침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심봉사를 구해줘서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하면 눈을 뜰 수 있다가 말한다. 그래서 심청이 알아서 아버지가 눈을 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다짐을 생기다.

[㉔-K1-2-1-3급-9]

학습자들은 텍스트에서 제시된 이야기의 단편적 사실들을 그대로 나열할 뿐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가치, 경험 등을 내면화해서 지식 구성을 해내지 못했다. 즉 제시된 교수·학습 내용을 단순한 사건 차원의 이야기로 수용해서 다시 단편적인 정보 차원에서 산출하였다. 정보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사건이 그대로 주어진 형태이고 지식은 이러한 정보를 학습자 자신의 사고로써 구성하여 획득한 새로운 산출물로 볼 수 있는데 학습자들은 자신만의 지식 구성을 하지 못하고 주어진 텍스트 정보를 그대로 다시 쓰기 하는 것에 그치고 만 것이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대상에 대한 정보, 사실,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화제나 작품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고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sup>210)</sup> 물론 정보, 사실, 자료들만 가지고 학습자의 사고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더 나은 해답을 찾을 수는 있다.

---

210) Gardner, H.(1999), "Toward Good Thinking On Essential Questions", *New York Times*, September 11, p.15.

## ② 목표 문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의 부재

목표 문화의 산물, 제도, 관습 등을 이해하는 데는 학습자가 이미 갖추고 있는 배경지식이나 새로 알게 된 정보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습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널리 인정하면서 지켜 온 풍습으로 그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므로 문화적 문식력의 중요한 객체적 대상의 하나이다. 목표 문화의 특별한 관습이 학습자 모국의 문화에 없거나 있어도 잘 알지 못할 때 학습자는 대상 관습에 대해 흥미 또는 낯선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목표 문화의 관습에 대한 낯선 감정은 때로는 불유쾌하고 이해하기 힘든, 문화적 충돌이나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 문화의 특정 관습에 대한 이해는 그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 또는 개방적 태도를 요구한다.

다음은 <심청전>에서 아버지의 개안을 위해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장면에 특별한 인상을 받은 학습자가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 자기 몸을 팔았을 때 난 어리석은 옛날 선인들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풍량이 심하다고 산 사람을 물에 제사 지내면 파도가 잠잠해 진다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옳지 못하다. 정말 그런 풍습이 옛날에 있었을까?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효도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동화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㉗-K1-1-1-4급-9]

학습자 [㉗-K1-1-1-4급-9]는 <심청전>에서 심청이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인당수에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을 보고 이러한 제사를 주도하는 선인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신공희(人身供犧)의 풍습에 대해 회의적이다. 현대의 과학적 사고로는 산 사람을 희생 제물로 한다고 해서 자연재해가 멈춰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학습자의 입장에서 배와 뱃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특정인을 희생시키는 일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전통 사회가 아닌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적 관점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이 있을지라도 한 개인의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인신공희는 한국의 전통 관습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수렵 시대 및 유목 시대, 농경 시대에 이르기까지 행해졌던 일종의 제의(祭儀)에 가깝다. 즉 <심청전>에서의 인신공희는 사건의 극적인 전개 및 효과를 위한 문학적 장치, 혹은 인간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제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③ 목표 문화의 규범적 가치에 대한 판단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의 세 작품 중 주인공의 행위에 대한 학습자의 가치 판단이 가장 분분한 것은 단연 <심청전>이다. 심청의 효도 방식은 현대인, 특히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심리적·문화적 충격과 함께 여러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던져 주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자문화의 규범과 배경지식 또는 본인의 가치관에 기인해 목표 문화를 판단한다.

(…) 셋번째, 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다시 광명을 찾기 위해 자신을 바치려고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죽어 버리면 누가 아버지를 섬길까요? 자기가 죽고 아버지 앞을 계속 볼 수 없으면 어떻게죠라고 생각하 본 적도 없겠다. 중국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도 있는데 부모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기의 살을 자르는 사랑도 있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듣고, 아이를 묻은 사람도 있다. 이런 것은 봉건사회에서 ‘우충우효’라고 생각한다. 봉건사회에서 건강하지 않은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원래는 효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㉔-K1-2-2-4급-14]

(…) 심청의 아버지가 두눈이 실명된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너무 빈곤한다. 곤란이 있다 해도 심청이 포기할 생각을 없다. ‘가난 한 집의 아이는 일찍 집안일을 맡아본다’ 중국에 이런 말을 도있다. 심청은 찌자 착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난 가정을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여주인공이 너무 착하다. 병중에 아버지가 잘 돌본 데다가 가사도 책임져 왔다. 이렇게 착한 사람은 승려한테 사기를 당했다. 여기에 봤을 때 정망로 화를 내고 있었다. 정말 가련한 심형은 아버지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결정했다. 출발 전에 아버지를 타인한테 맡긴다. (…) 고대인들은 효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한 양국에 유가 사상이 영향을 받다. 유가사상은 제일 중요하는 것은 효도있다.

[㉔-K1-1-1-4급-18]

학습자 [㉔-K1-2-2-4급-14]는 심청의 자기희생적 효도 행위를 자문화의 가치 규범에 기반해 평가하고 있다. 학습자는 심청의 효도를 우효(愚孝)로 보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 국가에도 존재했던 봉건 사회의 건강하지 않은 사상으로 판

단하고 있다. 학습자는 한(漢)나라 때의 곽거(郭巨)가 자신의 세 살짜리 아들이 노모의 밥을 축낸다고 생각하여 아들을 묻으려고 했던 ‘위모매아(爲母埋兒)’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비합리적인 형태의 효도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자문화나 목표 문화에서 중요한 가치 규범으로 여겨지는 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승되고 있는 것은 효 가치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그런데 학습자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학습자는 자식된 도리로서 효를 행할 때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듣고 아이를 묻은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곽거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를 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발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즉 자식보다 어머니에게 더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사실이다. 학습자는 이 점에 대해서 간과하면서 심청의 효를 어리석은 효로 평가하고 있다.

학습자 [㉔-K1-1-1-4급-18]은 심청이 자신의 가난함을 탓하지 않고 부친의 봉양과 집안일을 성실히 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자문화인 중국의 민간에 전해지는 ‘가난한 집의 아이는 일찍 집안일을 맡아 본다(一个家庭的贫困孩子早当家(穷人的孩子早当家).’는 말을 인용하면서 심청의 처지에 공감하고 심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즉 학습자 국가에서도 심청과 비슷한 상황에서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 목표 문화의 인물을 이해하는 기반과 인물의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학습자는 심청의 효를 유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자문화와 목표 문화의 당연한 결과로 여기고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학습자들은 심청의 효도 방식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개인적 가치나 자문화의 가치 규범을 기준으로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 심청의 효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고민한다. 사실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은데 효녀 심청은 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을 정말 의해를 못한다. 왜냐하면 효녀 심청은 이렇게 힘내고 맹목적으로 무모하게 진행하며 자기의 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심봉사도 슬퍼서 자책하겠다. (...)

[㉔-K1-2-1-3급-24]

심청전은 효도에 대하여 소설을 만드는 것이다. 그 소설의 주인공 심청은 나타난 7일 후에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났는다. 심청과 보이지 않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심청이 아버지께서 다시 빛을 보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었다. 제 생각하는 심청의 마음과 의도는 착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그님은 스님들이 기만했으니까 선택

은 행동 맞지 않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무엇보다 더 슬픈 것은 자녀의 죽음이다.  
그러므로 좋은 마음이 있는 때 이상적인 행동해야 한다.

[㉔-K1-2-1-3급-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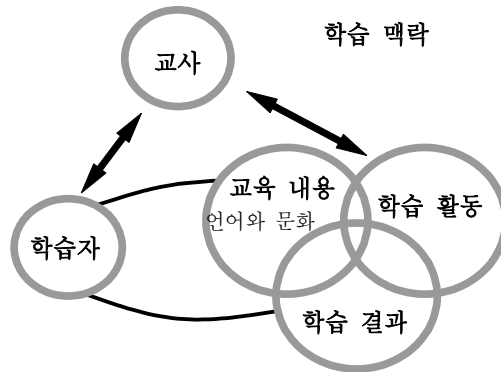
학습자 [㉔-K1-2-1-3급-24]와 [㉔-K1-2-1-3급-2]는 모두 공통적으로 심봉사를 위해 몸을 버리는 심청의 효도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식의 죽음을 통해 눈을 뜨고자 하는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자식의 죽음만큼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효도하고자 하는 심청의 마음과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기희생은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학습자들의 공통점은 심청의 자기희생 행위를 비판하고는 있지만 이를 대신할 효를 실천하는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두 아버지인 심봉사의 입장에서 서 있다.

<심청전>의 주인공이 심청이라고 해서 학습자들이 모두 심청의 관점에서 작품을 읽고 평가할 의무는 없지만 심청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즉 자식의 상해나 희생을 통해 얻는 효는 진정한 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민담에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희생하여 부모를 봉양한 효자와 효녀 이야기가 허다한데 이들의 행위를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심청은 이들과 달리 신체의 일부가 아닌 생명을 희생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심청이 처한 상황과 가치 갈등, 가치 실현의 방식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 2.2.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설계 원리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관점에서 문화를 조직하고 정의하는 ‘문화 경험(the cultural experience)’, ‘문화 지식(cultural knowings)’, ‘경험 학습 주기(the experiential learning cycle)’의 세 가지 접근법을 이론적 토대로 하였다. 제2언어 또는 외국어 교육에서 목표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문화 경험과 문화 지식은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의 기반 요소가 되며 경험 학습 주기는 학습자가 문화적 문식력을 갖춰 나가는 학습 과정과 상응

한다.



<그림 III-1> 문화 경험<sup>211)</sup>

문화 경험은 학습자가 목표 문화와 구체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 내용, 학습자들의 활동과 학습 성취 결과, 학습 맥락, 교사와 학습자 간의 관계성 등을 포괄한다. 고전 소설 교수·학습은 교사의 교육 내용 선정과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작품을 통한 간접적인 문화 경험과 학습자의 직접적인 문화 체험이 가능하다.

문화 지식은 대상을 아는 것, 이유를 아는 것, 방법을 아는 것, 자신을 아는 것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은 상호 작용하며 문화 학습을 구성하는데 참여, 기술, 해석, 반응의 경험 학습 주기를 가진다.<sup>212)</sup> 대상을 아는 것은 자문화의 지식은 물론 목표 문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 목표 문화의 성격, 언어·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하며 이유를 아는 것은 목표 문화의 관점과 내용, 목표 문화의 문화 경험에 대해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법을 아는 것은 목표 문화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목표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말하며 자신을 아는 것은 목

211) Moran, P. R.(2001), *Teaching Culture: Perspectives in Practice*, Heinle, pp.13-14.

문화 경험을 내용(content)과 과정(process)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Crawford-Lange, L. M., & Lange, D. L.(1987), "Integrating Language and Culture: How to Do It", *Theory into Practice* 26(4), pp.258-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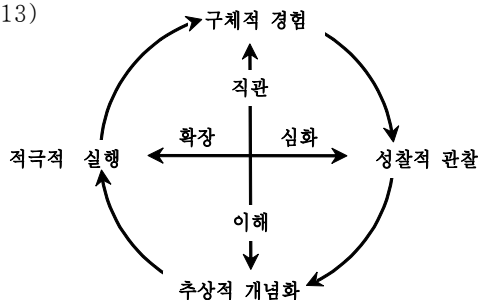
212) 모란(Moran)은 콜브(Kolb)의 '경험 학습 과정'에 관한 논의를 문화 지식에 적용하여 경험 학습 주기를 제시하였다. Moran, P. R.(2001), *Teaching Culture: Perspectives in Practice*, Heinle, pp.19.

표 문화를 경험하는 주제로서 자신의 가치 기준을 인식하는 것이다. 경험 학습 주기는 학습자의 구체적 경험, 성찰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적극적 실행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단계들을 통해 문화에 대한 이해를 경험에 통합시킬 수 있다.<sup>213)</sup>

즉 고전 소설 교수·학습은 특정한 학습 맥락에서 고전 소설 교육 내용을 이해한 학습자가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성취해 낸 학습 결과까지를 포함한 일련의 문화 경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고전 소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고전 소설의 내용을 해석하고 자신의 관점 또는 목표 문화의 가치 기준에 비추어 개념화하고 고전 소설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과 가치를 확장·심화시켜 문화 텍스트를 생산하는 학습 주기를 갖는다. 또한 고전 소설 교육에서 대상을 아는 것은 고전 소설에 반영된 한국의 제도와 관습, 언어·문화적 표현 등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유를 아는 것은 고전 소설에 나타난 등장인물을 통해 한국인의 가치가 무엇인지, 한국인은 왜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이며 방법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은 고전 소설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과 가치를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의 관점과 태도를 확립해서 고전 소설을 새롭게 해석하고 변용하여 자기만의 산출물을 내는 것과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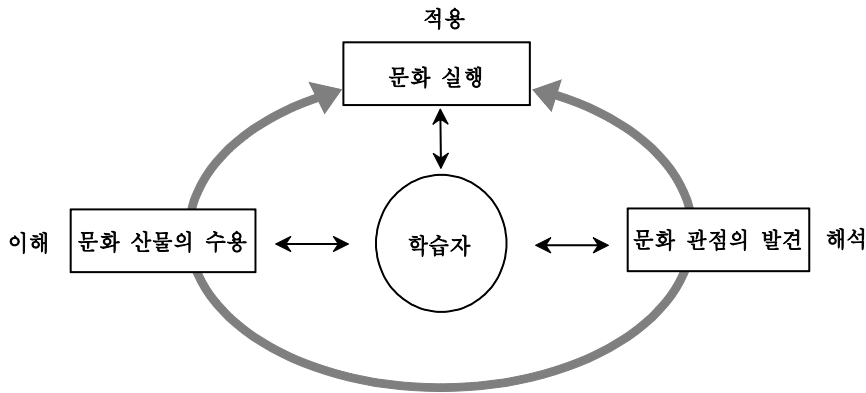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고는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원리를 ‘문화 산물의 수용과 이해’, ‘문화 관점의 발견과 해석’, ‘문화 실행과 적용’의 세 측면에서 설계하고자 한다.

213)



<그림> 콜브(Kolb)의 경험 학습 과정

Kolb, D. A.(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Prentice-Hall inc, pp.40-42.



<그림 III-2>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설계 원리

#### (1) 문화 산물의 수용과 이해

외국어 교육 또는 제2언어 교육에서 문화 산물(cultural products)은 학습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문화 학습은 문화 산물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문화 산물이란 한 문화가 생산해 낸 문학, 민속, 예술 작품 등 유형의 산물은 물론 정치, 종교, 제도 등 무형의 산물을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문화 산물은 한 사회 공동체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비교적 가시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제도나 관습 등의 체계는 실체적인 측면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인식이 가능하지만 인공 산물과 달리 복잡하고 중층적인 사회·문화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념이나 행위 등 문화의 다른 차원, 개인과 공동체 등 사회 구성원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체계로서 사회 구성원의 문화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목표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을 설계할 때 고전 소설은 작품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적 문화 산물이며 다양한 제도와 관습, 풍속 등의 문화 산물을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전 소설 속에 묘사된 문화 산물은 단순히 인공 산물(artifacts), 장소(places), 제도(institutions),



예술 형태(art forms)로서의 각각의 문화 산물이 아닌 소설의 인물, 사건, 배경, 주제, 구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입체적이고 중층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고전 소설을 통해 목표 문화의 산물을 이해하는 것은 목표 문화의 사회·문화적 산물을 개개의 문화 요소로서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관점과 행위에 직결되는 총체적인 배경지식으로 수용하는 일이 된다. 즉 고전 소설에 나타난 제도, 관습, 언어·문화 등의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을 기반으로 고전 소설 작품을 해석하고 교사와 학습자 간의 질의응답 등의 활동을 통해 목표 문화의 산물에 대한 이해를 활성화할 수 있다.

## (2) 문화 관점의 발견과 해석

목표 문화의 문화 산물을 수용하면서 학습자는 일차적으로 그 문화 산물에 대한 호기심, 낯섦, 익숙함 등의 다양한 직관적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단순한 감정 차원에서 그치지 않도록 문화 관점(cultural perspectives)에 대한 해석 능력을 갖추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문화 관점은 문화 산물의 기저에 내재되어 있는 인식, 신념, 가치, 태도를 말하며 문화 구성원들의 행위 양식의 지침이 되는 것을 말한다.<sup>214)</sup> 문화 관점은 명시적일 수도 있지만 암시적이거나 함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문화의 내부인이 아닌 다른 문화에서 온 외부인은 즉각적으로 의식하거나 인식하기가 어렵다. 문화 관점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속한 다양한 관습과 언어 작용 속에서 존재하며 학습자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의미 작용에 개입하면서 목표 문화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탐구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 관점은 이해의 수준을 넘어 해석 활동을 요구한다.

고전 소설은 다양한 인물들이 사회의 윤리 규범이나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행위를 실현하며 이들의 사고나 행위에는 문화 관점이 자리 잡고 있다. 심청이 자기희생을 감내하면서 효를 실천하고, 춘향이 시련을 이겨내고 정절을 수호하고, 흥부가 놀부의 구박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애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정서가 작용한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국 사회의 윤리 규범과 개인의 가치의 실현 방식에 특수한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14) Moran, P. R.(2001), *Teaching Culture: Perspectives in Practice*, Heinle, p.25.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는 목표 문화의 특수한 문화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표 문화 사회의 윤리 규범과 가치 갈등의 양상, 가치 실현 방식에 대해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해석은 목표 문화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거나 추구하는 가치를 학습자의 관점으로 목표 문화를 관찰하면서 얻은 새로운 발견을 통해 심화될 수 있다. 한편 목표 문화의 의미를 발견하고 탐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전 소설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가치 평가 토론, 상호 문화 간의 비교나 대조 등이 있다.

### (3) 문화 실행과 적용

문화 실행(cultural practices)<sup>215)</sup>은 문화적 관습이나 규범에 참여할 때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행위를 말한다. 문화 실행은 문화 산물과 관련된 행동, 언어적·비언어적 행위, 의사소통의 맥락 해석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며 개인의 활동 또는 공동체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화 교육은 문화 실행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구체성과 실제성을 획득하게 되므로 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문화 산물이나 문화 관점 못지않게 문화 실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 실행은 문화 산물과 문화 관점을 토대로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문화 경험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교육 활동이기 때문이다. 즉 학습자의 문화 실행은 목표 문화의 지식과 가치를 이해하고 해석한 것을 기반으로 학습자가 새로 구성된 문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학습자는 문화 실행을 할 때 기존에 지니고 있거나 새로 습득한 지식과 가치 해석을 토대로 자신의 행동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로써 지식 이해와 가치 해석을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발견하고 탐구해야 한다.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목표로 고전 소설 교육을 설계할 때 궁극적으로 고려해

215) 모란(Moran)은 본질적으로 ‘cultural practices’를 언어적·비언어적 언어 행위를 포함하고, 문화 관습이나 문화 실행, 문화 실천 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행위의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했다. 따라서 ‘cultural practices’는 ‘문화 실행’, ‘문화 행위’, ‘문화 실천’, ‘문화 관습’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cultural practices’를 문화 관습이나 의식에 직접 참여한다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문화 실행’으로 번역하였다. 모란(Moran)은 문화 실행을 시행(Operations), 행동(acts), 시나리오(Scenarios), 삶(lives)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문화 행위는 문화 구성원들의 계획에 따라 실행된다고 주장하였다. Moran, P. R.(2001), *Teaching Culture: Perspectives in Practice*, Heinle, pp.57-73.

야 할 점은 학습자의 문화 경험과 문화 참여 행위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고전 소설 교육의 특성상 작품의 배경지식을 전달을 하는 교사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과 가치를 수용해서 이해·해석·적용하는 학습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문화 실행과 적용은 감상문 및 비평문 쓰기, 매체 제작 활동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 3.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실행

#### 3.1. 고전 소설 교수·학습 내용의 선정

고전 소설 교수·학습 내용은 학습 목표에 따라 다양한 범위와 층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인물, 사건, 배경, 주제 등 소설의 서사를 이루는 내적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소설이 창작된 시기의 사회·문화적 상황,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다. 본고는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목표로 상정하여 배경 지식으로서의 생활문화와 언어·문화, 가치 규범과 인물의 가치 갈등을 중심으로 고전 소설 교수·학습 내용을 선정하였다.

##### (1) 배경지식으로서의 생활문화와 언어·문화

고전 소설에는 인물의 성격과 행위와 관련된 지식, 작품의 주제와 연계된 가치 측면 이외에도 배경지식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제도와 풍속들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의식주를 비롯한 민중의 생활문화가 적실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를 통해 목표 문화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 고전 소설에 수용된 생활문화는 민요, 가사, 시조, 잡가, 한시 등의 가요와 속담, 비속어, 방언 등의 구어(口語) 중심의 대중적인 언어·문화와 단오, 혼례, 점복(占卜), 농사일 등 산물 및 행위 문화 등이다.<sup>216)</sup> 즉 산물과 행위 문화 등 목표 문화의 가시적 지식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전통적 제도와 관습, 풍속 등과 이들이 반영된 언어·문화를 선정하였

216) 설성경(1999), 「19세기형 개작장편 남원고사에 나타난 생활문화의 형상화」, 『한국고전 소설의 본질』, 국학자료원, 213쪽.

다. 이때 선정된 사회·문화적 제도와 관습은 고전 소설의 인물의 삶과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진 것으로 낱낱의 정보로 주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또한 지식과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언어·문화, 즉 관용 표현이나 관습적 문학 표현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지식과 가치가 함의된 언어·문화적 표현은 학습자가 목표 문화에 대한 문화적 문식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언어·문화적 표현은 목표 문화의 구성원들이 널리 쓰이는 언어적·문화적·문학적 관습의 일종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 (2) 윤리 규범과 인물의 가치 갈등

고전 소설에서 등장인물은 사회의 윤리 규범을 수호하고 나름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주체로서 사회와의 관계, 개인 간 관계, 개인 내부에서 가치 갈등을 겪는다. 소설 속의 인물들이 가치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과정은 현실의 재현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통해 목표 문화의 규범과 갈등에 대해 알 수 있다. 사회와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서만 한 사회 공동체가 공유하는 규범적 또는 지배적 가치와 인물의 개인적 가치의 조화 또는 충돌 등을 통해 목표 문화의 중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인물과 인물 간 갈등은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 가치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인물의 내적 가치 갈등을 통해서만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가치 탐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목표 문화의 규범적 가치와 개인의 가치를 살필 수 있는 사회와 인물 간 갈등, 인물과 인물 간 갈등, 인물의 내적 가치 갈등을 드러내는 장면을 선정하였다.

또한 인물의 가치 갈등은 인물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와 사회적 문제와의 충돌, 인물의 가치 실현 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므로 <심청전>에서 심청이 보여 준 자기희생, <춘향전>에서 춘향이 행한 사회 제도의 모순에 대한 저항, <홍부전>에서 홍부가 보인 양보와 배려, 공동선(共同善)에 대한 의지 등이 반영된 장면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심청전>에서 심청이 심봉사를 봉양한 일과 <춘향전>에서 춘향이 이몽룡과 교제하면서 겪는 일련의 사건들, <홍부전>에서 홍부와 놀부의 우애 등은 전형적 체재이면서도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경험 지식, 가치 판단과 가치 태도로 특수하

게 다시 재생산해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들이다. 즉 심청의 효행, 춘향의 애정, 홍부의 우애는 특수성을 지니면서도 인류 보편적 주제로 한국의 설화나 소설, 다른 문화의 문학 작품 속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심청전>에서는 심청의 출생과 곱씨 부인의 죽음, 심봉사의 심청 양육과 심청의 심봉사 봉양, 심봉사의 몽운사 시주 약속, 심봉사와 심청의 부녀 이별 장면과 부녀 상봉 장면을 선정하였다.<sup>217)</sup> 이 장면들은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보편적 가치와 정서, 제도와 관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인간의 출생, 성장, 죽음에 이르는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의례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전통 풍속 및 제도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전달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등장인물의 다양한 사고와 행위, 가치 갈등 및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어 학습자의 가치 판단과 가치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심청이 심봉사를 봉양하는 대목을 통해서 효(孝)의 실제적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심청이 뱃사람들에게 몸을 판 후 아버지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장면에서는 심청의 내적 가치 갈등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심청의 효행을 다른 작품이나 유사 사례와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 살펴보면서 효에 대한 관점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춘향전>에서는 춘향과 이몽룡의 만남과 이별, 십장가, 암행어사 출도 장면을 선정했는데 이 부분들은 <춘향전>의 서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일 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과 가치 판단을 활성화시켜 학습자들이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학습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평가를 살피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춘향이 매를 맞는 ‘십장가’ 대목은 이도령에 대한 춘향의 정절과 사랑을 춘향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가장 극적으로 또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십장가’의 구절구절이 정절을 지키려는 한 여성 개인의 감정과

---

217) <심청전>은 크게 ‘심청의 출생, 심청의 성장과 효행, 심청의 죽음과 환생, 부녀 상봉과 심봉사의 개안(開眼)’으로 나눌 수 있고, <심청전>의 가장 큰 서사 단위인 심청의 출생과 성장 부분은 심청의 탄생, 곱씨 부인의 죽음과 장례 부분, 심봉사의 심청 양육과 심청의 효도 등으로 구성된다. 최운식(1982), 『沈淸傳研究』, 집문당, 111-112쪽.

의지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윤리, 가치 등을 나타내고 있다. 집장사령(執杖使令)에게 매 한 대 한 대를 맞을 때마다 춘향이 전하는 메시지는 당대의 유교 윤리 및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현정(賢政)을 바라는 민중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한국 전통 사회가 추구했던 윤리와 가치, 당대의 사회·정치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홍부전>에서는 놀부 심보를 묘사한 부분과 놀부가 홍부를 구박하는 장면, 홍부 부부가 품을 파는 장면, 홍부가 제비를 치료하는 장면, 홍부가 박 타는 장면을 선정하였다. 놀부 심보와 놀부가 홍부를 구박하는 장면은 놀부는 홍부와 성격이나 가치관 등 여러 방면에서 대조되는 인물로서 작품의 이해와 해석에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고 홍부 부부가 품을 파는 장면은 당대의 빈곤한 서민층의 가난한 생활을 적실히 볼 수 있으며 홍부가 제비를 치료하는 장면은 자연과 인간의 교감, 보은(報恩) 등 한국인의 전통 사상 및 가치와 관계있으며 홍부가 박 타는 장면을 통해서 당시 서민의 부(富)에 대한 욕망 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업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내용은 한국 사회·문화의 배경지식과 가치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들이며 학습자들이 소설 전체를 다 접하지 못하더라도 작품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면서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3.2. 고전 소설 교수·학습 활동의 구성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 활동은 교사의 작품 강독과 매체 자료<sup>218)</sup>의 활용, 교사와 학생 간의 질의응답을 비롯해 토론, 감상문과 비평문 쓰기, 매체 제작 등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여 구안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 수는 67명으로 두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두 번째 반의 경우에는 첫 번째 반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던 매체 제작하기와 비평문 쓰기 활동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218) <춘향전>을 강독하면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 중, 교수·학습 내용과 관련 있는 일부 장면을 편집하여 학습자들에게 제시해 주었다. 예를 들면, 춘향과 이몽룡의 만남과 이별 장면, 십장가 대목, 암행어사 출도 장면 등이다.

문화 생산의 장(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과 동시에 학습자들의 문화적 문식력의 신장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반	회	차시	고전 소설 교수·학습 활동	비고
A	1	1-2	<심청전> 강독 및 질의응답	
		3	<심청전> 토론	감상문 쓰기 과제
	2	4-5	<춘향전> 강독 및 질의응답	
		6	<춘향전> 토론	감상문 쓰기 과제
	3	7-8	<홍부전> 강독 및 질의응답	
		9	<홍부전> 토론	감상문 쓰기 과제
B	1	1-2	<심청전> 강독 및 질의응답	
		3	<심청전> 토론	감상문 쓰기 과제
	2	4-5	<춘향전> 강독 및 질의응답	
		6	<춘향전> 토론	감상문 쓰기 과제
	3	7-8	<홍부전> 강독 및 질의응답	
		9	<홍부전> 토론	감상문 쓰기 과제
	4	10-11	<심청전>·<춘향전>·<홍부전> 각색하기	비디오 클립 제작하기 과제
		12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비평문 쓰기	교실 활동

<표 III-3> 고전 소설 교수·학습 활동의 절차

#### (1) 주요 장면의 선택적 강독

<심청전>에서는 심청의 출생, 광씨 부인의 장례, 심봉사의 양육과 심청의 봉양, 심봉사의 몽운사 시주 약속, 부녀 이별, 부녀 상봉 장면을, <춘향전>에서는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 춘향과 이도령의 이별, 십장가, 암행어사 출도 장면을, <홍부전>에서는 놀부 심보, 놀부의 홍부 구박, 홍부 부부 품 팔기, 홍부의 제비 치료 장면, 홍부네 박타령 장면을 발췌하여 연구자가 학습자 수준에 적합하게 운문한 지문을 제시하였다. 작품 전체를 완독(完讀)하는 것이 작품을 전체적·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가정되지만 학습자들에게 제한된 수업 시간에 작품 전체를 읽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작품의 주요 장면을 선택적으로 강독하였다.<sup>219)</sup>

고전 소설의 강독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첫째, 교사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작품의 개요를 대략적으로 설명하였다. 판소리계 고전 소설을 교육할 때 유용한 점의 하나는 소설의 장면이나 삽화 단위로 분절해서 교수·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학습자들에게 작품의 전체 줄거리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작품 전체의 서사에 대해 알아야 지엽적인 분석에 매몰되지 않고 총체적 관점에서 작품의 맥락들을 적절히 읽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각각의 작품에서 중요한 대목을 발췌해서 만든 지문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묵독하도록 5-1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표시하도록 하였다. 지문을 발췌해서 제시한 것은 작품 내용의 선택적 집중을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습 내용 제시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다. 발췌된 지문의 어휘와 고사성어(故事成語)는 한자(漢字) 표기를 병기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풀이는 보조 학습 자료로 제작해서 학습자들이 교실 수업 외의 시간에도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학습자들의 묵독이 끝나면 교사는 학습자와 함께 한 문장씩 읽어 가면서 문맥의 의미를 설명하되 어휘 설명에 치중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어휘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교사는 이처럼 설명 중심의 강독이 아니라 작품의 언어와 문화적 의미에 초점을 두어 강독하였다.

넷째, 텍스트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끝나면 교사를 따라 학습자들에게 텍스트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다시 한 번 작품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이때 학생들에게 텍스트를 읽은 후에 새로 알게 된 정보와 지식이 무엇인지,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소설 속의 사건이 발생했는지, 작품을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구두로 한 번 더 질문하여 확인하였다.

고전 소설에 담긴 언어적·문화적 의미를 강독할 때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의 배경지식이나 학습자의 견해나 느낌에 대해서도 질문하면서 학습자의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

219) 수업에 사용된 고전 소설 윤문·발췌본은 <부록 1>을 참고.



## (2) 인물에 대한 가치 판단 및 토론

인물, 사건, 배경, 주제 등 소설의 여러 요소 가운데 인물은 목표 문화의 가치나 관점을 가장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대상으로 학습자들은 인물의 사고와 행위를 통해 목표 문화의 가치와 규범 등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인물의 사고와 행위 방식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객관적 근거나 이유보다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경험에 따른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인상평(印象評)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료 학습자와의 토론을 통해서 가치 판단의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 활동은 우선 5-6명을 한 모둠으로 하여 1차 토론을 하게 한 후 전체 모임에서 각 조에서 공유된 견해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의 원활한 토론과 가치 판단을 위해 연구자는 몇 가지 토론 주제를 칠판에 판서했으며 연구자가 제시한 것 이외에도 학습자들이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연구자가 학습자에게 고전 소설의 토론 주제로 제안한 예시이다.

작품	토론 주제
<심청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청의 효도 행위 방식은 옳은 일인가?</li> <li>• 심봉사나 눈을 뜨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 시주를 약속한 것은 옳은 일인가?</li> </ul>
<춘향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향이 정절을 지킨 것은 신분 상승 때문인가? 순수한 사랑 때문인가?</li> <li>• 어사가 된 후 춘향을 바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몽룡의 행위는 정당한가?</li> </ul>
<홍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부에게 유산을 나눠 주지 않은 놀부의 재산 분배 행위는 정당한가?</li> <li>• 홍부의 매품 팔기는 정당한 일인가?</li> </ul>

<표 III-4> 고전 소설 토론 주제의 예(例)

고전 소설 세 작품 중 학습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주제는 <심청전>으로 학습자들은 심청이 심봉사의 개안을 위해 몸을 판 일에 대해 관심이 가장 많았으며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심청의 효행 방식이 옳다는 쪽과 옳지 않다는 쪽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 나갔으며 가치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효도’와 ‘생명’을 들었다. 다음은 학습자들이 토론 활동을 수행한 예이다.

<p>&lt;토론 주제&gt;</p> <p>심청의 효도 행위 방식은 합당한가?</p>	
찬성 의견	반대 의견
<p>[㉠-K2-2-1-3급-10]: 심청이네는 너무 가난하니까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는 데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p> <p>[㉠-K2-2-1-4급-1]: 아버지 평생소원이 눈을 뜨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기는 했지만 심청의 효도 방법이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보다 심청이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p> <p>[㉠-K2-2-2-5급-4]: 심청이 부모님께 자기의 효도를 보여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p> <p>[㉠-K2-1-1-4급-27]: 심봉사가 심청한테 억지로 강요한 것이 아니고 심청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p>	<p>[㉠-K2-2-2-4급-4]: 목숨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심청이 자신의 몸을 판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p> <p>[㉠-K2-2-2-5급-8]: 심청이 죽으면 심봉사가 눈을 떠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겁니다. 저라면 아버지의 개안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p> <p>[㉠-K2-2-2-5급-23]: 심청이 몸을 팔아서 집을 떠나는 것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눈을 뜬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p> <p>[㉠-K2-2-5급-20]: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면 아버지가 눈을 뜬다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리고 심봉사는 갑자기 눈을 떠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p>

<표 III-5> <심청전>에 대한 학습자 가치 토론의 예(例)<sup>220)</sup>

220) 학습자 토론 자료는 수업 시간 중에 이루어졌던 토론의 일부 중 토론자의 견해가 잘 드러

### (3)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쓰기 및 매체 제작

문화적 문식력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에 의해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이므로 쓰기와 매체 제작을 진행하였는데 이들 교수·학습 활동은 상호 텍스트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문학은 사회 공동체의 문화 기억의 공간으로 단순한 지식의 저장과 반복에 그치지 않고 활성화된 기억으로 기존의 다른 문학 텍스트를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텍스트의 의미를 창출하면서 생산성을 지닌다.<sup>221)</sup> 학습자가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할 때 원 텍스트가 지닌 본질을 크게 왜곡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면 문학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제재이다.<sup>222)</sup> 특히 고전 소설은 통시적 수준과 공시적 수준의 양 측면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제재이므로 학습자들에게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글쓰기와 매체 제작은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판단하였다.

쓰기 활동은 감상 일지를 작성하는 것부터 감상문 쓰기,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비평문 쓰기 등의 단계로 구안하였다. 감상 일지의 작성은 학습자가 고전 소설의 장면 또는 삽화별로 간단한 생각이나 느낌을 기술하는 활동으로 감상 일지 작성을 먼저 하게 한 후에 작품 전체에 대한 감상문을 쓰도록 하였으며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해서 목표 문화와 자문화의 문학 작품들을 비교하는 글쓰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

러난 부분을 중심으로 전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221) 이광복(2007), 「문화적 기억과 상호텍스트성, 그리고 문학교육」, 『독어교육』 제39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40-41쪽.

222) 문학 텍스트는 한 사회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을 보유한 중요한 매체로서 과거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해석을 가하면서 기억한다. 즉 문학 텍스트는 “단순히 ‘모방과 간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기억’으로 읽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최문규 외(2003), 『기억과 망각: 문학과 문화학의 교차점』, 책세상, 379쪽.

<p><b>감상 일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판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li> <li>• ‘심장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춘향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입니까?</li> </ul>
<p><b>감상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심청전&gt;을 읽고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서술하십시오.</li> <li>• &lt;홍부전&gt;을 읽고 감상문을 쓰십시오.</li> <li>• &lt;춘향전&gt;과 유사한 자국의 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비교하여 쓰십시오.</li> <li>• &lt;춘향전&gt;과 &lt;홍루몽&gt;의 주인공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해 가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서술하십시오.</li> </ul>

<표 III-6> 쓰기 활동 지시문의 예(例)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해 매체 제작 활동을 하였다. 매체 제작 활동은 학습자들이 직접 비디오 클립을 제작하면서 고전 소설의 장르 변용은 물론 매체 변용까지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교사가 기존의 매체를 활용할 때 매체 자료의 선택과 구비는 용이하지만 기존 매체는 고전 소설을 변용하면서 작가 또는 감독의 의도가 개입된 경우가 많아서 원전의 의도를 과장, 왜곡, 훼손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에 문제가 있더라도 수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반면 학습자 차원의 매체 활용은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 간의 대화를 통해 수정하고 변형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학습자들이 직접 매체 제작 활동을 하게 되면 고전 소설 작품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안에 내재된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추출하면서 자신들이 생산할 비디오 클립의 내용과 주제들에 대해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매체 제작은 개인 학습 활동이 아니라 동료 학습자와 함께하는 모둠 학습 활동으로 감상문이나 비평문에 드러난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 양상을 좀 더 가시적이고 역동적으로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또한 고전 소설 작품에 대한 학습자 개인의 지식과 가치 판단을 동료 학습자와 의사소통을 통해 공유하면서 목표 문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해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표 Ⅲ-7>은 학습자들이 고전 소설을 변용하여 매체를 제작한 예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고전 소설을 매체로 변용할 때 유사한 제재를 가진 작품 간의 교섭과 고전 소설의 주요 서사와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에 주목했는데 특히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가치의 문제에 대해 주로 재해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목표 문화의 가치는 학습자의 자문화 가치와 비교 대상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자 개인의 가치에 견주어 성찰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기호	제목	고전 소설의 변용 내용	비디오 클립의 일부 장면
㉞-K2-1조	별에서 온 그대	주인공 춘향이 현대에 유명한 여배우로 환생해 겪는 사랑 이야기	
㉞-K2-2조	신발의 주인을 찾습니다.	심청이 복을 받아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왕자와 결혼하는 이야기	
㉞-K2-3조	호가네 식구들	<홍부전>을 모티프로 한 대가족 이야기로 장모가 부자 사위와 가난한 사위를 차별하는 이야기	
㉞-K2-4조	사랑의 감옥	<춘향전>을 모티프로 한 남자에게 집착하는 여자 이야기	
㉞-K2-5조	학교 시크릿	춘향의 질투를 소재로 친한 여자 친구 세 명이 한 남자를 사랑하면서 우정이 깨지는 이야기	
㉞-K2-6조	나 홀로 연애 중	<춘향전>을 모티프로 한 짝사랑 하는 여자의 심리와 선택에 관한 이야기	
㉞-K2-7조	불량배가 시켜 준 성형 수술	못생긴 딸이 예뻐지는 걸 좋아하는 아버지의 자애에 관한 이야기로 심봉사의 마음을 표현함.	

<표 III-7> 매체 제작 학습 활동의 예(例)

### 3.3.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 양상 분석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의 양상은 학습자들의 감상문과 비평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수·학습 활동으로 작품 읽기와 토론, 쓰기, 매체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데 작품 읽기는 학습자의 양상을 가시적으로 구체화해서 살피기 어렵고 토론과 매체 제작 활동은 학습자 개인의 산출물이 아니라 학습 집단의 산출물이므로 개인의 문화적 문식력을 살펴보는 데는 학습자 개인이 생산해 낸 감상문과 비평문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1) 지식의 이해 및 적용

##### 1) 사회·문화적 맥락 파악을 통한 전통 사회의 제도 인식

학습자들은 계층 및 신분, 시대사상, 시대적 상황 등 고전 소설이 향유되던 당대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면서 고전 소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인식한다. 이때 학습자들의 인식은 학습자가 처한 상황 또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맥락에 의존하므로 객체 의존적이 아닌 주체 의존적 행위에 가깝다. 학습자는 자국의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목표 문화의 관찰자가 되어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문화적 맥락은 학습자의 고전 소설 분석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제로써 구체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시적 맥락으로 역사적·사회적 상황, 이데올로기, 공동체의 가치·신념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고전 소설을 읽을 때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일은 고전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문화 현상과 관련된 관념, 가치, 제도 등에 관한 심층적 지식은 물론 그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이해까지 가능하게 한다.

(...) 심청의 아버지 심학규가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내 곽씨부인이 자기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딸 심청도 자기에게 아주 효도한다. 심학규는 눈이 먼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를 버리지 않고 극진히 공경해 왔다. 그리고 곽씨부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남편과 자식 이후의 생활이 불편할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다. 이로부터 한국 옛날 사회는 한 가족에서 남자의 지위가 제일

높다는 부계 사회를 알 수 있다. (...)

[㉡-K2-2-2-5급-19]

(...)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여자의 지위다. 놀부는 욕심으로 인해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힘들어질 때 홍부가 예전에 당한 고통을 모두 치우 버려 한결같이 놀부를 존경스러운 형으로 삼았다. 이런 모습을 못 보겠는 아내에게 “너는 오늘이라도 죽으면, 다시 얻을 계집이지만 우리 형남은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얼굴인들 다시 보겠는가?”라고 혼내줬다. 지금 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이지만 당시에는 홍부처럼 착한 사람이라도 쉽게 말할 수 있고 심지어 아내 자신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때 여자의 지위가 얼마나 낮은지 엿볼 수 있겠다.

[㉡-K2-2-2-5급-17]

(...) 또 하나의 깊은 감명을 받는 장명은 홍부는 안내와 박을 뺏을 때 서러의 이야기였다. 둘의 담화는 충분히 옛날 사회 심지어 지금도 심각한 가부장제의 가족문화를 밝혔다. 가족마다 남성인 아버지나 남편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가 남편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지 못했다. 이것이 아마도 유교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옛날 사람들은 삼강오륜이나 삼종지도 등 예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람들의 생각과 정신을 속박하는 족쇄가 되었다. (...)

[㉡-K2-2-2-5급-15]

(...) 그리고 홍부 부부가 박을 탈 때 아내가 놀부에게 가지는 불만을 들은 홍부가 당장 화를 내고 성현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전통 유교 사상의 장유유서, 형제우애 같은 윤리를 중요시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뿐만 아니라 홍부가 형제는 신발로, 처자는 의상으로 비유하는 것도 여성 지위가 매우 낮은 사회 분위기를 또렷이 반영한다.

[㉡-K2-2-2-5급-18]

학습자 [㉡-K2-2-2-5급-19]는 <심청전>의 심봉사와 꺾씨 부인의 부부 관계를 통해, [㉡-K2-2-2-5급-17]과 [㉡-K2-2-2-5급-15], [㉡-K2-2-2-5급-18]은 <홍부전>의 홍부 내외의 부부 관계를 통해 시대상을 읽어 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관계의 출발은 가족이며 전통 사회에서 가족 내의 위계질서는 매우 중시되었다. 꺾씨 부인은 경제력이 전혀 없는 맹인 남편을 공경하였으며 죽기 전에는 혼자 남아서 아기를 키워야 하는 심봉사와 어미 없이 자랄 딸 심청의 걱정 때문에 편히 눈을 감지 못했다. 초급 수준에서는 보통 이 장면을



보면 ‘세상에 남은 심봉사와 심청이 불쌍하다.’ 등의 감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고급 수준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가장이라도 가족 내에서는 그 지위를 인정받는 가장의 모습을 통해 전통 사회가 막강한 가부장제(家父長制) 사회였음을 유추해 내는 학습자들이 많았다.

학습자들은 연구자가 <박동진 창본 홍부가>에서 ‘홍부 부부 박 타는 대목’을 발췌해서 제시한 지문을 경험한 학생들이다. 이들 학습자들에게 홍부 아내의 가족 내 지위 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남다른 주목을 끈 이유는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홍부전>이나 그 밖의 <홍부전> 출판 도서를 읽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소설 전체를 교수·학습할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학습자들에게 소설의 어느 부분을 선정해서 제시하는가에 따라 학습자의 지식이나 가치의 확대·재생산 여부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홍부전>의 박 타는 장면은 이본에 따라 내용이 약간씩 다른데 <박동진 창본 홍부가>에서 홍부 부부는 다른 이본들처럼 첫 박을 탈 때의 설렘과 기대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 이본에서 홍부와 홍부 처는 앞으로 박에서 나올 재물의 분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갈등을 빚는다. 홍부는 무슨 재물이 나오든지 형인 놀부와 나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홍부 처는 지난날 놀부에게 구박 당한 일을 상기하면서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밝히니 홍부는 홍부 처에게 형제는 수족과 같고 처자는 의복과 같다고 하면서 아내를 꾸짖는다.<sup>223)</sup> 실제로 전통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우애의 실현은 형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귀결되며 홍부가 형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런 점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홍부 처가 이내 홍부의 말에 수긍을 하면서 갈등은 오래가지 않는데 비합

223) “시르령 실근 땡기어주소 어여로 땡기여라 톱질이야 좋을시고 좋을시고 (...) 이 박을 타 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서 은금보화나 나오너라 은금보화 나오며는 우리 형님께 갖다가 드리련다” 홍부 마누라가 화를 내며 “나는 나는 안 타겠어요 여보 영감 형제간이라 잊었군요. 동지선달 추운 날에 백설은 펄펄 흩날릴 적에 어린 자식 발을 벗겨 구박을 당하고 나오던 일을 관 속에 들어도 못 잊겠네” 홍부도 화를 내며 “타지 마라 타지를 마라 이 사람이 답답하다 옛 성현이 말하기를 형제는 수족이요 처자는 의복과 같으니 의복은 한 번 헤어지면 다시 지어 입으면 되지만 수족은 한 번 끊어지면 어데 가서 붙이겠는가 당신은 오늘이라도 죽으면 다시 얻을 수 있는 계집이지만 우리 형님은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얼굴인들 다시 보겠느냐 타지를 마라 나 혼자 타겠다” 홍부 마누라도 마음을 돌려 “아이고 여보 영감 내가 잠시 잘못 생각을 하였습니다. 같이 박을 타 봅시다”, <박동진 창본 홍부가>, 김진영·김현주·최혜진·이의철·강호봉 편저(1997), 『홍부전 전집』 1, 박이정, 229-230쪽.

리적인 일이라도 가장의 뜻대로 아내는 따라야 했던 전통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에 학습자 [㉔-K2-2-2-5급-17]은 착한 흥부마저도 아내에게는 가부장적으로 대하고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아내의 태도를 통해 그 당시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음을 인식하였고 학습자 [㉔-K2-2-2-5급-15]는 이 같은 인식에서 더 나아가 가부장제(家父長制) 문화의 폐단에 대해 지적하고 이것은 유교적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학습자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이나 삼종지도(三從之道)의 윤리가 근대 전통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임을 인식하고 있는 한편 이러한 윤리가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을 제한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다음은 학습자와의 심층 면담한 내용의 일부이다.

연구자: 00 씨, 삼강오륜이나 삼종지도 등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신을 속박하는 족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㉔-K2-2-2-5급-15]: 제 생각에는 삼강오륜은 그리 완벽한 도덕 표준이 아니고 현대 시각으로 보면 좀 진부한 사상이잖아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지켜 온 거고 나름대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게 사실이지만 (...) 여자와 남자의 권리가 다르고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은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을 속박할 수 있어요.

이 학습자는 전통 사회의 근간이었던 유교적 전통과 가치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 기능은 부정하지 않았지만 유교적 규범은 완벽한 도덕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유교적 전통 윤리는 진부한 사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유교 윤리의 부정적 권위주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 전통 사회에 대한 사회 문화적 배경 지식을 지니고 작품 감상을 수행한 학습자들을 더 살펴보기로 한다.

<춘향전>은 양반 출신의 이몽룡과 기생의 딸 춘향의 사랑 이야기이로 해학적이고 풍자적이며 조선 후기의 평민 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물론 내용의 탐관오리를 대표한 사람인 변사도에 대항하는 장면이 나타내지만 현실에서 그런 대항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춘향전>에서 탐관오리에 대항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대리 만족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 이몽룡 경우에는 신분 제도를 넘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백성들 편에서 선 양심적인 지배 계층의 모습을 보인다. 감정이 한결같은 남자인 이몽룡은 성공한 후에 춘향을 잊지 않고 사랑을 찾았고 구했다. (...) 남존여비 의식이 성행하는 시대에 이몽룡과 장생은 아내를 잊지 않고 책임을

지고 동요하지 않은 남자가 진짜 대단한다.

[㉠-K2-2-1-4급-1]

[㉠-K2-2-1-4급-1]은 조선 시대에 신분 제도가 존재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신분 제도 때문에 춘향과 이몽룡의 결합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두 사람이 사랑으로 극복한 것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중국 전통 사회에 존재했던 문당호대(門堂戶對), 즉 집안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거나 혼인하던 제도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춘향전>에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의 난관에 대해서는 익히 이해하였다. 나아가 이 학습자는 <춘향전>은 조선 후기의 평민 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고, 그 당시 현실에서는 춘향처럼 기생의 딸이 정부 관리인 변학도에게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신분제의 사회 제도에도 불구하고 춘향이 탐관오리에게 대항한 것은 당시 민중들에게 대리 만족을 주었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하고 있다.

또한 이몽룡은 피지배 계층인 백성들의 편에 선 양심적인 지배 계층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 전에 변학도의 생일잔치에서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천 백성의 피요(金樽尾酒 千人血),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반 백성의 기름이라(玉盤佳肴 萬姓膏).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燭淚落時 民淚落),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歌聲高處 怨聲高).”라고 글을 지어 변학도의 학정(虐政)을 비판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을 통해 이몽룡을 선의의 지배 계층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몽룡이 장원급제(壯元及第)를 한 이후에도 마음이 변치 않고 춘향과의 사랑을 지킨 점을 높게 사고 있는데 신분 제도가 존재하고 남존여비(男尊女卑) 의식이 팽배하던 조선 후기 사회에서 이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고귀하고 어려운 일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몽룡의 행위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학습자들이 <춘향전>을 감상할 때는 사회 제도 중 신분 제도에 주목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홍부전>을 감상할 때는 신분 제도뿐만 아니라 당시의 경제 제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보였는데 이는 <심청전>, <춘향전>과 달리 <홍부전>은 당대의 경제 변화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작품 곳곳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홍부전>은 조선 후기의 경제 변화, 즉 화폐의 유통이 시작되었음과 더불어 부(富)의 축적에 높은 가치가 부여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작품

이다. 조선 후기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윤리 기강은 무너지는 등 이념 중시의 가치관과 물질 중시의 가치관이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한 시대였다.

(...) <홍부전>은 옛날에 있었던 이두 소설이고 조선시기까지 책으로 나타납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이씨조선이 붕괴 직전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양반에서 억압과 착취를 받았어 모순이 첨예화되었습니다. <홍부전>중에서 홍부는 극단적인 가난한 농민들이 대표하고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돈이 없어서 장사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지만 자주 굶었습니다.

[㉠-K2-2-1-3급-10]

<홍부전>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제비가 홍부에게 준 도움은 금은보화, 즉 돈, 쌀, 비단 등 물품들이다. 또는 돈타령 중에서 얘기하듯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돈은 몹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를 통해서 빈곤한 사회 현실에 처하는 시절에 하층 시민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바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

[㉠-K2-2-2-5급-18]

“얼씨구나 좋을시고, 얼씨구나 좋을시고,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구나, 얼씨구나 좋을시고. 돈 봐라, 돈 봐라, 얼씨구나, 돈 봐라. 잘난 사람을 더 잘난 돈, 못한 사람도 잘난 돈,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라는 부분은 해학과 풍자로 “돈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상을 독자에게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홍부전>의 시대 배경인 조선 후기와 연결해서 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후기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제적 변화였다. 그때 새로운 농업 방식의 등장과 산공업의 발달, 그리고 화폐의 유통 등 경제적 변화가 돈을 사회적 신분과 권력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부를 쌓은 농민은 돈으로 신분 상승을 하고 몰락한 양반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품을 팔았다는 것은 당시 사회의 전체적 분위기였다. 또 홍부가 놀부에게 쫓겨나며 빈털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보면 조선 후기에 ‘재산을 만아들에게 물려주는 상속제도’가 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K2-2-2-5급-23]

학습자 [㉠-K2-2-1-3급-10]은 조선 시대 후기 농민들이 양반의 착취로 인해 어려운 경제 형편에 있음을 이해하며 홍부가 그러한 농민들의 대표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고 서술했다. 또한 당시에 농사뿐만 아니라 상업도 성행하고 있었

으며 상업은 돈이라는 자본이 있어야 가능성도 인식하고 있었다.

[㉔-K2-2-2-5급-18]은 제비가 홍부에게 준 보은(報恩)의 선물이 물질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며 홍부의 <돈타령>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이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학습자 [㉔-K2-2-2-5급-23]은 학습자 [㉔-K2-2-2-5급-18]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홍부전>의 경제 제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조선 후기의 새로운 농업 방식의 등장과 상공업의 발달, 화폐의 유통은 사회적 신분과 권력의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장자 상속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학습자는 홍부가 놀부에게 빈털터리로 쫓겨난 것은 조선 후기의 장자 상속 제도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선 시대 전·후기를 통틀어 장자에게만 상속을 하지는 않았다.

조선 시대에는 장자 우대, 여자 차대, 즉 장남과 차남의 분할 상속 및 딸의 차등 상속 제도와 관행이 있었으며 조선 후기에 이르러 장자 우대 상속이 더욱 심화된 측면은 있다.<sup>224)</sup>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선 후기의 상속 제도를 장자 상속으로 오해하는 것은 장자의 제사 승계와 부계 중심의 친족 집단에 대한 개념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홍부와 놀부의 극단적인 부의 소유 형태를 보면서 경제 제도를 넘어서 당시 사회의 계급 제도에 대한 통찰력까지 보인 학습자도 있다.

우선 홍부전 속에 나타난 형제의 정반대의 생활수준을 통해 그 당시 한국의 사회배경을 알 수 있었다. 홍부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배고픈 것이 당연하며 부자들이 진 죄를 대신해 매품팔이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것은 그 당시의 농민계급, 천민의 생활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반대로 놀부의 경우 당시의 봉건적 통치계급의 생활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놀부를 통해 당시의 탐욕스럽고 인색한 조건을 갖춘 양반들이 천민계급인 노동자를 늘려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홍부전은 그때의 노고한 천민들의 비참한 처지와 양반들의 사치와 부패한 현실을 대조하여 양반에 대한 반항과 불만, 정부와 권력자에 대해 분노하는 심리를 그려냈다고 볼

224) 조선 시대의 사회상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제도(법)로서의 상속보다 관행(관습)으로서의 상속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 전기에는 장남과 차남, 남녀 차별이 없는 자녀 균분 상속 주의가 원칙이었으나 조선 후기의 상속 관행은 부농(富農) 유력자의 장자 상속 경향과 영세 빈농(貧農)의 분할 상속이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중층성은 구체적으로 장자 우대 상속이라는 형태로 드러났다. 배상훈(2009), 「조선 후기 분할상속관행의 지속에 대한 소고」, 『한국민족문화』 제34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4쪽.

수 있다.

[㉔-K2-2-1-4급-11]

학습자 [㉔-K2-2-1-4급-11]은 흥부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급기야 매품까지 파는 모습을 보고 당시의 농민, 천민 계급의 비참한 현실을 파악했으며 놀부를 통해 부의 축적이 양반 등 일부 지배 계급에 편중되어 있음도 인식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흥부전>의 주제를 ‘형제애’보다 ‘빈부 갈등 또는 빈부 격차로 인한 민중의 분노’로 파악하고 있다. <흥부전>의 주제를 탐욕스런 지배 계급에 대한 민중의 분노로 해석한 것은 조선 시대 후기의 계급 사회의 실상과 폐해를 정확히 인식했다는 점에서 높이 살 만하다. 학습자가 <흥부전>을 형제간의 우애가 아닌 조선 후기 농촌 사회의 빈부 모순과 그에 따른 계층 간의 심화된 갈등으로 해석한 것은 윤리적 시각이 아니라 사회 경제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흥부전>에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도래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특히 고전 작품을 접할 때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맥락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선이해의 유무에 따라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폭과 깊이가 달라진다.

## 2) 배경지식에 의한 관용적 표현의 인용

언어 문화적 관용 표현은 속담, 격언, 관용어, 고사성어(故事成語)를 포함한 한자 성어 등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관용적 어구들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속담이나 한자 성어를 활용하여 텍스트의 주제 의식이나 본인의 견해를 단적(端的) 또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하였다. 속담은 각 민족의 일상생활과 역사 속에서 터득된 삶의 지혜가 담긴 고유의 관습화된 표현 양식으로 특정한 의미나 내용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중심 사상이나 가치를 잘 나타내는 특징이 있어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 번 익히면 글을 쓰거나 말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편이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한자 관용어나 고사성어가 중국어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쉽게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글을 쓸 때 한자어(漢字語)와 중국의 한자(漢字)는 유사 단어라도 의미가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단어 수준에서는 언어 사용에 오류를 자주 범하지만 관용어나 관용 표현, 속담 수준에서는 오류가 거의 없다.

### ① 사자성어를 통한 주제 의식의 표현

고급보다 중급의 학습자들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사자성어(四字成語)로 간결하게 정리하여 표현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는 작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작품의 핵심적 주제 또는 이야기의 중심 내용에 대한 파악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읽고 보니 흥부의 착한 마음에 감탄했다. <흥부전>을 배우기 즐거웠고 돈, 형제 관계, 복선화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 한 가족인 것도 운명적인 것 같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형이면 형다워야 하고 동생이면 동생다워야 한다. (...)

[㉠-K2-2-1-4급-13]

(...) 그 남자는 춘향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는데 춘향은 그 남자를 정말 싫었습니다. 이것을 때문에 춘향은 많은 고생을 받아서 매일매일 생불여사입니다. 몇 개 월 후에 춘향의 남편이 돌아와서 그 나쁜 남자를 징벌하고 춘향을 구했습니다. 춘향은 믿을 수 없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

[㉡-K2-2-2-4급-7]

학습자 [㉠-K2-2-1-4급-13]은 <흥부전>의 주제 의식을 인과응보(因果應報), 사필귀정(事必歸正), 복선화음(福善禍淫),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등의 한자 성어를 사용해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표현하면서 부연 설명하였다. 학습자는 <흥부전>을 통해 돈과 형제 관계,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화를 당한다는 보편적 진리에 대해 상기하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화목한 가족을 이루고, 가족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K2-2-2-4급-7]은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해서 고난을 받는 춘향의 모습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할 만큼 고통스런 것으로 파악하여 생불여사(生不如死)라는 한자 성어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중국인 학습자들은 작품의 주제 의식뿐만 아니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상황이나 생각을 한자 성어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경우

가 많다.

## ② 상황에 대한 격언의 인용(引喻)

중국인 학습자들은 학습자 수준에 관계없이 고전 소설 속의 인물들의 상황을 격언(格言)이나 속담(俗談), 경구(警句) 등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격언이나 경구는 오랜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이고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민중의 삶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로 정의되는데 학습자들은 대부분 격언이나 경구를 속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착한 흥부는 다친 제비를 구해서 박하지 않은 보수가 얻기 때문에 곤란한 생활이 해소되다. 그런데 놀부는 자기의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비가 다치하게 되어서 드디어 스스로 악과를 초래한다. 선행과 악행은 각각 응분의 보답과 대가가 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응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은 것이다.

[㉠-K2-2-2-4급-6]

(...) 속담에 이르기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였다. 착한 흥부는 제비에게 상처를 감싸고 제비는 돈, 쌀, 집 등으로 흥부에게 은혜를 갚는다. 그리고 흥부는 부자가 되고 나서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한다. (...)

[㉠-K2-2-2-5급-15]

학습자 [㉠-K2-2-2-4급-6]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듯이 인간의 선악의 행위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고락(苦樂)의 결과 또한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학습자는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선행에는 선과(善果)가 있고, 악행에는 惡果(악과)가 있다’<sup>225)</sup> 금언(金言)을 속담으로 생각하여 인용하였고 이 금언과 함

225) 중국인 학습자들은 ‘善有善報 惡有惡報’를 속담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 말의 출처는 대승불교의 경전인 『보살영락경(菩薩瓔珞經)』이다. 이 경전은 요진(姚秦)의 축불념(竺佛念)이 번역한 것으로서 『본업경(本業經)』·『영락경(瓔珞經)』·『영락본업경(瓔珞本業經)』·『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이라고도 한다. 보살의 본업인 10주(住)·10행(行)·10회향(廻向)·10지(地)·등각(等覺)·묘각(妙覺)의 42현성(賢聖)의 행업(行業)과 인과(因果)에



께 <홍부전>의 중요한 메시지인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이해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덕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는 ‘죄는 지은 데로 가고 덕은 닦은 데로 간다.’는 한국의 속담을 인용하였다.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민중의 삶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이다. 즉 오랜 시간 한 사회에서 공유해 온 민중들의 지혜가 담긴 간결한 말로 어떤 특정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제격이다.

특히 중국에서 속담은 약 삼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어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속담은 민중이 생활 실천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자연과 사회 공동체의 규칙 등 풍부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인간의 일상생활의 실제적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226)</sup> 이들은 비록 중급 수준의 학습자이지만 속담을 인용하는 데 글의 맥락과 주제에 적확하게 일치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다른 지역의 학습자들보다 확실히 한자 성어를 잘 활용하고 한자 성어를 통해 작품의 가치나 주제 의식 등을 명확히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밖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공자나 맹자 등의 중국 유학자들의 글을 많이 인용하였는데 격언이나 명언을 속담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습자 [㉔-K2-2-2-5급-16]은 <심청전>을 읽은 후,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몸을 희생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효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가장 좋은 효도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 중국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다. ‘父母在, 不远游.’ 부모가 건재하면 멀리 여행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 효도의 가장 나쁜 경우를 언급한 말이 있다. ‘子欲养而亲不在.’ 뜻은 봉양하려도 부모가 이미 죽는다는 것이다. 모두 다 부모 살아 있을 때에 효경하거라는 충고다.

[㉔-K3-2-2-5급-16]

연구자: 제가 알기로는 ‘부모재, 불원유’는 속담이 아니라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중국 속담인가요?

[㉔-K3-2-2-5급-16]: 아, 중국 사람들은 공자나 맹자님 말씀 다, 그런 거 속담으

---

대해 설하였다. “又問目連 何者是行報耶 目連白佛言 隨其緣對 善有善報 惡有惡報”, 『大正新修大藏經』 제16권, 大正新修大藏經刊行會 編(1988), 『보살영락경(菩薩瓔珞經)』, 東京: 大藏出版株式會社, 78쪽.

226) 金路·徐玉明 編注(1995), 『中国谚语』, 上海文艺出版社, 前言 1面.

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에서 그 말 다 써요.

연구자: 그래요? 한국에서는 한 개인의 말은 속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서 써 온 말을 속담이라고 하죠.

[㉮-K3-2-2-5급-16] : 아, 저는 몰랐어요. 그럼 중국에서 말하는 속담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학습자 [㉮-K3-2-2-5급-16]은 『논어』의 “父母在, 不远游”를 인용하여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는 멀리 떠나 있지 말아야 하며,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려고 할 때는 이미 부모는 돌아가실 수 있으니 부모 생전에 부모 곁에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좀 더 정확히 살펴보면 이 말은 『논어』 <里仁>편에 “父母在, 不远游, 游必有方”로 제시되어 있는데 부모께서 살아계시면 멀리 가지 않으며 먼 곳에 갈 때는 반드시 그 행방을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sup>227)</sup>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학습자는 공자의 말을 중국 속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습자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학습자와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중국에서는 유가(儒家)의 학자들, 특히 공자의 말은 거의 삶의 신조처럼 받아들여져 대부분의 민중들은 이를 경서(經書)에만 쓰여 있는 특별한 말이 아닌 속담이나 일상의 격언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경험적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공자의 말을 중국의 속담으로 이해한 것이다.

### 3) 경험 지식의 적용을 통한 가치의 내면화

학습자 개개인은 각기 나름의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 경험은 학습자의 지식과 가치 등이 더해져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이 된다. 한 개인의 경험은 개인의 심리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담보하는 등 반드시 개인만의 것은 아닐 수 있다. 경험은 사고의 일부이며 경험하는 것은 의미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sup>228)</sup>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개인이 일상생활, 즉 세계와의 상호 관계에서 획득하게 되는 의미를 말하며 경험이

227) 『論語』, 동양고전연구회 역주(2016), 민음사, 93쪽.

228) 오코쇼트는 실재(reality)와 경험의 분리 불가분성을 주장하면서 실재는 경험 그 자체로 실재적인 것은 언제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합리적이라고 했다. Oakeshott, M.(2002), *Experience and Its Mod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54-55.

찾는 의미는 반성적인 사고 과정 속에서 그 의의가 더해진다. 학습자의 경험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험이 주체에게 영향을 끼쳐서 주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학습자들은 어떤 대상을 접할 때 자신의 경험을 투사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 경험의 투사는 곧 각 개인의 구체적 자아의 모습을 반영한다. 한 개인의 경험은 해석 가능성(interpreta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가치와 기준의 역할을 잘 보여 준다.<sup>229)</sup>

(...) 볼 수 없는 아버지는 냇가에 빠졌습니다. 거치는 스님 덕분에 아버지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스님은 공야미 삼백 석이 있으면 다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청은 신라 때 지은이랑 효녀처럼 아버지를 돕겠다는 경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가정 형편은 좋은 편인데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보면서 만일 나중에 내가 좋은 생활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냐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요? 심청처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은 나에게 하는 말이 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과분한 요구를 제시합니다. (...)

[㉠-K2-2-2-4급-21]

학습자 [㉠-K2-2-2-4급-21]은 가난 때문에 아버지의 봉양이 힘든 심청의 형편에 적잖은 충격을 받고 현재 자신의 처지와 대비해 보고 있다. 학습자 자신이 작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심청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해 보는 참여자로서 고전 소설 텍스트와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하고 있다. 경험의 본질은 주체가 실제로 직접 겪어 보는 것이지만 학습자는 고전 소설을 매개로 심청이라는 타자의 상황에 서서 심청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객관적인 인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자와 함께 사고하고 타자의 행적을 뒤따라가며 참여하는 것이다.<sup>230)</sup>

심청은 자신의 품삯은 모두 앞 못 보는 아버지의 봉양을 위해 사용하며 음식이

229) Berns, M.(1990), *Contexts of Competence: Social and Cultural Considerations in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Plenum Press, 전한성 옮김(2012), 『의사소통능력과 맥락: 의사소통 언어 교수에서의 사회·문화적 고찰』, 한국문화사, 48쪽.

230) Scheler, M.,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조정옥 옮김(2006),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아카넷, 446쪽.

든 의복이든 항상 아버지께 우선적으로 마련해 드렸다. 학습자는 비록 부모에 대해 심청처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갖지 못했지만 효도에 대한 고민은 시작되었고 이는 심청의 행위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심청의 처지에 있게 된다면 자신은 부모님께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서 현대 중국 사회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받기만 하는 세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현대 중국 사회는 부모가 아닌 자녀 중심의 사회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과분한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학습자 자신 또한 이러한 현 세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성하고 있다.

(...) 현재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모를 잘 살게 하려는 마음을 안고 멀리 타향으로 간 젊은이들이 많다. 일년 내내 승진이나 노비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와 함께 밥을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바쁠까?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은 큰 집에서 매일 진수성찬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할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아니라고 하셨다.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가 내 앞에 처음으로 우셨다. 가장 후회했던 것은 자신이 자주 이후가 있다는 요행 심리 때문에 할머니와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 바쁜 게 아니라고 고백했다. 아버지가 한 말은 정말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많은 생각도 들었다. 제일 불효란 부모를 효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닐까? 효도도 우유처럼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신선한 기한 안에 안 마시면 아까운 마음을 안고 우유를 버릴 수 밖에 없다. 효도도 마찬가지다, 다만 원망한 마음이 우유 버리는 마음보다 아마 천배 만배 이상 더 아플 것이다. 진정한 효도는 일조일식에 되는 것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오래오래 흐르는 가느다란 물이라고 생각한다.

[㉔-K2-2-2-5급-16]

학습자 [㉔-K2-2-2-5급-16]은 <심청전>을 읽으면서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현대 젊은이들의 군상과 청소년기에 겪었던 가족과의 일화를 떠올리며 효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학습자의 아버지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님과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를 토로했는데 학습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효도란 부모에게 특정한 순간에 특별히 무언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부모님과 함께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또한 효도는 우유처럼 유통 기한이 있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설파하고 있다. 이 학습자의 효에 대한 생

작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의 경험에 의거하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은 고전 소설을 통해 단순히 무엇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내는 경험, 부가적인 정보가 아니라 삶의 경험을 얻는다.<sup>231)</sup> 즉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작품 속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즉 ‘내가 아닌 너’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진정한 자기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32)</sup> 학습자들은 고전 소설을 읽으면서 심미적 체험을 경험한다. 해석학에서 주목하는 체험은 삶과 관련된 개별적이고 개성적인 경험으로 개인의 의식에 직접 주어진 바를 뜻하며 한 개인의 자아와 인생관을 결정짓는 본질적 경험이다.<sup>233)</sup>

작품 속의 인물에 대해 공감하거나 나아가 학습자 자신이 작품 속 인물에 감정이입을 하여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한다. 작품의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의 발로이며 인물에 학습자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는 것은 학습자의 경험 세계를 반영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하는 힘까지 발휘하게 한다. 학습자의 고유한 생각이 작품 속 등장인물에 투사되어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 또는 등장인물에 공감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문화적 감수성을 지녔다는 뜻이기도 하다.

(...) 춘향전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춘향이 매를 맞는 부분이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춘향의 마음이 어떠할지 생각 했다. 분노, 억울, 원망, 절망, 무력함 아무 잘못 없는데 이런 고통을 겪게 되니 분노하고 억울할 것이다. 몇 년 동안 돌아 오지 않는 이몽룡만 기다리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신체가 아플수록 이몽룡에 대한 원망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이몽룡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무력함을 느껴지는지 알 수 있다. 많이 아픈대도 꼭 참는 춘향을 보면 용감하고 침착하고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고통을 참아낼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참을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춘향이 독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

231) Rosenblatt, L., *Literature as exploration*, 김혜리·엄해영 역(2006), 『탐구로서의 문학』, 한국문화사, 38쪽.

232) Dilthey, W.(1979), “Erleben, Ausdruck und Verstehen”,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이한우 옮김(2002), 『체험·표현·이해』, 책세상, 17쪽.

233) Warnke, G., *Gadamer: Hermeneutics, Tradition and Reason*, 이한우 옮김(1999), 『가다머: 해석학, 전통 그리고 이성』, 민음사, 61쪽.

한편 이몽룡은 춘향을 좋아하고 같이 있고 싶지만 그래도 아직 어린난이에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하고서 춘향을 두고 혼자 떠나 간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해서 돌아 왔는데 춘향이 자기를 위해 정절을 지키기 위해 어마한 고통을 참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시각에도 춘향을 시험하다니 내가 춘향이라면 절대 이몽룡을 용서 안 할것이고 내가 받은 고통이 가치 없다고 느껴 질것이다.  
(...)

[㉠-K2-2-1-5급-27]

학습자 [㉠-K2-2-1-5급-27]은 철저히 춘향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개진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변학도의 모진 고문을 이겨 내는 춘향을 보면서 분노, 억울함, 원망, 절망, 무력감 등 춘향이 느꼈을 것이라고 가정되는 춘향의 심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신이 춘향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자신은 그 상황을 견뎌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작중 인물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습자는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한 죄로 춘향이 매를 맞으면서 겪었을 고통과 분노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몽룡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매우 크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춘향을 떠난 이몽룡에 대한 부정적 인상은 어사 출도 이후 춘향의 수절을 한 번 더 시험하고자 했던 이몽룡의 태도에서 더욱 배가되면서 자신이 춘향이라면 절대 이몽룡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즉 학습자는 춘향이 감내한 고통의 무게에 반해 이몽룡의 처신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춘향의 감정에 학습자 자신이 깊숙이 침윤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학적 소통은 작품의 심미적 의미가 작품 자체에서 인식 주체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과 작품이 지닌 정보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sup>234)</sup>

#### 4) 상호 텍스트성에 기반한 문화 간 지식의 비교

학습자들은 고전 소설을 읽을 때 주제가 비슷한 기준에 알고 있던 한국의 설화

234) 이광복(1999), 「구성주의 문예학과 그 문학교수법적 함의」, 『독어교육』 제17집, 한국독어독문교육학회, 239-240쪽.

등 다른 작품과 관련하여 분석하거나 주제나 내용이 유사한 자국의 문학 작품을 비교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작품들 간의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해 대상 작품을 탐색하였다.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텍스트 간의 상호 관련성을 말하는 것으로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갖는 관계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상호 텍스트성은 텍스트와 텍스트, 주체와 주체, 텍스트와 사회·문화적인 영향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식의 총체적인 연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개념을 말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작품들이 서로 영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학습자들의 감상문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문학 작품 간의 주제적 유사성에 주목해 작품들을 비교하고 있다.

인류 보편성과 개별적 독자성, 특수성을 지니는 문학은 세계 문학과 상호 연관성을 지닌다.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행위의 문화는 문학 속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는데 특정한 문화의 낯선 문학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되는 독자가 작품 간의 주제나 인물에 대해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 ① 목표 문화의 문학 작품 지식의 활용

다음에 제시하는 학습자들은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을 학습하기 전에 문학 수업 시간을 통해 다양한 한국의 설화를 학습한 적이 있는 학습자들로서 고전 소설을 감상할 때 이전에 배웠던 설화들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옛날이야기 중에서 《홍부전》 《춘향전》 《콩쥐팍쥐》를 읽은 후에 “징악 양선”을 알았습니다. 이런 문학 작품 중에서 착한 사람들이 꼭 성공하고 나쁜 사람이 다 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자유, 민주 등을 추구하고 봉건사회를 반대합니다.

[㉠-K2-2-1-3급-9]

이번 학기 문학 수업을 통해 많은 작품을 배웠고 작품을 통해 예전 모르는 한국 문화를 알게 되었다. 심청전과 동자심 두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회 적대적으로 가치 문화는 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동자심 중 부부가 자식을 죽일 수 있는 정도로 한국 사람이 효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았다. 그리고 홍부전과 콩쥐팍쥐 두 이야기를 통해 한국 문화 속에 권선징악이라는 것을 알았다. 홍부와 콩쥐처럼 착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 결국 복을 얻고 팔쥐와 놀부 같은 악한 사람이 벌을 받을 것이다. (...)

[㉔-K2-2-2-5급-5]

학습자 [㉔-K2-2-1-3급-9]는 <홍부전>과 <춘향전>을 <콩쥐팍쥐>와 정악양선(懲惡揚善)이라는 주제적 측면에서 비교하면서 조선 시대에는 자유, 민주를 추구하고 봉건 사회를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세 작품 모두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는 것에는 틀림없으나 <콩쥐팍쥐>가 자유와 민주의 근대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주제 의식의 지나친 확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춘향전>의 신분 갈등의 문제와 춘향의 자유와 평등의 추구, <홍부전>의 계급 간의 갈등, 빈부 격차 해소의 욕망 등은 봉건 사회에 대항하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콩쥐팍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학습자 [㉔-K2-2-1-3급-9]는 <춘향전>을 중심으로 주제 의식을 생각하고 이를 세 작품으로 한데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홍부전>과 <콩쥐팍쥐>를 비교한 또 다른 학습자의 예이다.

(...) 처음에 읽었을 때, 홍부전은 단순히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소설이라고 생각했다. 권선징악이란, 말 그대로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진정한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소설은 음성 인물이 죽어 마땅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표적인 권선징악의 이야기 <콩쥐 팍쥐> 중, 악을 대변하는 계모와 팍쥐가 벌을 받고 죽었다. 착한 콩쥐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 <홍부전>은 단순한 인과응보적인 권선징악의 주제가 아니라 형제간의 우애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에 홍부가 나온 금은보화를 형에게 갖다 드리는 행위는 성격이 약한 상징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작가가 원만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설치한 내용이었다. 소설의 전반부에서 보여주는 빈부의 갈등이 아주 강해서 소설의 이중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홍부의 성격 중 약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묘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부전>은 형제간의 정과 권선징악을 강조한 윤리소설로서 전반적으로 보면 단순히 권선징악의 <콩쥐 팍쥐>보다 플롯이 더 부드러운 편이었다. (...)

[㉔-K2-2-2-5급-19]

학습자 [㉔-K2-2-2-5급-19]는 <홍부전>을 한 번만 읽은 것이 아니라 교실 수업 이후,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작품을 탐독하고, 소설의 주제가 단순히 권선징악만이 아닌 형제간의 우애와 빈부 갈등까지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해냈다.



이 학습자는 <홍부전>을 <콩쥐팍쥐>와 비교함으로써 <홍부전>의 주제 의식을 더 심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홍부전>이 단순히 권선징악만을 말하고자 하는 작품이었다면 소설의 결말에 놀부는 죽거나 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홍부의 재산 분배로 말미암아 놀부마저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것에 의심을 품고 홍부라는 인물에 대해 탐색하였다. 학습자는 평생 구박만 당했던 형인 놀부에게 금은보화를 함께 나누는 홍부의 성격을 유약(柔弱)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작품의 결말이 권선징악을 넘어서는 장치가 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 ② 문화 간 문학 작품의 비교

자문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양과 질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문화 간 작품 비교의 수준은 매우 달라진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한국어 수준에 관계없이 자문화에서 전통적으로 유명한 작품, 자문화에서 정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를 작품 해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중국에서는 모든 선행 중에 효가 그 첫째라는 말처럼 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효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최고의 덕목이라고 여겨진다. <심청전>이라는 작품은 바로 효녀 심청이 눈먼 아버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감동적인 효의 이야기이다. 효행을 찬송하는 이야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죽은 아버지의 시체를 묻기 위해 자기의 몸을 파는 동영이라고 하는 효자이야기, 그리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려고 한겨울에 얼음 호수에다가 누워서 자신의 체온으로 얼음을 녹이고 물고기를 잡는다는 이야기는 <심청전>을 읽고 나서 떠오르게 하는 작품들이다. 그것은 효행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미덕이기 때문이다. <심청전>은 한국에서 대표적인 이야기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효에 관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

[㉠-K2-2-2-5급-18]

학습자 [㉠-K2-2-2-5급-18]은 <심청전>을 읽기 전에 효(孝)는 중국과 한국의 인간 도리의 최고 덕목이며 효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

음을 이미 알고 있다. 학습자는 <심청전>을 학습한 후, 중국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십사효(二十四孝)』<sup>235)</sup> 중 자신의 몸을 팔아 아버지 장례를 치른 동영의 이야기인 <매신장부(賣身葬父)>와 자신을 미워하는 계모임에도 불구하고 잉어를 바치기 위해 옷을 벗고 얼음 위에 누워 잉어를 잡은 왕상의 이야기인 <와빙구리(臥冰求鯉)>를 떠올리며 작품의 주제들이 일치함을 말하고 있다. 학습자는 한국의 <심청전>과 중국의 <매신장부>, <와빙구리> 모두 인류 보편적 가치인 효(孝)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이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중국인 학습자 대부분은 <춘향전>을 중국의 고전인 <서상기(西廂記)>, <홍루몽(紅樓夢)>, <양산백과 축영대> 등과 비교·분석하였다. <양산백과 축영대>는 비교적 짧은 분량의 설화로 중급 학습자들은 이 작품의 내용을 한국어로도 잘 표현하였으며 특히 <서상기>와 <홍루몽><sup>236)</sup>은 중국의 유명한 고전으로 현재까지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들로 <춘향전>과 줄거리, 등장인물, 극적 구조 등에서 유사한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상기>의 주인공인 앵앵은 춘향보다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겠다는 정조관념이 투철하고 매우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두 작품 모두 여러 갈등 상황과 고난을 이겨 내고 사랑을 쟁취하는 결말을 맺음으로써 학습 독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홍루몽>은 <춘향전>과 달리 주인공들이 행복한 결말을 맺지 못하지만 봉건 귀족 계층의 모순을 폭로하고 봉건 제도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점과 탁월한 심리 묘사 등은 <춘향전>과 비견할 만하다.

(...) 이 외에 소중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찬양하는 작품으로서 <춘향전>을 읽고 나서 다른 클래식 작품, 예를 들면 영국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국의 <양산백과 축영대>를 떠올랐다. 문화의 보편성으로 보면 사랑이란 주제는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다.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 <양산백과 축영대>와 달리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은 결국에 좋은 끝을 맺었다. 한국 문학이란 한국 사람들이

235) 『이십사효(二十四孝)』는 『이십사효고사(二十四孝故事)』라고도 하며 원(元)나라 때 관수정이라는 사람이 집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동몽서(童蒙書)의 일종으로 효도를 권장하고자 상고 시대부터 송대까지, 효를 몸소 실천한 24명의 고사를 수록하고 있다. 『이십사효(二十四孝)』, 임동석 역주(2012), 동서문화사.

236) <홍루몽>은 청대의 대표적인 소설로 당대 중국 사회에 열풍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현대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혜경(2009), 「문화현상으로 바라본 청대의 <홍루몽> 열풍」, 『중국소설논총』 제30집, 한국중국소설학회.

삶과 역사 중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감정과 생각을 담는 작품이다. 이것은 바로 한국 문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보다 내일은 삶이 더 좋아질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 사상 자유와 평등에 대한 추구 등 것들이다. 즉, 문학 작품에서 반영되는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한다.

[㉠-K2-2-2-5급-18]

한국의 <춘향전>은 중국의 <서향기>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춘향전을 읽고 나서 다시 <서향기> 생각을 나눕니다. <서향기>와 <춘향전>은 중국과 한국문학작품 중에서 중요한 작품입니다. 각각 자기 나라의 교재를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춘향전>은 중국에서도 아주 유명합니다. 경극, 월극, 황매회 등 중에서 다 춘향전 소가곡을 있습니다. <서향기>는 중국에서 집집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앵앵과 장생을 사원에서 우연히 만나고 첫눈에 서로 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신분지위의 차이 때문에 둘이는 앵앵의 어머니가 강열한 반대를 받습니다. 그 후에 앵앵의 하녀 홍낭의 도움으로 한발 한발의 봉건사상의 굴레를 벗었습니다. 장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춘향과 앵앵이 다 교양 있고 정숙한 여자의 대표입니다, 신분이 다르지만 둘이 거의 여성의 모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용모가 준수하고 예쁩니다. 남자 주인공이 다 첫눈에 봐서 반했습니다. 그런데 외모만 가진 여자가 아니라 재능이 뛰어나서 더 사람의 신경을 끌 수 있습니다. 이몽룡이 처음 춘향의 방에 들어갈 때 벽에서 걸린 그림을 보고 나서 마음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화적인 배경이 서로 사랑하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인공이 예쁜 외모와 재능은 남주인공을 사랑하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소설 스토리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서향기>중에서 앵앵이 외모와 재능을 뛰어나서 남을 강탈하여 결혼하고 싶어서 장생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비슷하게 <춘향전>중에서 춘향이 홀룡해서 변학도가 춘향을 원해서 춘향이 열녀를 만들었습니다. 외모를 아름답고 능력이 있는 여자 확실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사랑하는 길은 평탄하지 않겠습니다. 춘향과 앵앵이 다 사랑에 대한 아주 두입하고 사랑을 중시하고 명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둘이 당면한 문제가 다릅니다. 춘향은 신분의 제한하고 변학 고등의 방해이고 앵앵은 가문문제와 마음속 심리적 갈등입니다. 두 작품이 다 봉건적 등급 관념을 배척하는 것이 주장하고 그 시대의 사람의 아름다운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K2-2-1-3급-10]

학습자 [㉠-K2-2-2-5급-18]은 한국의 <춘향전>과 자국의 소설인 <양산백과 축영대>, 영국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떠올려서 세 작품의 주제를 비교하였다. 이 학습자는 사랑은 인류 보편적 주제임을 알고 세 작품 모두 사랑에 대해 묘사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춘향전>만이 행복한 결말을 갖는다고 하였다. <로

미오와 줄리엣>은 사랑을 주제로 했으며 남녀 모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세기의 비극이고, <양산백과 축영대> 역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모두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난다. <양산백(梁山伯)과 축영대(祝英台)>는 중국의 민간 설화로 당나라 중종(中宗, 683~684) 때 양재언(梁裁言)이 저술한 십도사번지(十道四蕃志)에 처음 등장한다. <양산백과 축영대>는 월극(越劇)이나 천극(川劇) 등의 중국 전통극은 물론 현대 사회에서도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국인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학습자는 전문가 수준에서의 비평적 해석 수준은 아닐지라도 <춘향전>을 통해 한국인이 미래에 대해 갖는 낙관적 태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 문화의 특수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문화 간 작품을 비교할 때 한국어 언어 능력보다 학습자의 배경지식, 특히 문학적 지식이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학습자 [㉠-K2-2-1-3급-10]이 쓴 감상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어 능력 3급에 해당하는 이 학습자는 군데군데 맞춤법 오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춘향전>을 자국의 소설인 <서상기>와 줄거리 및 등장인물, 주제와 관련해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각 소설의 주인공인 춘향과 앵앵의 외양 및 성격을 묘사하고 춘향의 갈등은 사회적인 것으로, 앵앵의 갈등은 가문과 심리적 문제로 파악하면서도 두 작품 모두 봉건적 계급 타파를 주장하고 있음을 포착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특히 춘향과 앵앵의 외모와 재능은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서 남자들의 환심을 사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여주인공들의 삶을 평탄치 못하게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서상기>와 <춘향전> 모두 자국에서 교재에 수록될 만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정전의 위치를 지닐 만큼 가치 있는 작품이며 경극(京劇), 월극(越劇), 황매극(黃梅劇) 등 다양한 공연의 장르로 활용되고 있음도 아는 등 학습자의 자문화와 목표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두 작품을 비교하였다.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춘향전>을 <서상기>나 <홍루몽> 등의 소설과 비교·분석하였는데 이 작품들 외에 다른 문학 작품과의 비교를 시도한 예도 있었다. 학습자 [㉠-K2-2-2-5급-16]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많이 언급하지 않는 희곡 <두아원>과 <춘향전>을 문학 장르의 형태, 작품의 내용과 주제, 수사법에 대해 비교 문학적, 상호 텍스트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석하였다.

<춘향전>은 한국의 유명한 고전문학 작품인데 <두아원>은 중국 원대에 제일 인기가 있는 잡극들 중의 하나다. 두 작품은 다른 나라에서 나왔지만 형식, 내용과 표현 수법 상에 비슷함이 몇 가지 있다.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분석해 볼 것이다.

첫 번째는 문예 형식이다. <춘향전>은 노래 형식의 판소리로 대부분 줄거리를 나타내면서 남은 얘기를 방백으로 서술한다. 잡극 <두아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및 노래 형식인 중국 전통 희극으로 표현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두 작품은 다 전통 강창 문학이다. 두 번째는 내용상의 비슷함이다. 우선 여자 주인공이 다 열녀다. 춘향은 수절을 위해서 무시무시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두아는 개가하기가 싫어서 나쁜 사람의 모함에 빠지며 비참하게 죽어버렸다. 이로부터 두 사람이 모두 용감하고 의지가 강하여 굶힐 줄 모르는 마음이 좀 독한 캐스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작품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줄거리 중의 하나는 바로 흉악한 벼슬이 직권에 등 대여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는 것이다. 두 이야기의 결말은 벼슬이 다 벌을 받았다. 사실 양국의 전통 사상 문화도 이 두 점으로 엮을 수 있다. 하나는 유가의 ‘삼강과 무상’<sup>237)</sup>이다. ‘삼강’중의 ‘부위부강’과 ‘무상’중의 ‘예’는 다 여자에게 충성심과 지조가 변하지 않다는 요구다. 또 민중이 ‘사악은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상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믿음은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점은 두 작품의 표현 수법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숫자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춘향은 형장을 맞으며 숫자 일부터 열까지 다 쓰고 억울한 사정을 호수했던 줄거리는 더이상 군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두아원>에 대해 잘 설명하고 싶다. 원문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 ‘你道是暑气暄，不是那下雪天；岂不闻飞霜六月因邹衍？若果有一腔怨气喷如火，定要感得六出冰花滚似锦，免着我尸骸现；要什么素车白马，断送出古陌荒阡？’ 뜻은 ‘이제 6월 삼복더위인데 만약 내가 정말 억울함을 당하면 눈이 삼척 정도 내리고 내 시체를 덮겠다’는 것이다. ‘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바로 두아가 죽기 전에 빌었던 유명한 서원 세 개 중의 하나다. 나머지 두 개는 ‘피는 한 방울도 빠지지 않게 다 흰 비단에 쏟겠다’와 ‘이 지역에는 삼년 동안 극심한 한해를 당하겠다’. 서원 중에는 숫자가 종종 있는데 3은 가장 많이 언급한 숫자다. 중국에서 옛날부터 황제를 만났을 때나 지금까지 제사할 때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고두 3번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맹세할 때도 자신이 진지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 손바닥을 3번 마주치거나 손가락 3개를 내밀고 머리 옆에 들어서 한다. 그래서 3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위 문장을 보면 <춘향전>의 문장과 비슷해 은근히 리듬과 운율도 느낄 수 있다. 또

237) 학습자가 기술한 ‘무상’은 ‘오륜(五倫)’을 뜻하는 ‘오상(五常)’의 오키로 판단된다. 한자어 ‘오상(五常)’의 중국어 발음은 [wūcháng]으로 ‘무상[wúcháng]’과 비슷해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종종 범하는 표기상의 오류이다.

하나는 수사다. 두 작품에서 다 풍부한 비유법과 대구법을 사용했다. 위에 있는 문장 중에는 두아의 한을 볼로 비유하고 앞글과 뒤글을 상대하는 것으로 이 특징을 볼 수 있다.

[㉠-K2-2-2-5급-16]

희곡 <두아원(寶娥冤)>은 원대의 극작가 관한경<sup>238)</sup>이 창작한 중국 희곡의 대표작으로 여주인공인 두아의 비극적 삶을 이야기한 작품이다. 주인공 두아는 춘향처럼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성격을 지녀 장로아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절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두아의 본명은 정단(正旦), 아명은 단운(端雲)이었는데 아버지가 진 빚을 대신해 채노파의 집으로 민며느리로 들어가 이름을 두아라 개명하고 혼인하였으나 2년도 안 되어 남편을 폐결핵으로 잃는다. 두아는 시아버지를 독살했다는 살인죄로 억울하게 비명횡사하였으며 죽음 이후에 아버지인 두천장에 의해 원한을 풀게 되지만 살아생전에 두아가 겪은 모진 고통과 죽음을 보상받기에 두아의 희생은 너무 컸다. 두아의 비극은 고리대금업의 성행, 탐관오리의 횡포, 친자 매매, 부랑아의 횡행 등 당대의 사회의 부패상에 비추어 되었다. 한편 두아에게 행했던 탐관오리의 횡포는 <춘향전>의 변학도와 비길 수 있으며 두아가 매를 맞는 장면은 춘향이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해 매를 맞는 십장가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형장에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두아의 모습은 자신이 죽은 뒤 홀로 남게 될 월매를 걱정하는 춘향의 효심과 비슷하다.

학습자 [㉠-K2-2-2-5급-16]은 <두아원>은 창으로 불리어지는 희곡으로 판소리로 불리어지는 <춘향전>과 언어의 표현상의 구현에도 유사점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두 작품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즉 두 작품 모두 노래로 불리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였는데 이렇게 작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품 간 비교를 한 예는 특별한 편에 속하며 고급의 문화적·문학적 지식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학습자는 두 번째로 <춘향전>과 <두아원>의 여주인공을 중심으

238) 관한경은 원대(元代)의 대표적인 작가로 불합리한 사회의 심층을 풍자와 해학으로 표현한 작품들과 사회성이 짙은 작품들을 많이 썼고 여성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여성에 대한 묘사가 매우 섬세하고 구체적이다. 관한경 작품의 특색은 하층 부녀자들에 대한 동정적 시선, 현실 비판적 내용, 짜임새 있는 구성, 생생한 인물 형상, 절절한 노래 삽입, 구어, 속어, 시사(詩詞)의 활용을 들 수 있다. 그는 희곡작가, 연출가, 배우 등을 겸임할 정도로 다재다능하기도 했다. 王學奇·王靜竹·吳振清 校注, 하경심 옮김(2008), 『두아 이야기/악한 노재량』, 지만지, 7-13쪽 참고.

로 이야기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 유교 사상인 삼강오륜(三綱五倫)이 사상적 배경이며 ‘사악(邪惡)은 정의(正義)를 이기지 못한다.’는 민중의 소망이 깃든 작품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㉔-K2-2-2-5급-16]은 두 작품에서 활용한 숫자 10과 숫자 3에 주목하여 작품을 통한 문화 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춘향전>에서 춘향이 형장에서 매 한 대를 맞을 때마다 숫자를 하나씩 더해 가며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것과 비교하여 <두아원>의 두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기 전에 했던 말들을 숫자 3을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서 각각의 숫자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숫자 3 또한 그러하다. 학습자는 숫자 3은 황제 알현이나 제사 등 중요한 행사 때 쓰이는 의미 있는 숫자, 중국 문화를 표현하는 중요한 숫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문화 간 비교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중국에서 3은 주로 신념 및 종교와 관계있는 숫자로 인식되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삼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우선 중국에서 ‘3’은 신령에 대한 제사 의식과 관계가 밀접해서 일찍부터 중국에서는 ‘신삼귀사(神三鬼四)’라는 얘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신령 제사에서 항상 향초 세 개를 꽂고 절을 세 번 한다.<sup>239)</sup>

## (2) 가치 판단 및 해석

### 1)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

고전 소설을 감상할 때 학습자들은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 행위 등에 관심을 많이 가지며 작품 속 인물들의 생각이나 행위, 성격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내

239) 3은 신화에서는 ‘천지인(天地人), 완전한 존재, 성수(圣数)’, 무속과 민속에서는 ‘탄생, 제액초복, 삼재, 저승사자’, 풍습에서는 ‘기본, 홀룡함, 대표성, 긴 세월, 완전함’, 유교에서는 ‘근본, 3계, 3구, 손익, 삼락, 삼불행’, 불교에서는 ‘성수, 고통’, 도교에서는 ‘생성 원리, 성수, 삼훈’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권순매(2009), 「中朝两国数字象征意义的对比研究」, 연변대학 석사 학위 논문, 15쪽. 한편 ‘3’은 ‘4’와 연계되어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는데 예를 들어 사람이나 일이 미덥지 않고 허황될 때 ‘불삼불사(不三不四)’라고 하며, 또한 어떤 사람이 건망증이 심하여 일을 잘 잊어버린다면 ‘丟三落四’라고 한다. 张奇(2014), 「中俄文化中的数字象征」, 『文化教育』, 鸭绿江, 180面.

린다. 이때 공감과 비판은 가치 판단의 전(前) 과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들은 작품 속 인물들의 가치나 행위에 공감 또는 비판을 하면서 인물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가고 학습자의 도덕적 기준이나 개인적 경험으로 이들에 대한 가치 판단을 시도한다. 한편 학습자의 모국 문화와 목표 문화 사이에는 보편성과 상이성이 공존할 수 있는데 보편성은 문화적 중첩에 의한 공통적인 존재 표현 및 활동으로서 외국어 학습자에게 이해의 거리를 좁혀 주며 상이성은 하나의 문화가 지닌 독특한 자질과 여기에 기인하는 사고, 판단, 표현의 독립적인 가치로서 경험의 다양화에 기여한다.<sup>240)</sup>

사랑, 진리, 평화, 가족애, 권선징악, 부귀영화 등 시대, 문화, 사회, 역사 등이 달라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추구하는 가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가치들은 존재한다. 이런 보편적 가치들은 모국 문화나 목표 문화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라고 할지라도 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나아가 공감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심청전>의 효도, <춘향전>의 사랑, <홍부전>의 우애는 인간이면 누구나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이 가치들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인물의 생각과 행동 방식은 학습자들에게 가치 판단의 여지를 준다. 즉 가치 실현 또는 성취를 위해 개인이 취하는 수단이나 방법은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공감에는 독자 또는 관찰자가 대상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적 공명과 부정적 경험을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동정, 관심, 연민의 정서를 경험하는 공감적 관심이 있는데<sup>241)</sup> 한국어 학습자들은 고전 소설을 통해 후자인 공감적 관심을 더 많이 드러냈다.

“심봉사 깜짝 놀라 아버지라니 누가 날더러 아버지여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무남독녀 외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 삼년인데 누가 날더러 아버지” 하면서 어찌나 쓰린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눈에 빙빙 돌고 있다. 공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묘한 것인 줄 몰랐다. 자기 나라의 이야기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지만 주인공의 눈길과 손길과 몸짓을 보면 감정이 싹트듯이 마음속을 짝 채워주었다. 아주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야기 자체도 그렇고 판

240) 권오현(2003), 「문화와 외국어 교육-고등학교 독일어교육을 중심으로」, 『독어교육』 제28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16쪽.

241) 신경일(1994),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 간의 관계」, 『연구보』 제29집,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1쪽.



소리하는 어르신도 그러했다. 원문은 유교적 사상이 넘친다고 해도 천천히 읽어보면 감동 안 받을 리가 없다. 중국 작가 루쉰(魯迅)은 이렇게 말했다: 비극은 아름다움을 깨트리고서 나는 것이다. 지금의 사회를 보니 심청 가족들의처럼 순박한 인간성과 가족에 대한 깊은 마음은 점점 희한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펼쳐 나갈 때 보는 내가 더욱 가슴 아픈 것이다. 꼭써 부인의 마지막 고백에서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녀의 감정은 거기를 넘어 흘러 나갔다. 그녀의 사랑, 아쉬움, 근심, 한, 종종 감정이 결코 말 몇 마디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동시에 혼자 남아 있는 심봉사와 갓 태어난 아기가 맞이할 어려운 운명을 예시하기도 하였다. (...)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희생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감동이 들면서도 현실 속에 정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공자밖에 또 어디 있을까 하는 감탄도 났다. (...) 하지만 그런 효나 인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볼 수 있더라도 마음속에 감동을 받기 분명하다. 우리 마음속에 이해와 상관없이 진, 선, 미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이다.

[㉠-K2-2-2-5급-17]

학습자 [㉠-K2-2-2-5급-17]은 <심청전>의 독서 이전에 <심청전>을 관소리로 관람한 경험이 있어서 다른 학생들보다 <심청전>을 예술적·심미적으로 수용하였다. 판소리의 창자(唱者)를 통해 <심청가>를 들으면서 마음속 깊이 공감을 한 것이다. 학습자는 심봉사와 해후(邂逅)하는 심청, 심봉사와 심청을 두고 먼저 세상을 하직하는 꼭써 부인, 젓먹이 아기를 혼자 돌봐야 하는 심봉사 등 작품 속 등장인물의 상황과 처지,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 학습자는 특히 꼭써 부인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근심, 한(恨)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버지를 위한 심청의 희생과 효에 대해 감탄하면서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인류가 지향하는 이와 같은 가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류 보편적 가치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 흥부전은 우리에게 권선징악이라는 일리를 가르쳐 준다.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흥부처럼 착하게 남을 도움을 주고 고려하면 언젠가는 좋은 보답을 받는다. 하지만 놀부같이 행동하면 나쁜 일을 당할 수 밖에 없다. 또는 흥부전을 통해서 우리는 혈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부는 놀부가 너무 안쓰럽게 샀다고 생각해서 자기 얻은 재산을 형에게 나누고 싶어했다. 그래서 흥부는 형을 오라고 부르라고 했다. 흥부 마누라는 화가 났다. 재산을 빼앗아 놀부에게는 재산을 주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일이다. 흥부의 보기에는 형제는 진정한 가족이다. 아무리 악인이더라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다. 흥부에게는 놀부가 자식 빼고 유일한 혈맥이니까 놀부는 아무리 나빠도 형제라서 그냥 뒤킴지 못한다. (...)

[㉠-K2-2-3-5급-21]

학습자 [㉠-K2-2-3-5급-21]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간 삶의 명제적 가치에 수긍하고 있으며 이를 흥부와 놀부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학습자는 <흥부전>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혈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형제애는 혈연에 의한 것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임에 공감하고 있다. 즉 아무리 악인이라도 가족은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인류 보편적 진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음은 흥부의 우애를 ‘효(孝) 문화’로 확장해서 논의한 학습자의 감상문이다.

(...) 그런데 문학 가치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사상이다. <흥부전>은 현실적 의의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표현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권선징악이란 주제인 이야기가 있지만 <흥부전>과 같이 형제가 서로 화해하는 것을 끝으로 하는 작품이 별로 많지 않다. 사실은 이것이 ‘효’문화의 재현이다. 자세히 생각하면, 부모가 곁에 없이 형과 같이 살아왔던 흥부에게 형이 아버지 같은 존재일 것이었다. 그래서 형이 아무리 잘못해도 윗사람인데 효도로써 용서해 주는 게 사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닐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윗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따지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런 윤리적인 갈등은 당시의 시대 특징을 결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 의의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흥부가 악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인간의 보편적 양심과 심성이 여전히 버리지 않는 것도 매우 기특하다. 자신이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약자가 위험을 당한 것을 봤을 때 기회를 틈타서 분통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손길 보내기를 선택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 (...)

[㉠-K2-2-2-5급-16]

학습자 [㉠-K2-2-2-5급-16]은 고전 소설을 학습할 때 문학적 가치보다 현실적 가치 즉 윤리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흥부전>을 현실적 의의에 대해 깊이 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하면서 흥부가 놀부를 용서하고 배려하는 모습에 공감을 표했다. 학습자의 판단으로는 부모 없이 형과 함께 살아온 흥부에게 형인 놀부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공경의 대상이며 윗사람인 놀부가 잘못을 하더라도 아랫사람인 흥부는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많은 학습자들이

흥부와 놀부의 형제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나 평가를 보였는데 이 학습자는 우애를 효의 확장된 가치로 생각하면서 뒷사람인 놀부를 용서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간주하고 있다. 형이 형의 도리를 지키지 않아도 동생은 어디까지나 동생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전통 사회의 윤리 의식을 이해하며 학습자 자신도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42)</sup> ‘형우제공(兄友弟恭)’이라는 한자 성어에서 보듯이 형제 윤리에서는 아우의 형에 대한 공정보다 형의 아우에 대한 사랑이 더 일반적이다. 즉 혈연적 관계에서는 내리사랑이 더 본능적인데 <흥부전>은 한국의 여러 설화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인공들이 ‘악형선제(惡兄善弟)’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가족 윤리에서 ‘효’가 가장 강조됨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sup>243)</sup>

## 2) 개인의 가치 행위 방식에 대한 비판

한국어 학습자들은 궁극적으로 고전 소설의 인물들이 추구하는 ‘효, 열, 우애, 사랑, 자유, 평등’ 등에 대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이는 현대에도 계승되어야 하는 가치로 인정한다. 그러나 고전 소설의 인물들이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사고나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행위를 가치 절하하거나 비판하는 데 서슴지 않았다. 즉 학습자들은 가치 실현의 목적보다는 가치의 의미를 구현해 가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 심청은 자기 아버지 눈을 뜰 수 있기 위해 희생하여 물에 빠졌다. 심청은 정말 대단하고 착한 효녀이다. 심청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심청이 이렇게 하면 참된 효녀인가요? 만약 심청이 물에 빠진 후에 돌

242) 고전 소설의 형제 관계가 ‘악형선제(惡兄善弟)’가 많은 것은 봉건적·위계적 인간관계의 질서와 개과천선(改過遷善)을 믿는 성선론적(性善論的) 인간관이 조선 시대에 상당히 수용되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김태길(1977), 『李朝時代 小說에 나타난 韓國人의 價値觀』, 일지사, 93-94쪽.

243) 한국의 우애 설화에 등장하는 형제들은 대부분 ‘악형선제(惡兄善弟)’, ‘우형현제(愚兄賢弟)’, ‘형부제빈(兄富弟貧)’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에서 강조되는 장자(長子)의 역할을 고려하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 설정이지만 당위 규범인 형우제공(兄友弟恭), 즉 효(孝)를 강조하기 위한 역설적 사회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조춘호(1993), 「口碑 友愛說話의 樣相과 意味」, 『論文集』 제11집 1호, 경산대학교, 22쪽.

아오지 못했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픈지 몰른다. 아버지가 눈을 뜬다고 해도 자식이 자기를 위해 죽으면 슬픈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그 후에 죄책감에 살겠다. 그래서 나는 심청의 결정은 옳은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볼 수 없지만 심청이 옆에 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심청이 없었더라면 자기 볼 수 있어도 의미 없다. 심청의 행위는 책임지지 않은 행위이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부모에게 큰 괴로움이 될 것이다. (...) 효는 우리가 지켜가야 할 미풍양속이고 백행의 근본이지만 우리 이성적으로 효행해야 한다.

[㉠-K2-2-2-5급-3]

(...) 그런데 그 동시에 심청의 효행은 어느 정도에 너무 극단적인 효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효를 실천하는 데에 다종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몸을 바치는 것이 아마도 가장 극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다른 시각에 의하면 심청이 효녀가 아니다. 우선,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말처럼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고 보호하는 것도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청은 오히려 효를 위해 생명을 포기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희생하는 데에 자신을 힘들게 놓고 딸이 건강하게 자라기 바라는 어머니에게는 불효이라고 여길 수 없을까 싶다. 또는 쌀 300백 석을 바치면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의 진실성을 잘 생각하지도 않고 믿기만 하는 것도 총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거짓말을 믿어 아버지를 혼자 남겨두면 눈이 멀고 또 자식을 잃은 비통 속에 처하는 아버지에게 도리어 불행이 될 수도 있다. 가령 아버지가 정말로 눈을 뜰 수 있다고 해도 딸이 없이 삶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고될 수 있는 것이다.

[㉠-K2-2-2-5급-18]

(...) 우선, 심청은 아무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뱃사람들에게 몸을 판 것은 아주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심청이 물에 빠진 후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심봉사도 여전히 눈을 뜰 수 없었다면 혈혈단신인 심학규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막막하고 비참했을까? 또, 아버지 심학규의 눈을 뜨게 하는 보장을 받아도 이러한 지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은 진정한 효행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에게는 자식이 가장 큰 선물이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다. 단지 눈을 뜰 수 있기 위해 자기에게 귀중한 선물이며 보물인 딸이나 아들을 팔 부모가 없을 것이다. 심청의 아버지 심봉사는 심청이 물에 빠진 후 딸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헤시주옥처럼 지냈다는 것은 바로 이에 대한 가장 유력한 논거이다. 그리고 심청이 선택한 공양미 삼백 석을 얻는 방법은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웃 마을의 장승상 부인의 수양딸로 살면 공양미 삼백 석도 쉽게 얻을 수 있고 아버지와와 영원한 이별대신 평소에 아버지를 돌볼 수도 있다. 이는 몸을 뱃사람에

게 파는 심청의 비판적인 선택보다 백 배 천 배 더 낫다. 심청의 ‘효행’은 조선 시대라는 유교적 사회속에서 너도나도 흉내내고 싶은 모범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목숨을 최우선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K2-2-2-5급-23]

학습자 [㉡-K2-2-2-5급-3]과 [㉡-K2-2-2-5급-18]은 아버지의 개안(開眼)을 위해 희생한 심청의 행위에 대해 우선 효녀라는 명제를 내리지만 바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아버지를 위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 간주한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행위, 그것도 자연사(自然死)가 아니라 의도된 생명의 버림이라면 더욱더 문제가 되는 불효이다. 학습자들은 심봉사가 원하는 것은 딸의 죽음이라 아니라 눈을 뜨지 못하더라도 딸과 함께 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심청이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안다면 눈을 뜨더라도 그것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때문에 딸이 죽었다는 죄책감을 지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므로 심청은 본의는 아니지만 아버지에게 큰 괴로움을 안겨 주게 된다. 학습자들은 심청의 이러한 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학습자 [㉡-K2-2-2-5급-18]은 딸의 희생을 바라보는 심봉사의 입장뿐만 아니라 심청을 낳자마자 병을 얻어 죽게 된 꺾씨 부인의 마음도 헤아리고 있다. 꺾씨 부인으로 표상되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자식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데 심청이 그런 어머니의 마음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다. 『효경(孝經)』의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를 인용하여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며 물질적 봉양(奉養)보다 정신적 봉양, 즉 양지(養志)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학습자 [㉡-K2-2-2-5급-23]은 심청의 효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른 학습자들보다 더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학습자는 심청의 인신공희는 심봉사의 개안 여부에 상관없이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심봉사가 눈을 못 뜨게 된다면 그건 심청의 허무한 자기희생에 그치는 것이며 홀로 남은 아버지의 슬픔을 가만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고, 심봉사가 눈을 뜨게 되더라도 자식을 팔아 자기의 행복을 보장 받으려는 부모는 없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는 심청이 인당수에 빠진 후, 심청을 그리워하면서 힘

들게 살았던 심봉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했다. 학습자는 공양미 삼백 석을 얻는 방법으로 뱃사람에게 몸을 파는 것보다 장승상 부인 덕에 수양딸로 가는 것이 심봉사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효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아가 목숨을 버리는 자기희생적 효도는 전통 사회에서는 모범적 가치일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심청이 장승상 부인의 수양딸 제안을 거절하고 끝내 인당수에 몸을 던진 것을 비난하는 것만이 과연 옳은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심청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개안은 공양미 삼백 석이라는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라도 하늘을 감동시키고 싶은 소망의 발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급 학습자들은 심청의 효도 방식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있기도 하지만 중급 학습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관점에서 심청의 효를 ‘우효(愚孝)’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심청전>의 행복한 결말이 심청이 몸을 던진 행위를 정당화시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다수의 학습자들은 심청이 보여 준 효도의 방법 즉 인신공희(人身供犧)<sup>244</sup>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살피면서 심청의 효(孝)의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심청보다는 심봉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즉 <심청전>의 주제가 효도라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심청이 아버지인 심봉사를 섬기는 방식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청이 자녀의 도리로서 심봉사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심봉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개안(開眼)을 위해 자식인 심청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 되고 이는 결국 심청의 잘못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치·사회·예술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유학(儒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유교적 관점에서는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孝)의 시작이다. 따라서 많은 학습자들이 심봉사의 개안(開眼)을 위해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일을 옳게 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244) 인신공희에서 제물이란 하나의 물체를 매개로 ‘신’과 ‘나’와의 교섭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며 여기에는 계산된 이해관계가 없다. 우리 민족은 신(조상) 앞에 진설한 물질적 제물을 통하여 어떤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신(조상)을 추모하고 생존 시와 같이 교섭을 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었다. 그런데 점차 인간의 타산적 심리로 인해 제물을 오직 자신의 원화소복(遠禍召福)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고 또 그렇게 해석하게 된 것이다. 장덕순, 「沈清傳研究」, 이상택·서대석·성현경 編者(1987), 『韓國古典小說』, 계명대학교 출판부, 161쪽.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는 자기희생의 행위가 아버지를 위한 성심(誠心)일 경우에는 효(孝)로 인정되었으며 불교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이므로 부모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해서 효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sup>245)</sup> 즉 한국과 중국 모두 유학(儒學)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인이 생각하는 효(孝)는 유교 경전에 쓰인 그대로 지키는 교조적(敎條的) 사고방식이나 행동 방식의 발로가 아니다.

심청이 심봉사에게 행한 효(孝)는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소의(少義)보다 눈을 뜨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오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자식된 도리의 대의(大義)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심청전>에 ‘이효상효(以孝喪孝)’적 측면이 반영되어 있더라도 ‘이대효 소상효(以大孝喪小孝)’로 효의 비중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많은 학습자들이 심청의 죽음으로 인해 심봉사가 겪게 될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우려하면서 심청의 행위를 비난했지만 이는 천상계 또는 신비의 세계를 불신하는 현대인의 사고 체계에 기인한 바가 크며 조선 시대 한국인의 보편적 사고와도 거리가 있다.<sup>246)</sup>

또한 <심청전>을 감상할 때 심청이 아닌 심봉사의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적합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심봉사의 관점으로 <심청전>에 나타난 주제나 가치의 탐구가 한국 문화의 핵심을 포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효(孝)는 부모의 의식주를 보살피는 양체(養體)와 부모의 뜻을 섬기는 양지(養志)의 물질적·정신적인 면을 모두 아우르는 동시에 무엇보다 인간의 자연스러운性情(性情)을 중시한다. 따라서 심청이 맹인 아버지의 개안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은 타인의 강요가 아닌 온전히 심청 자신의 자발적 결단이므로 이를 아버지의 상실감을 생각하지 않은 생명을 버리는 행동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sup>247)</sup> 한편 몇몇 학습자들은 몽은

245) 효도가 사회적 덕목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대체로 효의 실천자인 자식의 자기희생을 통해서 드러나며 이는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등의 민중 교화 서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희생 효 이야기의 근본에는 살신성인(殺身成仁)적인 불교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김낙효(1996), 『고전 소설과 문학 교육』, 박이정, 160쪽.

246) 성현경, 「심청은 효녀인가」, 성산 장덕순 선생 간행위원회 편(1986), 『韓國文學史의 爭點』, 집문당, 536-537쪽.

247) <심청전>을 심청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중심이 된 소설로 본다면 심청의 효는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 될 여지가 충분하다. 김종철(2012), 「희생과 보상의 거리-『심청전』 읽기의 한 방향」, 『국어교육연구』 제30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참고.

사 주지의 공양미 삼백 석 시주 요구는 사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믿은 심청이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지엽적이고 현대적 관점에서의 해석이다. 심청은 몽은사의 부처님과 뱃사람들과의 약속 이행이라는 종교적·도덕적 관점에서 용왕에게 스스로 제물이 되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어 학습자의 고전 소설 수용 과정에는 공감 또는 거리 두기가 존재한다. 공감은 학습자와 고전 소설 세계와의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을 투사하여 고전 소설 속에 내재된 인물과 가치를 이해하게 하며 거리 두기는 고전 소설이 제공하는 문제를 비판적·객관적 접근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습자는 고전 소설에 반영된 세계를 보편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거기에 동화되기보다는 학습자 자신의 자국 문화 또는 개인적 맥락을 강조하여 고전 소설을 이해하고 해석하였다. 즉 역사적 거리 두기를 통해 문학 텍스트는 시대가 바뀌어도 온존하는 보편적 가치보다는 특정 모순과 갈등적 요소, 새로운 대안적인 해석 위치의 설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심청전>에는 뽕덕어머니 등장하기는 하지만 선인과 악인, 즉 등장인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춘향전>이나 <홍부전>에 비해 뚜렷하지 않다. 학습자들의 인물에 대한 가치 판단은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고조될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 이야기 속에서 홍부는 착하고 마음이 선한 사람이. 그러나 형인 놀부가 자기의 식구를 쫓아 냈다고 반항이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이 무능한 느낌이 들었다. 자기의 아내와 아이를 생각했더라도 쉽게 집에서 나가지 말아야 했다. 그리고 가난하고 돈 한푼도 모으지 못했는데 아이를 많이 나아서 책임감이 없다는 느낌도 들었다. (...) 여기서 저는 놀부가 꼭 악하고 나쁜 사람 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다 생각 했다. 놀부는 홍부가 부자로 되는 것을 보고 홍부의 재산을 흠치지지도 빼앗지도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거 알면 사람은 욕심이 안생기면 이상한거 같다. 놀부의 틀린 점은 제비를 해치는 것이다. 재산을 위해 생명을 해치는 것이 잔인하였다. 제비를 구하고 보살피는 면에서 홍부는 착하였다. 그러나 나편으로 아이의 아빠로 볼때 홍부는 불합격 이다. (...)

[㉠-K2-2-1-5급-27]

학습자들 중 꽤 많은 학습자들이 홍부의 무능력을 비판하고 놀부의 부(富) 축



적에 대해 호감을 드러냈는데 학습자 [㉔-K2-2-1-5급-27]의 감상문 또한 여기에 속한다. 홍부는 천성이 워낙 선하기도 하고 의식 자체가 양반이기 때문에 장유유서(長幼有序)에 따라 형인 놀부의 말에 거역하지 못한 것이며 극빈층이기 때문에 매품팔이를 비롯한 온갖 낄품팔이를 해도 가난을 극복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음을 학습자는 간과하고 있다. 실제로 <홍부전>을 세밀히 살펴보면 홍부는 무기력하고 게으른 존재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직면한 궁핍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생활인의 모습을 보이며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다. 전보다 사유 재산이나 소유 관념이 강해지기 시작한 근대 사회의 인물로서의 놀부의 모습은 이 학습자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편적인 관점에서 놀부가 부정적 인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홍부와 같은 하층민의 수탈 행위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다. 놀부의 심술 행위는 반도덕적·반사회적인 악덕 지주나 고리대금업자의 수탈 행위이며 일부 지탄받아 마땅한 특권 계층의 표상이기도 하다.<sup>248)</sup> 이러한 놀부의 삶의 태도는 사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만을 위해 공동체 사회의 모순을 심화시켜 나가면서 황금만능주의라는 사고방식을 확산시키는 역기능이 내재되어 있음을 학습자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sup>249)</sup> 한편 학습자는 놀부가 더 많은 재산 증식을 위해 체미를 해치는 것이 놀부의 가장 나쁜 점이라고 하였는데 이로부터 학습자의 생명 존중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의 <춘향전> 감상문의 일부로 춘향과 이몽룡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평가에 관한 것이다.

<춘향전>을 읽고 춘향이 목숨을 내달려도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다. 그렇지만 감동을 받은 동시에도 의문이 있다. 유학에는 ‘(신체발부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사야)’라는 말이 있다. 한국은 중국과 같이 유학의 영향을 받게 하는 나라이고 효를 아주 중시한다. 춘향이 그런 독한 벌을 맞고 피가 날 때 춘향의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춘향은 이도령에게의 일편단심이 감동적이지만 이런 행위가 너무 맹목적이다. 또는 이런 어린아이끼리 진짜 사랑이

248) 이상택 외 지음(2005), 『한국 고전 소설의 세계』, 돌베개, 29쪽.

249) 정출현(2003), 「탐욕이 넘쳐나는 시대에 『홍부전』 다시 읽기」, 『문학과 경계』 제3집 2호, 문학과경계사, 294쪽.

있을까? 둘이 진정한 부부도 아니고 이도령이 떠났을 때 춘향을 안 데려가고 사랑이 아닌 것 같다. 나는 그것을 정력이라고 보지 않고 사춘기 아이의 역반적 심리로 보는 것은 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㉔-K2-2-2-5급-4]

학습자 [㉔-K2-2-2-5급-4]은 춘향과 이몽룡의 남녀관계 못지않게 춘향과 월매의 모녀관계도 중시하여 월매의 관점에서 춘향의 행위를 가치 판단하고 있다. 학습자는 춘향은 월매가 치성을 드려서 어렵게 얻고 또 귀하게 키운 딸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몽룡에 대한 지조를 지키기 위해 변학도에게 고초를 당하는 춘향의 행위를 불효로 보고 있다. 학습자는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유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몽룡을 향한 춘향의 일편단심은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나이가 어리고 정식 부부가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맹목적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특히 이몽룡이 상경할 때 춘향을 데려가지 않은 것은 사랑도 책임감도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의 사랑을 사춘기 아이들의 반항 심리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춘향과 이몽룡에 대한 학습자의 이러한 생각이 타당한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랑의 질과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수적이고 편협한 생각이다. 더욱이 전통 시대에는 열여섯, 열여덟이라는 나이를 어린아이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몽룡은 남원을 떠나면서 춘향을 데려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데려가지 못한 것이다. 우선 당시 조선 시대의 법으로는 양반의 자제가 관속에 속해 있는 기녀를 데리고 움직일 수 없었다.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몽룡은 춘향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간청을 드리기도 했다. 처음에는 이몽룡이 유희적 감정으로 춘향을 대한 것이 사실이나 춘향과의 교제를 통해 점차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성숙한 인물로 변화했으며 이몽룡 역시 자신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춘향이 겪었던 고난보다는 덜 가혹했지만 신분 극복의 과제를 춘향과 함께 짊어지려고 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생의 딸을 사랑하고 또 혼인까지 생각했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많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sup>250)</sup> 이몽룡은 자신이 소속된 양반 지배층의 계급적 편견은 물론 춘향 주위의 민중 쪽에서 제기하는 배신의 오해도 해

250) 정출현(1995),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여성 형상과 그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제7집 1호, 민족문화사학회, 165쪽.

쳐 나가야 했다. 이처럼 <춘향전>의 본령은 두 청춘 남녀가 봉건적 신분 질서의 모순 앞에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려고 노력한 것이다.

### 3) 현대적 관점에 의한 전통 사회의 가치 평가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현대라는 시간적 배경에서 현대적 관점이라는 잣대로 고전 소설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학습자가 처한 상황에서는 일견 당연한 일이고 심미적 차원에서의 문학 감상이라면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 문학 감상의 주체는 독자로서 독자의 정서와 상황, 인지 구조에 따라 감상의 내용이 달라지고, 특정한 모범 답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되도록 독자의 다양한 감상을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이다.<sup>251)</sup> 그러나 교육적 측면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학습자가 무언가를 이해한다고 할 때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잘못 이해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국인 학습자가 대상으로 하는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이해와 감상의 폭을 학습자에게 무한정 맡겨 둘 수만은 없다. 예를 들면 다음에 제시한 학습자 외에도 다수의 학습자들이 <홍부전>을 읽으면서 홍부의 경제적 무능력함에 대해 지적하면서 경제력에 있어서는 놀부가 한 수 위라는 논지의 주장을 폈는데 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홍부는 착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은 단지 무능한 표현이다. 홍부는 가난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는 의지가 없다. 그는 단지 현 상태에 만족하고 운명을 달리 하는 생각이 떠올만큼도 없다. 나는 이 견지에서 보면 그는 소극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착한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착하면 바보인 것 같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원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것은 바보가 아니냐? 또한 홍부는 자식이 많아서 자식을 위해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다. 물론 놀부는 좋은 인물이 아니다. 욕심 때문에 제비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돌봐서 박을 얻게 된다. 그는 욕기가 큰 사람이다. 그런데 놀부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지만 아낌없이 돈을 쓰지 않

---

251) 독자 반응 비평이나 수용 미학은 문학 작품의 수용 주체인 독자의 개별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여 감상의 전제나 결론을 정형화하지 않는데 본고에서 말하는 감상도 이 개념에 가깝다. 하지만 독자의 자의성을 무한대로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일을 한다. 만약 홍부가 유산을 물려받으면 반드시 놀부보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홍부는 너무 착해서 손해를 보기 쉬워서 재산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 이 견지에서 보면 놀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무슨 일이라도 한계가 있다. 나는 계속 참고 양보하는 것은 나약하고 무능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K2-2-2-5급-3]

<홍부전>의 두 주인공인 홍부와 놀부의 성격에 대해 천착한 학습자 [㉡-K2-2-2-5급-3]은 홍부는 착하고 놀부는 못되었다는 단순한 이중적 잣대로 평가하지 않고, 색다른 관점에서 두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 학습자는 홍부가 처한 상황에 안주하려는 생각이 있으며 지나치게 착한 홍부의 성격이 현실을 타개하고 헤쳐 나가는 데는 오히려 놀부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놀부가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데는 홍부보다 더 적합하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놀부의 인색함을 근검절약으로 평가하는 것이 비약일 수도 있지만 학습자의 개인적 가치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완전한 오독(誤讀)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학습자의 감상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홍부는 가난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홍부와 홍부 처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품을 팔고, 홍부는 매품까지 판 사건을 간과하고 있다.<sup>252)</sup> 즉 홍부는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홍부에 대

252) 홍부와 홍부 처의 품팔이에 대해서는 <신재효본>에 더욱 상세히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다. 홍보가 품을 팔제 밭우 부질언니 서둘어 승평호평 기움 밭기, 원손 근손 시초 부기 먹고 덕 돈 중 서두리 십이 돈반 승교 밭기 신손석어 밤집 지기 시텐 공스 급주가기 방 뜻난의 초역군 담 씻난의 자갈 좇기 봉손 가서 모품 팔기 덕구영의 약티전 초상난 집 부고 전키 출승할제 명정 들기 공관 되면 승직 주기 덕정간의 불무 불기 맛잇난 기싱아씨 타관 익부 편지 전키 부즈집 열인 실낭 장기갈제 안부 서기 들병중스술집 지기 초란이판 무투 노키 아무리 벼슬어도 시골서난 할 슈 업다 서울로 올라가서 군철이 집 중놈이 허디 쇼쥬 가마 놀여노코 뽀맛고 쪽겨와서 밭품 팔너 병영 갔다 가난 비교 밀이여서 틱중 혼 기 못맛고서 빈손 쥬고 도라오니 홍보 안히 품을 판다 오뉴월 맛밧기와 구시월 짐중헝기 혼 말 밧고 배홀기와 입만 먹고 방이 찌키 삼기질 뵈밧기와 물너질 뵈짜기와 머슴의 현웃 짓기 승고의 썰너헝기 혼중가의 진월헝기 최소밧티 오쥬주기 효주 곱기 장 다리기 물방아의 쌀 짜 불기밀딜 갈 제 집어너키 보리 갈 제 망운 노키 못자리씨 망풀 뜻기 야기 나코 첫 국밥을 제 손으로 헝여 먹고 운기를 방통호되 절구질노 썬을 너니 한 썬도 슈지 안코 밤낫스로 벼 울어도 장 굶난구나. 『신재효본 <박타령>(가람본)」,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2003),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86-87쪽.

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홍부전>을 탐독해 보면 홍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품팔이를 하며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홍부와 홍부 처는 계절에 상관없이 온갖 종류의 일을 하였지만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홍부와 홍부 처의 품 팔기는 주로 당시 농촌에서의 임금 노동 형태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해도 보수가 일정하지 않고 적기 때문에 생계유지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모순에 기인한 것이지 가난을 벗어나려는 홍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학습자는 유산을 보존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놀부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홍부와 놀부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홍부는 자본주의 체제에 부적응한 인물이고 놀부는 개인의 생존권과 사유 재산 처분의 자유를 누리며 중세의 도덕적인 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으로 볼 수 있다.<sup>253)</sup> 놀부는 부모 동생이나 일가친척은 잘 살아야 소용 없고 오직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경제관, 즉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몸소 실현하고 있는 인물로 이러한 가치관과 태도는 빈부 갈등과 부(富)의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를 초래한다.<sup>254)</sup> 홍부는 자본주의적 삶의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경제적 고난을 겪는데 반해 놀부는 타인에게는 무관심하며 오직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인색한 부자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학습자는 근대의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홍부와 놀부의 인물됨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홍부의 경제적 무능력을 지나치게 부각해서 인식했고 놀부의 재산 유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홍부와 놀부를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부의 축적만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을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학습자는 홍부가 현실에 안주한다고 생각해서 홍부를 소극적인 인물로 판단했지만 사실 그보다 놀부를 대하는 홍부의 태도가 적극적이거나 저항적이지 않은 것이 부지불식간에 학습자의 의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53) 허원기(2006), 「홍부전의 인성론적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제19집, 한민족문화학회, 169쪽.

254) 입바 세상 스름더라 승인 훈계 듯지 말고 고명관슈 부귀직천 다 썰러헌 말이라 결쥬 경국 요디 포악으로 으더신니 순흔 일은 하지 말고 악(惡)한 일을 심썸호쇼 부모 동싱 일가친척 줄 스러라 썰디 업고 남이야 죽고 살고 나 잘 살면 제일이라.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소장 51장본 <홍보전>」,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진은진 편저(2003), 『홍부전 전집』 3, 박이정, 111쪽.

둘째, 인물에 대한 가치 판단의 근거가 미약하다. <홍부전>을 보면 놀부의 인색함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많지만 놀부가 유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sup>255)</sup> 놀부가 인색해서 재산이 유지된 것과 노력해서 재산을 유지 또는 축적한 것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유산 상속받은 것을 그대로 유지한 것을 보고 놀부를 능력자로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오히려 놀부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홍부의 유산권(遺産權)을 탈취하는 반윤리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sup>256)</sup> 또한 홍부처럼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보기 쉽고 이로 인해 재산을 탕진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비약적인 발상이다. 인물의 성격과 재산 관리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선을 대표하는 주인공 홍부가 형제간의 우애를 중시하는 긍정적인 인물인 걸 인정하지만 여성을 존중하지 않았고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진 점에서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홍부가 아내에게 한 “형제는 손발이요. 처자는 옷과 같으니 옷은 한 번 닦아서 떨어지면 다시 지어 입으면 되지만 손발은 한 번 끊어지면 어디 가서 붙이겠는가?”라는 말은 여성을 경시하는 가부장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재 생각에, 이런 남자 우월주의자 입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하고 모든 현모양처들의 대표인 홍부 아내의 헌신 정신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홍부 아내가 손톱만큼의 자신의 삶도 없이 묵묵히 집안의 가난과 아이를 낳아 기른 “출산고”와 ‘양육고’를 버티어 낸 위대함은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K2-2-2-5급-23]

학습자 [㉡-K2-2-2-5급-23]은 홍부의 가부장적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히 지키고자 하는 홍부의 노력은 대단하지만 아내를 대하는 홍부의 태도는 사실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본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홍부는 아내와 달리 형을 많이 배려하고

255) 연구자에 따라 동생인 홍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놀부가 자신의 재산을 조금도 내놓지 않는 것을 근거로 놀부가 부의 축적에 재능이 있음을 주장한 바가 있기는 하다. <경관 25장본 홍부전>을 살펴보면 놀부가 곡식을 얻으러 온 홍부에게 자신의 재산을 절대 남과 나누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놀부의 생각과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경관 25장본 홍부전』,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2003),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14쪽.

256) 이상택(2003), 『한국 고전 소설의 이론』, 새문사, 237쪽.

존중한다. 박을 타면서 홍부의 아내가 시아주머니인 놀부를 원망할 때 홍부는 여전히 형인 놀부 역성을 들고 아내를 나무라는데 현대의 학습자에는 이를 남성 우월주의로 보고 비판한다. 이 학습자는 홍부의 아내를 현모양처로 여기며 홍부 아내의 출산의 고통과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 홍부 아내는 밥 달라고 조르는 자녀들을 달래고 홍부의 매품을 반대하며 본인도 열심히 품팔이를 하는 등 가족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 학습자는 지지를 보낸다. 전통 사회에서 홍부 아내의 모습은 매우 전형적이고 일반화된 여성의 행위 방식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현대적 시각에서는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잘 수행해 낸 칭찬받아 마땅한 여성의 위대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전통 사회와는 전혀 다른 위상을 지닌다.

자문화와 목표 문화를 객관적 또는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문화적 문식력의 고급 단계에 속한다. 자문화나 목표 문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문화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과 통찰력을 가졌다는 의미를 지닌다.

문학 경험에서 가치 평가란 텍스트 세계가 제시하는 문제 사태에 대해 자신의 관점과 입장에서 판단과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주체가 처해 있는 현실적 조건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과도 관련된다.<sup>257)</sup> 일차적으로 혹은 표면적으로 가치 평가의 대상은 텍스트의 세계이지만 결국은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고급의 학습자들일수록 자문화 및 목표 문화에 대한 판단 및 평가를 근거와 이유를 들어 서술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의 학습자들은 <심청전>을 학습한 후 <심청전>의 효(孝)를 계기로 현대 사회, 특히 중국에서 효도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옛날 중국에 꼭거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24개의 효자 이야기를 집록했다. <24효>라는 이름으로 편성돼서 그 당시 효도를 홍보하기 위한 대중간행물을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의 황제 한무제가 “박가를 배척하고, 유가만을 중시한다.”라는 정책을 실행하여 ‘효도’라고 하는 이 좋은 지표가 점점 역대의 통치계급 그야말로 봉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존왕충군’의 이용기구로 변모해버린다. 그 후에도 중국의 반 봉건주의의 가치에 이러한 의미의 ‘효도’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은 사람들이 효도의 초기의미를 왜곡시키게 되었다. 지금 현대사회의 개인주의,

257) 최홍원(2014), 「문학 경험의 구조와 기제 탐구 서설」, 『문학교육학』 제45호, 한국문학교육학회, 535쪽.

배금주의, 향락주의, 연령차별, 인기관계, 배외사상 등은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받아 가정의 인륜과 온정을 대체하게 되었다. 현실에서 부모를 몰라보고 노인을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 멸시, 학대, 압박을 일삼고 부모와 노인을 내다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어떤 자식들은 경제적 지원을 드리기도 하지만 일이 바쁜 핑계로 부모를 고독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불효의 사례들은 가정의 평화와 사회의 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현대 한국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는 사람을 최고로 여기던 가치의 ‘효도’의 의미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K2-2-1-4급-11]

학습자 [㉠-K2-2-1-4급-11]은 효 관념의 변천에 대한 역사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 학습자들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자문화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일찍이 『이십사효(二十四孝)』의 편찬 등을 통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반 민중에게 ‘효(孝)’의 실천을 권장해 왔다. 한(漢)나라의 한무제는 유교를 국교(國敎)로 지정해 명당(明堂)과 태학(太學)을 건립하는 등 유학의 활성화에 힘썼지만 유교만을 국가 전체의 종교로만 옹호하지 않았으며 법가적 성향도 강하게 드러냈다. 다만 한(漢)은 진시황의 진(秦)나라를 무너뜨리고 건국된 나라로서 표면상 법가를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다. 학습자는 중국의 효 사상이 한무제의 잘못된 유교 정책으로 ‘존왕충군(尊王忠君)’의 도구로 전락했으며 이후 반봉건주의의 영향으로 도덕적 가치가 있는 효도의 의미가 왜곡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대 중국 사회는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실제 대중이 체감하는 자본주의의 폐해는 매우 크다고 한다. 빈부격차와 빈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배금주의와 향락주의도 날로 번성하고 있는 등 현재의 중국 사회 또한 구미(歐美) 못지않게 자본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가족의 분리, 노인 문제가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학습자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의 부정적 요소들이 가정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은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이밖에 인간이 과거와 현재에 변함없이 추구하는 인간 욕망의 본질에 대해 진단하고 나선 학습자도 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를 보면 오늘날 한국문화를 엿볼 수 있다. 첫째로는 사람들은 신분상승을 원한다는 점이다. <춘향전>은 위기를 극복하고 신분상승을 하는 이야기이고 <심청전>을 봐도 가난한 삶에서 용왕을 만나 신분상승하는 이야기이다. 옛전과 같은 철저한 신분사회에서 사람들은 빈곤, 질병, 불공평함을 벗어나기 위하여 신분상승을 꿈꿔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염원과 소망은 현대사회까지 이어졌다. 금수저라는 단어도 생길 만큼 사람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신분상승을 원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도 신분 상승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조선시대는 태어나면서 신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신분상승의 조건이 더 까다로웠다. 현대 사회에서 신분이 공식적으로 철폐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신분, 지위 등을 마음에 두고 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국인에게 영어는 신분상승의 기구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이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풍부한 지식을 통해서 신분상승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물질지상주의 아니고 사람들은 고품질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

[㉡-K2-2-2-5급-15]

학습자 [㉡-K2-2-2-5급-15]는 <춘향전>과 <심청전>을 통해 인간의 신분 상승의 욕구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 주고 있다.<sup>258)</sup> 예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신분 상승은 보편적이며 본능적인 욕망임에 틀림없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옛날은 물론이고 공식적으로는 신분제가 철폐된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은 현재의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분 상승의 꿈을 꾀다. 중세의 신분 계급은 자본을 기준으로 한 현대의 계층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즉 현대 사회는 실제적으로 돈과 학력, 명예, 특히 돈을 기준으로 신분이 나뉜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옛날에는 빈곤이나 질병, 불평등을 벗어나기 위해서, 현대는 좀 더 높은 지위와 신분을 위해 신분 상승을 꿈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물질 지상주의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질 높은 삶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258) 엄밀한 의미에서 심청은 춘향과 같이 신분 상승의 의지가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황후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고 학습자는 신분의 변화에 주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론(異論)은 논외로 한다.

#### 4) 메타적 성찰을 통한 가치 태도의 형성

고전이 현대에도 교육적 가치를 잃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시간의 변화에 상관없이 인간에게 던지는 근원적인 삶에 대한 성찰적 질문과 개인적·사회적·시대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학습자는 고전 소설의 학습 과정에서 고전 소설의 이해뿐만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삶을 둘러싼 세계를 해석하고 나아가 자신의 개인적 신념을 사회에 실현시키기 위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실천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고전 소설,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이들이 옛 지식이나 가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유용한 메시지를 전하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메타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메타적 혹은 자기 초월적 본성에 근거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한다.<sup>259)</sup>

한국어 학습자들은 고전 소설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와 진리를 쫓아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추하며 인생의 방향을 잡아 나가고 현대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 궁구한다. 현대는 전통 사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국가 간, 개인 간에 교류되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은 사회 통념의 가치를 따르는 것 못지않게 자신만의 개성 있는 가치를 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성찰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항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마음이 꼭 착해야한다. 삶이 힘들어도 너무 낙관적인 생활에 임한다. 마음씨 착하고 항상 남에게 도움이 주고 자신의 도움이 주는 사람들이한테 고맙다말로 얘기면 마음 따뜻하게 변할 수 있다. 모두 사람과 동물에 대한 상하게 하지 마다. 사람을 도와 줄 사람은 상처 줄 사람보다 더 행운이다. 현실 생활 중에 놀부처럼 사람이 많다. 자신의 욕심위해서 사람을 해치고 있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록 나쁜 수단때문에 부자로 되었하지만 마지막은 좋은 결말이 없다.

[㉠-K2-2-1-3급-20]

259) 조국현(2003), 「메타 현상과 언어 사용의 성찰성에 관하여」, 『독어교육』 제27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163쪽.

학습자 [㉠-K2-2-1-3급-20]은 <홍부전>을 학습한 후 다양한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학습자는 홍부의 낙관적인 생활 태도, 타인에 대한 배려심,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사상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상에서의 행복한 삶은 선한 마음씨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며 현실은 놀부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해치는 사람이 많지만 결국 그 결말은 좋지 않음도 인식하고 있다. 즉 <홍부전>의 주제 의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전 소설을 매개로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을 시도한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의 감상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 속담에 이르기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였다. 착한 홍부는 제비에게 상처를 감싸고 제비는 돈, 쌀, 집 등으로 홍부에게 은혜를 갚는다. 그리고 홍부는 부자가 되고 나서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이기적인 놀부는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서 드디어 처벌을 받았다. 이때 내가 나는 과연 홍부처럼 사심이 없는 사람인가? 놀부처럼 욕심쟁이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균 생활수준이 높은 현대사회에서 물론 좋은 사람의 비율이 더 높긴 한데 고속하게 발전된 과학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욕심이 점점 커지며 인심이 냉담해진다. 몸살을 앓는 사회에서 상부상조 드물고 반면에 자기 일만 관심을 갖는 현상이 눈에 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낯선 사람에게 경비심을 내려놓고 사람을 믿고 남을 도와주고 홍부처럼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사회는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다. (...)

[㉠-K2-2-2-5급-15]

(...) <홍부전>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착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 다시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많이 줄 수 있는 작품인가 본다. 하지만 고전 소설 <홍부전>중 묘사했던 것과 다르게 현대사회에 좋은 일을 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나 나쁜 짓을 해서 꼭 징벌을 받을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선행에는 선과가 있고 악행에는 악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또한 마음속에 그렇게 믿지만 실제로 행동할 때에는 원칙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재부, 지위, 권력, 명예 등 많은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중국의 SNS를 보면 “너무 착하지 마라”, “너무 순수하지 마라” 등 사람을 권유하는

글이 많이 나와 있다. 또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좋은 마음이 좋은 결론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대사도 나왔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 현대인들이 “선”과 “악”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참 슬프기도 하고 현실적어도 하다. 선행을 하면 꼭 홍부처럼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 선행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의 불신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홍부전>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것은 이 고전 소설작품은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가치라고 본다.

[㉠-K2-2-2-5급-20]

학습자 [㉠-K2-2-2-5급-15]는 <홍부전>의 홍부와 놀부라는 두 주인공의 성격과 행위에 대한 생각과 느낌, 각각 그들 인물에 대한 자신의 대입을 기점으로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 학습자는 인간의 욕망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인심은 점점 사라져 가서 이웃끼리 상부상조하는 경우가 드물고 각자 개인적인 일에 몰두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런 사태에서 낮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놓고 신의로써 타인을 돕는다면 현대 사회가 좀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내비치고 있다.

학습자 [㉠-K2-2-2-5급-20]은 <홍부전>을 통해 권선징악(勸善懲惡)과 개과천선(改過遷善)은 고전적 가치임을 전제하면서 현대인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현대인은 재산, 지위, 권력, 명예 등 많은 물질적 가치들에 지배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해관계에 따라 살라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예를 들어 복잡한 현대인들의 심정에 대해 대변하고 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살기 어려운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홍부전>이 말하고자 하는 가치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고전 소설을 매개로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가치 실현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찰을 통한 가치 실현, 가치 태도의 형성은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되기도 한다.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에 대해 깨닫는 것을 말하며 타자와의 접촉과 선택의 상황을 통해 더 분명하게 인식된다. 세계화와 더불어 타자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민주적 사고의 성장과 함께 개인의 자기 인식을 지배하던 절대적 권위가 약화되면서 개인은 다양한 선택의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sup>260)</sup> 목표 문화를 가진 제2언어 학습자의 정체성은 목표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

260) 옥현진(2009), 「정체성과 문식성」, 『국어교육학연구』 제35집, 국어교육학회, 365쪽.

되며 목표 문화의 사회 구조와 학습자 개인의 긴장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학습자의 사고와 행동은 목표 문화의 지배적 문화나 관습에 기대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국 문화와 목표 문화 사이에서 습득 또는 학습한 것을 토대로 변증법적으로 구성된다.

중국에서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보답이 있고, 악행을 하면 응분의 대가가 있다는 옛 속담이 있다. 홍부전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았다. 홍부전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점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착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홍부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놀부와는 달리 홍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어떤 보답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행운을 얻었다. 한편으로 놀부는 탐욕스러운 욕망 때문에 나쁜 일만 초래했다. 욕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착한 사람은 자기가 욕망이 있어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 이상 욕심 부리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탐욕이 많은 사람은 결국에는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인생은 짧으니 자기 양심에 물어 부끄럽지 않기만을 바란다. 그러나, 홍부처럼 약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자기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은 빼앗겨도 반항하는 자세가 없는 것은 홍부의 약점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세상은 늘 변하고 우리도 변한다. 그 선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람의 보답을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이다. 나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보답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K2-2-1-4급-26]

<홍부전>의 메시지의 하나인 ‘인과응보(因果應報)’는 학습자 [㉠-K2-2-1-4급-26]의 자국인 중국 사회에서나 목표 문화인 한국 사회에서, 즉 세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진리에 속하고 학습자는 이 가치를 준수하고자 한다. 그런데 학습자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본성과 욕망이라는 화두에 천착에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은 모두 인간의 본성인 욕망을 지니고 있는데 그 욕망을 어떻게 표출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학습자는 인간의 욕망은 나무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 욕망을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스리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이해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선한 마음과 행위로 인간관계에 기여하려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학습자는 자신이 체험해 보지 못한 다른 세계에서 낯선 주체를 체험하며 그

체험과의 대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sup>261)</sup>

학습자 [㉔-K2-2-1-4급-26]에게 흥부는 선한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자신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도 반항하지 못하는 약한 사람, 낮은 사람이다. 고전을 재해석하고 개작하는 것은 주체가 지닌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석해 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자신의 해석이 다른 사람들의 해석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지 않고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실히 알기 어렵다.<sup>262)</sup> 따라서 학습자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여러 동료 학습자와의 가치 해석의 공유 및 토론이 필요하다.

### 3.4.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성찰

#### (1) 고전 소설 교수·학습 내용의 초점화 및 심화

고전 소설 교육을 실제로 교실 현장에서 진행할 때 학습 목표에 맞는 교수·학습의 대목을 선정하고 초점화해서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문학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고전 소설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 작품은 작품 전체를 완독(完讀)하면서 작품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실 현장에서는 수업 시간이 주당 몇 시간 내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선정해서 초점화하지 않으면 수업 시간 내에 교사가 계획한 교수·학습 활동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전 소설 교육을 설계함에 있어서 학습 목표에 맞게 교수·학습 내용을 초점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적 문식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면 학습자의 지식 구성과 가치 판단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해서 초점화해야 한

---

261) 모든 자아는 형성 과정을 지속하기 위해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데 다르거나 낮은 것의 경험은 사고와 행위의 확장을 자극함으로써 자아의 성장에 자양분을 제공한다. 다른 것, 낮은 것과의 만남은 인간의 근원적인 경험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자아가 형성된다. 권오현(2010), 「상호문화적 문학교육에서 ‘낮춤 이해’의 문제-세계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독어교육』 제49집, 한국독어독문교육학회, 18쪽.

262) 고정희(2015), 「고전문학의 지속가능성과 고전문학 교육」, 『한국한문학연구』 제57집, 한국한문학회, 150쪽.

다. 교사는 목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정보 또는 교양 수준 차원에서 폭넓게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목표 문화의 중핵적 지식을 선정해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지식 구성 능력을 심화시킬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은 판소리계 소설로서 특정 대목마다 발췌해서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사는 교수·학습 목표에 가장 적합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고전 소설의 장면을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고전 소설의 장면을 발췌해서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때 선정된 대목이 학습자들이 오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홍부전>의 박타는 대목에서 홍부가 아내를 구박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내보다 형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물론 아내를 하대하는 것을 보고 많은 학습자들이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졌으며 홍부에 대해 비난을 했는데 이는 작품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목표 문화의 대상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탐색하는 일은 교수·학습 과정상 의미 있는 일이지만 교수·학습의 초점화를 위해 선정한 교육 내용이 학습자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도출하게 만들고 교수·학습의 초점화를 흐린다면 선정된 교수·학습 내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따라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내용은 고전 소설의 기본 서사를 토대로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과 소설 속 인물을 통해서 학습자의 지식을 확장·심화시키고 학습자의 가치와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한다.

## (2) 상호 텍스트적 비교가 가능한 유사 제재의 확장

본 연구의 고전 소설 교수·학습 실행에서는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지만 고전 소설과 상호 텍스트적 관계에 있는 유사 제재들을 다양하게 학습자들에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학습자들의 토론이나 쓰기 감상문을 분석해 보면 학습자들은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으로 상호 텍스트적 관계에 있는 다른 제재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고전 소설은 오랜 시간 동안 다수의 독자들에 의해 다양한 해석들이 축적되면서 읽혀져 오고 있으며 독자와 텍스트, 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상호 텍스트성을 풍부하게 내재하고 있어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도 한다. 예

를 들면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과 관련된 다양한 근원 설화들, 현대의 다양한 문학 장르 또는 매체 등과 비교·대조해 볼 수 있으며 학습자 문화에서 줄거리나 등장인물이 유사한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 비교 문학이 가능하다. 한국어 학습자는 문화 간 작품 비교를 통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또는 깨닫지 못했던 자문화와 목표 문화의 지식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학습자가 지니고 있던 기존의 관점을 강화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호 텍스트적 비교가 가능한 유사 제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상호 텍스트성 관련 작품의 확장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고전 소설과 관련된 근원 설화를 선정하고 활용할 수 있다.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의 세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로서 모두 근원 설화를 가지고 있으며 근원 설화는 고전 소설 형성의 근간이 되었다. 각 작품의 근원 설화는 설화와 소설 간의 서사 구조,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주제 의식이 유사하여 학습자들이 학습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흥미를 가지게 되고 작품 간의 상호 텍스트성에 주목하여 학습자의 지식을 더욱 확장시키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 <심청전>은 효행 설화, 인신공희 설화, 개안 설화, 재생 설화 등의 네 가지 화소를 지니고 있는 설화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작품으로 ‘효녀 지은 설화’, ‘거타지 설화’, ‘옥과현성덕관음사연기설화’ 등이 있다.<sup>263)</sup> <춘향전>의 근원 설화는 대표적으로 열녀 설화, 암행어사 설화, 신원(伸冤) 설화, 염정 설화 등이 있다.<sup>264)</sup> <홍부전>의 근원 설화 유형으로는 선악형제담(善惡兄

263) 이밖에 <심청전>의 근원 설화로 국내의 ‘황천 무가 바리공주’, ‘심청굿 무가 사설’ 등이 언급되는데 이들은 무가와 판소리, 무가와 소설의 선후 관계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고, 국외의 관련 근원 설화인 인도의 ‘傳童子·法妙長子說話’, ‘目連尊者說話’, 일본의 ‘小夜嬉說話’ 등은 문헌 소재의 불명확성과 국내에 유통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심청전>의 근원 설화 교육 내용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허원기(2002), 「심청전 근원 설화의 전반적 검토 - 元洪莊 이야기의 위상을 중심으로 », 『정신문화연구』 제25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72-78쪽.

264) <춘향전>의 근원 설화는 김동옥에 의해 본격화·체계화되었는데 춘향전과 관련된 설화를 근원 설화와 발생 설화로 분류하였다. 김동옥은 열녀 설화, 암행어사 설화, 신원 설화, 염정 설화를 <춘향전>의 주요 플롯(plot)의 배종(胚種) 설화로 보았고, 이밖에 신물 교환 설화, 몽상 설화, 수기(手記) 설화, 몽상 설화, 한시(漢詩) 설화를 삽입 플롯 설화로 들었다. 김동옥(1976), 『增補 春香傳研究』, 연세대학교 출판부, 33-68쪽. 김종철은 고전 소설의 중심 설화로서의 근원 설화는 설화에서 판소리로의 전환 과정에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시대성과 사회성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종철, 「春香傳의 根源說話」, 성산 장덕순 선생 간행위원회 편(1986), 『韓國文學史의 爭點』, 집문당.



弟譚), 동물보은담(動物報恩譚), 무한재보담(無限財寶譚) 등이 있고, 구체적인 작품으로 ‘박 타는 처녀’, ‘방이 설화’, ‘과각도인 설화’ 등이 있다.<sup>265)</sup>

둘째, 고전 소설이 현대 문학에 제재로 차용되어 개작된 다른 장르의 문학 작품을 선정해서 활용할 수 있다. 고전 소설은 당시 수많은 이본(異本) 형태로 향유되었던 것처럼 현대에도 다양한 장르로 변용되면서 전승되고 향유되고 있다. 이는 고전 소설이 지닌 전통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가치,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주제, 이야기 구조에 기인한다. 이처럼 고전 소설의 인물, 사건, 배경, 지식, 주제 등이 차용되어 있는 현대 문학 작품을 유사 제재의 확장과 상호 텍스트적 비교의 측면에서 고전 소설의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해 볼 만하다.

<심청전>과 <춘향전>은 현대 문학 장르에 많이 차용되고 변용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홍부전>을 변용한 예는 채만식의 <홍보씨> 등이 있지만 많지 않다. <심청전>은 현대소설과 희곡으로 변용된 채만식의 <심봉사>, 김연수의 소설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 황석영의 소설 <심청>, 최인훈의 희곡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오태석의 희곡 <심청이는 왜 두 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등이 있고, <춘향전>은 현대시로 변용된 가은교의 <춘향이의 꿈노래>, 김소월의 <춘향과 이도령>, 김영랑의 <춘향>, 김춘수의 <타령조 1>, 노천명의 <춘향>, 박재삼의 <춘향이 마음>, 서정주의 <춘향 옥중가>, <추천사-춘향의 말1>, <다시 밝은 날에-춘향의 말2>, <춘향 유문-춘향의 말3>, 송수권의 <춘향이 생각>, 신경림의 <춘향전-운봉에서>, 전봉건의 <춘향연가>와 소설인 이광수의 <일설춘향전>, 안수길의 <이런 춘향>, 최인훈의 <춘향뎐>, 김주영의 <외설 춘향전>, 희곡인 유치진의 <춘향전> 등이 있다.

셋째, 학습자 국가에 존재하는 문학 작품을 선정해서 비교·대조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자문화에서도 한국의 고전 소설과 서사 구조, 주제, 인물들이 유사한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 비교 문학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심청전>은 <이십사효(二十四孝)>, <춘향전>은 <홍루몽> 또는 <서상기> 등과 비교해 볼

---

517-519쪽.

265) 정충권은 <홍부전>의 근원 설화의 요건으로 두 인물의 우연한 행위와 의도적·대조적 행위를 근간으로 하는 모방담적 구조와 행위의 결과가 부(富)의 획득이나 몰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보은(報恩) 및 보수(報讎)의 요소도 함께 갖추어져 있어야 함을 들었다. 정충권(2003), 「<홍부전> 근원설화론」, 『홍부전 연구』, 월인, 18-23쪽.

수 있다. 중국의 <이십사효>에는 자식의 효(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품을 팔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동영(董永)의 이야기인 <매신장부(賣身葬父)>, 눈에 병이 생긴 부모를 사슴 젖으로 봉양한 담자(鄰子)의 이야기인 <녹유봉친(鹿乳奉親)>, 추운 겨울날 잉어를 구한 왕상(王祥)의 이야기인 <와빙구리>, 노모의 봉양을 위해 아들을 땅에 묻으려 한 곽거(郭巨)의 이야기인 <위모매아(爲母埋兒)> 등이 <심청전>과 비교해 학습하기 좋은 제재들이다.

또한 한국 영화 <춘향뎐>이나 <심청전>과 <춘향전>을 희곡으로 각색해서 극의 형태로 제작한 중국의 월극 <심청전>, 월극 <춘향전>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절강 ‘주산소백화월극단(舟山小白化越劇團)’에서는 한국의 <심청전>과 <춘향전>을 희곡으로 개작하여 연극으로 무대에 올려 상연하고 있는데 이의 활용은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고전 소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 내용이자 방법이다. 학습자들은 이처럼 문화 간 상호 텍스트성과 관련된 문학 작품들의 학습을 통해 다양한 문학적 지평을 넓힐 수 있다.

### (3) 고전 소설 변용 매체 자료의 활용 방안 확대

고전 소설이 문화적 문식력 신장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교육 제재이기는 하지만 현대의 학습자이자 외국인 학습자에게 낯설고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과 매체와 관련성이 높은 제재라는 점에서 매체 활용의 필요성이 있다. 즉 매체는 고전 소설 교육의 보조 자료로써 유익하다.

본 연구의 예비 수업에서 활용한 매체 자료는 <심청전>을 각색한 드라마 <심청의 귀환>이고 본수업에서는 <춘향전>을 판소리 형태로 극화한 영화 <춘향뎐>의 두 작품이었는데 각각의 자료마다 장단점이 분명하였다. 드라마 <심청의 귀환>은 심봉사과 뽕덕어머니의 성격을 희화화해서 표현하고 원전에는 없는 여러 개의 삽화를 삽입하는 등 극적 재미를 배가하여 학습자의 몰입을 유도하였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심청전>을 오해하는 측면도 만들었다. 영화 <춘향뎐>은 원전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았으며 판소리의 미(美)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언어와 소리가 너무 어려운 점이 문제가

되었다. 연구자는 두 작품 모두 교수·학습 내용과 관련된 중요 부분의 장면만 편집해서 제시했지만 매체 자료 자체를 변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매체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의 매체 제작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지닌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고전 소설을 해석해서 이를 역동적이고 가시적으로 잘 구현해 냈다. 학습자들의 매체 제작 산출물을 살펴본 결과 고전 소설에서 핵심 모티프를 차용해서 이야기를 꾸미는 능력이 상당하고, 상호 텍스트적 지식을 활용하며 작품의 핵심 주제와 가치의 적용은 비교적 능숙한 편이었다. 특히 학습자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고전 소설을 재해석하는 면이 많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㉔-K3-2조]의 ‘신발의 주인을 찾습니다.’는 <콩쥐팍쥐>와 <심청전>을 결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 냈다. 학습자들은 심청이 품을 팔면서 아버지를 봉양한 것을 콩쥐가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서 계모의 말을 거스르지 않은 것과 관련 시켰으며 심청이 복을 받아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와 결혼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와 결혼하게 만든 것은 함께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동료 학습자들 중 사우디아라비아 학생들이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 편의 영상물 중 <흥부전>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 한 편, <심청전>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 두 편, <춘향전>을 모티프로 제작한 것이 네 편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사랑’이라는 가치와 화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㉔-K3-4조]의 ‘사랑의 감옥’은 <춘향전>을 체제로 삼았는데 춘향의 사랑에 일면 집착이 있다고 보고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의 집착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㉔-K3-6조]의 ‘홀로 데이트’는 짝사랑하는 여자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고 짝사랑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야기이다. 이 영상은 전반부는 여자와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구성하고 후반부는 교실에서의 친구들 간 토의를 삽입하여 결합시킨 독특한 형태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몇몇 학습자의 매체 산출물은 한류 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그대로 모방한 수준에 그친 것들이어서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였다. 예를 들면 [㉔-K3-1조]의 ‘별에서 온 그대’는 SBS에서 방송되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㉔-K3-3조]의 ‘호가네 사람들’은 KBS에서 방송되었던 ‘왕가네 식구들’을, [㉔-K3-5조]의 ‘질투’는 ‘시크릿 가든’의 여러 장면을 거의 그대로 패러디하였다.

이처럼 학습자들의 매체 제작 활동은 고전 소설에서 모티프를 차용하고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을 모방하는, 모방적 패러디 위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고전 소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영상물을 만들면서 학습자들이 재미있게 보았던 드라마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모방이나 단순한 패러디에만 그친다면 곤란하다. 패러디는 새로운 차원의 의미와 환상을 창조하는 중요한 수단 또는 차이를 가진 반복으로 볼 수 있으며 패러디되고 배경이 된 텍스트인 원작과 새롭게 병합된 텍스트(패러디 텍스트) 간에는 비판적·비평적 거리가 확보되고 상호 텍스트성이 자리를 잡는다.<sup>266)</sup> 따라서 학습자들이 고전 소설을 변용하여 매체를 제작할 때 패러디를 잘 활용하여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실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매체 제작 활동은 동료 학습자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서 목표 문화에 대한 문화 해석 공동체 간의 결과물을 보여 준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

266) Hutcheon, L., *A Theory of Parody*, 김상구·윤여복 옮김(1998),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51, 55-56쪽.

## IV.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모형

현재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문화 교육이나 문학 교육의 설계는 대부분 타일러(Tyler) 식의 선형적인 모형에 기반을 두어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 소통이나 학습자의 학습 경험보다는 교수자 중심의 교수·학습의 효율적 관리나 학습 목표 성취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267)</sup> 그런데 이러한 설계는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 따라 학습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수업 과정의 구체적 안내가 잘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 학습자 목표 성취에 대한 확실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성적 대안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문학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어 온 ‘교육 내용 선정 → 교육 방안 마련 → 학습자 교수·학습 적용’의 순서가 아니라 ‘교실 현장에 대한 예비 검토 → 교수·학습 목표 설정 → 교수·학습의 설계 원리 마련 → 교수·학습 내용 선정 및 교수·학습 방법 구안 → 교수·학습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의 학습자 적용 → 학습자 양상 분석 → 교수·학습에 대한 성찰 → 교수·학습 모형 제시’의 순서로 고전 소설 교육을 설계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 소설 교육에 대한 예비 검토는 고전 소설 교수·학습에 대한 학습자 경험 분석과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고전 소설 교수·학습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고전 소설 교수·학습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였는데 고전 소설 교수·학습 내용은 너무 간략하게 추상화되어 제시되어 있고 교수·학습 방법은 주로 텍스트 내용과 작품 주제에 대한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학습자들은 고전 소설의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 및 목표 문화의 가치 규범, 인물의 가치 지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고전 소설이 교육의 제재로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문화 산물의 수용과 이해, 문화 관점의 발견과 해석, 문화 실행과 적용을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설계 원리로 하여 고전 소설의 교수·학습 내용으로는 배경지식으로서의 생활문화와 언어·문화, 윤리 규범과 인물의 가치 갈등을 선정하였으며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주요 장면의 선

---

267) Tyler, R.(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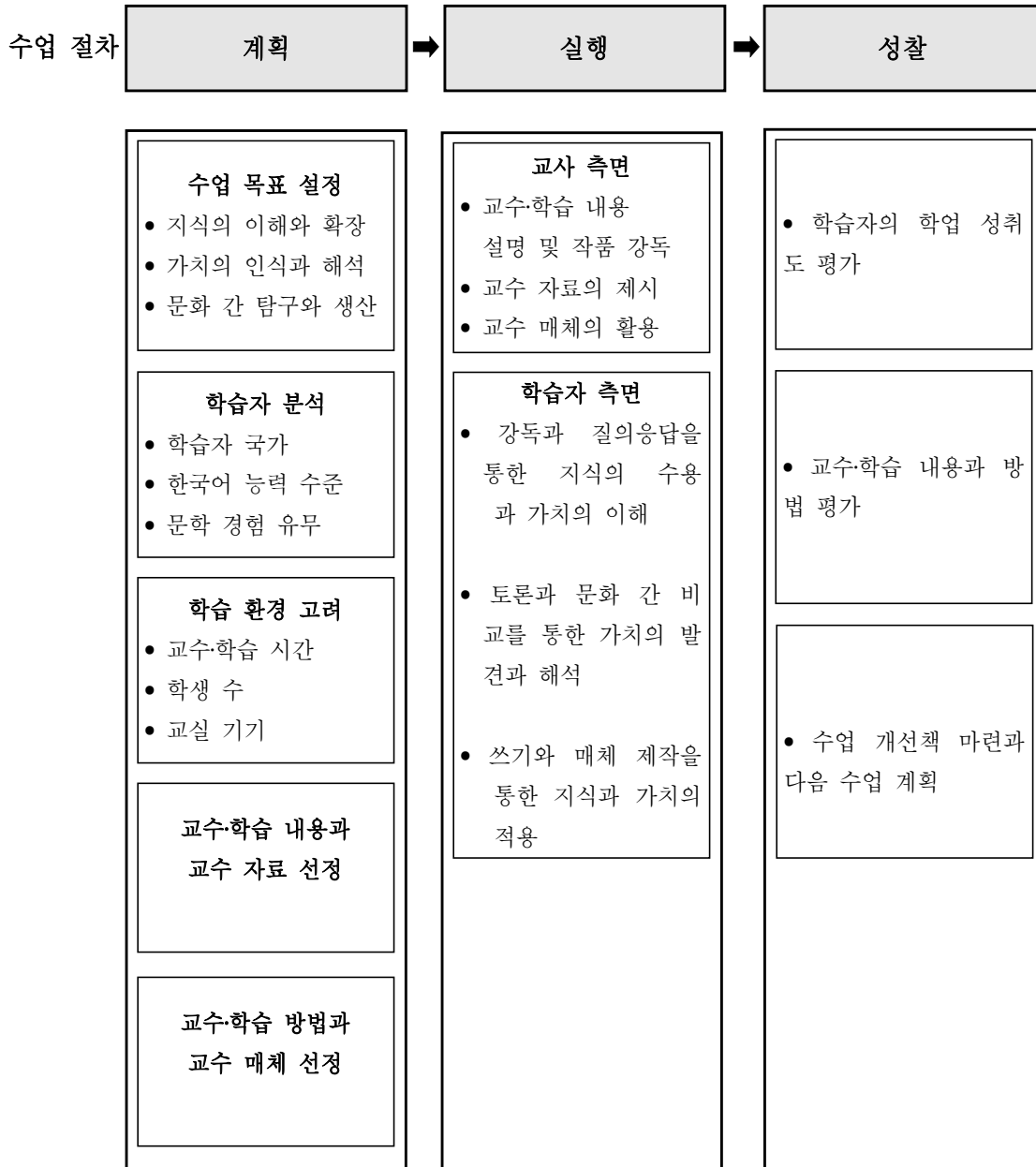
택적 강독, 인물에 대한 가치 판단 및 토론,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쓰기 및 매체 제작 활동을 구안하여 학습자들에게 적용하였다.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 모형은 학습자의 실천적 참여를 독려하는 학습자 활동 중심으로 설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은 현실 세계와 상호 작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황적이며 동료 학습자와의 교류를 통해 상대방의 지식 및 기술을 탐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다루야 할 정보로 의미를 구성하고 자신에게 내적 타당성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유의미한 학습을 위해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며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구 및 기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습 형태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적이고 발전적인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는 우선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전 소설 수업의 교수·학습 수업 설계 모형을 계획, 실행, 성찰의 세 단계로 제시하고 교사와 학습자가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고전 소설 학습을 실행하는 활동을 구체화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 모형을 지식의 수용과 이해 활동, 가치의 발견과 해석 활동, 지식과 가치의 적용 활동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 교수·학습 활동들은 반드시 순차적 또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학습자의 수준과 교수·학습 환경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1.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 설계 모형

고전 소설 교수·학습 설계 모형은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수업 전반에 관한 절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계획·실행·성찰의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림 IV-1>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설계 모형

### 1.1. 고전 소설 교수·학습 계획 단계

고전 소설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자를 분석하며 학습 환경을 고려한다. 교수·학습 내용과 교수 자료의 선정, 교수·학습 방법과 교수 매체의 선정도 이 단계에서 수행된다.<sup>268)</sup> 고전 소설 교육의 학습 목표를 문화적 문식력 신장으로 한다면 그 하위 범주의 학습 목표와 교수·학습 내용을 세 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학습 목표를 목표 문화의 배경지식에 대한 이해로 할 것인지, 목표 문화의 가치 규범에 대한 해석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 이에 따라 제도, 관습, 언어·문화 등의 사회·문화적 배경지식과 전통적 윤리 규범, 인물의 지향 가치, 인물의 가치 실현 방식 등의 사회·문화적 가치 중 어느 부분을 먼저 좀 더 초점화해서 가르칠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고전 소설 수업에 대한 선행 학습 경험을 확인하고 이전 고전 소설 경험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교정도 필요하다. 국내외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학습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고전 소설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편이어서 고전 소설의 작품 내용에 대한 선입견은 없지만 문학 학습이 어렵다는 문학 자체에 대한 선입견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학습자의 편견을 없애 주어야 한다.

고전 소설 교수·학습 자료 중 작품의 지문은 교수·학습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되 작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고어(古語)의 현대적 운문 또한 포함된다. 고전 소설 교수·학습 자료 중 매체의 활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영화나 드라마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자 할 때 작품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변용의 정도가 너무 커서 작품의 본질을 훼손한 매체 자료의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고전 소설 교수·학습 방법은 작품 강독을 기본으로 학습자들의 이해와 해석 능력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화한다. 예를 들면 작품의 배경지식과 가치에 대해 교사 및 동료 학습자와 토론을 하면서 목표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의 지평을 넓히며 다양한 쓰기 활동을 구안해서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

---

268) 한편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교육 목적과 수업 목표에 관한 지식, 학습자에 관한 지식, 학습 내용과 조직에 관한 지식, 교수 방법에 관한 지식 외에 암묵적 지식을 상정한 모형도 있다. 여기에서 암묵적 지식이란 일상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교실에서의 상호 피드백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말한다. Borich, G. D.(1996), *Effective teaching methods(3rd ed.)*, Prentice-Hall, Inc, pp.178-180.



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 1.2. 고전 소설 교수·학습 실행 단계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실행 단계는 교수·학습의 계획 단계에서 고전 소설 수업과 관련해 교사가 계획한 모든 활동을 학습 목표와 절차에 맞게 교사와 학습자가 상호 작용하는 단계로서 특히 학습자의 참여와 실천을 강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교사는 고전 소설 교수·학습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하고 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교수 자료를 제시하며 학습자들과 상호 작용을 원활히 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조절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습자들이 교수·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질문이 많거나 산만해지면 교수·학습 내용을 초점화한다거나 학습자 질문과 관련된 정보나 배경지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등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어 교육의 경우에는 학습자 문화에 대한 교사의 배경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교사는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은 물론 수업 시간 중에 학습자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학습자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을 확장해 가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학습자들이 지니고 있는 자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교사는 학습자를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고 교사 스스로 지식을 갖춰 나가야 한다.

고전 소설을 강독할 때 교사는 학습자가 교사의 설명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작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예를 들면 학습자는 자국 문화의 문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비계로 문화 간 상호 교섭을 원활히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사의 적극적인 격려가 필요하다. 학습자는 고전 소설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가치를 활용하여 동료 학습자들과 고전 소설 속 등장인물에 대한 토론을 하며 토론의 결과를 공유한다. 학습자 간의 토론은 가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찬반 논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데 이때 교사는 학습자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와 이유가 정확히 마련되었는지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 학습 활동 중 쓰기 활동은 매우 중요한데 고전 소설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가치가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경험 지식 등을 기반으로 목표

문화에 대한 해석과 탐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들은 고전 소설을 재해석해서 변용하는 과정을 거치는 매체 제작 활동을 통해 고전 소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고전 소설에 대한 문화 경험을 실체적으로 가시화된 산물로 생산해 낸다.

### 1.3. 고전 소설 교수·학습 성찰 단계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성찰은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필요한 활동으로 먼저 교사 측면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는 고전 소설 수업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이 실행된 후에는 수업 계획 단계에서 세웠던 수업 목표의 성취 정도를 비롯하여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자에 대한 평가 등 수업 전반에 관해 성찰한다. 고전 소설 교수·학습 성찰의 기준은 수업 계획 단계에서 교사가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업 과정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다. 고전 소설 교수·학습 성찰 활동은 수업 계획과 수업 실행을 마친 후에만 하는 최종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수업 계획과 수업 실행 단계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면서 매 단계에서 수정과 보완을 해 나가야 한다. 교사는 수업을 계획한 대로 잘 진행했는지 수업 과정 중에 학습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했는지 점검하고 학습자가 고전 소설 수업을 통해 얻은 교육적 유용함과 어려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의 고전 소설 교수·학습 성찰 활동은 교수·학습의 실행 활동부터 가능하다. 학습자는 교사와의 질의응답, 토론, 감상문·비평문 쓰기, 매체 제작 등 각각의 교수·학습 활동마다 고전 소설에 대한 자신의 이해나 해석에 오류나 과장, 왜곡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때 교사나 동료 학습자와의 의견 교환은 필수적이며 문제 해결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 고전 소설 교수·학습 성찰 활동은 다음 고전 소설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 2.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 모형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 모형은 학습자가 지식을 이해하고 가치를 해석하며 지식과 가치를 적용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식의 수용과 이해’, ‘가치의 발견과 해석’, ‘지식과 가치의 적용’ 단계로 구안하고 관련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식의 수용과 이해 단계에서는 작품의 내용과 주제, 인물의 성격과 행위, 사고 등을 인식하면서 학습자 자신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확장해 간다. 이를 위해서 언어적·문화적 의미 해석 중심의 강독과 학습자 배경지식의 확인과 확장을 위한 질의응답 활동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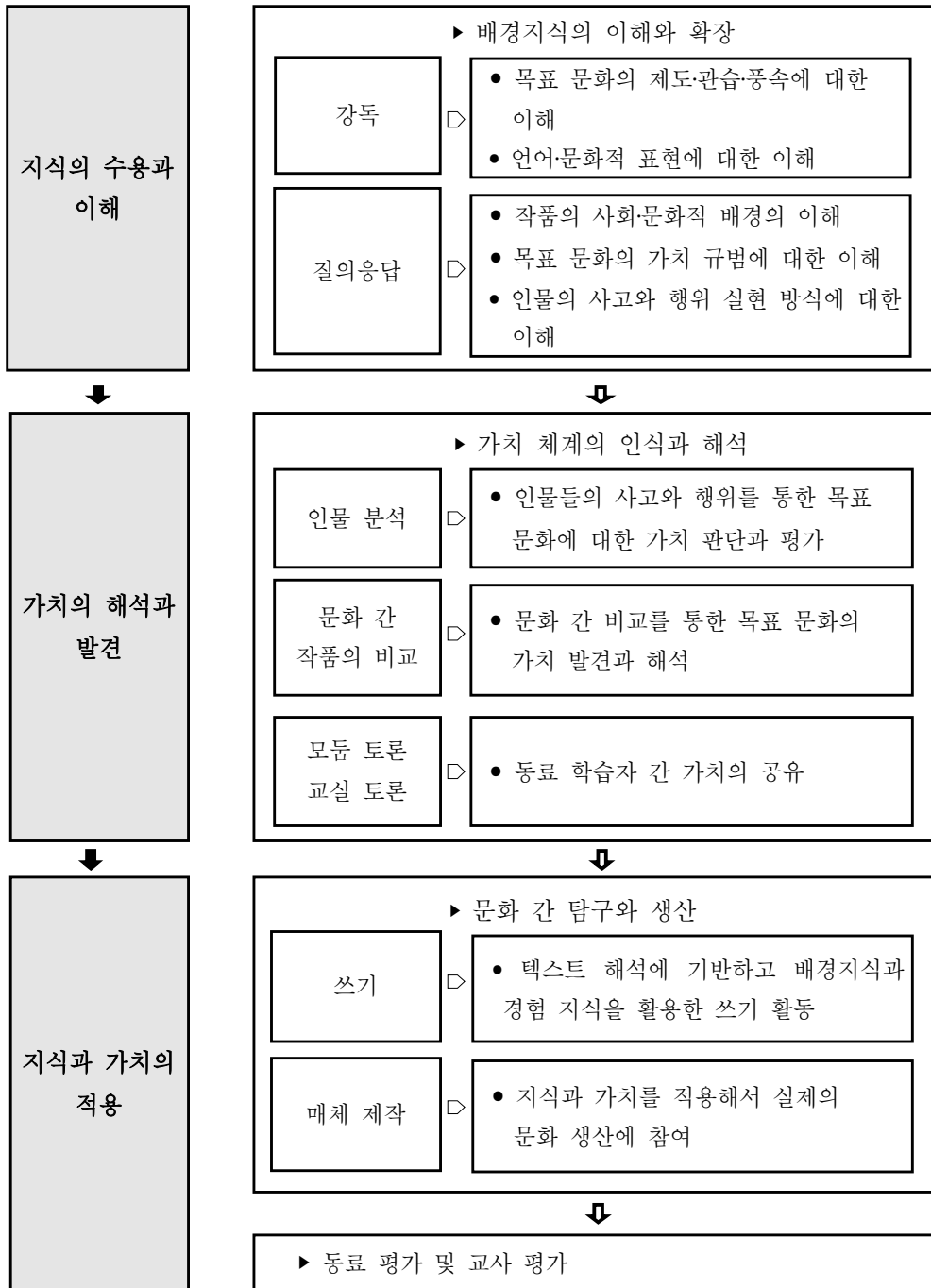
가치의 발견과 해석 단계에서는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실현되는 인물의 행위에 대해 해석하면서 목표 문화의 관점과 가치 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목표 문화에 대한 가치 평가 토론과 상호 문화 간 작품을 비교하는 활동을 한다.

지식과 가치의 적용 단계에서는 문화 간 작품 비교를 통해 작품의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쓰거나 매체 변용을 통한 생산 활동을 한다. 이처럼 학습 대상인 지식의 역동적 상호 작용과 학습 주체인 학습자의 활동이 교수·학습의 주된 요인임을 인식하고 학습 환경의 조성 및 상황 맥락에서 실제 과제를 제공하는 일은 중요한 교수·학습의 전략이다.<sup>269)</sup>

한편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목표로 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을 할 때 교사는 학습자가 지닌 자문화와 목표 문화의 문학 경험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목표 문화에 대한 문학 경험은 거의 없는 편인데 자문화에 대한 문학 경험이 전혀 없는 학습자는 없으며 다만 학습자의 개인별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목표 문화의 문학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자문화에서 얻은 문학 경험이 있다면 학습자 자신이 비계를 만들어서 문화 간 비교를 통한 지식의 확장과 가치 평가를 한다. 따라서 교사가 학습자의 문학 경험을 확인하는 일은 이후 교수·학습의 실행 단계에서 학습 활동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269) 한정선·김영수·주영주·강명화·조일현·이정민(2014), 『21세기 교사를 위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과학사, 146-147쪽.



<그림 IV-2>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모형

## 2.1. 지식의 수용과 이해 활동

고전 소설 교수·학습 활동에서 교사의 지식 전달과 학습자의 수용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지식 구성 강화와 가치 인식의 심화를 위한 것이다. 학습자의 지식 구성에는 목표 문화의 사회·문화적 기반 지식과 맥락 지식, 보편적 가치 체계, 학습자의 스키마와 배경지식, 가치 판단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관여한다. 학습자는 목표 문화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보편적 가치 규범을 기반으로 개인적 지식과 판단, 해석 능력을 동원해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데 이때 문화적 의미(cultural meaning)보다 문화적 사실(cultural fact)에 먼저 주목하게 된다. 문화적 사실은 목표 문화의 가시적 실체로서 표면적인 정보 차원을 말하고 문화적 의미는 문화적 사실이 지닌 내포적·함축적 의미 차원을 말하는데 양쪽 모두를 이해해야 학습자의 지식 구성은 온전한 체계를 갖추게 된다. 예를 들면 학습자는 고전 소설에서 직접 드러나는 표면적 요소인 소설의 배경이나 문화적 산물 등에 주목하여 정보 또는 단편적 지식을 발견하는 단계를 지나면 이들 정보나 단편적 지식의 의미에 대해 탐색하게 되고 이를 통합해서 지식 구성을 한다. 학습자의 지식 구성이 활성화되면 구성된 지식은 정보의 체계적 구조화는 물론 ‘앎으로서의 지식’으로서 확장되며 이 지식은 학습자에게 내면화된 지식으로 대상에 대한 총체적 해석의 발판이 된다.

지식의 수용과 이해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의 교수 행위와 지식을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학습자의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작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한데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내용의 선정과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식 이해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목표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의 이해와 확장을 목표로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이해, 목표 문화의 가치 규범에 대한 이해, 인물의 사고와 행위 실현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우선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제시해야 한다. 교수·학습 내용이 선정되면 교사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작품의 강독을 진행하되 어휘나 문맥의 표면적 의미에 대한 설명에 치중하지 말고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또한 고전 소설에 나오는 어휘나 관용 표현, 속담 등에 대해서는 사전적 뜻풀이는 물론 그 안에 내재된 의미나 유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으며 한자 성어의 경우에는 한자 병기를 함께 해 주는 것이 좋다.

교사의 고전 소설 강독이 끝나면 질의응답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작품을 얼마나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면서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확장하고 심화시켜 나간다. 교사는 미리 학습자에게 질문할 내용을 정리해 두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작품 속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학습자의 자국 문화와 비교해서 유사하거나 다른 문화적 산물은 무엇인지, 새로 배운 언어·문화적 표현이 있는지 등을 질문한다. 그리고 작품 속 인물의 가치와 행위 방식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지속적으로 묻고 확인하면서 학습자들이 목표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나 갈등의 요소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교사와 학습자 간에 질의응답을 할 때 학습자의 질문 못지않게 교사의 질문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교사의 질문은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경험 지식을 자극하고 이끌어 내며 고전 소설이 제기하는 특수한 또는 보편적 문제에 대하여 숙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교사는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대답을 학습자로부터 유도하면 안 되고 학습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자와 함께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질의응답 시 교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생소한 질문이나 교사의 배경지식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황하지 말고 학습자와 상호 작용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일이 필요하다.

### (1) 언어·문화적 의미 해석 중심의 강독

작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 없이는 이해와 표현은 물론 감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강독(講讀)은 작품 이해의 출발점이다. 고전 소설 작품을 강독할 때 학습자가 단순히 텍스트를 읽고 어휘의 뜻을 밝히고 문장을 해석하며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담긴 내재적·심층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개인적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독은 교사의 설명에 의존하는 교사 주도적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해석한 것을 다시 본래의 텍스트와 견주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인식 능력을 개발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강독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교사 중심의 교수법이라고 하여 모국어 교육에서는

지양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학 교육에서는 목표 문화의 문학 작품을 바르게 읽히는 중요한 초석이 된다.

한편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면서 가장 주의할 점은 한국 문화의 배경지식과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각 작품의 주요 장면을 선정하는 것과 현대어로의 운문이다.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에게 작품 전체를 제시해 줄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최선은 고전 소설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초점화하고 심화하는 것이다. 이는 일상의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작품 전체보다 작품의 제목과 주인공의 이름, 작품과 관련된 화제, 속담, 관용 표현, 삽화 등이 더 많이 회자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교육적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sup>270)</sup>

## (2) 배경지식의 확인과 확장을 위한 질의응답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작품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질의응답 형태의 교수·학습을 취할 수 있다. 고전 소설 강독이 끝나면 교사와 학습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들이 작품을 얼마나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교사의 질문은 작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학습자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교사가 답을 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교사의 질문은 학습자의 작품에 대한 지식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사고와 행위에 대한 학습자의 가치 판단 및 평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어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가치 인식을 확장하는 데 주의한다. 다음은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경험 지식, 가치 판단과 가치 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교사 질문의 예시이다.

---

270) 대중들에게 <독립선언문(Declaration of Independence)>, <게티스버그 연설문(Gettysburg Address)> 등과 같이 원 텍스트 전체가 널리 읽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작품의 제목이나 작품과 연관된 정보만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Hirsch, E. D & Kett, J. & Trefil, J.(1988), "What Literate Americans Know: A Preliminary List",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Vintage Books, p.147.

배경 지식  &  경험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심청전&gt;·&lt;춘향전&gt;·&lt;홍부전&gt;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은 누구이며 왜 그렇습니까?</li> <li>• &lt;심청전&gt;·&lt;춘향전&gt;·&lt;홍부전&gt;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li> <li>• &lt;심청전&gt;·&lt;춘향전&gt;·&lt;홍부전&gt;과 유사한 여러분 나라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li> <li>• 여러분 나라에 &lt;심청전&gt;·&lt;춘향전&gt;·&lt;홍부전&gt;에 나오는 제도나 관습과 유사하거나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까?</li> </ul>
가치 판단  &  가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청의 효도 방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li> <li>• 여러분이 심청의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li> <li>•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li> <li>• 여러분이 춘향의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li> <li>• 형 놀부에 대한 홍부의 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li> <li>• 여러분이 홍부의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li> </ul>

<표 IV-1> 고전 소설 교수·학습 시 교사 질문의 예(例)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먼저 소설의 인물과 사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서 소설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학습자가 작품을 어떻게 감상했는지도 살펴본다. 학습자의 작품 감상은 학습자의 배경지식이나 가치 판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자국의 소설에 대한 문학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화 간 작품 비교를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경험 지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고전 소설 작품의 지식에 대한 확인과 함께 작품 속 인물들의 사고방식과 가치, 가치를 실현하는 행위 방식에 대해 학습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 나아가 감정이입 또는 공감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시간을 가진다. 인물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학습자가 목표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이해는 물론 목표 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태도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척



도가 되기도 한다.

고전 소설에 대한 확인 학습과 함께 교사는 학습자의 질문을 받으면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을 확장 및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데 학습자 수준 등 학습자 변인 요소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들의 질문은 작품의 등장인물, 비교 문학, 한국의 관습과 제도 등 매우 다양한 부분에 걸쳐져 있다.

지식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봉사나 이몽룡 등 남성보다 심청이나 춘향 등 한국 고전 소설에는 여성들이 더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li> <li>• &lt;춘향전&gt;은 중국어로 번역본이 많이 나와 있는데 &lt;심청전&gt;은 별로 없기도 하고 &lt;춘향전&gt;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lt;심청전&gt;보다 &lt;춘향전&gt;이 더 인기가 있습니까?</li> <li>• &lt;심청전&gt;과 &lt;춘향전&gt;에 중국 시조가 많이 인용되었는데 두 작품은 중국 소설의 영향을 받았습니까?</li> <li>• &lt;심청전&gt;과 &lt;춘향전&gt;에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국인에게 꿈은 어떤 의미입니까?</li> <li>• 심봉사가 심청을 위해 젓동냥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li> <li>• 심봉사는 왜 이렇게 눈을 늦게 뜨게 됩니까?</li> <li>• 춘향은 기생인데 어떻게 이몽룡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까?</li> <li>• 춘향은 변학도도 양반인데 왜 변학도의 청은 거절했습니까?</li> <li>• 홍부는 가난한데 왜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까?</li> </ul>
가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꼭써 부인이 자식을 못 낳는 것이 큰 죄입니까?</li> <li>• 심청이 눈먼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까?</li> <li>• 춘향은 서울로 가서 소식도 전하지 않는 이몽룡을 왜 그렇게 기다립니까?</li> <li>• 남원 사람들은 춘향과 별로 친분이 없는데도 춘향을 왜 응원합니까?</li> <li>• 홍부는 놀부가 심술을 부려도 참기만 하는데 동생은 형에게 대들면 안 됩니까?</li> <li>• 홍부는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아내에게 친절하지 않습니까?</li> </ul>

<표 IV-2> 고전 소설 교수·학습 시 학습자 질문의 예(例)<sup>271)</sup>

271) <표 IV-2> 학습자 질문의 예는 연구자가 고전 소설 교수·학습을 실행하면서 학습자로

예를 들면 학습자들은 <춘향전>이 사랑받고 있는 이유 등 고전 소설의 작품 외적 정보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며 한국 고전 소설과 중국 고전 소설 간의 상호 텍스트성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또한 작품이 형성된 시대적 배경과 인물 태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도 많이 하고 인물의 행위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즉 학습자들의 질문은 고전 소설의 외적 정보와 배경지식, 작품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직결되며 학습자들은 질문을 통해서 고전 소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다.<sup>272)</sup> 이처럼 교사와 학습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강독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작품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키고 인물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 2.2. 가치의 발견과 해석 활동

현대의 학습자는 고전 소설이 향유되던 당시의 사람들과는 다른 문제 제기와 가설을 세우면서 고전 소설을 해석하고 의미화한다.<sup>273)</sup> 고전 소설을 해석하고 의미화한다는 것은 고전 소설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은 매번 새로울 수 있으며 학습자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현대의 사회·문화를 성찰하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문화 창조와 생산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작품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이를 기반으로 학습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작품에 대한 해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해석<sup>274)</sup>은 목표 문화의

---

부터 받은 질문들을 정리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272) 학습자들의 질문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다음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체성(主體性)’, 기존의 앎의 구조에서 새로운 앎의 구조로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구조성(構造性)’, 현재보다 더 높은 상태로 나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반성성(反省性)’을 지닌다. 양미경(1992), 「질문의 교육적 의의와 그 연구 과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47-63쪽.

273) Beard, M. & Henderson, J., *Classics*, 박범수 옮김(1999), 『클래식』, 동문선, 62-63쪽.

274) 해석은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할 때 사용하는 체계적이고 일관성을 가진 아이디어의 집합체이고 모든 판단은 해석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해석의 틀에 의해서만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다. 해석의 틀은 사물을 보는 하나의 방식이며 지각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사물을 보게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대상의 본질에 주목하여 해석하도록 하기

의미를 학습자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이해해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활동으로 학습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새롭고 낯선 문화를 접하면 공감 또는 비판, 판단이나 평가를 하게 된다. 학습자는 자문화와 목표 문화의 언어와 문화, 가치 등의 익숙함 또는 낯설음에 대한 거리를 조율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문화나 텍스트를 해석할 때 주어진 대상의 본질적인 부분보다 학습자 자신의 사고와 가치관, 학습자가 처한 상황과 배경, 학습자 문화의 전통과 관습의 영향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해석에서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선이해(pre-understanding)는 해석 능력의 열쇠가 되는데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해석은 본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동료 학습자 간에 공유될 때 더욱 의미가 있으며 하나의 문화 해석 공동체<sup>275)</sup>를 이루는 데 근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동료 학습자 간의 토론과 문화 간 작품의 비교 활동을 통해 지식과 가치 해석을 공유하면서 목표 문화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심화시킨다.

가치의 발견과 해석 단계에서는 고전 소설의 작품 속 인물의 사고와 행위에 대한 학습자의 가치 판단과 평가가 중심이 되는데 작품 속 허구적 인물의 삶의 양식 또는 행위 방식이 실제 목표 문화의 가치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학습자들은 인물들의 사고와 행위를 통해 목표 문화에 대한 가치 판단과 평가를 하며 나아가 자국의 문화와 목표 문화와의 문화 간 비교를 통해 목표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며 해석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인물의 사고방식과 가치 실현 행위를 판단할 때 인물이 처했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했는지, 당시 목표 문화의 보편적 가치 규범을 이해했는지, 인물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

위해서는 올바른 해석의 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Polanyi, M.(1958), *The Study of Ma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75) 피쉬(Fish)는 텍스트는 해석 공동체에 의해 구성되며 해석 공동체의 권위가 텍스트 이해의 지엽적인 편차들을 조정하고 텍스트 쓰기와 텍스트의 자질을 구성하는 데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목표 문화의 텍스트 또는 문화 이해는 해석 공동체의 권위 또는 합의에 따를 수 있다. Fish, S.(1980),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ies*, Harvard University, pp.303-321.

### (1) 목표 문화의 가치 평가 토론

특정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가치문제는 ‘어떤 선택이 옳은가, 그른가?’, ‘어떤 판단이 바람직한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등의 물음으로 학습자들은 이미 지니고 있는 자신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사회·문화적 규범에 근거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그런데 목표 문화의 어떤 문제에 대한 개인의 가치 판단과 신념은 개인의 도덕적 관점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목표 문화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공유한 규약을 간과한다면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목표 문화에 적응할 수 없다.

따라서 도덕적 시비(是非) 판단은 개인이나 사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목표 문화의 구성원들이 수용하고 공유하는 모범이 되거나 사회 보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치 규범의 준거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고전 소설을 통해 학습자들이 접하게 된 효(孝), 열(烈), 우애(友愛), 행복, 정의, 인간 존중 등과 같은 가치는 학습자에 따라 가치 수용의 경로는 다르더라도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이므로 학습자 개개인의 견해에 대해서는 상대성을 인정하되 이를 분명하게 하는 추론과 근거의 과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교수·학습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 각각의 가치 기준<sup>276)</sup>은 가치 대상의 특징에 대하여 긍정 또는 부정적인 결론을 갖게 하며 가치 대상을 평가하는 기초가 되므로 목표 문화의 가치 규범의 준거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의 학습자는 고전 소설 수업을 한 후 작성한 경험 일지에서 자문화와 유사성과 동질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한국의 관습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교사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사의 설명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문화 간 관습과 가치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 고전 소설을 읽고 보면 독특한 한국식 사상이 많이 나타난다. 물론 중국도 같은 아시아권이라 비슷한 점이 많지만 사소한 다름이나 문화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잘 이해하려면 예컨대 무당, 통과례, 가부장권, 자신을 회생함에도 불구

---

276) 콕스(Coombs)는 학습자의 가치 판단 맥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치 원칙(value principle)이 아니라 가치 기준(value criterion)이라고 주장했다. Hersh, R. H & Miller, J. P. & Fielding, G. D., *Models of Moral Education: An Appraisal*, 강두호 옮김(2013), 『도덕 교육의 6가지 모형』, 역락, 156쪽.

하고 추구하는 ‘효’같은 민족문화에는 자상한 설명이 필요하다.

[㉠-K2-2-2-5급-16]

가치 규범의 준거를 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교사 자신의 개인적 견해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학습자들은 대부분 교사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교사는 가치 규범의 준거를 사회가 보편적으로 합의한 선에서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 사회의 가치 규범이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형태로 전승되거나 변화되었는지도 함께 제시해 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한편 문화적 문식력을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한 지식의 총체라고 정의한다면 고전 소설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의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고전 소설을 매개로 텍스트와 학습자, 학습자와 동료, 학습자와 교사 간의 의미의 생산 및 유통, 공유 과정 자체가 문화적 문식력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을 매개로 한 토론은 자신의 논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나 가치 판단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수용 또는 비판하고 자신의 관점을 교정하거나 성찰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토론 활동과는 구별된다. 토론을 통해 학습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면서 상호 작용을 하거나 동료 학습자의 해석에 공감이나 이견(異見)을 제시하는 내적 대화를 진행하면서 텍스트에 담긴 사회·문화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된다. 즉 학습자는 고전 소설에 담긴 인물의 가치, 신념, 태도 등을 가치 평가하면서 목표 문화에 대한 관점을 세울 수 있다.

가치 평가 토론은 교실의 학습 동료와 생각의 의견을 공유하고 개진하면서 하나의 해석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으로서 서로의 수용을 전제로 한다. 이때 학습자들 저마다의 해석은 ‘옳다’, ‘그르다’의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놓은 의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확신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은 사회 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평가 기준에 상응하는 논의에서 생겨난다. 동료 학습자와의 토론은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거나 동료 학습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가치 평가 토론 활동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가치 기준과 가치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다. 가치 기준(value criterion)은 ‘좋다, 나쁘다’의 전제가 되

는 것으로 어떤 사실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지지하는 여부를 결정한다. 가치 원칙(value principle)은 가치 기준에 의한 의사 결정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전체로서의 가치 대상에 적용된다.<sup>277)</sup> 가치 기준은 모든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성이 있다. 즉 시비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고전 소설 교수·학습 활동에서의 토론은 목표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서 학습자 나름대로 가치를 분석하고 분석한 가치를 동료 학습자와 공유하는 데서 마무리한다. 토론 활동에서 학습자 개인이 가치를 분석하는 과정은 목표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은 물론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다음은 <심청전>에 대한 가치 토론 활동 시 고려해야 될 가치 기준과 원칙에 대한 예시이다.

가치 기준	가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에 대한 자식의 자기희생은 옳다.</li> <li>• 부모에 대한 자식의 자기희생은 그르다.</li> </ul> <p>* 특수 상황: 아버지의 개안(開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li> <li>• 부모에게 받은 몸을 훼손하는 것은 불효이다.</li> </ul>

## (2) 상호 텍스트성 관련 작품의 비교

학습자 자국의 문학과 한국 문학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대조해 보면서 작품의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효율적이며 작품의 심층적 이해를 돕는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고전 소설과 유사 또는 대조할 만한 자국의 작품에 대해 소

277) 가치 판단의 맥락에서는 가치 기준이 중요하며 가치 기준은 가치 대상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Hersh, R. H & Miller, J. P. & Fielding, G. D., *Models of Moral Education: An Appraisal*, 강두호 옮김(2013), 『도덕 교육의 6가지 모형』, 역락, 154-156쪽.

개하고 작품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해 보도록 한다. 비교나 대조하기 활동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문학을 비교하면서 작품의 이해를 추구하는 비교 문화적 관점에 입각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학습자의 자문화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며 목표 문화에 대한 발견과 참여가 가능하다. 학습자는 자국의 문학과 한국 문학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가진 배경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문학의 주제와 인물, 사건, 가치 등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탐구해 나간다.

인물의 사고와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가치 실현 행위와 사회·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살펴보는 것부터 상호 텍스트성에 입각해 비교·대조하면서 문학 작품의 이해를 도모하는 문학 탐구 활동은 개별 문학 작품의 심층적인 탐구는 물론 상호 문화적 능력까지 신장시킬 수 있다. 고전 소설 <심청전>·<춘향전>·<홍부전>은 한국 문화의 개성과 특수성은 물론 인류의 보편적 가치, 보편적 이야기 구조도 함께 담고 있으므로 학습자 문화에 존재하는 작품과 비교가 수월한 편이다.

### 2.3. 지식과 가치 적용 활동

지식과 가치 적용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경험 지식을 기반으로 감상문 또는 비평문 쓰기를 수행하며 학습자가 직접 문화 생산에 참여하는 활동을 구안할 수 있다. 학습자가 목표 문화의 지식과 가치를 이해하고 해석한 바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쓰기 산출물이다. 감상문 쓰기는 학습자가 목표 문화의 지식과 가치를 고전 소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활동으로 학습자 스스로 본인의 배경지식과 경험 지식, 가치 판단과 가치 태도 등을 표현한다. 비평문 쓰기는 목표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해석 능력, 비판 능력을 동시에 신장시킬 수 있는 활동이다. 글쓰기를 할 때 자문화의 선지식을 활용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상호 텍스트성에 기반한 비평적 글쓰기는 텍스트와 심도 있는 내면적 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전 소설을 메타적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게 한다. 따라서 쓰기 활동은 감상문 쓰기에서 비평문 쓰기로 위계화해서 교수·학습할 필요가 있다.

쓰기 활동 외에 학습자가 문화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매체 제작 활

동이 있는데 매체 제작 활동은 매체 제작 준비 단계와 매체 제작 실행 단계, 매체 발표와 평가 단계로 나누어진다. 매체 제작 준비 단계에서는 매체로 변용할 고전 소설 작품을 선정하고 모둠에 속해 있는 동료 학습자와 매체 제작의 역할을 분담한다. 매체 제작의 실행 단계에서는 작품의 모티프나 중심 가치를 추출하여 각색이나 패러디 기법을 활용하여 고전 소설을 변용하고 매체를 제작한다. 매체 제작이 완성된 후에는 수업에서 발표를 하고 평가의 시간을 갖는다. 매체 산출물에 대한 평가는 고전 소설의 모티프나 주제 의식을 잘 활용했는지, 고전 소설의 각색은 이해 가능하고 타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작품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매체 제작은 학습자들이 고전 소설 학습에서 획득한 목표 문화의 지식과 가치를 재해석하고 평가한 것이 총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문화적 문식력 실천의 중요한 활동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 (1) 상호 텍스트성에 기반한 글쓰기

학습자가 주어진 텍스트의 정보 및 지식을 인식하거나 해석할 때 그 인식이나 해석의 기제로 가장 먼저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배경지식이나 사전 지식(prior knowledge)이다. 학습자가 어떤 특정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지니고 있는 기본 지식인 배경지식과 학습자가 대상 텍스트를 접하기 이전에 습득하고 있던 사전 지식은 주어진 텍스트의 이해 정도, 재구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이나 문화 자원, 사회 구성원 간의 공유된 지식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드러나지만 특히 쓰기 산출물을 통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국의 문화와 목표 문화인 한국 문화,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 가치와 규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이를 학습자 자신의 관점과 가치관, 사회·문화적 배경 및 맥락과 어떻게 관련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상호 텍스트성에 기반한 작품 해석을 유도하고 쓰기 활동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쓰기는 학습자가 작품에서 획득한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작품의 주제와 의미에 대해 본인이 독자적 가치 판단을 내리며 그 과정에서 개인 자신과 자신의 문화에 대한 성찰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활동이다. 상호 텍스트성에 기반한 글쓰기는 감상문과 비평문의 형식을 모두 취할 수 있는데 특



히 비평문 쓰기는 목표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해석 능력, 비판 능력 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다. 자문화의 배경지식과 선지식을 지닌 학습자들에게 상호 텍스트성에 기반한 글쓰기 과제를 제시해 주면 학습자들은 이에 입각해 글쓰기를 수행하면서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 낸다.

한편 학습자들에게 고전 소설 학습 이후에 쓰기 활동을 제시하면 줄거리 요약 형태로만 제출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사고와 태도, 지식과 텍스트 해석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글쓰기 활동을 할 때 학습자들이 자국의 소설 작품과 비교 문화적 또는 상호 텍스트적 관점에서 기술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 (2) 제재 변용을 통한 매체의 활용과 생산

고전 소설은 학습자의 수준과 목적에 따라 활용되기에 적합한 제재로서 다양한 매체로의 전환이 자유로운 개방적 형태로 교육 목적이나 학습 목표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다. 고전 소설을 향유하던 시대와 현대의 학습자가 누리고 있는 시대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어떤 사회나 문화든 수용자들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거나 흥미를 가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특히 판소리계 소설은 문학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넘어 판소리, 창극, 마당놀이, 연극, 영화, 만화, 드라마, 오페라 등 다양한 예술 장르와 교섭하면서 현재까지 다양하게 변용되어 오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 고전 소설은 매체와 연계한 확장성이 두드러지며 이를 적합하게 활용만 한다면 학습자의 흥미 유발은 물론 문화적 문식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단 매체의 선정은 고전 소설 원전의 내용과 의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과 경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매체 활용은 고전 소설을 학습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고전 소설을 극화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을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교사 활용 측면과 고전 소설 학습 이후, 학습자들이 고전 소설을 다양한 매체로 변용하는 학습자 활동의 두 측면에서 모두 논의될 수 있다.

첫째, 교사의 매체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 고전 소설 작품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학습자의 흥미를 일깨우고 이해하기 쉬운 매체 자료를 선정하는 일

이 가장 중요하다.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은 다양한 매체로 변용되어 오고 있는데 특히 <심청전>과 <춘향전>이 다양한 분야에서 변용되고 있다. <심청전>은 영화 <심청>, 드라마 <심청의 귀환>, 애니메이션 <황후 심청>, 뮤지컬 <청 이야기>, <춘향전>은 영화 <춘향뎐>, 드라마 <쾌걸 춘향>,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 <홍부전>은 드라마 <홍부네 박 타졌네>, 뮤지컬 <놀부 4인방> 등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학습 목표에 부합한 작품을 선정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해야 한다.<sup>278)</sup>

둘째, 학습자들 스스로 고전 소설의 제재를 변용하고 재생산해 내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 구안될 수 있는데 이때 학습자들은 배경지식을 기반으로 고전 소설을 해석해서 역동적이고 가시적인 생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우선 고전 소설을 다른 문학 장르로 바꿔서 각색하거나 패러디하는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각색이나 패러디를 하면 동시에 매체로의 변용까지도 가능해 교육적 효과가 높다. 각색은 문학 작품을 회곡이나 시나리오로 고치는 것으로 작품을 독자에게 좀 더 생생하고 가깝게 느끼게 해 주는 장점과 장르 변용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아이디어가 생성되는 장점이 있다. ‘패러디(parody)’는 원작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해서 원작을 재창조하는 것을 말하며 과거와 현재의 텍스트가 상호 교섭하는 효과가 있다.<sup>279)</sup>

다음은 각색한 고전 소설을 드라마나 영화 형태의 매체로 제작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직접 매체 제작 활동을 하게 되면 고전 소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안에 내재된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추출하면서 자신들이 생산할 작품의 내용과 주제들에 대해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학습자의 매체 제작 활동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매체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학습자가 직접 패러디 등의 고전 소설의 변용을 통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의 수준과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 유

278) 고전 소설의 매체 변용의 예는 윤종선의 논문에 만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공연,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윤종선(2011), 「<심청전>의 현대적 수용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7-34쪽 참고.

279) 패러디는 ‘비평적 거리를 둔 반복’으로서 유사성보다는 상이성을 강조하는 ‘아이러니한 전도에 의한 모방’의 한 형식이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전도시키고 초맥락화하는 통합된 구조적 모방의 과정을 중시하면서 상호 텍스트성과 상호 주관성의 교차가 지니는 복합성 속에서 초맥락성과 전도(顛倒)를 내장하는 것을 패러디라고 강조한다. Hutcheon, L. A., *Theory of Parody*, 김상구·윤여복 옮김(1998),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용한 활동이다. 또한 매체 제작 활동은 동료 학습자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서 목표 문화에 참여하는 문화 해석 공동체 간의 결과물을 보여 준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학습자는 고전 소설의 서사 구조를 활용해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며 그 이야기의 창조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동료 학습자와 협력하며 매체 변용을 할 수 있다. 매체 변용은 고전 소설 원작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다루면서 유사 장르나 다른 장르로 변용을 시도할 수 있다. 매체 변용의 유사 장르는 고전 소설의 서사 구조를 따르는 드라마 형식을 말하고 다른 장르는 예능, 다큐멘터리, 토크 형식 등 다양한 형태를 말한다.

* 원작에서 일부분을 다르게 변용하기	* 원작 전체를 다르게 변용하기
· 유사 장르로 다르게 변용하기	· 유사 장르로 다르게 변용하기
· 다른 장르로 변용하기	· 다른 장르로 변용하기

<표 IV-3> 고전 소설 매체 변용의 형태<sup>280)</sup>

매체 변용 및 생산은 학습자들이 고전 소설 학습에서 획득한 목표 문화의 지식과 가치를 재해석하고 평가, 비판한 관점이 총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문화적 문식력 실천의 중요한 활동이다. 매체 변용 및 생산은 개인 학습 활동이 아니라 동료 학습자와 함께하는 모둠 학습 활동으로서 감상문이나 비평문에 드러난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실천 양상을 좀 더 가시적이고 역동적으로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또한 고전 소설 작품에 대한 학습자 개인의 지식과 가치 판단을 동료 학습자와 의사소통을 통해 공유하면서 목표 문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해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80) 패러디 활동은 변용 정도와 장르의 각색 여부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시된 표는 국어 교육에서 활용되는 패러디 쓰기 활동을 매체 변용 활동으로 변형한 것이다. 조광국(2012), 「문학 교과 패러디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50집, 국어교육학회, 332쪽.

##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목표로 고전 소설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방법을 설계하여 한국어 학습자에게 실제로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전 소설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함의가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한 문화 능력, 상호 문화적 능력, 문화적 문식력 등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화적 문식력은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고급의 지적 능력으로 상정되고 있다. 문화적 문식력은 자문화는 물론 목표 문화와 관련된 지식의 이해와 가치 체계의 해석을 기반으로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때 지식과 가치는 소통과 실천을 전제로 한다. 즉 문화적 문식력은 문화 능력과 상호 문화적 능력에서 중시되는 문화 간 의사소통을 위한 목표 문화의 지식과 가치에 대한 이해와 비교, 평가 능력을 넘어 자문화에 대한 성찰과 개인적 성장, 목표 문화에 대한 해석, 목표 문화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문화 생산 능력까지 갖추는 것을 말한다.

본고는 문화적 문식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배경지식과 경험 지식, 가치와 가치 판단을 상정하였다. 배경지식은 목표 문화에서 공유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산물로서의 지식과 학습자의 배경지식으로 구분하였으며 경험 지식은 학습자가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말한다. 가치는 구체적 사물 속에 내재하는 인간 정신의 보편 타당한 당위 규범이며 가치 판단은 목표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가치 인식과 해석, 가치 체험에 기반하여 목표 문화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가치 판단은 학습자가 목표 문화에 대한 자세를 형성하는 가치 태도를 포함한다.

고전 소설에 반영된 문화적 문식력의 구성 요소는 사회·문화적 배경지식 및 사회 윤리와 가치 갈등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은 목표 문화의 지식과 관련된 교육 내용으로 전통 사회의 제도인 가부장제(家父長制)와 신분제(身分制), 관습인 관혼상제(冠婚喪祭), 세시 풍속, 민간 신앙, 언어·문화인 언어 예절, 관용 표현, 상징적 명명(命名) 등을 선정하였다. 사회 윤리와 가치 갈등은 목표 문화의 가치와 관련된 교육 내용으로 가치 갈등의 양상으로 윤리적 딜레마, 사회 제도와 개인의식의 갈등, 공동선(共同善)과 물질적 욕망의 갈등을 들었으며 인물의 가치 실현 방식으로는 자기희생, 관습과 제도의 모순에

대한 저항, 양보와 배려 등을 제시하였다.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설계는 학습자 중심의 관점에서 문화를 조직하고 정의한 ‘문화 경험(the cultural experience)’, ‘문화 지식(cultural knowings)’, ‘경험 학습 주기(the experiential learning cycle)’의 세 가지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 산물의 수용과 이해’, ‘문화 관점의 발견과 해석’, ‘문화 실행과 적용’의 세 측면을 고려하였다.

고전 소설 교수·학습은 배경지식으로서의 생활문화와 언어·문화, 윤리 규범과 인물의 가치 갈등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선정하고 작품 주요 장면의 선택적 강독, 인물에 대한 가치 판단 및 토론,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쓰기 및 매체 제작을 교수·학습 활동으로 구성하여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고전 소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실제로 한국어 학습자에게 적용하였으며 학습자가 이해하고 구성한 지식과 학습자가 판단하고 해석한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의 신장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은 목표 문화의 사회·문화적 맥락 파악을 통해 전통 사회의 제도를 인식했으며 자문화와 목표 문화의 관용적 표현을 인용하고 개인의 경험적 지식의 적용을 통해 가치의 내면화를 꾀했으며 상호 텍스트성에 기반해 문화 간 지식을 비교하였다. 둘째, 학습자들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으며 인물의 가치 행위 방식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졌으며 현대적 관점에서 전통 사회의 가치를 평가했고 메타적 성찰을 통해 목표 문화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였다. 요약하면 한국어 학습자는 자문화와 목표 문화에 대한 선지식과 배경지식, 상호 텍스트적 지식을 활용하고 적용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고 확장해 나갔으며 자문화와 목표 문화의 가치 규범을 토대로 목표 문화에 대한 가치 판단 및 해석을 하면서 자문화와 목표 문화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형성하였다.

고전 소설 교수·학습 실행의 성찰 결과로 교수·학습 내용의 초점화 및 심화, 상호 텍스트적 비교가 가능한 유사 제재의 확장, 고전 소설 변용 매체 자료의 활용 방안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고전 소설 교수·학습의 실행과 성찰을 토대로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수·학습 모형으로 지식의 수용과 이해 활동, 가치의 발견과 해석 활동, 지식과 가치의 적용 활동을 제시하였다. 지식의 수용과 이해 활동으로는 언어·문화적 해석 중심의 강독, 배경지식의 확인과 확장을 위한 질의응답을 제시하였으며 가치의 발견과 해석 활동으로는 목표 문화의

가치 평가 토론과 상호 텍스트성 관련 작품의 비교를 제안하고 지식과 가치의 적용 활동으로는 상호 텍스트성에 기반한 글쓰기와 제재 변용을 통한 매체의 활용과 생산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문화적 문식력이라는 광의의 의미와 범주를 지닌 개념을 지식과 가치에 한정하여 고전 소설을 대상으로 논의하였기 때문에 문화적 문식력의 실체를 온전히 살펴보지 못한 데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 간 이해와 소통, 학습자의 문화 경험과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문식력 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자료

#### (1) 주 자료

- 『경관 25장본 흥부전』,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2003), 『흥부전 전집』 2, 박이정.
- 『박동진 창본 흥부가』, 김진영·김현주·최혜진·이의철·강호봉 편저(1997), 『흥부전 전집』 1, 박이정.
- 『박봉술 창본 흥부가』, 김진영·김현주·최혜진·이의철·강호봉 편저(1997), 『흥부전 전집』 1, 박이정.
- 『신재효본 <박타령>(가람본)』,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2003), 『흥부전 전집』 2, 박이정.
- 『안성판 2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 『완판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 『춘향가(男唱)(星斗本B)』, 이병기 외(1974), 『申在孝 판소리 사설集(全)』, 민중서관.
-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소장 51장본 <흥보전>』,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진은진 편저(2003), 『흥부전 전집』 3, 박이정.
- 『한애순 창본 심청가』, 김진영·김현주·김영수·김지영(1997), 『심청전 전집』 2, 박이정.

#### (2) 보조 자료

- 金路·徐玉明 编注(1995), 『中国谚语』, 上海文艺出版社.
- 김부식, 『三國史記』, 신호열 역해(2013), 동서문화사.
- 『論語』, 동양고전연구회 역주(2016), 민음사.
- 『보살영락경(菩薩瓔珞經)』, 大正新修大藏經刊行會 編(1988), 東京:大藏出版株式會社.
- 『예기(禮記)』, 권오돈 譯解(2011), 『祭統』, 홍신문화사.
- 『이십사효(二十四孝)』, 임동석 역주(2012), 동서문화사.
-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2009), 『한국어 4』, 건국대학교 출판부.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2009), 『한국어 5』, 건국대학교 출판부.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한국어 6』, 건국대학교 출판부.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2004), 『한국어 중급Ⅱ』, 경희대학교 출판국.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2004), 『한국어 고급Ⅰ』, 경희대학교 출판국.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9), 『서강한국어 5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 4B』, (주)투판즈.  
 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1), 『한국어 고급 2』, 생각하는 백성.  
 성균어학원(2004), 『배우기 쉬운 한국어 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05), 『한국어 5』,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05), 『한국어 6』,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2), 『말이 트이는 한국어Ⅳ』,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2014), 『한양 한국어 5』, 한양대학교 출판부.

## 2. 국내 논저

강인애, 「구성주의 인식론, 발명된 현실」, 강인애 외(1999),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문음사.  
 강진욱, 「삼국 열녀전승의 성격과 그 서사문학적 의의」, 사재동 편(1995), 『韓國敍事文學史의 研究Ⅱ』, 중앙문화사, 421-439쪽.  
 강현석(2012), 「내러티브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 원리 탐구」, 『교육철학』 제48집, 한국교육철학회, 183-215쪽.  
 고규진(2004), 「다문화 시대의 문학 정전(正典)」, 『독일언어문학』 제23집, 한국독일언어학회, 83-99쪽.  
 고정희(2015), 「고전문학의 지속가능성과 고전문학 교육」, 『한국한문학연구』 제57집, 한국한문학회, 131-162쪽.  
 공위나(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심청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권순매(2009), 「中朝兩國數字象征意義的對比研究」, 연변대학 석사 학위 논문.  
 권오현(2003), 「문화와 외국어 교육-고등학교 독일어교육을 중심으로」, 『독어교육』 제28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7-34쪽.  
 권오현(2010), 「상호문화적 문학교육에서 ‘낯섦 이해’의 문제-세계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독어교육』 제49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7-37쪽.  
 김광순(1973), 「興夫傳의 主人公에 關한 人性分析」, 『淸溪金思燁博士頌壽紀念論叢』, 학문사, 507-533쪽.  
 김금숙(2014),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 목표와 수업 모형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김규진(2012), 「중국 대학 내 한국어과 문학 관련 수업의 현황과 실제-한국문학사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25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81-205쪽.
- 김낙효(1996), 『고전 소설과 문학 교육』, 박이정.
- 김대행(2008), 「언어 교육과 문화 인식」,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5권 제1호, 1-62쪽.
- 김동옥(1976), 『增補 春香傳研究』,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미진(2011),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판소리계 소설 『심청전』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제24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301-329쪽.
- 김석우·최태진(2014), 『교육연구방법론』, 학지사.
- 김성룡(1997), 「典範 학습과 중세의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제1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55-292쪽.
- 김성일(2000), 「태도 변화의 원리에 의한 가치관 교육」, 황정규 편, 『현대교육심리학의 전망』, 교육과학사, 379-442쪽.
- 김수연(2013), 「영웅소설을 활용한 한국적 지혜 읽기-『소대성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87-111쪽.
- 김연희·김영주(2010),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 기초 문식성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43호, 이중언어학회, 55-79쪽.
- 김영란(2009), 「문식 환경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 유형 분류와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제34집, 국어교육학회, 211-237쪽.
- 김영수(2000), 「筆寫本 沈清傳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김영수(2001), 『필사본 심청전 연구』, 민속원.
- 김영주(2008), 「전래동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다문화 및 재외동포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제80집, 한국국어교육학회, 97-124쪽.
- 김종철, 「春香傳의 根源說話」, 성산 장덕순 선생 간행위원회 편(1986), 『韓國文學史의 爭點』, 집문당, 511-520쪽.
- 김종철(1996),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창을 잃은 판소리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 김종철, 「<春香傳>의 磁場」, 간행위원회 편(1998), 『韓國 古典小說과 敍事文學(上): 韓國 古典小說史의 再照明』, 집문당, 431-453쪽.
- 김종철(2002), 『판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 김종철(2005), 「정전(正典)으로서의 『춘향전(春香傳)』의 성격」, 『선청어문』 제33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53-169쪽.
- 김종철(2008), 「홍부와 놀부 박의 화두(話頭)-행복과 욕망, 그리고 선악(善惡)」, 『선청어문』 제3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45-67쪽.
- 김종철(2012), 「희생과 보상의 거리-『심청전』 읽기의 한 방향」, 『국어교육연구』 제30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73-391쪽.

- 김종택(1987), 「한국인의 전통적인 언어예절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19집, 국어교육학회, 1-39쪽.
- 김진영(1978), 「<춘향가> 논의의 몇 가지 반성」, 『선청어문』 제9집 제1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1-36쪽.
- 김진영(2001), 「<홍부전>의 人物形象」, 『인문학연구』 제5집,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11-122쪽.
- 김태길(1977), 『李朝時代 小說에 나타난 韓國人의 價値觀』, 일지사.
- 김혜련(2013), 「다문화 가정 중등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교육연구』 제56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7-30쪽.
- 김호정·박재현·김은성·남가영(2007), 「문법 용어를 통한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 연구 (I): 음운」, 『국어교육학연구』 제28집, 국어교육학회, 275-300쪽.
- 남연(200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읽기 교육 연구-『韓國文學作品選讀』 과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23집, 국어교육학회, 241-271쪽.
- 남연(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사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제23집 4호, 국어교육학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3-177쪽.
- 문형진(2004), 「朝鮮初 婚俗 변천에 따른 법적 영향에 대하여」,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187-208쪽.
- 류덕제(2001), 「구성주의 관점의 문학 교육」, 『한국초등교육』 제18집, 한국초등교육학회, 133-167쪽.
- 박송희(2016), 「스토리텔링을 통한 한국 고전문학 교육방안-〈박씨전〉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52집, 우리문화회, 159-188쪽.
- 박은진(2015), 「국어교육 목표로서 ‘문화적 문식성’ 개념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연구』 제57집, 국어교육학회, 133-168쪽.
-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제15집, 국어교육학회, 23-54쪽.
- 박인기(2008), 「문화와 문식성(文識性)의 관계 맺기」,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78-98쪽.
- 박일영(1994), 「민간 신앙을 통해서 본 한국인의 종교성」, 『연구논문집』 제49집 1권,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9-25쪽.
- 박현진(2014),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비판적 문식성 교육 방안 연구-문학 텍스트를 활용하여」,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박희병, 「춘향전의 역사적 성격 분석-봉건사회 해체기적 특징을 중심으로」, 임형택·최원식 편(1985),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 비평사, 82-139쪽.
- 배상훈(2009), 「조선후기 분할상속관행의 지속에 대한 소고」, 『한국민족문화』 제34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3-235쪽.

- 배현숙(2007),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문식성(literacy) 격차 해소 방안」, 『언어와 문화』 제3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07-120쪽.
- 변지윤(2011), 「문화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홍부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서대석(1975), 「興夫傳의 民譚의 考察」, 『국어국문학』 제67호, 국어국문학회, 23-46쪽.
- 서덕희(2009), 「문화와 교육 개념의 실존성: ‘살아 있는’ 교육인류학을 위한 소고」, 『교육인류학연구』, 제12권 제2호, 1-44쪽.
- 서보영(2014), 「고전 소설 변용을 통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연구-학습자의 춘향전 변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33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75-101쪽.
- 서유경(2002), 「공감적 자기화를 통한 문학교육 연구-〈심청전〉의 이본 생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서유경(2009), 「판소리를 통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연구-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28집, 판소리학회, 171-196쪽.
- 서유석(2009), 「『춘향전』 ‘십장가’ 연구-춘향 항거 의미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2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49-282쪽.
- 서유석·장만호(2015), 「춘향가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배달말』 제57집, 배달말학회, 401-426쪽.
- 설성경(1999), 「19세기형 개작장편 남원고사에 나타난 생활문화의 형상화」, 『한국고전소설의 본질』, 국학자료원, 189-308쪽.
- 설중환(1985), 「<홍부전>의 상징성과 구조적 의미」, 『어문논집』 제25권, 안암어문학회, 649-667쪽.
- 성기철(2004), 「언어와 문화의 접촉-언어문화」, 『한국언어문화학』 제1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05-123쪽.
- 성기철(2004), 「언어문화의 보편성과 개별성」, 『한국언어문화학』 제1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31-149쪽.
- 성현경, 「심청은 효녀인가」, 성산 장덕순 선생 간행위원회 편(1986), 『韓國文學史의 爭點』, 집문당, 531-539쪽.
- 성현경, 「<남원고사>본 춘향전의 구조와 의미」, 김병국·김대행·김진영·정병헌 편(1996),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이정, 356-392쪽.
- 신경일(1994),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 간의 관계」, 『연구보』 제29집,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37쪽.
-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심상민(2011),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및 내용,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48집, 국어교육학회, 115-140쪽.

- 심상민(2014), 「다문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의 동향 분석-(한)국어교육 학위 논문의 연구 경향 분석」, 『새국어교육』 제98집, 한국국어교육학회, 153-183쪽.
- 양미경(1992), 「質問의 教育的 意義와 그 研究 課題」,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양민정(2003), 「고전 소설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2호, 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79-303쪽.
- 양민정(2017), 「<춘향전>과 <춘향과 춘향의 이야기>의 애정담 및 여성 의식 비교 연구」, 『외국문학연구』 제6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301-327쪽.
- 오지혜(2010), 「한국어 학습자의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문학 제재 연구-현대 시 작품을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제18집, 시학과 언어학회, 207-225쪽.
- 오지혜(2012),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간 리터러시 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9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73-197쪽.
- 오출세(1990), 「고전 소설의 출생의례 考」, 『韓國文學研究』 제1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49-204쪽.
- 오현아·이슬비(2008), 「TV 광고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문식성」,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한중인문학회, 378-392쪽.
- 옥현진(2009), 「정체성과 문식성」, 『국어교육학연구』 제35집, 국어교육학회, 361-386쪽.
- 윤경희(1993), 「경관 25장본 『홍부전』 연구-작가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4집, 판소리학회, 65-88쪽.
- 윤여탁(2013), 「다문화 사회의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전략-문학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94호, 한국국어교육학회, 7-29쪽.
- 윤여탁(2015), 「한국에서의 문식성 교육의 반성과 전망」, 『국어교육연구』 제3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535-561쪽.
- 윤종선(2011), 「<심청전>의 현대적 수용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이광규(1983), 「韓國의 家族制度」, 『한국문화인류학』 제15집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11-21쪽.
- 이광복(1999), 「구성주의 문예학과 그 문학교수법적 함의」, 『독어교육』 제17집, 한국독어독문교육학회, 231-254쪽.
- 이광복(2007), 「문화적 기억과 상호텍스트성, 그리고 문학교육」, 『독어교육』 제39집, 한국독어독문교육학회, 29-51쪽.
- 이광재(2007),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 한국문학 교육 현황 연구」, 『한국학연구』 제17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77-192쪽.
- 이명현(2014), 「외국인의 한국문화 교육에서 고전 소설의 가치와 학습 방향-<춘향전>, <심청전>, <홍부전>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7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29-252쪽.

- 이복규(2007), 「문화: 한국인의 이름에 대하여」, 『온지논총』 제16집, 온지학회, 363-388쪽.
- 이상구(2013), 「반응중심 문학교육과 구성주의 문학교육의 기본 관점과 교육 내용 비교 고찰」, 『문학교육학』 제40호, 한국문학교육학회, 333-362쪽.
- 이상택, 「홍부 놀부의 人物評價」, 장덕순 외(1995),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540-549쪽.
- 이상택, 「성격을 통해 본 춘향전」, 김병국·김대행·김진영·정병헌 편(1996),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이정, 220-236쪽.
- 이상택(2003), 『한국 고전 소설의 이론』, 새문사.
- 이상택 외 지음(2005), 『한국 고전 소설의 세계』, 돌베개.
- 이상택·서대석·성현경 編者(1987), 『韓國古典小說』, 계명대학교 출판부.
- 이상현(2011), 「문허진 <심청전> 정전화의 계보-알렌(H. N. Allen), 호소이(細井肇), 게일(J. s. Gale) <심청전> 번역본의 연대기」, 『고소설연구』 제32집, 한국고소설학회, 405-456쪽.
- 이석주(2009), 「한국 전통 사회와 언어예절」, 『화법연구』 제14집, 한국화법학회, 9-28쪽.
- 이인경(2006), 『열녀설화의 재해석』, 월인.
- 이정원(2013), 「<심청전>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한국고전연구』 제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1-46쪽.
- 이재기(2009), 「문학교육과 문식성 신장」, 『독서연구』 제22집, 한국독서학회, 115-158쪽.
- 이창기(2010), 「성리학의 도입과 한국가족제도의 변화-종법제도의 정착과 부계혈연집단의 조직화 과정」, 『민족문화논총』 제46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05-137쪽.
- 이향만(2013), 「출산의례와 생명의식」, 『생명연구』 제29집,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원, 127-154쪽.
- 이효석(2015), 「유럽적 보편주의 비판과 보편적 보편주의의 조건-다양한 중심들과 응구기와 시옹오의 예술론」, 『코기토』 제77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44-69쪽.
- 인권환(1975), 「興夫傳의 說話的 考察-根源說話의 探索과 小說化 過程을 中心으로」, 『어문논집』 제16집 1호, 안암어문학회, 11-39쪽.
- 임현아·목계연(2016), 「여성영웅소설 콘텐츠의 한국 문화 교육 적용 연구-〈정수정전〉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29집, 돈암어문학회, 87-123쪽.
- 임형택(1984), 「홍부전의 역사적 현실성」,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71-213쪽.
- 임형택, 「홍부전의 現實性에 關한 研究」, 이상택·서대석·성현경(1987), 『한국고전 소설』, 계명대학교 출판부, 243-278쪽.
- 장건(1998), 「『이십사효(二十四孝)』와 中國傳統孝文化」, 『韓國思想史學』 제10집 1호, 한국사상사학회, 223-243쪽.

- 장덕순(1955), 「興夫傳의 再考」, 『국어국문학』 제13집, 국어국문학회, 45-58쪽.
- 장덕순, 「沈淸傳研究」, 이상택·서대석·성현경 編者(1987), 『韓國古典小說』, 계명대학교 출판부, 156-169쪽.
- 장석규(1998), 『심청전의 구조와 의미』, 박이정.
- 장순희(2013), 「문화적 맥락 읽기를 통한 고전 소설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정선희(2013),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가치관 교육 제재 확장을 위한 시론-〈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9-60쪽.
- 정지영(2009), 「조선시대 첩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장치들-법전류의 첩 관련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65-92쪽.
- 정출현(1996), 「고전 소설에서의 현실성과 낭만성: 『심청전』의 민중정서와 그 형상화 방식」, 『민족문학사연구』 제9집 1호, 민족문학사학회, 140-170쪽.
- 정출현(1995),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여성 형상과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제7집 1호, 민족문학사학회, 156-189쪽.
- 정출현(2003), 「탐욕이 넘쳐나는 시대에 『홍부전』 다시 읽기」, 『문학과 경계』 제3집 2호, 문학과경계사, 288-301쪽.
- 정출현(2003), 「〈심청전〉의 전승 양상과 작품 세계에 대한 고찰」, 『한국민족문화』 제22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39-166쪽.
- 정충권(2003), 「〈홍부전〉 근원설화론」, 『홍부전 연구』, 월인, 15-29쪽.
- 정충권(2003), 「경판 〈홍부전〉과 신재효 〈박타령〉의 비교」, 『홍부전 연구』, 월인, 93-130쪽.
- 정하영, 「〈심청전〉의 주제고」, 이상택·성현경 편(1988), 『한국고전 소설연구』, 새문사, 452-472쪽.
- 정하영(2003), 『춘향전의 탐구』, 집문당.
- 정하영(2006), 『춘향전』, 신구문화사.
- 정향진(2008), 「문화적 과정으로서의 교육-교육인류학을 위한 비판적 고찰」, 『교육인류학연구』 제11권 1호, 73-105쪽.
- 정혜승(2008), 「문식성(literacy)의 변화와 기호학적 관점의 국어과 교육과정 모델」, 『교육과정연구』 제26집, 한국교육과정학회, 149-172쪽.
- 조광국(2002), 「법제적 질서와 사회경제적 변화의 충돌 측면에서 본 『춘향전』」 <완판 84장본>의 작품적 가치」, 『국어교육』 108호, 한국어교육학회, 429-457쪽.
- 조광국(2004), 『한국 문화와 기녀』, 월인.
- 조광국(2006),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 조광국(2012), 「문학 교과 패러디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50집, 한국어교육학회, 325-352쪽.

- 조국현(2003), 「메타 현상과 언어 사용의 성찰성에 관하여」, 『독어교육』 제27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161-183쪽.
- 조동일(1971), 「<심청전>에 나타난 비장과 골계」, 최동현·유영대 편(1999), 『심청전 연구』, 태학사, 283-307쪽.
- 조동일, 「<홍부전>의 양면성-판소리계 소설 연구의 방법론 모색을 위한 一試攷」, 인권환 편저(1991), 『홍부전연구』, 집문당, 253-315쪽.
- 조수진·윤희완·진대연(2008),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 『이중언어학』 제37집, 이중언어학회, 235-264쪽.
- 조용환(2015), 「현장연구와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 제18집 4호, 한국교육인류학회, 1-49쪽.
- 조정옥(1999), 『감정과 에로스의 철학: 막스 셸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 조춘호(1993), 「口碑 友愛說話의 樣相과 意味」, 『論文集』 제11집 1호, 경산대학교, 3-24쪽.
- 조희웅(1999), 『고전 소설이본목록』, 집문당.
- 주재환·윤보은(2015), 「KSL 학습자 다문화 문식성 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방안 연구-윤동주 시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28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5-34쪽.
- 증천부(2014), 「고전 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심청전』을 대상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 27, 한국어문학 국제학술 포럼, 153-174쪽.
- 진은진(2008), 「<홍부전>에 나타난 악과 세속적 욕망」, 『판소리연구』 제26집, 판소리학회, 229-252쪽.
- 최기숙, 「춘향전의 고전적 가치와 미학」, 향사설성경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2004), 『춘향전 연구의 과제와 방향』, 국학자료원, 257-325쪽.
- 최문규 외(2003), 『기억과 망각: 문학과 문화학의 교차점』, 책세상.
- 최운식(1982), 『沈淸傳研究』, 집문당.
- 최운식(1984), 『심청전』, 시인사.
- 최인자(2008), 「문학 독서의 사회·문화적 모델과 ‘맥락’ 중심 문학교육의 원리」, 『문학교육학』 제25집, 한국문학교육학회, 427-449쪽.
- 최재서(1957), 『文學原論』, 春潮社.
- 최지현(2007), 「매체언어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탐구-문화, 매체 문식성 개념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28집, 국어교육학회, 143-181쪽.
- 최철병(1998), 「暗黙智-個人과 司誨 속의 傳統的 實踐智」, 『神學展望』 제120집,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117-135쪽.
- 최홍원(2014), 「문학 경험의 구조와 기제 탐구 서설」, 『문학교육학』 제45호, 한국문학교육학회, 513-546쪽.



- 최홍원(2015), 「문화적 문식성의 교육적 실현에 대한 방법적 회의」, 『국어교육연구』 제3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595-633쪽.
- 한정선·김영수·주영주·강명화·조일현·이정민(2014), 『21세기 교사를 위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과학사.
- 한혜경(2009), 「문화현상으로 바라 본 청대의 <홍루몽> 열풍」, 『중국소설논총』 제30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73-297쪽.
- 황패강, 「춘향전 연구-전달의 두 가지 측면」, 한국고소설연구회 편(1991), 『춘향전의 종합적 고찰』, 아세아문화사, 183-233쪽.
- 황혜진(2005),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고전 소설과 영상변용물의 비교 연구- <장화홍련전>과 영화 <장화, 홍련>을 대상으로」, 『국어교육』 제116집, 한국어교육학회, 375-407쪽.
- 허경진·이숙(2012), 「19세기 러시아에서 출판된 조선어독본 『춘향전』에 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제45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24쪽.
- 허원기(2002), 「심청전 근원 설화의 전반적 검토-元洪莊 이야기의 위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5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71-88쪽.
- 허원기(2006), 「홍부전의 인성론적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제19집, 한민족문화학회, 163-190쪽.
- Tran Thi Phuong(2013), 「베트남대학 고학년 한국 언어문화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춘향전> 교육 연구: <춘향전>의 춘향과 <취교전>의 취교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제26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123-172쪽.

### 3. 국외 논저

- 王學奇·王靜竹·吳振清 校注(1990), 『關漢卿全集校注』, 河北教育出版社, 하경심 옮김 (2008), 『두아 이야기/악한 노재량』, 지만지.
- 張奇(2014), 「中俄文化中的數字象征」, 『文化教育』, 鴨綠江.
- Aronowitz, S., Giroux, H. A.(1991), *Postmodern Education: Politics, Culture, and Social Critic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ard, M. & Henderson, J.(1995), *Classics*, 박범수 옮김(1999), 『클래식』, 동문선.
- Benedict, R.(1960), "The science of custom", *Patterns of Culture*, Mentor Book.
- Berns, M.(1990), *Contexts of Competence: Social and Cultural Considerations in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전한성 옮김(2012), 『의사소통능력과 맥락: 의사소통 언어 교수에서의 사회·문화적 고찰』, 한국문화사.
- Bonnie, M. D.(2014), *Cultural literacy for the common core*, Solution Tress Press.

- Borich, G. D.(1996), *Effective teaching methods(3rd ed.)*, Prentice-Hall, Inc.
- Brooks, J. G. & Brooks, M. G.(1993), *In Search of Understanding: The Case for Constructivist Classroom*, 추병완·최근순 옮김(1999), 『구성주의 교수·학습론』, 백의.
- Brownhill, R. J.(1983), *Education and the Nature of Knowledge*김인용·김희용 공역 (2013), 『교육과 지식의 본질』, 교육과학사.
- Bruner, J.(1996), *The culture of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강현석·이자현 역 (2005), 『교육의 문화』, 교육과학사.
- Byram, M.(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Multilingual Matters.
- Crawford-Lange, L. M., & Lange, D. L.(1987), “Integrating Language and Culture: How to Do It”, *Theory into Practice* 26(4), pp.258-266.
- D'Andrade(1984), “Cultural meaning system”, Shweder, R., & Levine, R.(eds),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NY: Cambridge University.
- Dewey, J.(1916),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이홍우 역(1996), 『民主主義와 教育』, 교육과학사.
- Dilthey, W.(1979), “Erleben, Ausdruck und Verstehen”,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이한우 옮김(2002), 『체험·표현·이해』, 책세상.
- Fish, S.(1980),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ies*, Harvard University.
- Flick, U.(1995),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임은미 외 옮김(2011), 『질적 연구 방법』, 한울 아카데미.
- Fraenkel, J. R., *How to Teach About Values*, 송용의 역(1996), 『가치 탐구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과학사.
- Gardner, H.(1999), “Toward Good Thinking On Essential Questions”, *New York Times*, September 11, p. 15.
- Gardner, R. C.(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s and motivation*, Edward Arnold Ltd.
- Geertz, C.(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Glaserfeld, E. von(1995), *Radical constructivism: A way of knowing and learning*, The Falmer Press.
- Goodenough, W. H.(1981), *Culture, Language, and society*, The Benjamin/Cummings Publishing Company, Inc.
- Hamlyn, D. W.(1978), *Experience and the Growth of Understanding*, 이홍우 외 역 (1991), 『經驗과 理解의 成長』, 교육과학사.
- Harris, T. L. & Hodges, R. E.(eds.)(1995), *The literacy Dictionary*, NCTE.

- Hersh, R. H. & Miller, J. P. & Fielding, G. D.(1980), *Models of Moral Education: An Appraisal*, 강두호 옮김(2013), 『도덕 교육의 6가지 모형』, 역락.
- Hessen, J.(1959), *Lehrbuch der Philosophie, Zweiter Band: Wertlehre, München-Basel: Ernst Reinhardt Verlag*, 진교훈 옮김(1992), 『가치론』, 서광사.
- Hirsch, Jr., E. D.(1988),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Vintage Books.
- Hirsch, Jr., E. D.(ed.)(1993), *What Your 6th Grader Needs to Know*, Core Knowledge foundation.
- Hirsch, Jr, E. D. & Kett, J. F. & Trefil, J.(2002), *The New Dictionary of Cultural Literacy*, Houghton mifflin company.
- Hobsbawm, E. & Ranger, T.(Eds.)(1983), Hobsbawm, E., “Introduction: Inventing Tradition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14.
- Hutcheon, L., *A Theory of Parody*, 김상구·윤여복 옮김(1998),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 Jenks, C.(1993), *Culture*(in Key Ideas Series), 김윤용 옮김(1996), 『문화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 Judith, A. L.(2011), *Envisioning Knowledge: Building Literacy in the Academic Discipline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Kolb, D. A.(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Prentice-Hall inc.
- Kramsch, C.(1993),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 Kramsch, C.(1998), “The privilege of intercultural speaker”, Byram, M. & Fleming, M.(eds.), *Language Learning in Intercultural Perspective: Approaches through drama and ethn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amsch, C., “Culture in Language Learning: A View From the United States”, Kees de Bot & Ginsberg, R. B. & Kramsch, C.(1991), *Foreign Language Research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pp.217-240.
- Lewin, K.(1946). “Action Research and Minority Problems”, *Journal of Social Issues*, 2(4), pp.34-46.
- McKernan, J.(2008), *Curriculum and imagination: Process theory, pedagogy, and action research*, London: Routledge.
- Miller, B.(1979), “‘Culture’ or ‘culturing’?”, *Journal of Cultural and Educational Futures*, 1(1), pp.7-12.
- Moran, P. R.(2001), *Teaching Culture: Perspectives in Practice*, Heinle.

- Oakeshott, M.(1962), *Rationalism in Politics and other essays*, London: Methuen.
- Oakeshott, M.(2002), *Experience and Its Mod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i, Y.(1990), “Culture, Education, and Schooling”, *Cultural Foundations of Education*,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Polanyi, M.(1958), *The Study of Ma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lanyi, M.(1958),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표재명·김봉미 역(2001), 『개인적 지식: 후기 비판적 철학을 향하여』, 아카넷.
- Provenzo, Eugene F. Jr.(2005), *Critic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Ought to Know*, Paradigm Publishers.
- Purves, A. C. “General Education and Search for a Common Culture”, Westbury, I. & Purves, A. C.(eds.)(1988), *Cultural literacy and the idea of general education*,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 Purves, A. C.(1991), “Intermediate Texts, Responsive Readers, and the Idea of Difficulty in Literature”, *The Idea of Difficulty in Literatur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157-170.
- Purves, A. C. & Papa, L. & Jordan, S.(1994), *Encyclopedia of English studies and Language Arts: A project of the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Scholastic, Inc.
- Rosenberg, M. J. & Hovland, C. I.(1960),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attitudes”, Rosenberg, M. J. & Hovland, C. I.(Ed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p.1-14.
- Rosenblatt, L., *Literature as exploration*, 김혜리·엄해영 역(2006), 『탐구로서의 문학』, 한국문화사.
- Ryle, G.(1949), *The concept of mind*, NY: Barnes & Noble, Inc.
- Samovar, L. A. & Porter, R. E.(2001),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4th)*, Wadsworth/Thomson Learning, Inc.
- Scheler, M., 조정옥 옮김(2006),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아카넷.
- Tyler, R.(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rnke, G.(1987), *Gadamer: Hermeneutics, Tradition and Reason*, 이한우 옮김(1999), 『가다머: 해석학, 전통 그리고 이성』, 민음사.
- Wax, M. L.(1993), “How culture misdirects multiculturalism”, *Anthropology & Education Quarterly*, 24(2),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 <부록 1>

### [1] 심청의 출생

곽씨 부인의 품안으로 들어와서 놀라 깨어 보니 남가일몽(南柯一夢)이었다. 즉시 봉사님을 깨워 꿈 이야기를 하니 두 사람의 꿈이 서로 같았다. 그 날 밤에 어떻게 했던지, 그 달부터 아이를 뱀 기미가 있었는데 곽씨 부인은 마음을 착하게 하고, 바르지 않은 자리에는 앉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으며, 음란한 소리는 듣지 않고, 나쁜 것은 보지 않으며, 가장자리에는 서지 않고, 비뚤어진 자리에는 눕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열 달이 되니 하루는 아이를 낳을 기미가 보였다. “애고 배야, 애고 허리야!”

심봉사가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놀라서 쥔 한 줌을 깨끗이 골라서 깔고 정화수 한 사발을 소반에 받쳐 놓고 단정히 꿰어 앉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三神) 제왕님께 비나이다, 곽씨 부인 늙은 나이에 낳는 아이니 현 치마에 오이씨 빠지듯 순산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향기가 방에 가득하고, 오색 안개가 싸여 정신이 가물가물한 가운데 아이를 낳으니 딸이었다.

심봉사 행동을 보시오. 땃줄을 끊고 아이를 눕혀 놓고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는데, 곽씨 부인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물었다. “여보시오, 봉사님, 아들딸 가운데 무엇입니까?” 심봉사가 크게 웃고 아기의 아랫도리를 만져 보니, 손이 나뭇배 지나듯 거침없이 지나가니, “아마도 목은 조개가 햇조개를 낳았나 봅니다.” 곽씨 부인이 서러워하면서 말했다. “공을 들여 늙어서 얻은 자식이 딸입니까?” “마누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첫째는 순산이요, 딸이라도 잘 두면 어느 아들과 바꾸겠습니까? 우리 이 딸 곱게 길러서 예절 먼저 가르치고, 바느질, 베짜기를 두루두루 가르쳐서 요조숙녀가 되면 좋은 배필 찾아서 사이 좋게 살게 되고, 자손이 번성하면 외손자가 대신 제사를 못 지내겠습니까?” 첫 국밥 빨리 지어 삼신상에 받쳐 놓고 옷매무새 바로 하고 두 손 들어 빌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십삼천 도술천 제석님께 바라니, 삼신 제왕님네 모두 한마음으로 굽어보십시오.”<sup>281)</sup>

#### <학습 활동>

1. 이해가 안 가는 어휘나 문장, 표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쓰십시오.
2. 곽씨 부인은 임신한 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 곽씨 부인은 딸을 낳은 것을 왜 서러워했습니까?
4. 삼신님께 기원 드리는 풍속을 통해 알 수 있는 한국인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281) 「완판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 [2] 꺾씨 부인의 장례

이렇게 슬퍼할 때 도화동 사람들이 남녀노소 없이 모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착하고 얌전하던 꺾씨 부인 불쌍하게 죽었구나. 우리 동네 백여 집이 십시일반으로 장례나 치러 주자.” 여러 사람들이 수의와 관을 준비하여 양지바른 곳을 골라서 사흘 만에 상여가 나갈 때 슬픈 소리, “원어 원어 원어리 넘차 원어. 북망산이 멀다더니 건넌산이 북망이네. 원어 원어 원어리 넘차 원어. 황천길이 멀다고 하더니 방문 밖이 황천(저승)이라. 원어 원어. 불쌍하다 꺾씨 부인, 행실도 얌전하고 제주도 기이 하더니, 늙지도 젊지도 아니해서 죽었구나. 원어, 원어, 원어리 넘차, 원어. 어화 너 화 원어.” 이리저리 건너갈 때 심봉사가 행동 보십시오. 어린아이 강보에 싼 채 귀덕 어미에게 맡겨 두고, 지팡막대를 짚고 논과 밭을 따라 상여 뒤를 붙잡고, 목은 쉬어 크게 울지는 못하고, “여보 마누라. 내가 죽고 마누라가 살아야 어린 자식 살려 내지, 천하 천지 몸쓸 마누라. 그대 죽고 내가 살아 초칠일을 못 산 어린 자식, 앞 못 보는 내가 어떻게 키워 낼 것인가. 애고 애고.” 서럽게 울면서 산소에 도착하여 장사 지내고 무덤을 만든 후에, 심봉사가 제사를 지내며 제문을 지어 읽었다. (….) 제문을 모두 읽더니, 옆에서 “애고 애고, 이게 웬일인가. 가오, 가오, 날 버리고 가는 부인, 한탄하여 무엇하겠습니까. 황천(저승)으로 가는 길에 주막이 없으니 누구 집에 자고 가겠습니까. 가는 데나 내게 말해 주십시오.” 매우 슬프게 우는데 장례 일하러 온 손님들이 말려서 돌아온다.<sup>282)</sup>

### <학습 활동>

1. 이해가 안 가는 어휘나 문장, 표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쓰십시오.
2. 꺾씨 부인이 죽은 후 심봉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3. 심봉사를 돕는 마을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 심봉사의 일을 도와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집』 3, 박이정, 213-214쪽, 윤문.

282) 「완관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218-219쪽, 윤문.

### [3] 심봉사의 양육과 심청의 봉양

심봉사는 매우 슬퍼하다가 마음을 돌려 생각하였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올 수 없으니 이 자식이나 잘 키우리라.’하고, 어린아이 있는 집을 차례로 물어 동냥젖을 얻어먹였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는 못 하고 귀는 밝아서 눈치로 가늠하고 앉아 있다가, 아침 해가 뜨면 우물가에서 들리는 소리를 얼른 듣고 나간다. “여보시오 아 주머님, 여보 아씨님네, 이 자식 젖을 좀 먹여 주시오. 나를 보아서, 또 우리 마누라 살았을 때 인심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모른 척하며 어미 없는 어린 것이 불쌍하지 아니합니까. 댁네 귀하신 아기 먹이고 남은 젖 한 통만 먹여 주십시오.” 하니, 누가 아니 먹여 줄까. 또 육칠월 김매는 여인 쉬는 잠을 찾아가서 애걸하여 얻어먹이고, 또 시냇가에 빨래하는 데도 찾아가면 어떤 부인은 아이를 달래다가 따뜻이 먹여 주며 다음에도 찾아오라 하고, 또 어떤 여인은 “이제 막 우리 아기 먹었더니 젖이 없어요.” 한다.

심청에게 젖을 많이 얻어먹인 후에 아기 배가 볼록하면, 심봉사는 좋아하며 양지 바른 언덕 밑에 쪼그려 앉아 아기를 달랜다. “아가 아가 자느냐. 아가 아가 웃느냐. 어서 커서 너의 어머니같이 어질고 똑똑하여 효행 있어 아비에게 귀한 일을 보여 주어라. 어느 할머니 있어 보아 주며, 어느 외갓집이 있어 맡길 수 있나.” 하루라도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아이 젖을 얻어먹인 후 눕혀 놓고 나서 사이사이 동냥한다. 이렇게 지내면서 매월 초하루 보름과 소상, 대상, 기제사를 걱정 없이 지냈다. 또 심청은 장래 귀하게 될 사람이라서 천지 귀신이 도와주고 여러 부처와 보살이 남몰래 도와주어 잔병 없이 자라났다. 세월은 물 흐르듯 하여 어느덧 심청이 예닐곱 살이 되었다. 심청은 얼굴이 아름답고 일을 빠르게 하고, 효행이 뛰어나고 생각과 의견이 탁월하고 마음씨가 어질었다. 아버지의 아침저녁 공양과 어머니의 제사를 법도대로 하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하루는 아버지께 여쭙는데 “하찮은 짐승 까마귀도 저녁이 되면 먹을 것을 물어다가 제 어미를 먹일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짐승만 못 하겠습니까? 아버지 눈 어두우신데 동냥하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넘어져서 다치기 쉽고, 비바람 부는 곳은 날과 눈서리 치는 추운 날이면 병이 나설까 밤낮으로 걱정됩니다. 제 나이 예닐곱이나 되었는데 낡아서 길러 주신 부모 은혜를 지금 갚지 못하면 나중에 슬퍼해도 어떻게 갚겠습니까? 오늘부터 아버지께서 집을 지키시면 제가 나서서 밥을 빌어다가 끼니 걱정 덜게 하겠습니다.”<sup>283)</sup>

#### <학습 활동>

1. 이해가 안 가는 어휘나 문장, 표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쓰십시오.
2. 심봉사는 심청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3. 심봉사와 심청은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4. 심봉사와 심청은 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합니까?



#### [4] 심봉사의 몽운사 시주 약속

심봉사는 얼굴 가득 걱정으로 가득 차서 밥 먹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서 그러세요? 늦게 왔다고 화가 나서 그러세요?” “아니다. 너 알아 쓸데없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저만 믿고 저는 아버지만 믿어서 큰일, 작은 일을 모두 의논해 왔는데 오늘 말씀이 ‘너 알아 쓸데없다.’ 하시니, 부모 근심은 곧 자식의 근심입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 제 마음이 섭섭합니다.” 심봉사가 그제야 “내가 어떻게 너를 속일 수 있겠니? 만일 네가 알게 되면 네가 걱정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다. 아까 너를 기다리다가 해가 저물도록 안 와서 너를 찾아 나갔다가 한 길이 넘는 개천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었다. 그런데 뜻밖에 몽운사 화주승이 나를 건져 살려 놓고 ‘공양미 삼백 석을 진심으로 시주하면 생전에 눈을 떠서 천지 만물을 볼 것입니다.’ 하더라. 찾김에 적었으나 중을 보내고 생각하니, 한 푼 돈 한 톨 쌀이 없는 처지에 삼백 석이 어디서 난단 말이나? 오히려 후회한다.” 심청이 그 말을 반갑게 듣고 아버지를 위로하였다. “아버지 걱정 마시고 진지나 잡수십시오. 후회하면 진심이 못 되웁니다. 아버지 어두운 눈을 떠서 천지 만물을 보신다면 공양미 삼백 석을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하여 몽운사로 올리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런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심청이 여쭙기를, “왕상은 한겨울에 얼음을 깨서 잉어를 얻었고 광거라는 사람은 부모의 반찬을 해 놓으면 제 자식이 상머리에 앉아 먹는다고 그 자식을 산 채로 물어 하다가 금항아리를 얻어 부모를 봉양했다고 합니다. 제 효성이 비록 옛 사람만 못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니 공양미는 자연 얻을 길이 있을 테니까 깊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고 위로하였다.<sup>284)</sup>

#### <학습 활동>

1. 이해가 안 가는 어휘나 문장, 표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쓰십시오.
2. 공양미 시주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3. 공양미 삼백 석 시주에 대한 심청과 심봉사의 생각은 어떻게 다릅니까?
4. 심청은 심봉사를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283) 「완관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220-221쪽, 운문.

284) 「완관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229-230쪽, 운문.

## [5] 부녀 이별

심청이 아버지의 신세를 생각하며 저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상을 치웠다. 심청이 사당에 이별 인사하려고 들어가기 전에 다시 세수하고 사당 문을 가만히 열고 이별 인사한다. “못난 소녀 심청이는 아비 눈 뜨기를 위하여 인당수 제물로 팔려 갑니다. 이 일 때문에 조상 제사를 끊게 되지만 영원히 추모하는 마음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울며 이별 인사하고 사당 문 닫은 뒤에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을 잡고 기절한다. 심봉사가 깜짝 놀라서 “아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 차리고 말하여라.” 심청이 여쭙는다. “제가 못난 딸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공양미 삼백 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습니까. 남경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까 저를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심봉사가 이 말을 듣고 “참말이니, 참말이니? 애고 애고, 이게 웬 말인가? 못 간다, 못 간다, 네가 나에게 묻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한단 말이나?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는 당연한 일이지만 자식 죽여 눈을 뜨면 그게 차마 할 일이나? 너의 어머니 늦게야 너를 낳고 초이레 안에 죽은 뒤에 눈 어두운 늙은 것이 품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차하게 말하면서 동냥젖 얻어먹여 네가 이만큼 자랐다. 내 아무리 눈 어둡지만 너를 눈으로 알고, 너의 어머니 죽은 뒤에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나? 아내 죽고 자식 잃고 내 살아서 무엇할까?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너를 팔아 눈을 뜬다면 무엇을 보려고 눈을 뜨겠느냐? 어떤 놈의 팔자면 늙은 홀아비가 된단 말이나? (…)

심청이 아버지를 붙들고 울며 위로하였다.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시고, 착한 사람 구하셔서 아들 낳고 딸을 낳아 대를 이으십시오. 못난 딸자식은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평안히 계십시오.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sup>285)</sup>

### <학습 활동>

1. 이해가 안 가는 어휘나 문장, 표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쓰십시오.
2. 심청을 떠나보내는 심봉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3.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판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4. 심청은 왜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효도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285) 「완관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234-235쪽, 운문.

## [6] 부녀 상봉

황후께서 반가워하면서 “가까이 오라.” 하시니 상궁이 명을 받아 심봉사의 손을 끌어 별전으로 들어간다. 심봉사는 무슨 영문인 줄 모르고 겁을 내어 더듬거리는 걸음으로 별전에 들어가 계단 아래 섰는데 흰 머리카락은 듬성듬성하고 심 맹인의 얼굴은 몰라보게 변했다. 황후가 삼 년 동안을 용궁에서 지내다 보니, 아버지의 얼굴이 가물가물하여 묻는다. “아내와 자녀가 있으십니까?” 심봉사가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한다. “아무 해에 아내를 잃고, 초칠일이 못 지나서 어미 잃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눈이 어두운 몸으로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동냥것을 얻어먹여 간신히 길렀습니다. 자라면서 효행이 뛰어나서 옛사람보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쁜 중이 와서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하니까 제 딸자식이 듣고, ‘어떻게 아버 눈 뜬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남경 뱃사람들에게 삼백 석에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제물로 빠져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열다섯입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으니,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으니 죽여주십시오.”

황후께서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신다. 심봉사가 말을 마치자마자 황후께서 버선발로 뛰어내려 와서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 제가 인당수에 빠져 죽었던 심청입니다.” 심봉사가 깜짝 놀라서 “이게 웬 말이냐?” 하였다. 얼마나 반가운지 뜻밖에 심봉사의 두 눈에서 딱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두 눈이 활짝 밝아진다. 그 자리에 가득 모여 있던 맹인들도 심봉사 눈 뜨는 소리에 일시에 눈들이 뜨었다. 희번덕, 짹, 까치 새끼 밥 먹이는 소리 같았다. 많은 소경들이 밝은 세상을 보게 되고, 집 안에 있는 소경, 계집 소경도 눈이 다 밝아지고, 배 안의 맹인 배 밖의 맹인, 반소경, 청맹과니까지 모조리 다 눈이 밝아졌으니, 맹인에게는 천지개벽(天地開闢)이나 다름없었다.<sup>286)</sup>

### 〈학습 활동〉

1. 이해가 안 가는 어휘나 문장, 표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쓰십시오.
2. 심청과 심봉사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3. 심청과 심봉사의 상봉을 보면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4. 심봉사 외에 다른 맹인들까지 눈을 뜨게 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286) 「완판 71장본 심청전」,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편저(1998),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268-269쪽, 윤문.

### [1]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

오월 오일 단옷날로 좋은 명절이다. (...) “네 말이 당연하지만 오늘은 단옷날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집 처녀들도 여기 와서 함께 그네를 뛰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관아에 있는 몸이 아닌데 일반 백성을 오라 가라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고, 부른다고 해도 갈 일도 없다.” 방자가 다시 광한루로 돌아와 도련님께 여쭙니 도련님이 그 말 듣고, “기특한 사람이다. 맞는 말이지만 다시 가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여라.” 방자가 이도령의 말을 전하러 춘향에게 갔는데 그 사이 춘향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방자가 춘향의 집을 찾아가서 “황송하게도 도련님이 다시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내가 너를 기생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들어 보니까 네가 글을 잘한다고 해서 부탁한다. 여염집의 처녀를 부르는 것을 나쁜 뜻으로 여기지 말고 잠깐 다녀가라.’ 하셨다.” (...) 이도령이 “네 성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인가?” “성은 성가이고, 나이는 십육 세입니다.” “그 말 반갑다! 네 나이 들어 보니 나와 동갑 십육 세이다. 성씨를 들어 보니 하늘이 정한 인연이 분명하다. 너의 부모 모두 계시냐?” “어머님만 계십니다.” “몇 형제나 되느냐?” “육십이 된 나의 모친 무남독녀 저 하나입니다.” “너도 남의 집 귀한 딸이구나! 하늘이 정한 연분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니 오래도록 즐겁게 살아 보자.” 춘향은 “옛글에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열녀불경이부절이라.’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한 계집이어서 한 번 정을 맡긴 다음 그 뒤 버리시면, 일편단심으로 혼자 지내게 될 텐데 그런 분부 하지 마십시오” 이도령이 하는 말이, “네 말을 들어 보니, 참 기특하구나. 네 집이 어디냐?” (...) 춘향의 어미가 나오더니 두 손을 모으고 “그 사이 도련님 문안이 어떠하십니까?” 이도령이 웃으며 “춘향의 어미라면서? 평안한가?” “예, 겨우 지냅니다. 오실 줄 몰라 손님맞이가 빠르지 못했습니다.” (...) 춘향 어미가 여쭙되, “귀하신 도련님이 누추한 곳에 찾아 주시니 황송합니다.” “그럴 리가 뭐 있는가. 우연히 광한루에서 춘향을 잠깐 보고 애뜻하게 보내서 꽃을 찾는 벌이 나비를 찾는 마음이네. 오늘밤에 온 뜻은 자네 딸 춘향과 백 년 언약을 맺고자 하니 자네 생각은 어떤가?” 춘향 어미가 여쭙되, “(...) 가세가 부족하니 재상가는 어렵고, 양반과 서인 위아래가 다르니 혼인이 늦어져서 밤낮으로 걱정인 것은 사실이나, 도련님 말씀은 잠시 춘향과 백년가약한단 말씀이니, 그런 말씀 마시고 노시다 가십시오.” 이 말은 참말이 아니라 이도령이 춘향을 좋아한다고 하니 닥칠 일을 몰라 뒷일을 미리 다짐받고자 하는 말이었다. 이도령이 “좋은 일에는 마가 따르는 법이로세. 춘향도 혼인 전이요 나도 장가 전이라. 서로 언약이 이러 한데 육례는 못할지라도 양반의 자식이 한 입으로 두말 할 리 있다.” (...) 이도령이 잔 받아 손에 들고 탄식하여 하는 말이, “내 마음대로라면 육례를 올리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개구멍 서방으로 들고 보니 매우 억울하다. 춘향아, 그러나 우리 둘이 이 술을 혼례술로 알고 먹자.” 한 잔 술 부어 들고, “네 내 말 들어라. 첫째 잔은 인사주요, 둘째 잔은 합환주이다. 이 술로 우리의 인연을 맺자구나. (...)”<sup>287)</sup>

#### <학습 활동>

1. 이해가 안 가는 어휘나 문장, 표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쓰십시오.
2. 한국의 단오에 하는 풍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3. 춘향과 월매는 처음에 왜 이도령의 청혼을 거절합니까?

## [2] 춘향과 이도령의 이별

백마는 떠나자고 길게 울고 춘향은 이별을 슬퍼하며 옷깃을 잡아끈다. 말은 가자고 네 굵을 치는데 춘향은 마루 아래 툇 떨어져 도련님 다리를 부여잡고, “날 죽이고 가면 가지, 살리고는 못 가고 못 가세요!” 더 이상 말 못하고 기절한다.

(…) 춘향이 어쩔 수 없어 “여보 도련님! 내 손에 술이나 마지막 잡수십시오. 반찬 없이 가실 텐데 나의 도시락 간직하였다가 잠자리에 날 본 듯이 잡수십시오. 향단아, 술병 내오렴!” 춘향이 한 잔 술을 가득 부어 눈물 섞어 드리면서 말한다. “한양 가시는 길에 강가의 나무가 푸르고 푸르다면 멀리서 제가 정을 머금고 있음을 생각하고, 하늘에서 가랑비가 흩날리면 ‘길 가는 사람이 애를 끊는다.’ 하였습니다. 말 위에서 피곤해서 병이 날까 걱정되니 일찍 주무시고, 아침 날 비바람 칠 때에 늦게 떠나시며, 한 채찍 천리마에 모실 사람 없으니 부디부디 천금 같은 귀한 몸 편안히 보전하십시오. 푸른 나무 늘어선 서울로 평안히 가시고 종종 편지나 해 주십시오.” 도련님이 대답한다. “편지 보낼 테니 슬퍼 말고 잘 있거라!” 말을 타고 하직하니 “우리 도련님이 ‘가네 가네’하여도 거짓말로 알았는데 말 타고 돌아서니 참으로 가구나!” 춘향이 달려가서 “여보 도련님, 이제 가시면 언제나 오십니까? (…) 부디 소식 끊지 마십시오!” 대문 밖에 거꾸러져 가는 두 손길로 땅을 팡팡 치며, “애고 애고! 내 신세야! 애고!” 한 번 소리치니 누런 티끌은 흩어지며 바람은 쓸쓸하고, 깃발은 빛이 없고 햇빛은 옅도다! 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한 조각 구름과 같더라.<sup>288)</sup>

### <학습 활동>

1. 이해가 안 가는 어휘나 문장, 표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쓰십시오.
2. 이도령을 생각하는 춘향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3. 춘향과 이도령의 이별을 보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287) 「완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307-310, 316, 318-321쪽, 윤문.

288) 「완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337-339쪽, 윤문.

### [3] 십장가

춘향이 서러워하면서 맞는다. 춘향은 “변하지 않는 마음은 한 남편만을 섬기려고 합니다. 아무리 때리셔도 제 마음은 잠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울면서 말한다. 이때 남원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며 “모질구나, 모질구나, 우리 마을 원님이 모질구나. 저런 벌이 웬 말이며 저런 매질이 웬 말인가? 매 때리는 사람 얼굴을 알아 두었다가 관청 문을 나오면 혼내 주겠다.” 보고 듣는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린다. 춘향이 두 번째 매를 맞으며 말한다.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내 마음은 이 매를 맞고 죽어도 이도령은 못 잊겠습니다.” 세 번째 매를 맞으며 말한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하는 삼종지도의 무거운 법, 삼강오륜 알았으니 아무리 큰 벌을 받더라도 우리 이도령은 못 잊겠습니다.” 춘향이 네 번째 매를 맞으며 말한다. “사대부 사또님은 백성들 일은 살피지 않고 강제적으로 공사만 벌이니 남원 백성의 원망을 모르십니까? 두 팔과 두 다리를 찢는다고 해도 죽든지 살든지 함께 있는 우리 낭군은 죽어도 못 잊겠습니다.” 춘향이 다섯 번째 매를 맞으며 말한다. “오륜의 윤리와 기강은 끝이 없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는 서로 침범하지 않는 부부유별 오행으로 맺은 인연 울음이 찢어낸다고 하더라도 자나 깨나 우리 낭군 잊지 못하고 생각하네. 가을밤의 밝은 달은 임 계신 곳을 보게 하지만 오늘이나 편지 올까, 내일이나 연락 올까. 죄 없는 이 내 몸이 나쁘게 죽을 일이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춘향이 여섯 번째 매를 맞으며 말한다. “육육은 삼십육으로 낱낱이 생각하여 육만 번 죽인다고 해도 육천 마디 어린 사람 맺힌 마음 변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 춘향이 일곱 번째 매를 맞으며 말한다. “칠거지악을 어기었소? 칠거지악이 아닌데 일곱 형벌이 웬일이요? 잘 드는 칼로 동아리 동아리 잘라서 이제 빨리 죽여 주시오. 매를 치라고 하는 저 형방아, 칠 때마다 고통이 생각하지 마라. 아름다운 여자 얼굴을 가진 나는 죽겠네.” 춘향이 여덟 번째 매를 맞으며 말한다. 팔자 좋은 춘향 몸이 우리나라 전체의 수령 중에 제일 정치를 잘하는 관리를 만났구나. 우리나라 전체 수령들은 백성들을 다스리러 내려 온 것이지, 벌을 주려고 내려 온 것입니까? “아홉 번째 매를 맞으며 말한다. “깊은 마음속이 썩어서 이 내 눈물이 큰 홍수가 되겠구나. 깊은 곳의 소나무를 베어서 푸른 배를 모아 타고 한양성 안 임금이 계시는 곳에 가서 내 사정을 말씀드리고 뜰에서 물러나와 삼청동을 찾아가서 우리 사랑을 반갑게 만나서 굶이굽이 맺힌 마음을 풀고 싶구나.” 열 번째 매를 맞으며 말한다. “열 번 살고 아홉 번 죽는다고 할지라도 팔십 년 정한 뜻을 십만 번 죽인다고 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십육 세 어린 춘향, 매 맞아 죽은 귀신 참으로 불쌍합니다.”<sup>289)</sup>

#### <학습 활동>

1. 이해가 안 가는 어휘나 문장, 표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쓰십시오.
2. 마을 사람들이 춘향에게 공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3. ‘십장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춘향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4. 이 장면을 보고 생각하거나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 [4] 암행어사 출도

어사또가 신호를 보내면서 서리에게 눈길을 주니 서리와 중방의 행동을 보시오. 역졸을 불러 단속할 때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서리 역졸의 행동을 보시오. 외울 망건, 공단 췌기새 평립을 눌러 쓰고 세 자 발감개 새 짚신에 한삼과 고의를 산뜻하게 입고 육모 방망이 사슴 가죽 끈을 손목에 걸어 쥐고 여기서 번뜻 저기서 번뜻, 남원읍이 우군우군, 청과역졸의 거동을 보시오.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암행어사 출도야.”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듯하니 날짐승과 길짐승이 어찌 아니 떨겠습니까? 남문에서 “출도야.” 북문에서 “출도야.” 동, 서문 출도 소리가 맑은 하늘에 울려 퍼지고 “공형 들라.” 외치는 소리 육방이 낮을 잃어, “공형이요.” 등채로 휘탁탁, “애고 죽음이다.” “공방 공방.” 공방이 포진 들고 들어오며, “안 하려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속에 어찌 들 수 있을까.” 등채로 후탁탁, “애고, 박 터졌네.” 좌수 별감 정신을 잃고, 이방, 호방 정신을 잃고, 삼색나줄 바쁘네. 모든 수령이 도망가는 행동을 보시오. 도장 상자 잃고 유과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탕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니 거문고요, 깨지느니 북, 장고라. 본관이 똥을 싸고 멧석 구멍 생쥐 눈 뜨듯하고 내아로 들어가서,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단아라. 물 마른다, 목 들어라.”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을 이고 도망가니 서리 역졸 달려들어 후탁탁, “애고, 나 죽네.”<sup>290)</sup>

#### 〈학습 활동〉

1. 이해가 안 가는 어휘나 문장, 표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쓰십시오.
2. 재미있는 어휘나 문장, 표현은 무엇입니까?
3. 이 장면의 분위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89) 「완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350-351쪽, 윤문.

290) 「완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편저(1997), 『춘향전 전집』 4, 김진영 외(1998), 박이정, 374-375쪽, 윤문.

### [1] 놀부 심보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놀부는 형이고, 홍부는 아우이다. 놀부는 마음이 터무니없이 악해서 부모가 살아계실 때 나눠 준 논과 밭을 혼자서 차지하고, 홍부 같은 착한 동생을 구박하여 건넌산 언덕 밑으로 내쫓았다. 놀부는 초상난 데 춤추기, 불붙은 데 부채질하기, 해산한 데 개 닭 잡기, 장에 가면 강제로 흥정하기, 집에서 몹쓸 노릇하기, 우는 아이 볼기 치기, 갓난아이 똥 먹이기, 무죄한 놈 뺨 치기, 빗값에 계집 빼앗기(사회상: 고리대금으로 자본 증대), 늙은 영감 덜미잡기(경로사상 해침), 아이 뺨 계집 배 차기, 우물 밑에 똥 누기, 올벼를 심은 논에 물 터 놓기, 다 된 밥에 돌 퍼붓기, 패는 곡식 이삭 자르기, 논두렁에 구멍 뚫기, 호박에 말뚝 박기, 곱사등에 엮어 놓고 발꿈치로 탕탕 치기 등 하는 행동이 모과 나무의 아들과 같았다. 이놈의 심술은 이러하지만, 집은 부자다.<sup>291)</sup>

#### <학습 활동>

1. 이해가 안 가는 어휘나 문장, 표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쓰십시오.
2. 놀부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3. 이 글에서 느끼거나 생각한 점은 무엇입니까?

291) 「경관 25장본 홍부전」,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2003),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11쪽, 윤문.



## [2] 놀부의 홍부 구박

홍부 마음은 즐거우나 놀부 심보는 터무니없이 흉악하여 형제끼리 내외하여 구박이 매우 심한데 홍부는 어쩔 수 없이 뜰아래에서 문안한다. 놀부가 “너는 누구냐?” 하고 묻는다. “저는 홍부예요.” “홍부가 누구의 아들인가?” “애고 형님, 이것이 웬 말이십니까? 세 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낼 방법이 전혀 없으니 쌀이든 벼든 들 중 하나 주시면 일을 해서 꼭 갚겠습니다. 부디 옛일을 생각해서 사람 좀 살려 주십시오.” 애걸하니 놀부 놈의 행동 보십시오. 성난 눈을 부릅뜨고 호령하기를 “너도 염치없다. 내 말을 들어 보아라. ‘하늘은 녹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하였다. 네 복을 누구를 주고 나에게 이리 보채느냐? 쌀이 많이 있다고 너 주려고 곡식 쌓은 것을 헐며 벼가 많이 있다고 너 주려고 섬을 헐며 돈이 많이 있다고 궤에 가득 든 것을 꺼내며 의복이나 주려고 해도 집안 아랫사람들이 모두 벗었는데 너 주려고 개를 굶기며, 지게미나 주려고 해도 우리 안에 새끼 낳은 돼지가 누웠으니 너 주려고 돼지를 굶기며, 갯섬이나 주려고 해도 큰 농사일에 쓰는 소가 네 마리나 되는데 너 주자고 소를 굶길 수 있겠느냐. 염치없다, 홍부 놈아.” 하고, 주먹을 불끈 쥐어 홍부의 뒤통지를 짹 잡으며, 몽둥이를 지끈 쥐어 손이 빠른 스님이 매질하듯 상좌 중의 법고 치듯 아주 광광 때린다. 홍부가 울면서 “애고 형님 이것이 웬일이요? 거리낌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악한 사람도 이보다는 성현이요, 터무니없이 마음이 흉악한 관속이도 이보다는 군자로다. 우리 형제 어찌 이다지도 극악한가.” 탄식하고 돌아온다.<sup>292)</sup>

### <학습 활동>

1. 이해가 안 가는 어휘나 문장, 표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쓰십시오.
2. 홍부와 놀부의 성격을 비교해서 말해 봅시다.
3. 홍부를 대하는 놀부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292) 「경관 25장본 홍부전」,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2003),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13-14쪽, 윤문.

### [3] 홍부 부부(夫婦) 품 팔기

홍부의 아내가 품을 팔 때, 곡식 방아 키질하기, 술집에 술 거르기, 초상집에 제복 짓기, 제삿집에 그릇 닦기, 굶는 집에 떡 만들기, 언 손 불며 오줌 치기, 얼음 풀리면 나물 뜯기, 봄보리 갈아 보리 놓기, 온갖 가지로 품을 판다.

홍부는 정이월에 가래질하기, 이삼월에 부침하기, 일등 전답 못논 갈기, 입하 전에 목화 갈기, 이 집 저 집 이영 엮기, 더운 날에 보리 치기, 비 오는 날 명석 곁기, 멀고 가까운 산에 풀 베기, 무곡 주인 짐 저 주기, 각 읍 주인 샅길 가기, 술만 먹고 말에 짐 신기, 오 푼 받고 마철 박기, 두 푼 받고 똥재 치기, 한 푼 받고 비 매기, 식전에 마당 쓸기, 저녁에 아이 만들기, 온갖 일을 다해도 끼니를 해결할 수 없다. 이때 본읍 김 좌수가 홍부를 불러 “돈 삼십 냥을 줄 것이니, 내 대신 감영에 가서 매를 맞고 오라.” 한다. 홍부는 ‘삼십 냥을 받아 열 냥어치 양식 팔고, 닷 냥어치 반찬 사고, 닷 냥어치 나무 사고, 열 냥이 남거든 매를 맞고 와서 몸조리를 하리라.’하고 감영으로 가려고 하였다. 그때 홍부 아내는 “가지 마세요. 부모가 물려준 육체를 가지고 매 샀이란 말이 웬 말이에요.”하고 홍부를 말렸다. 하지만 홍부는 아내 말을 듣지 않고 감영으로 간다. 아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마침 나라에서 은전이 내려 죄인을 풀어 주시니, 홍부는 매품도 못 팔고 집으로 돌아왔다.<sup>293)</sup>

#### <학습 활동>

1. 이해가 안 가는 어휘나 문장, 표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쓰십시오.
2.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한국의 일상 풍속에 대해서 모두 쓰십시오.
3. 홍부는 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가난합니까?

293) 「경관 25장본 홍부전」,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2003),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16쪽, 윤문.

#### [4] 홍부의 제비 치료

뜻밖에 제비 새끼 하나가 공중에서 툭 떨어져, 대발 틈에 발이 빠져 두 발목이 부러져 피를 흘리고 발발 댄다. 홍부가 보고 펄쩍 뛰어 달려들어 제비 새끼를 손에 들고 불쌍히 여기며 하는 말이, “불쌍하다, 이 제비야. 은왕 성탕 은혜가 미쳐 금수를 사랑하여 다 길러 내었더니,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 가련하지 않으리. 여보, 아기 어미 당사실이 있는가?” “애고, 굶기를 부잣집 밥 먹듯 한데 무슨 당사실이 있겠어요?” 하면서도 뜻밖에 실을 조금 얻어 준다. 홍부가 칠산 조기 껌질을 벗겨 제비 다리를 싸고, 실로 매어 찬 이슬에 얹어 두었다. 제비가 십여 일이 지난 뒤에 다리가 다 나아 강남으로 가려고 이별 인사를 하니 홍부는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먼 길에 잘들 가고, 내년 삼월에 다시 보자.” 하니, 저 제비 거동 보소. 두 날개 펼쳐 거센 바람에 몸을 날려 흰 구름을 비웃으며 밤낮으로 날아 강남에 이르는구나. 제비 황제가 보고 묻기를, “너는 왜 다리를 저느냐?” 제비가 여쭙기를 “저의 부모가 조선에 나가 홍부의 집에다가 집을 짓고 소신 등 형제를 낳았는데 뜻밖에 구렁이를 만나 저의 형제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저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툭 떨어져 두 발목이 부러져 피를 흘리고 발발 댄니 홍부가 부러진 다리를 고쳐 주어 원래대로 다 나아서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홍부의 은혜를 십분지일이라도 갚기를 바랍니다.” 제비 황제는 “그런 은공을 모르면 못할 금수와 같다. 네가 박씨를 갓다 주어 은혜를 갚으라.” 하니 제비가 제비 황제의 은혜에 절하고 물러난다.<sup>294)</sup>

##### <학습 활동>

1. 이해가 안 가는 어휘나 문장, 표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쓰십시오.
2. 홍부는 어떤 마음으로 제비를 고쳐 줬을까?
3. 제비는 홍부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습니까?

294) 「경관 25장본 홍부전」,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2003),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18-19쪽, 윤문.

[5] 홍부네 <박타령>

“시르릉 실근 땀기어주소 어여로 땀기여라 툇질이야 좋을시고 좋을시고  
 밥 먹으니 좋을시고 수인시 교민화식 날 위하여 만들었느냐  
 강구연월 한포고복 나만큼이나 먹었느냐 에이여로 땀기어 주소 툇질이야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서 은금보화나 나오너라  
 은금보화 나오며는 우리 형님께 갖다가 드리련다”

홍부 마누라가 화를 내며 “나는 나는 안 타겠어요 여보 영감 형제간이라 잊었  
 군요. 동지선달 추운 날에 백설은 펄펄 흘날릴 적에 어린 자식 발을 벗겨 구박을  
 당하고 나오던 일을 관 속에 들어도 못 잊겠네”

홍부도 화를 내며 “타지 마라 타지를 마라 이 사람이 답답하다

옛 성현이 말하기를 형제는 수족이요 처자는 의복과 같으니 의복은 한 번 해  
 어지면 다시 지어 입으면 되지만 수족은 한 번 끊어지면 어데 가서 붙이겠는가  
 당신은 오늘이라도 죽으면 다시 얻을 수 있는 계집이지만 우 리 형님은 오늘이라  
 도 돌아가시면 얼굴인들 다시 보겠느냐 타지를 마라 나 혼자 타겠다”

홍부 마누라도 마음을 돌려 “아이고 여보 영감 내가 잠시 잘못 생각을 하였습  
 니다. 같이 박을 타 봅시다” 진작 그러지

스르릉 시르릉 실근 실근 시르릉 시르릉 실근 당기여라

호 툇질이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그르르 실그르르<sup>295)</sup>

<학습 활동>

1. 이해가 안 가는 어휘나 문장, 표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쓰십시오.
2. 홍부 부부는 어떤 생각으로 박을 타고 있습니까?
3. 홍부는 왜 끝까지 놀부를 생각합니까?

295) 「박동진 창본 홍부가」, 김진영·김현주·최혜진·이의철·강호봉 편저(1997), 『홍부전 전집』 1, 박이정, 229-230쪽, 윤문.

<부록 2> 고전 소설에 활용된 사자성어(四字成語) 목록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
결초보은 (結草報恩)	일편단심 (一片丹心)	강구연월 (康衢煙月)	비몽사몽 (非夢似夢)	일필휘지 (一筆揮之)	고대광실 (高臺廣室)
고진감래 (苦盡甘來)	조석공양 (朝夕供養)	고진감래 (苦盡甘來)	사농공상 (士農工商)	장원급제 (壯元及第)	구년지수 (九年之水)
남전북답 (南田北畝)	죽림칠현 (竹林七賢)	고집불통 (固執不通)	삼생연분 (三生緣分)	전전반측 (輾轉反側)	만경창파 (萬頃蒼波)
능지처참 (陵遲處斬)	천리만리 (千里萬里)	구곡간장 (九曲肝腸)	삼강오륜 (三綱五倫)	조강지처 (糟糠之妻)	부귀공명 (富貴功名)
독수공방 (獨守空房)	천지개벽 (天地開闢)	구년지수 (九年之水)	삼종지도 (三從之道)	주야장천 (晝夜長川)	안빈낙도 (安貧樂道)
동남동녀 (童男童女)	춘하추동 (春夏秋冬)	구중궁궐 (九重宮闕)	상사불견 (相思不見)	죽마고우 (竹馬故友)	원앙금침 (鴛鴦衾枕)
동방화촉 (洞房華燭)	출천지효 (出天之孝)	권문세족 (權門勢族)	상전벽해 (桑田碧海)	초목금수 (草木禽獸)	칠년대한 (七年大旱)
명산대찰 (名山大刹)	칠년대한 (七年大旱)	금시초문 (今始初聞)	섬섬옥수 (纖纖玉手)	춘하추동 (春夏秋冬)	패가망신 (敗家亡身)
무남독녀 (無男獨女)	태평성대 (太平聖代)	남가일몽 (南柯一夢)	십생구사 (十生九死)	천기누설 (天機漏洩)	호의호식 (好衣好食)
백년해로 (百年偕老)	혈혈단신 (孑孑單身)	남녀노소 (男女老少)	오매불망 (寤寐不忘)	천방지축 (天方地軸)	
사고무친 (四顧無親)	흥진비래 (興盡悲來)	녹의홍상 (綠衣紅裳)	외손봉사 (外孫奉祀)	천신만고 (千辛萬苦)	
사궁지수 (四窮之首)		능지처참 (陵遲處斬)	요조숙녀 (窈窕淑女)	천중가절 (天中佳節)	
사농공상 (士農工商)		독수공방 (獨守空房)	원앙금침 (鴛鴦衾枕)	천하일색 (天下一色)	
수복강녕 (壽福康寧)		명재경각 (命在頃刻)	이성지합 (二姓之合)	칠거지악 (七去之惡)	
십시일반 (十匙一飯)		무남독녀 (無男獨女)	이팔청춘 (二八青春)	칠년대한 (七年大旱)	
엄동설한 (嚴冬雪寒)		백년가약 (百年佳約)	인명재천 (人命在天)	평사낙안 (平沙落雁)	
영결종천 (永訣終天)		백년지객 (百年之客)	일구월심 (日久月深)	피골상접 (皮骨相接)	
인의예지 (仁義禮智)		부부유별 (夫婦有別)	일부종사 (一夫從事)	함포고복 (含哺鼓腹)	
요조숙녀 (窈窕淑女)		분기탱천 (憤氣撐天)	일월성신 (日月星辰)	혈혈단신 (孑孑單身)	
인의예지 (仁義禮智)		불가항력 (不可抗力)	일장춘몽 (一場春夢)	혼정신성 (昏定晨省)	
일취월장 (日就月將)		불경이부 (不更二夫)	일편단심 (一片丹心)	흥진비래 (興盡悲來)	

## **A Study of Education on Korean Premodern Novel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Learners' Cultural Literacy**

Kim, Hye-jin

Advanced intellectual skills such as th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target cultur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transcending basic communication skills are demanded of 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learners, and, consequently, cultural literacy, too, has been established as a skill required of 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learners. Cultural literacy refers to the ability to interpret the target culture and to produce culture based on knowledge of the target culture and an understanding of its value system and aims at communication with the target culture and sociocultural praxis.

On the other hand, cultural literacy has been discussed mainly in connection with literary education, and this is because literature, as a topic through which the shared knowledge and value system of a social community can be overviewed in their entirety, can activate learners' cultural learning and cultural experiences. In particular, Korean premodern novels is appropriate as an educational topic for promoting an understanding of knowledge of Korean culture and interpretation of its value system because it broadly encompasses the cultural products and cultural perspectives of the target culture.

From such a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devising the contents and methods of Korean premodern novels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learners' cultural literacy and presenting a model for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premodern novels. Having established the improvement of cultural literacy as the educational goal, the present study reconceptualized cultural literacy and categorized the constituent elements of cultural literacy into background knowledge and experiential knowledge, and values and value judgments, using them as the theoretical frameworks for selecting the contents of Korean premodern novels education and analyzing the enhancement of learners' cultural literacy.

The contents of Korean premodern novels education were presented in two parts:

sociocultural background knowledge; and social ethics and value conflicts. As educational contents related to knowledge of the target culture, sociocultural background knowledge was classified into the institutions, customs, and language culture of traditional Korean society, and the items of patriarchy, class system, four ceremonies(coming of age, wedding, funeral, and ancestral sacrificial rites), seasonal holiday customs, folk beliefs, language etiquette, idiomatic expressions, and symbolic naming were selected. As educational contents related to the target culture's values, social ethics and value conflicts were presented in two parts: value conflicts; and the characters' methods for realizing values. As for value conflicts, ethical dilemmas, conflicts between social institutions and individual consciousness, and conflicts between common good and material desire were cited. As the characters' methods for realizing values, self-sacrifice, resistance against contradictions in customs and institutions, and concession and consideration were presented.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premodern novels for the improvement of cultural literacy were designed with cultural experience, cultural knowledge, and experiential learning cycle, which are three approaches for organizing and defining culture from a learner-centered perspective, as the theoretical bases. Everyday culture and language culture, and ethical norms and the characters' value conflicts as background knowledge were selected as the contents of teaching and learning. Reading central scenes in the works, value judgments and discussions on the characters, writing reviews, and production of video clips were constructed as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Thus designed and defined,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Korean premodern novels were implemented on actual 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learners.

When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Korean premodern novels designed in the present study were implemented and the improvement of learners' cultural literacy was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 Korean learners perceived institutions in traditional Korean society based on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knowledge reflected in Korean premodern novels, sought to internalize valu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experiential knowledge, and constructed and expanded their own knowledge by using and applying intertextual knowledge. In addition, learners expressed empathy with values universal to humanity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ethical norms and the characters' value conflicts in Korean premodern novels and formed reflective attitudes toward their own cultures and the target culture by making value judgments on the

characters' value behavior and interpreting the meanings of the values of traditional Korean society from a contemporary viewpoi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Korean premodern novels and the analysis of the improvement of Korean learners' cultural literacy, activities for the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knowledge, activities for the discovery and interpretation of values, and activities for the application of knowledge and values were presented as a model for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premodern novels for the improvement of cultural literacy. As activities for the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knowledge, reading texts with a focus on language-cultural interpretation and questions and answers for the confirmation and expansion of background knowledge were presented. As activities for the discovery and interpretation of values, discussions on the value assessment of the target culture and comparisons of intertextuality-related works were proposed. As activities for the application of knowledge and values, the use and production of media through writing that makes use of intertextuality and the modification of the topic were suggested.

The present study is significant for selecting the contents and methods of Korean premodern novels education tha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Korean learners' cultural literacy and concretely presenting a model for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premodern novels.

**Keywords:** cultural literacy, Korean premodern novels education, background knowledge, experiential knowledge, values, value judgments, cultural products, cultural perspectives, cultural practices, understanding, interpretation, application

**Student Number:** 2010-30385